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2009 여름방학 세미나

여름방학
여성주의

넘실넘실
세미나

코끼리는 코가
코?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fanny
아무도 모르거나 모르거나
아무도 모르거나 모르거나
아무도 모르거나 모르거나

2009 여름방학 세미나

여름방학 여성주의 넘실넘실 세미나 목차

1주차. 남성성

- ▶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동녘/1999
 - ↳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 ↳ 일상 생활 속의 포그노그라피 정치학
- ▶ “병역 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김현영

2주차. 反성폭력

- ▶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울/2009
 - ↳ 몸으로 읽는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변화에 대한 탐색
 -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반격과 넘어서기의 구상과 실제
- ▶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교양인/2005
 - ↳ ‘피해자다움’ 이라는 성역할
- ▶ 『여성주의 학교 ‘간다’』 한국여성민우회/지성사/2008
 - ↳ 여성주의 인식론, 섹슈얼리티 - 자기결정의 철학

3주차. 여성섹슈얼리티/몸/욕망

- ▶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박혜림/2007
- ▶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동넉/1999
 - ↳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육체
- ▶ 「춤추는 입술 2호」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올림>/2009
 - ↳ 따옴표 속의 여성을 벗어나고 싶은데
-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동넉/2006
 - ↳ 자위하기
- ▶ 「Open-ended 4호」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2006
 - ↳ 폭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의 소통
 - ↳ 자위와 보지, 그리고 소통 - 가능성을 만나다

4주차. 이성애중심주의

- ▶ 「여성주의 학교 '간다」 한국여성민우회/지성사/2008
 - ↳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 ▶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WIG/사람생각/2008
 - ↳ 범주와 명명, 그리고 경계지대
- ▶ 'Lesbian festival' 자료집 /이화여대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2005
 - ↳ pre 클리닉
- ▶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자료집 /레즈비언 문화제 기획단+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2007
 - ↳ (기조글) 레레레레 레즈비언

1 주 차 . 남 성 성

- ▶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동넉/1999
 - ↳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 ↳ 일상 생활 속의 포그노그래피 정치학
- ▶ "병역 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김현영

1) 포르노 문화의 성별화된 맥락¹⁾

가. 남성 문화로서의 포르노

포르노는 남성들의 문화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문화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겨져 '왜 그럴까'라는 질문은 비껴 가게 마련이다. 포르노의 내용과 대상이 남성을 중심에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포르노가 남성 문화로 공고하게 제도화된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포르노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어도 그것을 사는 것, 그리고 보도록 만드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남성들간의 협조와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성인 남성에게 자위를 위한 성적 환상의 도구로 공인되어 있다. 그러나 포르노는 파트너가 없는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하지는 않는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포르노는 아내 이외의 '새로운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포르노는 남성들 사이에서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를 섹스로 푸는 남성들에게 포르노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심심풀이 시간 때우기용으로 두루 사용된다. 따라서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나 공간은 예외 없이 포르노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대개 초등학교 후반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하여 평생 동안 거의 일상적으로 본다. 가정에도 비디오 기계와 개인 컴퓨터가 거의 보급되어 있고 편의점이나 책 대여점 등에서도 쉽게 포르노를 접할 수 있다. 남성들 주변에는 포르노가 널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자들은 주로 친구를 통해 포르노에 접하면서 또래 집단의 놀이 문화로 존재한다. 성에 대한 농담과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남성들의 성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포르노 비디오를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보, 포르노 게임에 관한 정보, 복제 CD를 구하는 방법, 심지어 노골적인 표현물을 규제하는 장치를 푸는 기술을 공유한다(이원숙 외, 1998).

최근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남성들이 주로 포르노를 본 장소는 여관이었다. 포르노를 보려고 여관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여관에 가면 포르노를 볼 수 있었고 그 뒤 포르노를 보기 위해 여관에 가기도 했다. 따라서 여관은 포르노를 틀어 주기도 하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관은 심야 다방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거의 '포르노 극장'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여관뿐만 아니라 술집 골목, 역 주변은 자연스레 향락 문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인데, 대학가 주변의 여관은 포르노를 많이 틀어 주고 있어 대학생들이 어울려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이다. 모임이 끝난 후나 술자리 후 가게 되는 여관에서 포르노는 남성들의 모임에 양념처럼 끼워지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관은 매매춘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포르노와 매춘의 연속적인 상호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윤자영, 1998).

최근 컴퓨터 보급이 늘면서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 보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컴퓨터 게임을 통한 포르노 즐기기도 확산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 보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신받을 수 있다는 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적인 공간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비디오 매체를 대체해 가고 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포르노에 접하기 쉬운 문화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포르노를 탐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컴퓨터 지식을 습득하기도 한다. 또 포르노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교육할 때 학습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소개되어 교묘하게 장려되기도 한다.

포르노가 남성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포르노에 대한 남성들의 느낌과 경험을 인정해 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평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남성들의 성은 포르노와 가깝기 때문에 여성들이 포르노에 대

1) 이하의 글과 인용 사례는 윤자영(1998)과 이원숙 외(1998)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였다.

해 보이는 반응과는 다를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포르노를 처음 보는 남성들의 반응 또한 다양하다. '민망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쑥스러워하는 사람', '메스껍거나 구역질을 할 것 같다는 사람' 등 포르노를 처음 볼 때의 반응에서 남성들의 포르노 경험의 일반성과 여성과의 차별성을 찾기란 힘들다. 성에 대한 관심과 성지식의 개인 차에 상관없이 '포르노'에 재현된 특징의 성행위 장면은 남녀 모두에게 최초의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처음 접할 때의 충격과 혐오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의 포르노에 대한 흥미로 바뀐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점점 더 희귀한 것, 더 폭력적이고 더 여성 비하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최초의 반응과 느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포르노에 대한 느낌을 도래 집단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반응이 의미화되고 동일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평가 체계는 포르노가 남성 문화로 자리잡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즉 포르노 보기가 남성들에게 단순히 한 번의 우연한 일시적 사건이 아닌 '특정 집단'의 공통된 경험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포르노를 둘러싼 담대성의 시험은 얼마나 '남자'가 되었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잣대가 된다.

길모어(Gilmore, 1990)는 남성다움(manhood)이란 해부학적으로 남성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남성다움이란 생물학적으로 성숙되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기존 사회에서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적하여 승리함으로써 성취하는 일종의 인위적인 산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남성다움이란 끊임없이 입증하고 획득해야 하는 성취적 지위이다(이원숙 외, 1998).

처음 접해 본 아주 순진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다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죠.

128

르노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표면상 폭력성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포르노가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로만 본다면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 여성들은 예로 영화를 제외하고 노골적인 포르노를 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포르노의 접촉 연령과 실태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포르노는 성적 욕망과 욕망의 실현 의지의 표현에 다름없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와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음탕한 여성이라는 억압적인 시선 속에서, 여성은 자기 검열을 통해 음란물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성의 상품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금기는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즈음의 여성들은 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며 성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포르노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도록 만든다. 여성들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성 이외에도 성기와 육체 중심적인 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포르노는 그러한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없어서 못 봤어요. 안 본 건 아니고, 없어서 못 봤어요. 있으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거길래……. 근데 포르노를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하는지를 모르니까. 꼭 보고 싶다고 구해서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있으면 한번쯤은 보고 싶지만 특별히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가면 있어요? 팔아요? …… 포르노 비디오는 제목도 없고 그런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다 보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길거리에서 팔겠어요? 설마, 그런 걸 길거리에서 팔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 학생들 다 쳐다보고 그러면……. —29세 여성

6학년 때 친구들 모아서 봤어요. 우리 고모가 비디오 가게를 했다가 그만둔 다음에 비디오를 몇 개씩 친척들한테 다 줬어요. 그 중에 야한 게 있거든요? 야한 게 집에 있으니까 좀 호기심도 나고 그러잖아요. 애

(그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 덜 컸구나. 남자들 말로 '야 이 쑥맥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남자들한테는 우월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여자랑 자야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처럼 '이것도 아직 모르냐' 이런 식으로. —29세 남성

남자들 사이에서 포르노를 보고 세련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나 '쑥맥' 대접을 받는다. 군대 가기 전에 여자랑 자야지만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이 포르노를 아직 못 봤거나 불편해 하는 사람은 '덜 큰' 아이로 취급당한다. 포르노를 보는 것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우연한' 일이라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남자에게 어떤 우월 의식을 갖게 한다. 포르노를 본 경험은 다른 남성이 가질 수 없는 상징적인 권력을 얻게 만든다. 포르노 보기는 별것 아닌 행사일 수 있지만, 남자 아이들의 도래 집단이 '확실히 남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거치는 관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불편해 하던 남자도 '자연스럽게' 남자들의 포르노 문화에 동화된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포르노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보게 된다. '좋아하지 않아도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이 '남자'니까 포르노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에서이며, 보고 싶지는 않아도 '봐서는 안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남자들이 포르노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도 포르노가 남성들 사이에 무리 없이 파고드는 이유는 그들이 '남자'라는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자영, 1998).

나. 남성 중심적인 포르노 문화와 여성

포르노는 남성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에 포르노에 대한 여성의 무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도 점점 포르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가고 있다. 컴퓨터와 같은 매체와 합법화된 포

4장 일상 생활 속의 포르노 그래픽 정지막 129

들한테 전화해서 야한 게 있다고 불러 가지고 불 끄고 아빠 오나 안 오나 보면서 탁 들어서 봤어요. —17세 여성

10여 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포르노는 여성 주변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성 자신의 포르노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포르노 접근이 한층 더 쉬워지고 성에 대해 보다 용감하고 거리낌이 없어진다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포르노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포르노에 관용적으로 되고 접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포르노는 남성만의 문화가 아니며, 포르노 문제는 성별 권력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포르노를 여성들도 보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의 경험이 남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포르노를 보게 되는 동기, 맥락, 지속성 등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에게 이미 친숙한 로맨스 문화 위에 포르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여성들의 경험을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포르노에 대한 여성의 '호기심'과 '관심'은 남성의 경우와 같이 성적 사회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호기심이 있다 하더라도 ' 과연 어떤 걸까'라는 언설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호기심이란 일시적 관심으로 끝날 경우가 많고, 여성의 성적 욕망 실현에 대한 현실의 사회적 금기는 여성들에게 포르노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따라서 남녀 성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포르노를 접하는 상황은 남성들과 차이를 보인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어느 정도는 다른 맥락에서 포르노에 '접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기보다는 노출되고 있다는 말이 더 적합하다. 여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남자 동료나 가족 중 아빠나 오빠가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된다. 물론 최근 들어 학교 시절 또래들과 모여서 포르노를 보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으며, 아파트 단지 내의 접촉이 잦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둘러 보는 문화가 존재하는 등 남성들의 포르노 문화를 점차 알아 가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주로 '튀고 잘 노는' 애들이 가져오며 그들은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여성은 남자 친구가 생겼을 때 또는 결혼을 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포르노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다. 육체적 접촉과 성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포르노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계기이다. 비디오방이나 여관 역시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 포르노를 본다는 남성의 말이나 같이 보자는 권유에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고 있는 한 여성은 원하지 않아도 포르노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남성과의 성적 관계의 연장선에서 포르노가 들어올 때 여성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들은 보통 혼자서 포르노를 지속적으로 보지 않는다. 혼자서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남성에게는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 지지만 여성에게는 성적으로 정숙하거나 예쁘지 못한 밝히는 여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 포르노 보기가 남성됨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승인의 의미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들 사이에서는 포르노 보기가 성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포르노를 혼자서 보는 여성의 행위를 긍정하고 고무하는 언설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자가 포르노를 보는 것은 여자답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며, 성적으로 순수하고 정숙해야 할 '여성'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여성도 남성들처럼 포르노 사이트를 찾아 다니지 않는다.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이 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은 여성다움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르노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인 느낌도 포르노가 여성들의 문화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포르노에 대해 '동물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토하고 싶었다', '마음만 더러워진 느낌이에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포르노에 대한 이러한 반응도 포르노를 자주 접하게 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포르노에 대한 여성의 반응은 '최초의 것'으로 고정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여성이 포르노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과 반감을 갖는 것은 마치 그들의 본래적인 여성적인 '성'에 대한 감수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여자들이 포르노를 보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반응 또한 당연한 것으로 치부된다.

2) 성적 존재에 대한 이미지 형성

인간은 성적 존재다. 그러나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포르노는 성적 존재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한다. 포르노에서 여성은 항상 성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남성이 원할 때는 기꺼이 그 요구에 응하며 성적으로 능력 있고 섹스에 열광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포르노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주체인 듯 보이게 나온다. 포르노를 보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욕구가 없다거나 섹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포르노는 여성을 '성적 주체로서 대상화'하는 장치이다. 포르노의 여성은 이미 남성의 욕망의 기획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며, 남성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도 되었다가 능동적으로도 된다. 남성은 수동적인 여자와 능동적인 여자 모두를 원한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포르노의 매력이므로 포르노의 여자는 어떤 행동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포르노는 남성의 성을 성기적, 행위 중심으로 만든다. 성기의 크기, 발기력, 오르가슴의 지속 시간이 남성의 힘과 잠재력의 지수이다. 이것은 남성들 사이에서 신화적 의미를 획득한다.

포르노를 보면서 사람들은 포르노의 남성이나 여성에 동일시하거나 그들을 대상화하면서 성적 존재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한다. 물론 동일시하거나 대상화하는 메커니즘은 포르노와 나와 의 진공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여성은 내숭 떠는 여자와 밝히는 여자, 정숙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로 나뉘어 있고, 남성은 힘 좋은 남자가 남성답고 그렇지 않은 남자를 여자 같은 남자로 몰아붙이는 강압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현실 속에서의 긴장과 욕망이 남성을 남성으로 동일시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상화하게 만든다. 반면 여성에게 포르노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여성들은 여성다움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만 성적으로 능동적이어야만 하므로 포르노 여성에 동일시하는 것은 남성들의 경우만큼 단순한 메커니즘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이미지인 포르노 여성은 모든 여성이 몸 위 어딘가에 각인시켜 두어야 할 것으로 존재한다.

(포르노에 나오는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요? 남자는 잘 안 보는데, 정력도 세고 체격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좋아 보여요. 다들 그랬으면 해요. 그것도 컸으면 좋겠지요. 나 중에 크겠지요. 알아서요. 커야 해요. 근육질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남자가 포르노에서 하는 역할들을 포르노에서 보잖아요. 그런 것을 나중에 커서는 다 써먹어야 하는 것으로 다 믿고 있어요. —15세 남성

(남편이 비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물어 봤어요. 남자들이 저런 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가슴 수술할까, 그렇게 물어 봤더니 흥분하는 것과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저 여자는 저 여자고 너는 너고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래도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서로 얘기해요. 나도 모른다. 나중에 서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하룻밤에도 수십 번씩 만 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만족시켜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마흔 정도 되면 나도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남편보다도 우선 내 몸에 내가 자신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니까. —30세 여자

이렇게 포르노는 성적 존재에 대한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성행위를 하는 인간은 포르노의 배우들처럼 엄청난 성적 능력과 육체를 가져야만 한다. 포르노는 성적 존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젊음'과 '육체적 힘'을 소유한 몸으로 설정하면서 다른 것은 비정상적이고 충분치 못한 성행위로 전락시킨다. 그러한 포르노 배우의 이미지는 여성과 남성에게 그것을 모방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자극한다.

3) 성지식으로서의 포르노 — 나는 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성이란 성을 둘러싼 느낌, 관념, 제도, 인식, 태도, 행동을 망라한다. 보통 성이라 하면 이러한 총체적인 구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성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이 사랑과 분리되면서 성기와 육체와 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포르노는 사랑과 분리된 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랑과 분리된 성이라고 해도 되기도 하지만 포르노는 성의 한 단면의 전신을 보여 준다고 믿으며 사랑과 친밀감, 평등을 기대하지 않는다.

공식적 성교육의 불충분함과 구시대성, 관념성, 생물학적 지식 수준의 내용, 교육 방법의 후진성 때문에 포르노는 공식적 성교육을 대체하는 성교육적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포르노를 통한 성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금기를 위반하는 스릴과 놀이로서의 재미, 그리고 어른들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섹스 테크닉 등이 성기와 육체와 쾌락 중심의 성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들에게 호소력을 가져왔다.

뭐, 이게 교육인데. 정상적인 성교육은 아니지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없어요. 성장기에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도 관념적인 교육이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여성은 어떤 존재고 이런 것만 가르치면……. 물론 그런 게 정립이 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런 거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32세 남자

그런 거 보고 실천에만 연결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지식인데 그거 보면 하나를 아는 거잖아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그것에 대해 안다는 건 하나의 지식이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든, 그게 현실로 옮겨지면 문제가 있는데 아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17세 여성

문제는 포르노가 성과 동일시되어 하나의 지식으로 유포된다는 데 있다. 포르노는 남자와 여자의 몸, 성기, 섹스 행위를 보여 준다. 남녀 모두는 그러한 내용을 부분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중간 정도의 성지식을 갖고 있다', '알 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포르노는 넓혀 나가야 할 성에 대한 지식과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내가 바로 성이야'라고 외치는 포르노는 자신이 특정한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된 성의 모습임을 감추면서 자신을 절대화한다.

4) 포르노와 성폭력

포르노와 성폭력을 연계시키는 것은 포르노가 성폭력을 유발하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요인으로 본다고 보기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성적 폭력

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차원에서이다. 남성들은 포르노 보기를 통해서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남성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여성에게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은 남성적인 성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한 측면이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러한 폭력적 성행위를 원하고 있고 즐길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신념에 기반하여 남성들은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이원숙 외, 1998).

포르노는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정복감과 성취감을 주게 되어 남성성을 고무시키게 되므로, 남학생들은 상호 동의적인 성관계보다는 강간을 보고 더욱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된다. 남성들에게 강간은 성폭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성행위 유형인 것이다.

포르노에서 여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이상하게 성적 흥분을 일으켜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좀, 강간하는 식으로 하는 게 왠지 모르게 남자들에게는 성적 흥분을 시켜요. 남자가 자신도 모르는 성취감을 느껴요. 진짜 또 다른 쾌락이지요. —17세 남성

(포르노가 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여자랑 성관계 가질 때 자세 같은 거요. 여자 따먹을 때 도움이 돼요. 따먹는 것이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여자가 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여자를 막 눌러서 벗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 성감대를 건드리는 거지요. 여자 성감대가 어딘가도 포르노를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직접 여자랑 해 보면 맞아요. 거기요. —16세 남성

남학생들에게 강간이 정상적인 성관계로 비추어진다면 실제로 남학

생들이 '강간'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포르노는 강간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며, 강제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남성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성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성폭력으로 흥분이 되고 그것이 에로틱하게 보이는 성적 지배와 폭력의 성애화(eroticization)가 일어나게 되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성으로 수용된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남성들에게 강간과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포르노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한다', '여성들은 남자 마음대로 해도 무방하다', '여성들은 강간을 원하고 즐긴다'라는 잘못된 강간 신화들을 심어 준다(이원숙 외, 1998).

포르노는 강간이라는 형태의 성폭력 이외에도 성희롱을 가능하게 한다. 포르노를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 공적인 장소에 포르노를 전시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포르노는 매체의 형식을 띠는 속성과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포르노를 여성에게 보여 주는 남성, 강제로 보게 되었던 여성, 공적인 장소에 포르노성 사진과 영화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인 모두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느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르노에 대한 느낌을 언어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르노의 폭력성을 가시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가시화되지 않는 측면, 정서에 대한 폭력을 언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뿜는 성적 농담이 여성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성은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 남성들에게는 별것 아닌 여성의 가슴 노출이나 야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으로 여성들은 수치스럽고 무안하고 어쩔 줄 몰라할 수 있다.

(지나가다가 포르노 잡지 그런 거 보게 되면 어때요?)

민망해요. 특히 앞에 남자가 있으면 더 민망해요. 여자의 몸을 내놓는다는 게, 나도 같은 여잔데 남자가 그걸 보면 여자의 몸을 보잖아요. 나도 여자잖아요. 수치심 같은 게 느껴져요. 저 남자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17세 여성

포르노를 보는 남성의 시선은 포르노 안의 여성에서 포르노 밖의 여성으로 이어진다. 성적으로 대상화된 가능성과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이러한 시선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신경쓰며 경계하면서 살고 있다. 포르노는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남성의 관음적 시선을 작동시키게 만든다. 따라서 포르노는 공적인 장소와 환경에서 여성을 끊임없이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성적 역할 이외의 다른 재능과 업무와 잠재력은 가려지고 평가 절하되기 쉽다. 이것은 여성들의 공식적인 활동과 공간의 사용을 제약하는 비가시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무난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레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비가시적인 폭력을 가시화, 언어화시켜야 하는 주체는 바로 여성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4. 포르노 해체하기 — 생각하고 말하기

포르노는 보고 즐기는 매체라고 인식되어 왔다. 포르노는 단지 성관계 장면만을 보여 주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본능적인 성에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¹⁾

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의 문제인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당연한 것 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정치화하는 데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우선,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낯설었던 1980년대 후반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존재를 가시화하는 작업들이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개인적인 용기와 노력, 진보적 연구 집단과 운동 단체의 의식화 작업(피해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관점에서

1) 이 글은 권수현의 논문('남성성과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8)에 근거를 둔 것이다. 연구는 1997년 2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은 성폭력 범죄로 보호 관할을 받고 있는 16-19세(법정 당시 연령) 청소년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대부분 성인 성폭력 가해자들이 아니라 청소년이므로 이들 문화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성인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음을 밝혀 둔다.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이 글은 성폭력이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에서 비롯된다는 통념과 성폭력 가해자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라는 통념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남성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 잡기

1) 남성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성폭력 가해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틀은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성차, 그리고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과학 패러다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다.²⁾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남녀의 차이와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의 성적 행동을, 전자는 생물학적 본능 및 충동으로, 후자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성과학 패러다임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본질적으로 강한 성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은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본능' 또는 '자연'의 영역으로 취급된다. 반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성폭력은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인 것은 특수한 사회적 조건화

2) Pat Caplan,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xuality*,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 New York, 1987. 이 사회 구성론은 1960년대 중반에 상호 작용주의, 푸코, 그리고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단의 연구자들이 성과학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형성한 이론이다.

재구성하여 언어화하기, 피해 여성들이 겪는 심리학적·의학·법적 문제들의 검토), 언론을 통한 사건 보도 등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데 기여했다.

이 글은 '왜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가'라는 질문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사회 문제화하는 데 피해자의 경험이 우선시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한 연구나 시각은 주로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성폭력을 바라보는 렌즈의 초점은 여성 피해자가 아닌 남성 가해자에게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여기서 '남성'은 본능적인 성욕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성폭력을 문제화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우선, 성폭력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문제로 인식되기 쉽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성폭력은 여전히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로만 다루어지게 된다. 또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이 사회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현상으로 취급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성폭력은 남성의 본질적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성적 행위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학습된 결과라는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검토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의 발생, 즉 성폭력 가해자가 생기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조건화 과정의 일부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거의 문제 삼지 않았던 남성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과정의 결과로 간주된다.³⁾

가. 성과학 패러다임

성과학 패러다임은 크게 정신 의학적 모델, 심리 분석학적 모델, 생물학적 모델로 나뉘어진다. 이 모델은 가해자의 행동을 기본적으로 정신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론화한다.⁴⁾ 이 모델은 주로 가해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정신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 의학적으로 표본화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강간 가해자에 대한 연구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심리 분석학적 모델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심리와 인성으로 설명한다. 이 모델은 남성 성폭력의 근원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기서 심리학적 문제들이란 '미성숙한 인성, 성격 장애, 충동 억제력의 빈약함, 좌절감에 대한 낮은 통제력, 높은 외존성, 친밀감이나 유기에 대한 두려움, 시기, 정신 병리학적 질병, 성장 과정에서 얻은 외상으로 인한 자아 통제 기능의 어려움' 등이다. 따라서 심리 분석학적 접근의 영향을 받은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동기를 ①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 ② 정신 질환, ③ 특수한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통제력의 상실, ④ 피해자 유발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정신 의학적 모델과 심리 분석학적 모델은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 이상자나 변태 성욕자 또는 반사회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일반적 통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각은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문

3) Richard Parker & John Gagnon, *Conceiving Sexuality: Approach to Sex Research in a Postmodern World*, Routledge, 1995.

4) Ann Wolbert Burgess, C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 London, 1985. 이런 연구들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유형화(typology)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가 있어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소수의 남성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 자료를 비롯한 최근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신 병력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보통' 남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물학적 모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하나는 성폭력, 성역할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이 유전자를 퍼뜨려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살아 남으려는 유전적 코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진화론적 입장이다. 이 모델은 사회 생물학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여성이 수동적이고, 남성이 공격적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되도록 많은 여성을 잉태시켜 살아 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사회 생물학이 생물학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생물 사회학적 입장은 사회적·환경적 요소의 맥락 속에서 생물학이 하는 역할을 고찰한다. 이들은 남성의 성폭력을 인간의 두뇌 구조와 호르몬의 변화로 설명한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공격성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이 호르몬이 폭력적 행동의 원인인지 또는 결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호르몬과 폭력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의 범위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기능은 여러 가지 외부의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입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물학적 요소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적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약 생물학적 요소가 남성의 폭력을 유발한다면, 왜 가해자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어린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과학 패러다임 모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폭력을 성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의 실패로 보아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내재한 어떠한

5) John Archer, *Male Violence*, Routledge, 1994.

조한다면,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망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주의적 통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인 욕구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합리화되기 쉽다. 성폭력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본질주의적인 설명이 위험한 이유는 그 현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나.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

사회 구성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녀의 성적 행동의 차이는 생물학적 본질이 아니라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간단히 말해 섹슈얼리티는 내적 충동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문화적·역사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론자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을 특수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학습된 것으로 본다.

특히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특정한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구성물로 이론화해 왔고, 주로 남성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왜 일부 남성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가라는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남자로서 사회화된 결과로 간주되며, 이는 성차별적 사회의 남성 중심적 성문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성문화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성을 성문화로 설명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성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은 본능 또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특정한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성을 역사화·맥락화시킨다는 것은 성이 사회, 문화, 인간의 삶에서 분리시켜 논의될 수 없으며, 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은 성의 범주 및 성관념이 어떠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

본질적 속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정은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질적으로 강하며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신화를 반영하고 합법화한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이 '자연적 충동' 또는 '본능'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는 역사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성과학 패러다임의 연구들은 개인적 행위자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여기서 개인은 사회 문화적 환경과 분리된 개인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정신 이상 또는 반사회적 인성 장애로 설명하건 생물학적 본질로 설명하건, 모두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 구조적 차원과 분리한 채 설명하면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다. 성과학의 패러다임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은 과학이 남녀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강력한 믿음에 의해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현재의 사회적 현상과 관계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적 지지가 된다.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사회 문화적 요소로부터 분리된 생물학적 본능으로, 정신 이상 또는 일탈의 문제로 보게 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적 책임을 면제받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성폭력은 사회 문제화될 수 없게 되고 탈정치화된다. 한마디로 성과학적 패러다임에서는 성폭력을 사회적 부정의(injustice)로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배적 논리는 성폭력 가해자를 역사적·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된 개인으로 취급해 왔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병리학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 방식과 지배적 담론이 해체되어야 하며,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본질적 욕망으로 보는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암묵적 가정들이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비정상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탈적 소수라는 오해와 통념, 그리고 남성의 성욕은 '억제될 수 없고 폭발적 속성을 갖는' 생물학적 본능이라는 암묵적 이데올로기는 모두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탈정치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남성의 성적 공격성이 문제화되지 않은 채 성폭력이 만연한 현상만을 강

속에 놓여 있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이 특정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추적해야 하며, 이는 바로 권력과 힘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⁶⁾

둘째, 성폭력 가해자를 성문화를 통해 바라본다는 것은 남성의 공격적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가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조건에 관심을 갖게 하여, 성폭력을 남성 생물학(male biology)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권력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⁷⁾ 페미니즘에서는 성폭력의 원인과 존재 형태들을 성차별적 사회의 구성물로서 남성 중심적 권력 체계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남성이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성 정체성을 구성하고,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정의되는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맥락에서 성폭력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연구가 성폭력 가해자의 연구를 통해 기여하는 것은 성별화된 사회 구조를 통해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큰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 근거를 둔 지식과 세계관을 낳는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성적 존재 방식을 학습하며, 서로 다른 성각본을 가지고 성애적 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성폭력을 성폭력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성적 '정상성'의 모델들은 대개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규범으로 한 것이며, 이런 시각에서는 남녀의 성애적 삶에 성별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가 어렵다. 남성 중심적 시각에 따라 구성된 지식과 언어들이 여성의 경험과 성폭력의 현실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때, 피해 여성의 경험은 체계적으로 비가

6) Michel Foucault(1976), 『성의 역사: 알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 1990.

7) Richard Parker & John Gagnon, *Conceiving Sexuality: Approach to Sex Research in a Postmodern World*, Routledge, 1995.

시화되거나 생략되고 왜곡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성폭력은 정상적인 성관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을 드러낸다는 것, 즉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시화하고 존재화하는 작업은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존의 시각으로 '정상적' 또는 '자연스런' 것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들을 문제화하고 이에 도전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통념을 변화시키고 성폭력 각본의 생산, 유통, 사회적 기제를 알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여성의 삶과 경험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의 동기, 정당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해자의 현실과 사회적 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그러한 통찰이 가능하다. 페미니스트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연구하는 것은 지배적인 시각에서 정상 또는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성의 성을 문제화하고, 성차별적이고 성별화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현실 이해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적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사회 구성론적 패러다임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의 개념들과 문제 제기 방식은 성과학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전의 성과학적 패러다임에서는 개별적인 신체의 성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 구성론적 패러다임에서의 초점은 섹슈얼리티의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이동했으며, 성폭력을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상호 작용을 통해 살펴본다. 성과학이 성적 욕망을 자연적·이성애적·보편적인 것으로 가정했다면, 사회 구성론에서는 '어떻게 욕망이 도출되고, 조직화되고, 사회적 행동으로 해석되는가', 즉 욕망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비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⁸⁾ 사회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은 개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인간의 성

8) Richard Parker & John Gagnon, *Conceiving Sexuality: Approach to Sex Research in a Postmodern World*, Routledge, 1995.

적 행동이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성폭력이 불평등한 남녀 관계의 학습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이 문제는 성별화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정의하고 일반인들이 사회적 이슈로 인식해 온 것에 비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오해는 상대적으로 끈질기게 남아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이거나 반사회적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② 성폭력 가해자는 대개 낮은 사람이다. ③ 성폭력의 동기는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이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생각은 성폭력은 극소수 변태 성욕자나 일탈적 범죄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통념과 맞물려 있다.⁹⁾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세계 2위인 점을 고려한다면,¹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정신 이상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중이었고, 그 가운데 전문직도 상당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가 일부 정신 이상자라는 통념은 성폭력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신화를 강화시킨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일생 동안 어떤 유형이건 지속적인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9) 서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 정신 이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5%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극소수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Ann Wolbert Burgess, C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 London, 1985).

10) 조주현, 「성, 여성주의, 윤리」, 한국여성학회 제3차 춘계 학술대회, 1997에서 재인용.

그 위험을 느끼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 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은 화이트칼라인 것으로 보도되었다.¹¹⁾ 1997년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현황 분석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70%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난다.¹²⁾ 그렇다면 일상화되어 있는 성폭력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성폭력 가해자들의 성문화와 성각본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는가? 과연 성폭력은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성적 본능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렇다면 성폭력은 사회성이 전혀 배제된 '개인적' 행동인가? 이 절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성폭력 가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성문화와 성각본은 이들이 성의 사회화¹³⁾ 과정을 통해 어떠한 '남

11) 경찰청에 따르면 1997년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 수사대에서 모두 128명의 성추행범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회사원이 42명(32%)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46.9%, 대학원졸 0.9%, 전체 성추행범의 절반 가량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지하철 성추행은 회사원이 가장 많이 저질러」,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10일자).

12)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25호, 1998.

13) 사회화(socialization)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 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성의 사회화(sexualization)는 성과 관련된 태도·인식·행동·규범 등의 문화를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장필화, 조형, 1992), 사회에서 남성이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즉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성적인 존재 방식(sexual being)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규정된 성적 욕망과 성적 권위를 학습하는 과정인 성의 사회화는 젠더의 학습, 즉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문화적 규범을 포함하여 그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태도, 기대, 행동, 가치들을 학습하는 과정인 성역할 사회화(socialization for gender roles) 과정과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지만 경험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폭력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 준다.

1) 왜 성폭력으로 보이지 않는가 : 정당화의 각본들

성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하고, 아예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로 인식하고 있거나 정상적인 남성 행동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범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성문화와 성각본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무엇을 '정상적인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가?

가.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이다 : 모호한 동의의 기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개 쌍방간의 합의 또는 동의의 여부로 처리된다. 가해자들이 '나는 성폭력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동의의 여부이다. 그 동의의 내용들과 기준들은 이들이 각자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무엇을 정상적인 성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강간은 길 가다가 여자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애(피해자)도요,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요. 도망도 안 갔고요, 말로만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그러고요. 술도 별로 안 마셨으면서 술 취한 척하고,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고……. 그거 말고도요, 옆에 붙고 그랬어요. 사실 심하게 한 것도 없어요. 때리지도 않았구요.

가해자들은 강간이란 낯선 사람에 의해서 어두운 밤길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시적인 폭력이 없거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강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성폭력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일부러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이용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네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간하였는데, 가해자들은 미리 '들릴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술을 먹도록 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하지 마'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심리적 공포나 압력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어두운 밤에 낯선 곳에서 네 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 마비를 일으켜 저항을 전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이 '여자도 원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 심한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것,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피해자와 교제중이라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따라갔다는 것, 피해자의 동의 아래 여관에 갔다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동의로 받아들여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여성관과 함께 이들이 평소에 성관계, 나아가 여성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대개 피해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시되는데, 이는 법적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몇 명의 남자와 몇 번의 성경험이 있었는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등 피해자의 성력(sexual history)은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유폐론을 야기한다. 그러나 초점을 가해자의 성력에

맞추어 보면 이런 것들이 단지 남녀의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권력의 차이임이 드러나게 된다.

그때도 그 여자 애가 우리 집에 자기 발로 온 거예요. 제가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여자 애 말만 적더라구요.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고요. 그때도 전처럼 오후에 우리 집에 들른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오라고 한 적은 없는가?)

있기는 있어요. 너 내 성격 알지? 너 당장 와! 안 오면 죽여 버린다'고 한 적이 있긴 해요. 원래는 개 애기를 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탄 애기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는 단지 여자가 남자의 집에 따라갔거나 여관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여성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중이었는데, 강간 범죄 이전의 성관계와 남녀 관계 자체에 이미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는 이전에 피해자와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강제적 성관계를 피해자에게 강요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와 '화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자신을 떠나려고 하자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강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그가 피해자와 평소에 맺어 온 관계가 일방적이고 이미 불평등했다는 점은 그가 성폭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가해자는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협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통제를 사용한다.¹⁴⁾ 폭력은 단지 권력이 위협에 빠질 때만 사용되기 때문이다.¹⁵⁾ 즉 폭력은 오직 다른 통제 방식

14) Marilyn Frye, *The Politics of Reality*, New York, Crossing Press, 1983.

15) H. Arendt,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Bracing and World, 1970.

들이 실패했을 때에만 사용되며, 분명한 폭력의 사용은 오히려 다른 형태의 통제가 실패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당해도 쓴 여자: 여성의 이분화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가해자들의 여성관을 살펴보면, 이들에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 하나는 '정숙한=착한' 여성이고, 다른 하나는 '해폰=나쁜' 여성이다. 여기에는 여성은 무성적인(asexual) 존재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관과 더불어 한편으로 남성의 성욕을 만족시켜 주는 성적 배출구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 존재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성적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정숙한 여성/해폰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은 여성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집단과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해자들로 하여금 '나는 성폭력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좋은 구실이 된다.

그 시간(밤 늦은 시간)에 다니는 애들은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예요. 솔직히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 여동생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 같은 애들은 좋죠.

그 애는 원래 그런 애예요. 여러 남자하고 복잡한 애 말이에요. 만약 순진하고 착한 애한테 그랬다면 미안해하고 나중에 찾아가서 어떻게든 보상해 주려고 하겠지만, 그런 애한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 누나라도, 그런 여자였다면 그런 일을 당해도 쓴 거죠.

이런 사고 습관은 본능이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 속에서 습득한 것이다. 여성의 이분화는 정숙한 여성이나 처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통념을 만들어 낸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정숙한 여자는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자는 여자답지 못한 여자이며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

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고는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폭력을 쉽게 저지르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강간은 여자가 싫다고 하는데 칼 들고 위협하고 때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여자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문제가 많은 길로 소문이 난 애예요. 만약 그 여자가 처음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애라면,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거겠죠.

○○형(공범)이 들리자고 했을 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술도 먹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처음엔 황당했어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보기에 그 애(피해자)가 ○○이(공범)랑은 하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사들이 전수 올리려고 신고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잘못하기는 했죠. 하려면 일 대 일로 해야죠. 그리고 하기도 싫은 애를 무조건 했으니깐요. 그런데 개가 하기 싫어했었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요, 그 애가요, 남자 애들이랑 되게 많이 했대요. 소문이 안 좋아서 우습게 보여서 하게 된 거죠.

이들은 여자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에, 이 여성들이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동의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이 여성들은 이미 순결하지 않거나 순결을 지킬 뜻이 없는, 즉 '해폰' 여성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개 '쉬운' 여성들 중에서 선택된다. 이것은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가해자 자신들에게 내려질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이분화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있는 편리한 정당화 구실이 될 뿐만 아

나라, 가해자의 책임을 모면하게 해준다. 가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표현한다. 억울한 감정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 밑에는 자신의 행동이 그 상황에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믿음과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는 논리가 깔려 있다.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때, 가해자들은 흔히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피해자가 처녀가 아니거나 성경험이 많은 경우 강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다. '내 여자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 남자의 권리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내 여자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하고..... 전 억울해요. 강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애(피해자)와 동거도 했고, 그 애하고 섹스를 백 번도 넘게 했고요.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동생도 챙겨 주고 집안일도 했어요. 그렇게 챙겨 주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성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 애가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애한테 따졌더니 '오빠가 상관할 일 아니다'라고 그러기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전에도 그렇게 싸우다가 화해했어요. 그때도 제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어요.

'난 보통 남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주장이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남성'과 '정상적 남녀 관계'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가해자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규범화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수동적인 여성과 적극적인 남성의 성애적 만남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공격성조차도 남자다운 행동으로 이해한다.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은 이 '남자다움'을 발휘하여 데

이트 상대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남자의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 경우, 가해자는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트 상대 여성에게 '약간의 강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가 강간 범죄로 자신을 고발한 것은 '여자가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가 말하는 '약간의 강제'라는 것은 사실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흥기(다리미, 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폭력을 동반한 강간(특수 강간)을 했지만, '내 여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강간은 '약간의 강제'에서 조금 나아간 난폭한 성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라.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 : 남자의 성욕은 무죄

일부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이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자신은 '정상적인' 남자라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성폭력범의 정체성을 거부한다.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남자이지만 일시적으로 실수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방식은 친구나 선배, 술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들의 공통점은 모두 '남성의 성욕은 때론 억제할 수 없이 강하다'는 암묵적인 통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남자들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으며, 특히 술을 마셨을 경우 이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진다는 사회적인 통념은 훌륭한 변명이 된다.

마. '그렇게 나쁜 것일 줄 몰랐다' : 정상화된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포르노를 모방한 사례들이 많다. 포르노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사례는 모두 다른 사례에 비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순진한'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모방 범죄

를 저지르게 된 배경은, 포르노에서 그려진 성적 만남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성애적 관계였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눈물을 안 보이려고 했는데..... 전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한 사진도 돌려 보고 비디오에서 본 내용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는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같은 반 친구가 포르노 비디오를 본 이야기를 듣고 막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나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며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이들이 공식적인 성교육을 비롯하여 어디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성개념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된 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 비디오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한 또래 집단의 성담론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공식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규범을 배우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포르노는 성애적인 남녀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성각본을 제공한다.

포르노는 또한 에로틱한 강간의 이미지를 정상적인 성관계의 패러다임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인간적이고 열등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학대를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포르노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선 여성이 강간을 원하고 즐긴다는 강간 신화를 심어 줌으로써, 성폭력은 그다지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한다. 또한 강제적 수단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관계의 일부라고 암시를 함으로써, 강간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게 하고 이를 정상화한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는 포르노 비디오를 통해서 이러한 강간 신화를 학습한 경우이다.

비디오 같은 데서 보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해도 나중엔 좋아하잖아요. 야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나면요,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럼 너는 여자들이 싫다고 해도 그건 좋다는 뜻이라고 보니?)

저는 진짜로 싫어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영화에서 봐도 그렇고, 친구들 얘기 들어 봐도 그렇던데.....

물론 이러한 강간 신화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강간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믿음이 직접적으로 강간을 유발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도 즐긴다'라는 생각은 가해자에게 죄의식을 없애 주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논리를 제공하며 강간을 부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부 남성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더라도 정당화 구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2) 어떻게 가해자로 만들어지는가

가. 그릇된 여성관의 학습

① '여자 따먹기' : 성적 대상화

또래의 성담론, 포르노 비디오, 놀이 문화를 통해 얻은 성적 지식은 '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여성을 경험하는 방식에 큰 전환점을 가지고 온다. 이들은 포르노에서 재현된 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함으로써, 성적 자아에 눈을 뜨고,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보기 시작한다. 게다가 여성의 성수율리티의 의미를 정의하게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하고 비디오(성인 비디오, 포르노그래피)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험이 있는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듣고 알게 되죠. 그런 이야기 듣고 나면요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무심하게 봐 넘기던 것도 성적으로 보이고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감상하게 돼요. 저 여자는 어떨까 하구요, 성적으로.....

단지 지나가는 여자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윤리적으로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성애적인 남녀 관계에서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때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간주되며, 남성과 똑같은 인간적 권리를 갖지 못한 성적 상품이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길거리 지나다 보면 꼬실 만한 애가 많아요. 요즘 여자 애들은요, 더 대답해요. 경험도 많고요. 어떤 여자 애는 담배 세 개비 주면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더러운 애들은 안 따먹어요. 지저분하고 냄새 나잖아요.

성이 여성, 섹스로 축소되고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면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여성은 성적 상품으로 보이게 된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 가해자에게 강간이나 매매춘과 규범적 성관계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만 축소시켜서 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팅이나 부킹의 과정에서 남자 쪽에서 돈을 지불했을 때는 강제로라도 섹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포르노에서는 마치 여성의 몸을 남성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때 여성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묘사된다. 따라서 포르노를 통해 성적 입문식을 거친 소년들에게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기 쉽다.

그런데요, 요즘엔 처녀가 없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 보면 그래요. 저도 처녀랑은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좀 부럽기는 하지만요, 전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처녀랑 해 본 다른 애들은 막 '죽여

준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도요, 남자 애들이 요 앞집 순이는 죽여 준다, 몇 동네 사는 아무개는 끝내 준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주로 '콩쌈', '싫었다'라고 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성관계'했다고 하면 이상하니까요. '먹었다'는 말을 대신 써요. 친구네 집에 밤에 전화했는데 '너 어젯밤에 뭐했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말을 안 해도 자꾸 캐물으면 '나 어제 먹었다'고 하면서 다 붙어요. 한번 말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2시간 동안 좌악 다 말해요.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또래들 사이에서 여성이 이야기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성적 유희의 대상이나 놀이의 대상, 하나의 성적 상품으로 다루어진다. '요 앞집 순이는 죽여 준다'는 식의 표현은 어느 가계에 가면 어떤 상품이 맛이 좋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먹었다'는 표현도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여겨지기보다는 좋은 사냥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관과 여성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② '처녀'와 '걸레': 성적 등급화

가해자들은 남녀의 성적 행동에 대해 이중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남녀의 성적 적극성과 관련하여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남성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뭐 일부러 피임 같은 거는 안 해요. 보통은 '안애다가 안 싸면 된다'고 해요. 낙태 경험이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밝히고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 애들은 온갖 걸 다해 줘요. 그런데 전 그런 걸레는 안 따먹어요. 더럽거든요. 전에 우리들 네 명에서 여자 애 하나하고 둘러서 하다가 갈갈이¹⁶⁾에 걸려서 죽도록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요. 저는 결혼은 내 말 잘 따르고, 순종적인 여자하고 할 거예요. 물론 착해야 되고요. 결혼할 때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고를 거예요.

서울에서는 성행위를 콩이라고 하고, 부산에서는 빠구리라고 해요. 섹스하는 거는 '콩을 잔다'고 하구요. 한 번도 성행위를 하지 않은 숫처녀를 '아다'라고 하고, 키스조차 안 한 여자는 '생아다'. 한두 번 해 본 여자는 '후다', 수도 없이 한 여자는 '걸레'라고 해요. 섹스해 본 횟수는 콩으로 하는데, '반 접시'는 50콩, '한 접시'는 100콩이라고 해요. 숫처녀와 자는 걸 '따먹었다'고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 것을 '사까시'라고 하구요. 저는 절대 제가 사까시 안 해요. 그런 거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항문을 '후장'이라고 하고, 항문에다가 하는 거를 '후장을 뚫는다'라고 해요. 물론 후장을 뚫는 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걸 말해요. 이런 말은 애들하고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특히 제가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한 반에 반 이상은 해 봤을 걸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성적 행동을 기준으로 여성을 등급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연구 대상들은 성적인 유희의 대상인 여성과 결혼 상대인 여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성적 행동을 기준으로 여성을 정의하는 방식은 성과 관련된 은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성과 관련된 은어들은 성에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생아다', '아다', '후다', '걸레' 등은 성적 행동을 기준으로 여성들을 등급화하는 것인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용어는 전혀 없다. 가해자들이 여성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여성을 등급화하는 은어들은 또래의 성담론 속에서 남녀가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

16) 임질을 뜻하는 속어이다.

여 준다.

③ 성적 업적 쌓기: 남성다움의 인정

이러한 이름붙이기(naming)와 등급화는 다음과 같이 남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성적 적극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남성의 성적 적극성은 정반대의 평가 기준을 갖는다. 연구 대상들에게 남성적 정체성은 상당 부분 성적 명성에 의존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정하는 용어들은 주로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것이라면,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그것의 반대 급부로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는 이유는 뭐까?)

남자니까, 그런 게 자랑이 돼요. 섹스를 하면 여자는 손해봤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잤는데 깨지면 여자는 피해거든요. 남자는 손해보는 게 없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애들은 부러워서 죽으려고 해요.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요.

전에 〇〇형을 어떤 여자 애가 좋아했는데요, 둘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런 애들이랑 하는 것보다 나중에 결혼해서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 형이 좀 약삭빠른 데가 있거든요. 며칠 지나고 나서 다른 형이 그 형한테, "팬티도 벗겼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 병신 같은 놈아!" 하고 놀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같이 놀렸어요. 역시 바부팅이는 다르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입장에 처하니까 그 형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험은 동성 또래 집단으로부터 남자로서의 존재 방식을 인정받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들의 첫경험은 개별적으로 비밀스럽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래 집단의 성담론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적 자아를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래들로

부터의 승인 절차는 부끄러움, 드러냄, 승인, 자랑의 과정을 거친다. 성경험을 통해 연구 대상들은 남자임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는 남성적 자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섹슈얼리티를 통한 여성적 자아의 존재 확인은 성적 매력의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라면, 남성적 자아의 존재 확인은 되도록 많은 상대와 성경험을 함으로써 동성 또래 집단으로부터 남자다움을 인정받는 것이다.

나. 남성다움의 신화: 성폭력을 통해 경험되는 남성다움

① 여성에 대한 처벌과 여성 종속의 확인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그리고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정의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통제로서 성폭력은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적 역할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 여성들을 처벌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모든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폭력의 위협 또는 폭력이라는 현실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 애가 싸가지가 없었어요. 제 친구한테 '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우리 재 돌려 버리자'고 했어요.

그냥 아는 누나였어요. 형들이 여자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자 애들이 7-8명 왔었구요. 우리는 10명이었는데 여자 애들 중에 끝까지 남은 애들은 두 명이었어요. 여자 애들이 되게 재수 없게 했어요. 잘난 척하고..... 전 여자가 담배 피는 거 안 좋아해요. 여자가 담배 피면 좀 그렇잖아요. 건방져 보이고 그리고 말을 싸가지 없게 했어요. 얼굴이 아무리 이뽀도 싸가지 없는 애들은 싫어요. 시비 투로 말하는 거예요. 물어 봐도 대꾸도 안 해 주고, 들은 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형(공범)이 돌려 버리자고 한 거예요.

성폭력은 '남성을 위한 존재'로 여성을 정의하는 배경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 이전에 그는 동거한 적이 있는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하는 등 마음이 돌아서자 상대방을 붙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차례 폭력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성관계를 남성이 여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자 친구와 갈등이 생길 경우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화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전에도 우리는 많이 싸웠어요. 때리기도 했구요. 술 먹고 싸우고 잠들면, 개는 제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 있다가 제가 일어나면 '오빠, 아까 한 말 진심 아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돼요.

여기서 '술 먹고, 싸우고, 잠이 들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술에 취해 때리면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성을 통해 여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을 경우엔 성관계이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강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한다. 그는 폭력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여자와 화해하는 수단으로 믿고 있었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헌팅이나 부킹을 통해 많은 성경험이 있었던 그는 여자를 그저 섹스의 상대로만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는 모성애를 느꼈기 때문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밤길을 다니다가 오토바이족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친구에게 전해 듣고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당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여자를 다른 남자가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 여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의 '난잡한' 행동은 여성답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보통

공범인 이들은 성폭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들의 '분노'의 감정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여자란 고분고분해야 하고 남자의 말에 잘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여성관을 내면화한 소년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여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담배를 피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여자를 '싸가지가 없는' 여자로 규정하면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이 행동할 권리를 갖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성폭력은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녀 관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건방진 여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공포를 통해서 이들을 '제자리에 묶어 두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¹⁷⁾

전 그 애한테 소유욕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 애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어려울 때 만나서 성관계도 백 번도 넘게 하고..... 정이 들은 거예요. 제가 가출했을 때 그 애도 같이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살다가 그 애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도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놀고 밥도 하고 제 동생도 챙겨 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애가 제 친구랑 같이 잤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게다가 그 애가 밤 늦게 돌아다니다가 강간을 당했대요. 오토바이를 탄 남자애들이 타라고 했는데 같이 탔다가 그렇게 되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환장하겠는 거예요.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기에 그런 일을 당하냐'고 했어요. 때리기도 했구요. 그래서 제가 칼을 상에다 꽂았어요. '니가 그렇게 잘났냐?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다녔기에 그런 일이 생기냐?'고 했어요.

17)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

남자'와 다르지 않으며, 특별한 비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을 신고한 것은 피해자와 자신을 때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데이트 강간)과 오토바이족의 행동(집단 강간)은 분명히 다르며, 자신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남자라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② 동성 또래 집단에서 남성다움의 인정¹⁸⁾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대부분은 공범이 있거나 많은 경우 범죄가 윤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¹⁹⁾ 피해자가 대부분은 같은 또래의 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집단 강간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²⁰⁾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 피해자를 '걸레'라고 소문난 난(즉 여러 사람과 성경험이 있는) 또래의 소녀들 중에서 선택한다. 그 이유는 '여자도 즐긴다', '그 여자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 거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피해자들이 성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성폭력의 의도는 성적인 만족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18) ②항의 사례들은 모두 청소년 윤간 가해자이다. 여기서 사례 A, B, C 그리고 사례 D, E는 각각 같은 사건의 공범임을 밝혀 둔다.

19)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의 성폭력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같은 또래의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연애하는 사이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연령층의 가해자에 비해 범행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집단 강간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에서도 집단 강간의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20) 공식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이 공범이나 윤간의 형태(multiple rapes)인 경우 가해자들은 대개 14-19세의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도 같은 나이 또래이다.

(○○(공범 A)이 왜 그런 일을 하자고 했을까?)

아마도 형이 영웅 심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럴려구.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품잡는 것도 좀 있었겠죠. —사례 C

집단 강간에서 흔히 집단의 리더는 먼저 범행을 계획하고 제의한 다음 제일 처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 뒤를 따른다고 한다. 이러한 순서는 또래 집단의 위계 질서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의 주동자 A는 리더로서 강간을 제의하고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남성다움을 입증하고, 또래 집단 내부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우월적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은 했어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괜찮겠냐고 형들이 물어 보더라구요. 그런데 형들이 한다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는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하고 싶었어요. —사례 B

A가 윤간할 것을 제의했을 때 B가 거부하지 못한 것은 선배와 후배간의 위계 질서 때문이었다. 주동자가 이 또래 집단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다른 또래 집단과 패싸움에서 한 번도 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진' 이었는데, 그는 다른 비행 집단과 싸울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였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과 싸워서 이긴 뒤로 비행 집단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남자다운 '의리'를 목숨처럼 생각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의 사나이로 통한다고 한다. 사례 C는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고, 행동이 어눌한데 사례 B와는 절친한 사이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례 B는 그의 '통역사' 또는 '보호자'로 통한다. 남성다운 의리를 규범으로 하는 선배와 후배의 위계 질서에서 선배의 권위는 집단의 유대 관계를 유지

하는 중요한 질서이다.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아요. 옆에 후배들도 있었구요. 처음에는 저도 말렸어요. ○○(사례 D) 그 여자 끌고 가는 걸, 전 처음에 말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리는 게 그 애한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말려도 너무나 완강하게 버티면서요. 저희들도 얼떨결에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렸어요. 그런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그걸 잊게 돼요. —사례 E

사례 E의 경우 현장에서 후배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직접적으로 후배들이 행동을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후배들의 존재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동기는 다 다르게 설명되지만, 이들을 집단 강간에 가담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또래 집단의 규범인 '남성다움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집단 속에서 규정된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정과 행동 규범을 통해 집단 구성원의 의식이나 사고를 통제하는 힘이다. 이 힘은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남성다움을 증명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발휘된다. 이러한 압력은 특히 그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전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항상 친한 친구는 언제나 두세 명 정도였어요. 애들하고 다 친하고 싶은데 제 성격으로는 잘 안 돼요. 그 전날에 애들이 둘러싸고 했을 때, 호기심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서 빠지면 제 친구들이 절 따돌리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례 F

사례 F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잘 사귀지 못했다고 한다. 중 3때 부모님의 사이까지 나빠지면서 우울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까 봐 아주 두려웠다고 한다. 청소년의 시기에는 사례 F처럼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공범들과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사실 그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었고, 윤간과 같은 비밀스러운 일을 같이 행함으로써 그들 집단에 속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공범인 친구가 사건 전날 윤간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따라간 것은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전 그 애하고 잘 몰라서 한쪽에 앉아서 담배만 피고 있었는데, 남자끼리 서로 통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여자를 놓고 같이 노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여자 모르니까 그냥 있었는데……. 선배 한 명이 먼저 들어가서 하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선배랑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형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니 형들이 저보고도 하라고 해요. 내가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물어 봤어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선배 한 명이 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암시스럽다고 그러구요,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하고, …… 너 그거 달렸냐구 하구. 너 그런 것도 못하면 잘라 버리겠다고. 옆에서 형들이 칼 들고 지켜 보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저는 처음 해 봤거든요. 형들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 줬어요. 형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형들한테 칼 맞고 가만히 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했다고 뭐 진짜로 칼로 찌르기야 했겠어요? 사실은 겁도 좀 났지만요, '나는 남자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G

사례 G에게 남성다움이란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것은 한 여성을 지배하는 데서 느끼는 성취감과 남성으로서 갖는 우월감의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매개이기도 하다. 사례 G는 남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음담 패설과 같은 성적인 농담을 하게 되고, 여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이는 그와 어울리는 또래들의 대부분이 여자들을 밀시하고 단지 섹스하기 위한 상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당하지 않으려면 자신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 강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또래의 연대감을 공고히 한다. 다른 집단 또는 특정인을 학대하고 정복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우위를 확인하는 과정은 집단의 유대감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 남자 아이들에게 성교육은 필요없다?

부모는 의식적인 성교육을 하건 하지 않건 자녀들에게 중요한 '성교육 교사' 역할을 한다. 우선, 부모는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 이외에도 성과 신체의 변화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가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 이외의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것에 대한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밀스러움, 잘못했다는 느낌, 발견 또는 처벌에 대한 공포, 죄의식, 부정적인 느낌 등은 암묵적으로 성이란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무성적인(asexual) 존재이며,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는 무성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심리적 갈등의 씨앗이 싹트는데, 청소년들은 섹스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즉 부모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섹스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수치심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성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심을 통한 성적 통제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소년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또래 문화와 대중 매체의 영향권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부모 세대와 학교의 교사로부터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연히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를 인정받고자 한다. 여기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성적 메시지와 또래 집단에서 받은 성적 메시지에 틈이 생긴다.

청소년을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무지할 것이며, 내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적 일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성적 무지 상태로 묶어 두는 것이 성적 일탈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경우 성적 일탈 행동은 이러한 무지에서 나온다.

(집에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교육을 하셨나요?)

아유,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남자 애라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나 몰라요. 우리 애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애예요. 집에서 목욕하고서 팬티 바람으로 막 다녀요.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만데 어때?' 라고 해요. 그런데 애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나 봐요. 3일 전에 친구가 야한 그림을 보여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생각나서 그랬다구. 원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 꼬마 애가 지나가는데 돌을 던져서 머리에 흠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혼내 주기만 하려고 했다는데.....,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어머니

전 우리 애가 특별히 말썽을 피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내 아이들은 그렇게 마련인데 이번에 너무나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는 아직도 엄마 젖 만지면서 잘 정도로 어리

르면, 대개 소녀들에게만 순결 교육을 하고, 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뇨, 전 딸아이한테는 조심시키지만 남자 애라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또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말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애 아버지가 같은 남자로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바빠서 애하고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전혀 말썽을 부리지 않던 아이예요. 애 아버지는 아이가 저지른 일이 물론 나쁜 일이긴 하지만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고, 전 용납이 되지 않아요. 애 아버지는 남자라서 그런 심리를 더 잘 이해하나 봐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어머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내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통념은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되며, 이를 통해 소년들은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내면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소년들에게 여자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존재이며, 남자의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인 남성의 행동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기본적인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황은자(1993)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성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단지 성폭력 방지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²³⁾ 학교 교육은 신체 발달과 성역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성차별을 과학적 '사실'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여학생에게는 '월경, 임신, 출산, 그리고 순결'이 주된

23) 황은자, 「성교육 지침서 분석을 통해 본 성 이중성」, 『한국여성학』 9권, 1993.

고 순진해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어머니

이 두 경우는 성적 의식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한 사례이다. 이들이 학습한 성적 지식이라고는 친구들에게서 들은 '야한' 이야기, 포르노 비디오를 한 번 본 것뿐이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소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기에 포르노 비디오 등의 성인용 매체나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성지식을 얻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이러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²⁴⁾ 공식적 성담론에서 성규범을 학습하지 못한 이들은 또래와 매체에서 그려지는 여성관과 성적 이미지를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에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그렇게 자신에게 큰 사회적 처벌이 가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두 사례의 어머니는 각각 자기의 아이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아이인지를 거듭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부모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성지식과 정보의 주된 원천이 아니므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성 관련 정보도 얻지 못하고 성적 욕구에 대한 정당화(validation)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²⁵⁾ 공식적인 담론에서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침묵당한 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성담론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성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한편 부모가 소년들에게 성에 관해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는 사춘기에 이

21) 한국여성민우회의 '가족과 성 상담소'가 1996년 4월 서울 시내 고등학교 남학생 4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곳으로 '성인용 매체나 음란물'이 56.3%로 1위를 차지했다(『문화일보』 1996년 9월 19일자). 여기서 성인용 매체나 음란물은 포르노그래피와 완곡한 표현이며 비공식적인 성지식 습득 경로로 포르노그래피가 청소년 시기의 남성의 성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Laws and Schwartz, *Sexual Scripts: The Social Construction of Female Sexuality*, Dryden Press, 1977.

내용을 이루고 있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성생활과 성병'이 주로 교육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 성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 보았을 때, 이들은 성교, 성적 욕구, 여자의 몸, 강간과 성관계의 차이점 등에 관해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성'이란 성기 접촉만을 뜻하는 것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과 성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개념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고, 스스로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이제부터 성관계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수는 저지르지 않

24) 좀더 최근에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소장 양혜경)'에서 1996년 9월 19일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행 중등 교과목의 성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성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도 거의 비슷하다. 현행 중등 교과 과정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과목은 가정, 도덕, 체육 세 과목이다. 가정 교과서(현대문화출판사)는 1995년도부터 교과 과정이 개편되어 가정과 기술을 남녀 모두 배우고 있는데, 1학년 가정 교과서에만 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어느 교과서보다 성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중1 가정 교과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 변화와 심리 변화 등을 다루고 있고, 이성 교제에 관해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와 그 폐해만을 다루고 있어 이성 교제 자체가 나쁜 것처럼 되어 있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의 이성애에 대한 관심, 욕구와 욕망에 대해 사실만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청소년기의 가장 고민거리인 성적 욕구를 다루지 않았다. 2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청소년 문화 중에서 이성 교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락과 대중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지식과 성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인용 매체와 음란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체육 교과서(교학사, 동아출판사)에서는 가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성장과 발달'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춘기 이후 심리적 변화에 대해 남성은 활동적인 것으로, 여성은 소극적인 것으로 이분법적이고 성차별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성폭력법이 아닌 폭력법들 중에서도 '강간과 성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이 성폭력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지켜 보면서 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성관계라고 여겨 왔던 것이 성폭력이었기 때문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이들이 '정말로 궁금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들이 기대하는 내용은 주로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와 '여성의 몸'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은 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거의 다 생물학적 사실들에 치중하고 있고, 이성 교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잡지나 만화,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스스로를 성교육하게 된 것이다. 공식적인 체계에서 침묵당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은 일탈적인 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르노 매체를 통해 자극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성문화의 이중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제한된 성지식을 제공하면 성적 무지 상태로 묶어 둘 수 있으며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식의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왜 성폭력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돌리지 않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해자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에게 성관계와 성폭력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성차별적이고 성별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통해서 남자로서 인정받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성폭력법의 정체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폭력 각본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이분화하며, 남성이 공격적이고 여성이 수동적인 성

애적 만남을 정상 또는 규범으로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각본들에서는 동의와 비동의의 구분이 모호하고 성폭력이 규범적인 성관계의 일부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내면화한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남성의 행동의 일부로 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은 일시적인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지배의 성애화를 내면화하는 성의 사회화 과정의 연속선(continuum)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성폭력은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폭력 행위라기보다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강제적 성관계의 확장 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 각본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이중 성규범과 성문화, 그리고 성별화된 놀이 문화라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된 행동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지배와 소유가 '정상적인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회 문화적 담론과 제도적 환경을 함께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성폭력 문제의 초점을 여성 피해자에만 맞추던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거의 문제화되지 않았던 남성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문제화함으로써, 피해자 유발론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의 성폭력 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 즉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에서 비롯된다는 통념과 성폭력 가해자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라는 통념에 도전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별 위계적 구조,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와 관련된 문제이며 남녀간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남자다워야 한다는 압력이 거센 사회의 문제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화된 문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남녀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여성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으로 남성성을 구성하게 한다. 남성성이 이렇게 구성될 때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성적 성취(업적)를 중심으로 정의되며, 여성의 가치는 성적 기준으

로 평가됨으로써 여성은 성적 주체성, 성적 자율성이 결여된 인간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아 정체감을 추구할 수 있는 준거 집단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국한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줄어들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 이중 규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적 자율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²⁵⁾

■부록

여성의 성적 권리 장전

1. 여성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 나는 내가 선택한 모든 사람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지배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상대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 ▶ 나는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관계를 천천히 시작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는 당신과 더 친밀해지기 전에 당신을 더 잘 알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 자신일 권리가 있다.

25) 부록 '여성의 성적 권리 장전'을 참고.

- ▶ 나는 나의 감정이 변했을 때 관계를 변화시킬 권리가 있다. 즉 나는 "전에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제는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신체적인 접촉을 바라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섹스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도 유혹적으로 옷을 입거나 행동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2. 여성은 어떤 성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 나는 나 자신의 몸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 자신의 감정과 믿음, 의견,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 접촉에 대해 나 자신의 가치 판단들을 믿을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 자신의 성적 한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좋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는 성적 즐거움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인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성적 관계를 먼저 시작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애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 자신의 성적 선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
- ▶ 나는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꺼이 나와 의사 소통할 파트너를 가질 권리가 있다.
- ▶ 나는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 ▶ 나는 정확한 성적 정보를 수용할 권리가 있다.

<사례 2>는 무서운 고통일수록 말을 잘 듣는다며, 구타를 잘 하는 사람이 군대에서 인정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사례 9>는 구타를 잘 못하는 고참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례 7>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후임병이 나중에 남들과 똑같이 구타를 하는 걸 보면서 군대 내부에서 구타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 생기는 점을 지적한다.

구타는 위계질서를 습득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선호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그러한 구타 자체를 '놀이화'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병장들이 제대하기 직전에 당하는 '모포말이'와 같은 의례이다.

병장이 제대할 때는 모포에 앉아서 제기 그런거 했어...그 느낌은 딱 첫날 밤 신랑 때리는 느낌 아냐. 축하해도 때리고 생일 빵 그런거...때리는 놀이 인거처럼 된거지.(사례 9)

때리는 행위는 더 이상 범죄의 영역이나, 혹은 규율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놀이화되는 것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한테만 가능한 일이다. 놀이화된 폭력을 신병들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신병들에게 사용되는 '놀이'화된 폭력은 대개 '성적인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⁴¹⁾.

나이, 학벌, 계급, 지역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대에서는 다른 차이들을 극도로 축소하면서 획일적인 육체를 지닌 남성을 생산해낸다. 군대에서는 근육질의 남성과 아주 강한 남성신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획일적'이고 '순종적'인 육체가 강조된다. 또한 군대에서의 사회화과정은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을 군대라는 제도 내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는 남성성의 완결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푸코는 군대 신체규율권력(bio-power)이 죽음에 대한 권력에서 삶에 대한 권력으로 변화되어왔던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생산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는 규율권력이 효용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육체의 힘을 증가시키고,

41) 이것에 대해서는 C-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복종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권력을 간접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저항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푸코b:145-160).

군대는 '죽음이라는 희생을 각오하는 곳'이며, 죽음에 이르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곳이다. 실제 전투가 있건 없건 간에 이러한 군대에 대한 표상은 군대에서의 일상을 지배한다. 내부반에서 병장에게 제한된 자유를 몰아주고 그 안에서 권력이 위계화되는 구조는 구타와 집합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마치 왕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졌다는 군대 이전의 모습과 같다. 설사 이러한 '비합리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 역시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재생산해낸다. 신체규율권력(bio-power)은 규준(norm)의 작용이 법이라는 법률적 체계를 회생시키고 점점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군대라는 거대한 신체규율권력의 장 안에서, 군대의 법은 군대의 규준(norm)에 대해 무력하다. 구타와 같은 행동은 군대법으로 분명히 금지되어있지만, 구타를 문제삼을 때 군대식 규율이 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B. 남자다움의 정의

다음에 살펴볼 것은 군대에서 남자다움이 정의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남자다움'은 무엇이 남자다움에 포함되고(inclusion) 무엇이 남자답지 않은 지(exclusion)를 구분하면서 정의내려진다. 우선 군대에서 정의내려지는 남자다움은 '남성에 대한 정의'이다.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에 대한 정의는 남성들간의 경쟁을 통해 군사화된 남성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구성되어진다. 이러한 남성성은 남성신체의 우월성을 가정하면서, 이러한 신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남성적 의지'와 남성들간의 경쟁과 연대를 통해 남자다움을 정의해낸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정의'이다.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와 여자군인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절하는 남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규범화한다.

'남성에 대한 정의'는 군사훈련과 스포츠 경기 등 군인들의 공식적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성매매경험과 포르노집단 관람 등 비공식적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남성들간에 이루어지는 남자다운

관계를 정의하고, 후자는 남성과 여성간에 이루어지는 남자다운 관계를 정의한다. 또한 '남자답지 않은 것'에 대한 정의는 곧 여성적인 것에 대한 정의가 되면서, 평가절하된 남성은 남자답지 않은-여자같은 남성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1.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남성적 정신

군대에서 군사훈련과 스포츠 경기는 병사로서의 체력단련과 집단적 규율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군사훈련과 스포츠 경기로 대표되는 체력단련은 군대에서의 공식적 일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⁴²⁾.

이렇게 체력단련은 군인으로서의 훈련 중 하나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체력단련이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기합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구타가 위계질서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열차려'와 집합 등은 군사훈련의 일종으로 묵인되는 것이다. <사례 7>은 이같은 체력단련은 구타와는 달리,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친절함의 일종으로 미화되기까지 한다고 한다. 고통에 의한 집합은 이렇게 '사내자식'이 그것도 못하면 군대에서 못 견딘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근거를 얻는 것이다.

내무반장이라던가 높은 급의 사병들이 아래 애들을 운동을 시켜, 운동 잘 열차려. 훈련 때문에 운동시키는데 있고, 말을 안들어서 기합을 시키는 게 있고 또 사내자식이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도 있고, 애들이 훈련에 잘 견디게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직접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 진정한 사람은 너 그래가 저고 어떻게 군생활 할래 그러기도 하고 사내자식이 그래서 군생활 하겠냐 그런 말도 하고.(사례 7)

42) 부대에 따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일정을 들었을 때 사례마다 차이가 보였으나, 이러한 일상적 업무에 대한 이야기는 군대라고 해서 특별히 경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경험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군사훈련과 체육대회가 주요한 화제에 오른다. 일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군했던 기간, 체육대회 기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때, 병사로서의 체력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의지'이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군대에 왔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장립대상자의 선별과정에서 '정상'인 남성신체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집합과 열차려가 소집되는 이유에는 '똑같은'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결핵이 포함된다. 밥을 먹는 양, 걷는 속도, 목소리의 크기 등에 대한 처벌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을 담게 되어 있지만, 갖 들어온 이 동병이 때가 고르지 않다고 조금 먹는 것은 '군기빠진' 행동이 된다. 또한 목소리가 작으면 역시 군기빠진 행동이 되어 기합을 받는다.

이렇게 똑같은 몸에 대한 전제는 육체적인 훈련은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만들어낸다. 남성적으로 가치있는 신체는 남성적 의지로써 완성된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정신을 육체보다 우월하게 두면서 육체를 지배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버틸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쓰러지면 개대들은 화를 내지. 개대들은 의지의 약함을 굉장히 중요해. 몸이 약한 건 둘째치고, 이런 것도 극복해내지 못하냐 사내자식이...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더 참아낼 수 있는데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판단을 하면서 발목을 잡아치고 그러지.(사례 7)

행군은 말 그대로 체력의 극한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쓰러져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끝까지 가게 만들어. 중간에 낙오를 한 사람은 거기서 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데 커뮤니티에서 그런 식의 인식이 만들어져. 개는 권력...커뮤니티에서의 권력도 절반으로 떨어져서 훈련에 낙오한 고참은...그걸 극복해내지 못한 남성이 되니까...(사례 6)

<사례 6>은 행군에서 낙오한 고참은 부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행군에서 낙오한 것은 단순히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으로, 다시 말해 '육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남성적인 정신의 부족'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대에서의 경험은 약한 체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참들은 이등병과 일병 시절을 거치면서 적응하게 되면서 버티는데 익숙해졌으며, 새로운 병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한다. 이같은 고참들의 경험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육체적 훈련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증거로 제출되면서, 남성들간의 신체적 차이를 사소화·주변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스포츠 경기와 남성 동맹

군대에서의 체력은 '강함'과 '약함'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과 '부적용'으로 나누어진다. 군대라는 집단에 적응을 하면 강한 남성이 되는 것이고, 적응을 못하면 남성집단에 속하지 못한 '열외자'가 된다. 다니엘 맥밀란(2001:137)은 이기심과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체념과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남성의 능력은 체조를 통해 육체를 단련하고 불안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진다고 간주되었으며, 이런 단련을 거쳐야 비로소 이기적인 악플들의 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군대에서 체육대회는 이기심을 버리고 부대원들이 하나로 단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단합이라는 목적은 이기고 지는 승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단합은 승리를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군대에서 일상화된 스포츠 경기 중 대표적인 것은 '축구'이다. 군대에서의 축구는 단순히 여유시간을 즐기는 방법만은 아니다. 축구는 여가시간을 즐기는 놀이인 동시에 신체적인 능력으로 남성들간의 위계와 유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축구를 잘하면 휴가, 특박 등의 보상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며 부대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다음에 축구를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사례 17>는 축구가 오락인 동시에 훈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남성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말한다.

축구를 잘해서 휴가를 몇 번 갔다왔죠. 고참들도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인

43) 다니엘 맥밀란(2001), '스포츠와 이상적인 남성상', [남성의 역사], 토마스 퀴네 외, 조정석·박은주 옮김, 숲출판사

정해주는데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휴가가 달린 문제니까. (그럼 축구를 못하면 무시당하나요?) 축구를 못하면, 팀에 안끼워주죠. (그럼 일종의 왕따인가요?) 왕따라기 보다는 군대축구는 전투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즐기실기로 하죠. 그 힘든 걸 안하고 쉬니까 좋은 걸 수도 있죠. (사례 17)

운동 못해요. 혼자 버티고 그러는건 잘하는데, 공놀이는 영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덩치값도 못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애를 응원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뛰하는 것인걸 싶기도 하고 같이 하고도 싶지만 내가 나가면 팀에 도움이 안되니까... (사례 16)

<사례 17>은 축구를 잘하면 휴가 등의 '공식적' 보상을 받는 반면, 축구를 못하는 사람에게 처벌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 힘든 걸 안하고 쉬니까 좋은' 걸 수도 있다며,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구를 못하면 남성들간의 경쟁에서 열외가 된다. <사례 16>은 '덩치값'(남성다운 신체를 가졌으면서도)이 있는데 (남자답지 못하게)축구도 못하냐며 동료와 선배들의 원성을 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축구는 곧 '남성다움'의 상징이면서, 남성다움을 경쟁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사례 12>는 "남자애들 만나면 하는 얘기 편하잖아. 축구 이야기, 야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서로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공통된 얘기를 꺼내는게 보통 박관호 방어율이나 축구 얘기... 아니면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축구는 남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서로간에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인 반면, 남성다움을 경쟁하는 '놀이'이다. 그러므로 벤치에 앉아있다는 것은 '남성답지 못한 일'로 이해된다. 실제로 벤치에 앉아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여자같은' 일로 묘사되기도 한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제일 답답했던 게 애들 축구하는거 지켜보는 거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승원을 하고 있으면, 내가 여자도 아니고 이제 평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례 17)

<사례 8>은 특히 체육시간이 공포스러웠다고 기억하는데, 그는 체육시간에 자신이 운동을 못하는게 마치 성희롱을 당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

다고 한다. 축구를 못하는 것은 곧 남자답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일이 되면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는 체육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심했어. 일주일에 체육이 두 시간 있었는데 나는 그 시간을 할 때마다 너무 싫은 거야. 뛰라고 해야하지, 되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냥 일반 여자랑 비교를 하자면... 그 날은 마치 성희롱을 당하는 날 같아. 기분 이 그 정도였어. (사례 8)

특공부대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는 <사례 22>는 남성들과의 신체적인 차이를 언제 느꼈냐는 질문에 '축구경기'를 예로 들었는데, 아무리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축구경기를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사례 22>는 뛰어난 태권도 실력으로 부대에서 사범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같은 능력은 개인의 특성으로 취급된다. 축구는 이렇게 '남자다운 것'을 증명하는 남성들만의 세계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도 요즘은 축구를 같이 할 때도 있는데, 축구에서는 몸을 계속 부딪히고 파울 있고 패를 걸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자들하고 하면 그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니까 당황스러워하죠. 그리고 확실히 달리가 확 차이가 나니까 같이 경기를 뛰는 건 어려워요. 패를 걸고 그렇게 하면 '너가 남자냐' 그러죠. (사례 22)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목표는 때때로 동맹의식을 복돋우는 한편, 집단 내의 경쟁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군대에서 축구는 공식적인 영역에서 남성집단간의 경쟁을 위한 수단이자, 남성들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의례로 인식된다.

남성동맹의 남성적-군사적 원칙은 남성들간의 유대를 맺는 방식을 '여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남성들끼리의 공통점과 친밀성을 확인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때 남성간의 적대와 동맹은 모두 경쟁, 라이벌 의식, 감정의 억제와 공격성을 나타내면서 표현된다⁴⁴⁾. 스포츠 경기에서의 남성 동맹은 남성들

44) 질리칸은 남성들의 유대가 이처럼 친밀감에 기초해있지 않다는 분석을 통해 남성들이

이 '적'과 '나'를 남성적 방식으로 이분화하는 과정을 증명한다. 적은 진정한 적이 아니다. 언젠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 남성 동맹을 구성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적'과 '우리'의 구분이 아니라, '남자다움'과 '남자답지 않음'의 구분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3. 민족/남성성과 남성동맹

민족주의는 남성들을 군사적으로 동원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영향력을 미쳐왔다. 테네트와 앤더슨(1987)이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민족에 부과된 형편과 생물학적 유사성에 대한 본질론적 해석은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개인들을 집단화하기 위해 형인적·인종적 공통점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종족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 결탁해 국가 간 분쟁을 이념적으로 지지하고 군사적 동원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 '나쁜' 것이었다는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침략을 당한' 한국사회의 정서에서는 쉽게 수용되지 않아 왔다.

민족주의 계열의 남성 화파 지식인 중 한 명인 김동준은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저항적 성격 때문에 종족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없었으며, 분단 극복을 위한 운동과정에서 수난을 당하는' 측의 논리로 동원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처럼 국가주의적 측면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동준:277) 그러나 김은실(1995b:39-43)은 '민족주의가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고, 누구에게 발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민족주의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배가 되기도 하는 등 총체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를 구분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민족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남성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객체로 대상화된다고 지적한다.

여성들로부터 친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케틀 다르리스(2009)는 이같은 분석이 자칫 여성이 관계와 친밀감의 전문가로 불리게 하면서 사람과 동물이라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 사례는 미군을 돕는 한국군으로 동원된 카부사들이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남성중심적인 '민족' 정체성을 불러오게 되는지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⁵⁾.

주로 카부사들은 매일 빈딩(male bonding)한다고 하자나, 남자들끼리 뭉치는 걸, 그게 언제 그러냐면 미군들하고 대항하면서 되게 많이 생겨 그런 거. 워낙 널널하니까 특별히 훈련이 힘들어서 결속력이 생기는 건 거의 없고... 카부사가 미군을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지. 카부사도 이런 성격이 꽤 있어. 미군들이 제급이 좀 낮거나 푸저들(looser(실패자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해. 공부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미군이 사실 그렇게 제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 못해서 온 거 아니냐. 영어 좀 한다고 일을 해도 우리가 더 잘하는데... 백인 흑인 차별도 조금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국국민이나 아니냐는 차별이 있지.

(미군법령이 문제될 때 기분이 어때?)

알잖아. 세상이 이렇다. 다 죽어야 된다. 모여서 화만 내지. 표현적으로 항의한 적은 없어. 서로 쉬쉬하면서 지내지. 나도 한번은 술먹고 애들 집합 시켜서 욕을 했어. 미군법령도 많고 미군 애들이 카부사 무시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한다고 죽고 싶냐고 미군 앞에서 너희 일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들으면 너희 다 모가지 판다고... 그랬지. 딱 소리치려고. 애국가 4절까지 미군 막사 앞에서 크게 부르게 하고.(사례 12)

카부사들에게 미군은 동맹상대이기 때문에 적으로 분류해서는 곤란하지만, 또한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어도 곤란하다. 카부사로 근무한 <사례 12>는 미군과의 경쟁을 통해 카부사들의 결속력이 생긴다고 말한다. '못사는 나라를 지켜주러 왔다'는 미군들의 우월감에 대항해, 카부사들은 한국으로 온 미군들을 미국 사회의 실패자라고 간주하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볼 때는

45) 민족주의와 남성성 사이의 연관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장에서 카부사들의 사례만을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동맹군'이자 '이민족'인 미군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와 남성성, 군인성의 연관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질문에 90년대 중후반 이후 군대를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이 현재 주적인 '북한'에 대한 정통교육에 대한 기억을 거의 하고 있지 못했거나/연구자가 적절한 질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주적개념에서 '내부의 적'이라는 '한총련'에 대한 이해를 보기 교육은 기억하지만 북한에 대한 반공교육은 거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더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례 12>는 미군을 실패자로 취급하거나 흑인 미군 병사들을 무시하면서 미군과 한국군이라는 국가 간의 위계에 대한 문제를 인종적/계급적 범주로 다시 분류해서 해체하고,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위계적 관계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사례 12>는 미군법령과 같이 미군에 의해 한국인이 피해를 받은 사건이 있을 때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고 말하는데, 카부사 선임병장이었던 그는 미군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카부사군 집합시켜 미군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명령을 내려면서 미군 막사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한다. 그는 미군법령과 같은 행동은 미군이 한국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러한 행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습다 이거지. 너희들은 못사는 나라 애들이고 전쟁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러 왔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나야. 난 좋아서 온 게 아니냐 너희를 지켜주러 왔다. 그러면 가본 나쁘지. (...) 한 번은 우리가 훈련을 나갈 때 동네 주민들이 길을 막는 거야. 훈련장 안에 민가들이 있는데 거길 막아놓으면 생계가 안되니까 우리를 불쌍고 사정을 하지. 그 애씨들이 우리 맥살잡고 이런다고. 니네가 한국놈들이냐 양놈이냐...(사례 11)

<사례 11>은 민간인 한국인들과 미국의 군인 '사이에' 카부사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군들의 훈련에 의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인인 동시에 미군을 도우러 온 한국군 병사인 자신이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이러한 곤란함은 한국인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한국군 병사라는 정체성이, 사실상 미군들의 훈련에 보조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카부사로 군대생활을 한 것이 그다지 자랑스러운 경험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명문대학 출신인 <사례 12>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통해 미군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한 반면, <사례 11>은 명문대 출신 중심의 카부사들의 연대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다. <사례 11>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의식은 미군과 함께 있는 한국 여자를 보면서 비로소 분명해진다.

(미군하고 같이 있는 한국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둘 다 똑같이 욕을 하지. 한번은 이태원에서 여자를 얹혀놓고는 옷통을 벗기더라고. 여자에는 많이 취해있었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여자에 자기 좋아서 그러는거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그럴 때는 기분이 묘하지. 그런 여자에 보면 미국사람이면 다 좋다 하는 생각도 들고.(일종의 열등감 같은게 느껴지는건가?) 열등감까지는 아니고...누가 와서 우리지를 탐을 내는거야...그런 느낌? (사례 11)

<사례 11>은 한국여자들이 단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끌린다고 생각하며, 한국여자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우리끼리'를 탐내기 때문에 미군들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고 토로한다. <사례 11>이 말하는 '우리'와 '우리'는 한국 남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때 한국여성들은 그에게 있어서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 남성적으로 구성된 민족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사례 11>의 이같은 말은 민족으로서의 '우리'는 남성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민족 내 여성들은 이러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C. 여성에 '대한' 정의와 남성색슈일리티

위의 3-b장이 남성이 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함(inclusion)의 정의였다면 이 장에서는 누가 남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배제(exclusion)에 대한 정의이다. 남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여성과 또 여성적인 남성들이다. 여성은 어머니와 장녀의 이분법을 오가며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거나 성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또한 이렇게 평가절하된 여성성은 남자답지 못한 남성이 남성들만의 영역에서 여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필하하는 근거가 된다. 군사화된 남성성은 이렇게 여성과 남성간의 위계와 남성들간의 위계를 성별위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다.

1. 어머니와 '장녀'의 이분법

군대에서 '여자 이야기'는 공식적인 군의 업무가 끝나고 취침준비를 하기 전후거나, 보조를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등장한다. 군인들이 언급하는 여자는 어머니, 여자애인, 여자연애인,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이다. 여자들이 언급되는 모든 순간은 남성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 여기서 정신적인 위로는 어머니에 의해서, 육체적인 위로는 애인과 '매춘부'가 담당하면 둘 간에 분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어머니는 '군대 가는 아들을 눈물로 배웅하는 어머니'로 전행화 된다. 군가 중에 '어머니'라는 노래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을 어머니를 상상하게 하면서 군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조교들이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 '탈영하면 내란 잘못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불행해진다'는 말은 어머니가 고향을 위무해 주는 존재인 동시에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계속 힘드니까...힘든 순간에 계속 채찍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개대들을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걸을 활동력으로 해서 활기찬 군생활을 하게 하는...그리고 군대에서 딴 마음을 먹게 되는 탈영이라든가 그런 사고를 치면 불행해진다. 내란 불행해 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불행해진다 그런 말을 많이 해.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주로 얘기를 하지. 다들 거기서 굉장히 힘드니까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지. (사례 7)

어머니와 함께 '애인'은 군대에서의 희생과 복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어머니와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는 믿음은 군대에 '장제'정기된 것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남자로서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기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어머니와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남자로서의 명예'로 추앙된다⁴⁶⁾.

46) 그러나 어떤 전쟁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욱 높아진다. 군사화된 사회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자별을

이때 여자 연예인들은 자신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에 간 남자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 군대에 위문편지를 쓰고 면회를 오는 것은 '애국적 행동'으로까지 추켜세워지기도 한다⁴⁷⁾. 또한 군인들의 총기난사와 탈영 등의 일탈된 행동은 자주 '애인의 변심'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군인들 사이에 '고무신 격'의 애인의 변심에 대한 자조어린 농담이 빈번한 가운데 군인 애인의 역할은 군인에게 성적/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강요된다. 이렇게 여성은 군대의 개별 남성 병사에 대한 돌봄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한다. (권오본, 2000:108)⁴⁸⁾ 한편, 매춘 여성들은 보다 노골적으로 군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존재로만 인식된다.

절대권력에 복종하고 개인을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이용하는 이태를 로가가 여성애인과 어머니를 보호해야한다는 그림 에기를 계속 많이 하지. 교육할 때나 아니면 장교들이 에기를 할 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함으로써 너의 어머니와 여자친구들이 편하게 두발 땀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 보호할 대상으로서의 여성들을 너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러니까 너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매춘 여성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깐 스트레 스 해소를 거기다 하는 거지. (사례 7)

<사례 7>의 말처럼 어머니와 장녀라는 이분법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존재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더욱 강화한다. 보스니아, 캄보디아, 르완다, 과테말라 등에서 행해진 전쟁시 집단강간과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났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전쟁이 여성에게 어떠한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지금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무력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아주 광범위한 형태로 퍼져있다. 강제징집군대의 존재 자체는 여성들에게 일상적인 위협과 폭력에 노출되게 하며,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비르니아 리치(1996), '과테말라 전의 폭력', 제 3세계 네트워크(www.twoside.org.sg), [세계화에 불만있는 여성들을 위한 자료집],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테오 반 보벤(1998), '군사적 분쟁 시 여성의 인권', [아시아의 여성인권·무력갈등과 성폭력], 한국 여성의 전화 권 47) 국방일보, '군대에 애인을 보낸 여성들에게', 2001년 8월 2일자 3면 48) 남자들이 국가적 임무인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면, 여자들은 그 남자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은 여자들은 남자 군인에게 그 고향에 해당하는 보호받는 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런 의무는 비가시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여성들을 통제하고 동원한다. (권오본, 2000:114)

'성경험 유무'를 묻는 것이다. 성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할 줄 아는 신병은 고참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여자들이 성경험을 얘기할 때는 서로간의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반해, 남성들이 군대에서 성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관계'가 아닌 '행위'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 <사례 6>은 남성들끼리 주고 받는 성 이야기는 포르노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한다.

(여자들이 자기 성경험을 동성끼리 얘기할 때는 친밀감이나 신뢰가 있을 때 그러는데 남자들끼리 성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되겠지만 그걸 물어보고 말하는 사람의 욕망은 변태적인 욕망인 것 같아. (관음중적인?) 어 그렇지. 포르노 소설 같은 걸 읽는 느낌 이랄까. 관심을 가지는 주제도 그렇고 관계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어떤 식으로 섹스를 했느냐 여기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떻게 그 이후로 들어가는 얘기는 거의 안해. 딱 육체적인 관계 안에서 살인을 했나 안했나가 중요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재워라던가. 그런데 중요한 거니까, 관계가 아니라 딱 행위에 대한 얘기지. 포르노 소설들처럼 어떤 상황을 가정 해놓고서 그 상황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그런 식의. (사례 6)

군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뭐하지 잠이 안오니까 댄스 밤바다 그런 얘기 하다가... 새로운 놈 오면 완전 새로 나온 영화 개봉박두 하듯이 많이 하죠. 거의 매일 하죠...우리가 얘기하다가 얘기 들었지? 너는 그런 거 없나. 그러면 알아서 대본 써서 재밌게 각색을 해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 싸웠던 얘기. 복잡한 얘기라고 역사라든지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얘기.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사람 이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권신장이나 사랑 이런 골치 아픈 얘기 해서 뭐할 거예요. (사례 4)

고참들이 신병들에게 성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은 포르노 소설이나 새로 나온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이때 어떻게 만났고,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된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여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4>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즐기 위한 이야기이지 생각하고 고민

재라는 이유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한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라는 범주는 실제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포함해서 '불거리가 되는 모든 여성들'을 포함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여자 연예인들, 위문공연에 오는 여자 가수들 등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매춘 여성'의 다른 버전이다.

내무반 안에서 수교(병장)때들이 여자연예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 씨발 년 젓 좀 봐. 저 년 길래. 그런 말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씨발 년 장년. 저 씨발 년은 뭐가 어때. 저 년은 뭐가 작아. 저 년은 다리가 어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지. 드라마 보다가 김**가 나왔어. 그러면 드라마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계속 김**가 어떤데에서 어떤 옷을 입었고. 가수가 어떻게 보였어.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거야. 드라마는 안보고. (사례 6)

우리 하사관이 **를 보고 그러는거야. 남들은 개 이쁘지도 않고 그 그들이 좀 터프한 분위기도 있어서 장관과는 반대되는 이미지였는데, **를 보고 그렇게 가슴열려하면서 좋아하길래 좀 의아했지. 개 하는 말이 '개는 정말 온화로운 년 같지 않나? 달라는대로 다 줄 것 같다'는 거야. (사례 8)

<사례 6>의 말은 여자 연예인에 대한 군인들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자 연예인들을 보는 이유는 그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쇼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몸'을 보기 위해서이다. <사례 8>은 군대에서 여자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미, 그 예로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 가수를 보는 태도의 예를 들려주었는데, 또 여자 가수에 대한 가슴 열림은 결코 호감이나 사랑과 같은 범주가 아니라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성적 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여성의 대상화는 매춘 여성과 어머니의 잘못된 이분법 사이에서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여성'들 모두를 매춘 여성으로 개념화한다.

2.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성담론

처음 신병들이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과 의례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권신장이나 사랑이야기 등 여성을 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이야기는 모두 '골치 아픈' 이야기로 취급된다.

이렇게 감정과 관계가 배제된 성 이야기는 성기중심적인 성행위 묘사에 치중하면서 관음적인 욕망을 충족시킨다. 이때 이러한 성 이야기에서 자세히 묘사되는 것은 여성의 몸 전체와 남성의 성기에 한정된다. 그러나 성기중심적 성행위에서 남성의 성기는 대상화되는 동시에 여성의 질을 공격하는 '무기'로 종종 묘사된다⁴⁹⁾. 많은 남성 인터뷰 대상자들이 성행위를 '파먹고 파먹히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성행위가 남성들에게 경복예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페니스는 그 충족을 위한 무기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휴가나갈 때 뭐했다고 묻잖아. 요번엔 나가서 했냐. 파먹었냐? 질문의 첫마디가 그런 식인거지. 외박을 나가거나 휴가를 나오면 무조건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동안 인사말들이 그런거지. 그 다음 끝마구들의 애인들이 면회를 오거든. 그 여자에 대한 풍평들을 하고. 아 개는 죽어더라. 어떻게. 개랑 했냐. (...) 파먹고 파먹히는 관계 하에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으로 딱 자리잡혀 있지.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개는 뭐하는 애냐 그런건 묻지만 그건 파먹었느냐 뭐지. 그런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들이고, 어떤 예를 파먹었느냐의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그런 걸 물어봐. 나중에 결국 묻는 것은 어떻게 파먹었냐 그런 걸 물어보지. (사례 6)

저 년 파먹고 왔다 그런데 뭐 어떤 년이더라 좋았다 나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고참들이 듣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물을 때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묘사를 해야해. 그러니까 군대에서의 포르노 그대피지. 그런데 갔다와서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휴가 후일담하듯 얘기하는 거는 행위도 행위지만 여자를 파먹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뭐 그러니까 몇 년을 파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받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거 같아. (사례 7)

49) 엠마뉴엘 레이노를 비롯한 많은 여성학자들이 페니스의 '무기화'가 남성답지 못한 약한 페니스에 대한 당혹스러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페니스는 신체기관 중 가장 연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발기한 상태의 페니스가 아니면 이를 인정도 용납도 하지 않는다. 발기한 상태의 페니스는 덜 연약하고 움직임도 좀 더 통제하기 쉬워 보이며 다른 근육처럼 단단하게 보인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페니스는 권유수단으로서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여성에게 접근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엠마뉴엘 레이노, 2000:61)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성 이야기들은 '여흥'이기 때문에, 성관계 이야기를 잘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거나 권위를 더 실어주는 경우는 그다지 없다.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놀이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원인이 되어 고참들이 구타를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사례 7>과 <사례 8>, <사례 1> 등은 모두 군대에 가기 전 군필자들의 경험을 통해 성경험을 지어내더라도 얘기해야 하는 줄 알았었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는 경험 있다..그런 질문을 하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줄 알았어. 있다고 병을 치야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꾸 물어보는거야.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병을 치다가 안되겠는 거야. 소설도 한 두 장이제...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안했다고 그러어. 그랬더니 그냥 떨어져 나가더만...(...) 했냐? 네 했습시다. 누구랑 했냐? 같은 과 친구입니다. 어디서 했냐? 친구 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단답형으로 안되고 주관식으로 대답을 해야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술을 뱉 수도 있었어...나중에 또 물길래 없다고 했더니 너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냥 배째라 그러면서 없습니다.그랬지...(뒤라고 안그랬?) 그런 거 물어보는거는 어차피 혼내려고 물어보는게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요령껏 잘 차신하면 안 혼나. 요령없이 차신하면 그런 것도 꼬투리 잡힐 수 있지만...(사례 7)

(성 이야기는 어떤식으로 얘기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자가 대상화되는 건 당연한거고. 실기밖에 안남는거지. 휴가 나온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 군대 가면 알든 모르는 얘기를 해야 한다. 했다고 해라. 모르는대요? 그러면 비디오를 보던 책을 보던 공부할 하러 가라. 그리고 노래 많이 알아라. 최신가요랑 트로트 많이 알아봐라. 그래서 군대가기 전에 맨날 노래방 가서 트로트 부르고, 야한 잡지 보고...비디오 보고 그랬지...(사례 8)

하지만 성경험이 없거나 얘기를 안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얘기는 놀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경험을 재미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보상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없다. 그저 담배 한 개피 정도를 주거나 그 순간에

재미있어 하는 수준이다.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다. 신병 때 한 두 번 말고는 대체적으로 성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고참의 강요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자 얘기 안하면 혼나기도 해요?) 혼나지는 않죠. 아유 저 재미있는 놀이" 그리고 말죠. (유난히 그런 얘기를 잘해서 인기를 누리거나 잘파주거나 그러기도 해요?) 누가봐도 색깔인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봐도 순진한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그게 아마 같은 정도의 것을 잘 편집해서 조미료도 좀 넣고 그래서 같은 재료가지고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인가 싶어요. 뭐 별거는 없어요. 담배 한 개피 정도를 주냐? (사례 4)

그런데 여자친구? 있냐? 예. 그러면 자랐냐? 아뇨? 그러면 너 안자고 뭐했냐. 여자친구랑은 군대가기 전에 한번 해 봐야지. 휴가나가면 해라. 그리고 말어... 그러면 그렇죠. 해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그런 건 없었어. 놀이야. 진짜 놀이야. 여자관계, 여성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서킨다는 것 자체가 놀이대상으로 하는거지...(사례 8)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성담론은 군대내 위계질서나 남성들간의 경쟁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위계질서에서의 억압을 풀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자친구와의 성경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한 인격이 아닌 성관계에서 소비되는 대상으로 호출하면서 여성성을 평가절하한다. 여자친구는 성관계의 대상일뿐 전인격적인 친밀감을 교환하는 대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례 15>처럼 남성적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된 '열의'자에게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상담이나 편지쓰는 법 등을 상담하기도 한다.

남성성을 가진 애들이 만나면 쉽게 친구는 돼.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범위나 내용은 한정되는거야. 하지만 나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말하는 남성다운 점이랄까...그렇게 없으니까...여자친구한테 편지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시가 좋아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그렇게...엄마한테 편지는 이렇게 써라. 전화는 언제쯤 드리고...그렇게 하나가 비슷한 애들끼리는 얻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거지. (사례 15)

<사례 15>는 자신이 남자답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간의 경쟁과 무관한 존재로 취급된다고 말한다. 남성들은 여자친구와의 이야기를 성행위에 치중해 극도로 대상화시켜서 하는 것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여성성을 최소화하고,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사례 15>는 남성이 아니라고 간주되므로 <사례 15>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에 간 남성들 사이에서 성행위가 극도로 대상화되는 것에 대해 벨라이트(1997:45-63)는 남성군인들이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남성다움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므로, 이들은 성관계를 묘사할 때 무기화 폭력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거나(정복/패닉스의 무기화), 상대 여자를 살아있지 않은 대상(여성의 비인격화/대상화)처럼 묘사한다는 것이다.

3. '남성'이 되는 입문과정: 성매매의 일상화

군대를 가기 전, '딱지를 때는 의식'으로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군대와 성매매는 오랜 역사동안 불가분의 관계였다. 특히 해방 후 성매매지역은 미군기지의 주둔과 분단으로 인한 3년간의 강제징부 복무로 인해 확고히 형성되었다.(민경자, 1999:244) 지금도 미군기지 주변에 사창가가 밀집되어 있고(외정부, 동두천, 용산 등) 청량리역, 영등포역 등의 기차역에서는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사창가를 드나들고 있다.

보통 성매매에 가담하게 된 남성들의 '첫'경험은 군대가기 전에 이루어지거나 군대 복무 도중에 이루어진다.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은 군대 내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성매매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군대에서의 성욕발산을 위한 필요악이자, 목숨을 걸고 가는 군대에 대한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낭만적인 의식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사례 3>은 '예전에는 군대 가면 죽고 그랬는데, 장가도 못가고 죽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매춘을 하는 전통이 생겼던 게 아니겠냐'고 말한다. <사례 2>과 <사례 16>은 남성들이 군대가기 전에 성매매에 가담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대가기 전에 성매매를 한 적 있어요?)

나는 없었어. 나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산 적은 없었고. 솔직히...총각은 아니었어. 여자친구랑 그런 건 있었는데 그게 꼭 군대를 병자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당시의 애정의 결과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러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 내 고등학교 동창들은 나름대로 순진한 애들이었거든. 지금은 아니야...당시에 내 친구들은 다 총각인 상태로 군대를 갔었는데 물론 나보다 빨리 갔는데...약간 충격을 받은 건 상당부분 군대가서 총각 딱지를 때고 온다는 거야. (사례 2)

학원다니면서 친해진 삼수생 친구들하고 같이 군대나 갔다오자. 그러면서...솔직히 사내자식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좋아 군대나 갔다오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날 기념으로 미아리에 갔죠. (사례 16)

<사례 2>는 순진하다고 믿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사창가에 갔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 군대가기 총각 딱지를 '때고' 진정한 남자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 5명과 한꺼번에 영장을 신청하고, 군대가기 전날 사창가로 몰려갔다는 <사례 16>의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16>은 대학 떨어지면 같이 군대나 가자고 손가락을 걸었다가 모두 대학에 떨어진 삼수생 친구들과 진탕 술을 먹고 '군대나 가자'는 얘기 끝에 향한 곳이 사창가였다고 말한다. 군대에 가는 것은 곧 남자가 되는 것이므로, 남자가 되기로 결심한 기념으로(군대영장신청을 신청해서) 사창가에 가서 총각딱지를 때고, 소년에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성매매 경험은 남성들 사이의 무용담으로 회자되면서 <사례 14>의 경우처럼 성매매 경험이 사실일 때는 있다고 '병'을 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성적인 얘기는 일상적이지. 갔다와서 저희가 의정부를 거치서 들어오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여자랑 잤다. 그때 서비스가 어땠다 그런 얘기를 하고...후임들이 갔다오면 부대에 있던 고참들이 하고 왔냐니 그런 식으로 물어왔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그래요. 간부들이 교육훈련 시키잖아요. 그때 자기

들도 교육훈련 하기 때문이니까 그것에 의정부 어떤 이발소를 갔는데 아가씨가 죽어주고 서비스도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육훈련 얘기가 줄러하다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성적인 얘기가 일반화 되다보니까 편지 없으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속된 말로 구라를 쳤어요. 어디 한번 갔다왔단. 돈은 얼마 썼다... 그런 경험들은 일반적이니까 경험이 없다고 해서 마를 당할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말을 치게 되죠. (사례 14)

성매매 경험은 군대식 성문화에 입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스로 인식된다. <사례 14>는 성매매 경험이 없지만 남성들끼리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어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고, 돈을 얼마나 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군대에서의 일상화된 성매매경험은 부대 근처의 다방에 있는 여자와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맺거나, 같은 여성을 상대했을 때 서로를 비교하는 풍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자와 관계 맺은 여러 명이 모여서 '구멍동서'라고 부르며 차를 마시는 이 '엽기적'인 풍경은 남성들이 흔히 낭만화하는 '매춘(賣春)'의 정조와는 거리가 멀다. 매춘을 둘러싼 낭만적 이미지는 전장에 나가는 비장한 전사의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낭만화가 아니다.

외박이나 외출이나 휴가를 가기 전날이나 갔다오기 바로 직전인 날에 보통 거기(다방)를 들른다고 하지. 거기 들러서 뭘 했다는 화제가 되지. 거기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었어. 왜 구멍동서라는 말 있잖아. 저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해 심지어, 그 한 여자와 관계를 맺은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그 다방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사례 6)

외박이나 휴가 나올 때는 다른 애들은 많이 매춘을 해. 부대 주위에 다방이 있어. 공다방, 불꽃다방이 제일 유명했는데 거기에서 타켓 잡아가지고 특히 단체로 나왔을 때는 여관에 같이 가서 빠구리 진짜 화끈하게 치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말지... 그리고 여성의 성적 대상화 이런 거는 군대문화와 떼놓을 수 없는 거고. (사례 7)

<사례 6>이 있었던 외진 부대의 경우 근처에 다방이 1~2개 밖에 없기 때문에 부대원들 대부분이 단체로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 이는 전사 상황이라는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군부대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인 동시에, 성매매가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장교들과 술을 마셨는데... 2차로 단란주점에 데려갔어. 그리고 술 취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다 여자 하나씩 붙이라고 했어. (...) 여자 하나씩 끼고 다 만지고... 중대장이... 어떤 예한데 애가 아직 밖에서 총각따지를 못 데고 왔으니까 데게 해주겠다고 했어. 애는 그렇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간다 그래서 겨우 개하고 중대장을 데어올리고 한 적도 있고. 중대장이 그런 문화의 증명이었어. 자 우린 남자다. 남자끼리 하심합니까 애기하자. 마시자.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술 마시고 여자를 붙여다가 같이 놀고... 술집에서 여자를 옆에 끼어서 오빠 오빠 하면서 술 마시우고 분위기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례 7)

또한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것은 이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도, 쉬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사례 7>에 나오는 중대장은 '총각따지'를 데지 않은 부대원에게 성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부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 '우린 남자다. 남자끼리 하심합니까 애기하자'면서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는 것은 '여자'는 남자끼리 얘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중대장에게 있어 술집 여자는 '술과 안주'와 같은 물건일 뿐이다.

군대의 성매매 문화는 그 광범위한 일상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전후로 성매매에 가담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군대에서의 고생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취급한다. 남성세습열리라는 여성과 성을 대상화하면서,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성을 쾌락화한다.

이때 성매매는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된 성행동의 잘못된 신화와 규범을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이다. 성의 입문으로 경험하는 성

매매는 여성의 이분화와 남성지배가 더욱 확고하게 한다. 드워킨(1992)은 "남성은 서로서로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매매춘과 집단강간 안에서 여성들의 육체를 사용한다. (...) 여성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그 존재자제로 모든 남성들을 모든 여성들 위에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남성조직인 군대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성매매와 남성지배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드워킨의 가정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D. 군사화된 남성성의 성별위계구조

1. 업무의 성별분업적 배분

군대에는 여자가 없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역할분담은 권위주의적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성별적으로 배분된다. 부대내의 업무분담은 철저하게 계급별로 분담되는데, 계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병장쯤 되면 부대내의 살림과 관제관 일에서 거의 면제되는 구조이다. 사병들간의 계급질서라는 것은 어차피 내부만 내에서의 권력관계인데, 지휘권이 없는 사병들끼리 내부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만 내의 살림과 군기잡기 정도의 일이다. 이때 계급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신병은 '여자'가 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낮은 지위를 확인하게 된다.

당연히 계급 순으로 나누어져 있어. 병장은 쉬고, 열외. 그 바로 밑에 동기 밑으로 꼭 나뉘어져 있어. 침상, 마루, 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잠이 제일 밑이야. 음식 짜여가 버리고 설거지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왕고는 아무 것도 안하고 신경도 안 써. 계급이 누구 때문다. 그런 거 상상도 못하지. 왕고는 다 손을 때려한 거야. 보통 전역이 1년 남은 애들 3~4개월 남으면 열외를 시켜주는 거야. 열외 의식도 있어. (사례 9)

침상조, 군화조, 잠장, 병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군대내 사조직 체계'는 가족관계를 모델로 구성된다. 침상조는 이동병에서 일병 초반의 역할로서 침상

의 정리정돈을 맡는다. 여기서 일병 3개월쯤 지나면 대걸레를 잡고 바박을 닦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군화조는 군화를 관리하고 세척하는 일인데 일병 말호봉의 역할이다. 상병이 되면 각각의 역할이 잘 돌아가고 있는 관리하는 살림꾼 역할을 하는 한장이 되는데, 한장들 중에서 남성성이 강한 사람(구타를 잘 하거나, 신병을 잘 다루는 사람)이 군기담당을 맡고, 나머지 상병들은 단장, 군복, 군화, 관물대 등 부대내 물품과 청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병장은 가족체제로 따지면 '아버지'의 역할이다. 병장은 내부만 안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 체계에서 제일 고생하는 건 상병들이고, 이동병은 몸으로 뛰어다니고 일병은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다. 이같은 군대 내 사조직 체계는 군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16>이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례 2>는 이같은 사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는 그런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아직도 있다고 들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 어떻게 효율적이냐면 소대단위로 움직인단 말야. 한 소대에서 보통 30명 정도가 잠을 잔다고. 이제 소대 단위가 한 생활 공간이 되는 건데... 일단 병장들은 편해지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 애들한테서 관리하는 역할을 주고, 몸으로 뛰어다니는 역할을 주고, 경찰 시키는 것만 하는 애들을 두고... 아주 그 안에서 전혀 인간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체계가 돼. 안에서 사람을 뛰어다녀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돼. 편해. 나중에 그 체계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 병장에 나 역시 그 체계에 익숙해져서 나도 뒤집어 끼였으니까. (사례 2)

<사례 2>는 이같은 체계가 비인간적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병 수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대에 따라 신병 1~2명이 고참들의 뒷수발을 다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체계를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례 2>, <사례 16>은 신병으로 갔을 때 고참들이 별로 없고, 동기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체계가 효율적이지만, 고참들이 많고 신병이 한 두 명이면 신병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체계에 익숙

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같은 체계가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가족체계에서는 집안 내 살림의 역할분담이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이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타가 비인간적이고 그렇다는 걸 다 아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조직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이라는 게 단순히 업무를 더 하자는 게 아니라 청소를 누가 할지나 밥은 누가 타나 그런 거거든? 그렇게 안되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례 1)

이 강제적 역할분담체계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구타라는 물리적 폭력마저 동원된다.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구타를 하는 것에 당황했던 신병들은 나중에는 부대 내 살림을 위해서는 구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위계적인 성역할분담을 통해 부대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바닥을 닦고,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병들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이런 부대 내의 '가사노동'적인 '잡일'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이므로 고참은 이런 일에서 벗어나면서 권위를 획득한다. 군대에서 많은 경험으로 난관을 극복한 '진정한 남자'라는 증명은 모든 여성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이렇게 군대 내 역할분담체계는 성별화된 태분이라는 규범과 이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군대 내 성역할 규범에 따른 위계질서와 폭력은 현실 가족에서 나타나는 아내폭력의 문제와 놀랄만큼 유사하다. 고참이 신병을 구타하는 것이 부대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듯이 아내폭력의 가해자들 역시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가족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한다. 아내폭력은 성역할 규범에 따른 가족내 역할분담과 그에 따른 갈등으로부터 나오며,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아내폭력을 조장한다. 아내폭력 연구자들은 '남권'의 권리 안에 '아내'를 배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내 아내폭력의 가해자들은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어쩔 수 없는 혼육 의무의 일종으로 구타를 인식

한다는 것이다. (정희진, 2000:38-50, 김자혜, 1999)

이렇게 '가사노동'을 제공이 낮은 신병이 담당하게 하고, 밥을 안들으면 구타로 해결하는 것은 비단 군대 내에서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대 후에 남성들이 '신병' 정체성이 아니라 군대를 이미 경험하고 권력의 폭대기에서 제대한 '예비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족체계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남성들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 없이 '혼육'의 의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신병에서 부과되는 의무는 단지 부대 내를 청소하고 밥을 타고 군화 등을 빠는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병들은 고참들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서비스를 요구받기도 한다. <사례 4>는 고참들은 신병을 보면 어린이처럼 귀여워서 '옆에 와서 자라'고도 한다고 한다.

그건 귀여우니까. 옆에 와서 자라는 것은 진짜 변태라서 자라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옆에 와서 자라는 말은 고참 옆은 뜨뜻하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물도 꽤 가깝기 때문에... 물병은 제일 문가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물병 얘기를 들으면서 자 떨리서 소리를 바바바라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서 야한 얘기를 듣는 거죠. 침 골짜기 삼키면서. 뭐 사는 얘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런데 키스는 언제 처음 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옆에 와서 자라 그런다고 뭐 어찌하는게 아니에요. (사례 4)

<사례 4>는 옆에 와서 자라는 의미는 고참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병을 '생겨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는 옆에 와서 자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 신병에게 자신의 성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는 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같은 요구는 명백하게 성적 서비스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스킨십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손도 잡고 다리고. 굉장히 공통적이야. 신병

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어있는 애한테 팔짱이 붙어서 담배 피우냐? 자 피라. 이렇게 한단 말이. 그러면서 손을 딱 잡고 자 얘기가 피엑스 가서. 그리고 가. 얘기 인가. 피엑스 가서 자 끝라. 그런 거랑 커피 마실래? 그러면서 손잡고 다니는데 그러면 애들은 진짜 얘기처럼 물어. 뭘치 이만한 놈들이... 그런 스킨 쉽 굉장히 자연스럽지 아예 만지고 뽀 만지고 그런 거.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게... 또래에서는 없어. 동기사이에도 없고. 계급차가 크게 있을 때 그렇게 있지. 한번 만져보면서 네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그러고. (사례 9)

고참들의 경우에 특별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 하나는 특별한 애들. 빠듯 빠듯한 애들. 애들들은 별로 같이 놀고 싶어하지는 않아. 인정하긴 하지만. 또 한 종류는 뭐냐면 굉장히 생기고 예쁜 애들. 그래서 항상 근무를 나갈 때... 붙어 나가잖아. 그럴 때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끼고 나가려고 하지. 그런 경우는 자주 있어. 그리고 사실은 특별한 애들보다는 개네들을 더 데리고 나가고 싶어하지. (사례 6)

이렇게 신병을 '귀여워'하는 행동은 동기 사이에서나 고참들끼리는 찾아볼 수 없고, 고참이 신병에게 하는 행동이다. 특히 귀움을 받는 신병은 남자지만 가슴이 크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귀여운 타입이다. 이렇게 신병을 '아기'이자 동시에 '의사(擬似)여자'로 보는 고참들의 행동은, 자신의 계급적 우위가 남성적 권력에 기반해 있음을 드러내면서 우월적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2. 육설에서 드러나는 여성혐오

군인들에게 육설과 비어는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성과 관련된 욕은 '위협적'이기보다는 '비하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때 여자같다는 말은 군인들에게 최고의 모욕이다. 다른 욕들과는 달리 여성스럽다는 것은 곧 남자답지 않다는 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단 일상어가 다 욕이지. 아플때면 너 참 좋겠다. 이런 말이 너 씨발 큰나 좋겠다. 찢어지냐? 이런 식이고. 그런 식의 말들이 많지. 온어비어속여가

말상 다반사지. 장교한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 말고는 다 그런 식이지. 이 미친년아. 아 미친아. 그리고 놀아. 놀 때 그렇게 말해. 진짜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는 형제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그러는데 놀 때는 미친년 똥년 그리고 놀지. 성역할도 딱 만들어 내. 어떤 경우는 정말 유약하고 호리호리한 애한테는 개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년이라고 하지. (기집애 같다. 남자답지 못하다 그런 말도 많이 써?) 그런 주로 장교들이 충고조치를 하는데 잘 못 한다. 잘 못 편다. 그러면 기집애같이 나한테서. 그런 말을 하지. (사례 9)

<사례 10>은 군대생활에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일상화된 욕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군대에 오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욕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군대에서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주고받는데 자신은 그런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욕도 제대로 못하고, 흰 피부부를 가지고 있고, 다리에 털이 없다는 이유로 '오로라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사례 9>는 이렇게 여성화된 욕은 분노를 자극하기 보다는 굴욕감과 무력감을 자극한다고 설명한다.

이 개새끼야 그런 말도 싫어하는데 그런 욕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나. 내가 이 새끼한테 대해 뭐가 모자라서 이런 말을 듣지 그러는데... 기집애같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야. 저는 뭐 안 그러냐 그런 말이 안나오고. 그대 뭐 나는 기집애같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집애 같다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는 거잖아. 남자답지 못하다는 건 군대생활의 조직에서 거의 잉여인간이 되는 거잖아. 부합되지 않는 인간이라고 취급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지. 내쳐진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 9)

<사례 9>는 '기집애'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년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군 조직에서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여성적인 것은 곧 군인다운 것과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년'이 들어가는 욕이 나오는 분위기는 집합이나 열차려와 같은 기합받을 때가 아니라 친밀감이 있을 때나 무시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년을 쓰는 욕은 없어요?) 하지. 장난질 때 주로 쓰지. 휴가 가거나 말년이면 말년장간 그대가지고 말년 병장을 잡구는 거지. 나가니까 이제 남이

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거야. 그것도 친한 사람한테 그러지. 인간적으로 짜증이 나는 애들은 말년 병장 대위로 안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장난 같 은거 많이 있지. 성취위하는 그런 장난하면서 모포말이도 하고, 모포에 물 들 말아서 발로 밟고, 그런 경우 있지...그러면 병장들은 어떤 미친년이야 그러면서...아무래도 여자를 밟아서 욕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유쾌 해. (사 례 2)

<사례 2>는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에서 곧 민간인 심분이 되는 말년 병장에 게 하는 '열외의식'은 일종의 친밀감의 표시라고 한다. 남성들간에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은 '모포말이' 등을 통해 폭력의 놀이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들은 이러한 행위를 '과격화 스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는 '친밀감' 을 표시하는 언어가 남성들 사이에 부재하기 때문에 친밀감은 여성적인 행동 으로 이해되거나 누군가를 여성이라고 '놀리면서' 표현되는 것이다.

3. 여자군인에 대한 차별화와 성폭력

군인다움=남성다움이라는 공식에서 여자 군인들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여자 군인들은 군인다움=남성다움이라는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군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정체성을 가진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여자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군인들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다. 여군에 지원했 다가 만기 제대한 <사례 21>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인여성으로서의 역할 을 강조하는 남성중심적인 군대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차를 따르는 다도가 정규수업에 배정되어 있고, '외모'가 승진과 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간호장교인 <사례 20>은 여성들끼리 경쟁하기 때문 에 남녀차별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좋은 간호장교의 역할은 '엄한 어 머니' 모델이라고 말한다. 다음 사례들은 남성 사병들이 여자 장교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차별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종실력도 조종사들 중에서 뛰어났고...왜 전설이었나면 딱 일대했을 때 95년에 수백이 있어. 강원도 쪽에 수백도 있었고 강원도도 넘어왔었고 그 려는데...거기가 우리 부대가 커버하는 데있어. 다 미쳐 가는데 그 사람이

조종하는 행위가 가장 뛰어나게 평가를 받았고, 가장 많은 통자를 후송했 고, 가장 안정적으로 악천후속에서 비행을 했고 그랬지. 그리고 또 한명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 대위야. 엘리트였어. 군대내에서. 특전사 출신이었고, 관총사격이 부대에서 1위면서 동시에 부대에서 손이 꼽혔어. 관총사격 은 소총사격보다 어렵잖아. 한손으로 쏘니까. 그리고 조종도 가장 뛰어났 어.(사례 9)

<사례 9>가 말하는 조종부대의 전설이었던 여군중령은 조종, 사격, 지휘 등 다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 군인들은 여자 장교들의 능력보다는 얼굴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여군중령의 능력 을 '평가'한다. <사례 9>의 말에 따르면 이 여군중령이 남편보다도 먼저 승진 할 정도로 '능력'있는 여성이라고 평가되기보다는 남편 가를 죽이고 남자 사병 들 가를 죽이는 여성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군이냐고 무시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 아니야.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것 때문에 많았지. 사병들이 야 그럴 수가 있는데 주로 중위들. 헬기조종사들은 중위 아니면 대위들이 많이 하는데 다 남자잖아. 30-4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여자 인거야. 물론 굉장히 더프하고 세고 그래. 화장기 하나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에...헬리도 피한방을 안나오고 공사구분 딱딱 짓고 그러는데...남자중위를 꺼리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대위는 진짜 남자랑 한번도 안자본 것 같지 않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많이 들어있어...제가 여자냐. 사병들끼리도 그런 얘기 했 었지. 화장도 안하는데 어떻게 여자냐. 목소리 들어왔냐? 얼굴 몰래...그런 거 가지고 (사례 9)

그래도 중령급의 여자 군인에게서는 계급적인 격차가 커서 사병들은 감히 함 부로 대하지 못하나, 장교와 사병 사이에 있는 여자 하사관들은 사병들에게 '싸가지'없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일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상사의 '싸가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일이다. 어떤 남자 사병도 남자 하사관한테 '싸가 지'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상황에서 남자 하사관들은 '싸증난다'는 말 정도를 듣는다.

여자하사관들이 욕을 먹었어. 싸가지 없다고 웃기지 않아? 계급사회에서... 여자 중사 여자 하사인데...사병들이 감히 싸가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안 만한 거랑 경례하는거...하사관들이 우리는 다 경비하사관들이거든? 그래서 훈련 만다가 경비교육을 주고 받는데 거기서 계속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애들이야. 그래서 제대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그런데 취직하는 애들 이거든? 그러니까 군기가 딱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다고, 어리기도 하고, 서 로 대우해주면서 그런다고...그러니까 하사관들하고 금방금방 친해져. 그러 니까 남자하사관들한테는 경례 같은거 생략하고 그런단 말야. 그런데 여자 하사관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병장들 되면 눈이 되는 거 없거든? 하사관은 계급도 아니게 보이는 거야. 우선 나이도 있으 니까. 그런데 여자하사관들은 맨날 불려. 그래서 밑에 애들 있는데서 욕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면서 저 미친년 왜그러지? 어 씨발 경례 를 안했다고 나한테 지랄을 하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재가 하는 말은 한귀로 듣고 돌리고 그게 분위기가 되니까 밑에 애들도 그렇게 하는거지. (사례 9)

<사례 9>는 남자 하사관에 비해서 여자 하사관들이 경례를 지나치게 중요 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남자 하사관들과는 경례를 생략하고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것에 비해 여자 하사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싸가지'없다는 말을 듣 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군하사관 출신인 <사례 21>, <사례 22>는 사병들이 남자하사관에게 경례를 생략하는 것과 여자 하사관에게 경례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라고 설명한다. 일단 경례는 기본적인 예의이고, 생략하고 말고는 1:1 관계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여자 하사관과 사병은 친 밀감에 의해 경례를 생략할 정도로 친밀해지기 쉽지 않다. 일단 부대 주변에 서 둘의 관계를 두고 다른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친해져서 너무 격의없이 대 해버려도 통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여자군인들은 되도록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때 경례는 계급차이에 따른 거리를 인식시 켜주는 중요한 의의이다. 남자 하사관들은 군인계급으로서가 아니라도 남성으 로서 인정받고 통제권을 쥔 수 있지만 여자 하사관들은 군대식 위계질서하에 있다는 것이 스스로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군하사 관들에게 '경례'는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한편 여군은 군인다움과 여성다움을 동시에 요구받으면서 일상화된 성폭력

과 외모차별에 시달리게 된다.

특전사 행정반에서 일을 할 때 여자군인 중대장이 우리 가 있던 중대장을 찾는 전화를 했었어. 그런데 그때 중대장이 자리에 없어서, 자리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중대장한테 아까 전화가 왔었다고 하나나 중대장이 "왜 한번 대문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사례 6)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군인도 아니고 완전히 간호사도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 군인되게 하면 저 간호장교는 너무 부실하고 더프하다고 하고...너무 친절하게 하면 간호장교도 군인한테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이에서 힘든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소리를 들으니까...(사례 20)

여자 군인에 대한 성폭력은 2001년 [여성신문]의 보도와 성폭력 상담소의 강경 대응, 그리고 여자군인들의 잇따른 제보로 인해 조금씩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여군학교를 졸업하고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른아닌 '외모차별'이라는 장벽이다. <사례 21>은 여자군인을 보통 행정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서나 사무직 경리 정도로 취급하는 현 실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렇게 외모차별과 일상화된 성폭력은 여군들에게 끊임없이 여성이라는 위치를 각인시키면서, 군 인으로서의 전망을 잃게 만든다.

평강이 많았어...우리 특전사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특전 사령관이었

50) 실제로 <사례 20>, <사례 22>는 이 문제제기 이후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한다. "얼마전에도 술자리 성희롱이 사회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때 해당지침이 왔는데, 두 계급 이상 차이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게 왔어요. 상황실 간에는 항상 문 열 어놓고 문만 있지 말고...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 문이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어 요? 분위기 좋죠. 우리는 우리끼리 희석하는데 보통...한학 남자분들하고 같이 희석하면 술 주는 애 인맥을 수도 없고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거기 공문 보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고 저 는 술 두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 먹으라고 하더라구요. 더 편한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 르겠지만 그 여자분 때문에 성문제가 밀어붙이고 군에서 경각심을 생기게 한 계기가 된 것 같 아요. 그 여자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상당히 변화가 있어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도 생기고 간 호장교분이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예전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장교도 별로 안하는 것 같고...(사례 20)

고, 그 사람이 별 세 개 있어, 그 사람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군인은 다 장교 아니면 하사관인데...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비서를 해... 그런데 여자군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어, 미모를 가지고 뽀뽀하고... 비서가 하는 일은 커피타고 전심부름하고... 그리고 또 돌리는 바로는 여자 군인들 역시 그 부대 내에서... 성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한다고... (사례 7)

어떤 장군이 있는데 우리더라 커피를 타오래요. 우리가 뒤 다방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더라 커피를 타오래? 기분나빠가지고... 또 그 분이 또 술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언행이나 행동을 하셨나봐요.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뒷사람한테 말을 했죠, 그 분이 술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 기분나쁘다. 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소령님이 "계급은 팔계 아니냐 자기도 뒷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령님은 자기 선에서 그냥 참아라 이렇게 끝난단 말예요. 위로 보고가 올라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례 20)

<사례 20>는 군대에 와서 자신이 커피를 타게 될 줄 상상도 못했더니 분개했다. 그러나 <사례 4>는 성적인 강도가 심하거나 그런게 아니면 남자들의 정서에서는 사위할 때 보고 내켜 왜 그렇게 작나 그런 얘기는 넘어갈 수 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또 <사례 16>은 남자하고는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친밀해져 가는게 있는 반면 여자 군인하고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 세계에서 여군들이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D-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들끼리의 성적 접촉은 친밀감의 한 형태로 드러나거나, 군대 계급의 위계질서에서 저항할 수 없는 것-그러므로 적응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태도는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사소화하는데 기여하면서 여군들이 성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저도 여자 군인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뭐... 여자 군인들도 여자 군인 나름대로 힘든게 있겠죠...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만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남자답다는 건 군인답다는 것과 똑같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여자 군인 같은 경우는 여자답다 그런 말 안쓰죠. '여군'이라는 말은 있지만, 남자 군인은 남군이라고 안하잖아요. 하 웃긴다... (사례 3)

자제가 지배적 남성성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대에 존재하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한다. 이 같은 행위를 동성애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첫째, 대체로 동성간의 성적 접촉은 권력관계에 기반한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때 보통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는 이제 막 군대를 들어온 신병들이다. 이 신병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남성이 되지 않은 상태, 어린이와 같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남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아직 남성이 아닌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동성간 성폭력은 남성 대 남성간의 성행위가 아니라 남성 대 비남성 간의 폭력으로 이해된다.

다음 <사례 14>와 <사례 2>는 모두 동성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남자끼리 있어서'라고 규정짓고 있다.

고장이 자는데 와서 몸을 더듬고 그런... 적이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이 났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남감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당시에는 군법이라는 것도 몰랐고... 알았더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구타도 얘기를 못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군대에 다 모아놓고 있는데 욕구들을 볼 때가 없으니까... 같은 남자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만지면서 자위를 하기도 하죠... 처음에 좀 난감했고, 두 번째는 좀 험한 것 같았고... (사례 14)

...남자새끼들밖에 없으니까... 양성애자도 아니고... 게이도 아니야... 그런데 동성을 강간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우리 부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열 중대에서 쫓겨온 애가 있었어. 알고 보니까 애를 잡을 때 만진거야. 성기를... 그런데 그 새끼가 알고 보니 추잡스럽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 놈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새끼 밤에 더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양성애자도 아닌데 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뭘때?) 일단 그 새끼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는데 간혹 높은 상태에서 성적인 욕구는 쌓이고 그걸 해소할 길은 없고, 약간 변태적 기질도 있고 그러니까 지랄을 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를 봐도 그냥 강간하는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가짜놓으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생긴다. 그런 놈들은 나가서 여자강간하는 놈들이지... (그런 경우는 병장이나 상병 정도의 높은 계급 애들이 주로 그런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 잘못하고, 쪽팔려서 말

<사례 3>은 '남자 군인'을 남군으로 부르지는 않지만 '여자 군인'을 여군이 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여성인 동시에 군인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군인답다'는 말은 '남자답다'는 말이라고 한정한다. 이러한 남성적으로 구성된 군인성은 여군들이 군대 내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한편, 여군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4. 지배적 남성성의 남성 동성애 공포증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은 다른 남성성들과의 연관을 통해 구성된다. 이 관계는 단지 남성성들간의 차이를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남성성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구축된 지배적 남성성은 호모섹슈얼(homosexual)한 남성성을 불법화하고 금기화하면서 동성애 공포증을 심화시키고, 남성 동성애가 남성성에 주는 위협을 최소화해왔다 (Connell:145)

군대에서는 남성 동성애의 '행위'는 있지만,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부인과 은폐가 동성간의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성간의 성행위'는 남성들 사이의 위계를 확인하기 위한 성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지배적 남성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남성 동성애의 행위는 계급적 우위를 이용한 성폭력적이거나 상호간에 합의된 동성애 행위는 '장난'으로 취급될 뿐 동성애자의 욕망과 정체성을 인정하는데 나아가지 않는다. 남성들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은 동성애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은폐하게 하는 동시에 동성간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둔다.

4-1. 동성간 성폭력의 성별위계

군대는 남성동성애의 위협으로부터 남성성을 보호하려 한다. 군대는 남성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성을 위협하는 호모섹슈얼한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것

못하고... (사례 2)

이렇게 동성간의 성폭력은 '남자끼리 있어서 욕구를 풀때가 없어서' 일어나며, 신병에게 좀 불쾌한 장난을 한 것으로 치부된다. <사례 14>는 남성들간의 성폭력은 남자와 여자간에 일어나는 성폭력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주변에 그런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거나 충격이 커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해서 남자답게 극복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피해자의 느낌이 중시되지 않고, '극복해야 하는 사소한 장난'이거나 '행위 수준의 경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성폭력에서 남성들이 쉽게 취하는 태도이다.

또한 동성간 성폭력은 주로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반공개된 숙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반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것은 '장난'이라는 것을 집단적 침묵과 웃음소리를 통해 합의하기 위해서이다. <사례 9>의 경험은 집단적으로 이러한 성폭력을 장난이라고 간주하면서 모두 공범이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번은 고장이 장난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아마 장난이었겠지. 나를 성폭력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 자는 데 밤에 내가 부거워서 답답해서 보니까 위에 올라와 있는거야. 진짜 놀랐지. 무섭고, 혐오스럽고 그런게 아니라 집났어. 애가 날 때리겠구나 하는 게 무서운게 아니라... 기분나쁘지.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앉아서 타고 있는데 놀라서 뛰어나고 풀었지. 그랬더니 농담처럼 웃어넘기면서 계속 앉아 있는거야. 진짜 기분나쁘고 질박했지. 그러다 그냥 내려와서 가더라. 허벅지를 잡고 행위를 할려고 했었어. 개도 웃입은 상태에서 장난처럼...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그걸 보고 거의 내부실에서 웃는 분위기... 또 그러니까... 또 건드리니까... 그런 식의... (왜 그런거 같애?) 몰라. 그런 것들이 장난처럼 많이 하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올라갔을 때 동기들이랑 있으면 하사가 취침을 하면 막내야 부르면 가서 같은 침낭에서 자고 움직이면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주변에서 지리거리고, 재미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 양말을 그러면서... (사례 9)

그러나 동성간 성폭력은 남성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기시된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수치심으로 입을 다물고, 성폭력의 가해자는 고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면 이미 전역을 한 상태인 것이다. 또한 동성간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공포감 때문에 입밖에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고장이 되었을 때 예뻐한데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했어. 금기시켰지. 얘기가 잘 안되는 얘기니까... 당위적 차원에서 안되는 안되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치스러운 일 속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공식적으로는 의미 자체도 형성 안되고... (사례 14)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 아예 안나오죠. 동기 중에 좀 심하게 그런 식으로 고장들이 퍼졌던 애가 있었는데, 개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안하면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는게 좋은 거라 생각했죠. (사례 16)

<사례 14>와 <사례 16>은 동성간 성폭력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군대에서 남자들끼리도 성폭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참, 제가 이병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참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안하지만... 너 오늘 내 앞에서 자라 그런 식으로 말하곤 해요. 남자 중에서도 예뻐장한 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거죠.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고... 휴우... 넘어가죠...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그런 걸 보면 때어놓으면서 너 이런 식으로 굴러면 나가라. 아무리 여자가 그렇다고 해도 저릴 수가 있을거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해병이다.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해서 지리한 해병대에서 저것 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주 화가 나는 거죠. 여자가 여자다워야 할 때가 있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할 때가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할 때가 있는데... 같은 남자끼리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남자답지가 않은 거죠. 남자라면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하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니까... (사례 3)

해병대를 나온 <사례 3>은 동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다. 몇 번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해서, 혹시 피해경험이 있었다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그때서야 입을 열었다. 그는 남자중의 남자인 해병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같은 남자끼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남자들끼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내심'을 잃은 것이 남성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렇다면 사창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사창가는 그가 생각하는 일탈적이고 변태적인 성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4-2. '여성'으로 회화화되는 동성애 정체성

남성이 여성이 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때로는 여성이 되는데 가까스로 성공한다 해도 여장 남자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성'이다. 사람들은 성전환한 사람조차도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남성으로 간주한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성'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은 단지 이 범주의 규칙을 확인시켜주는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 (엠마뉴엘 레이노48)

지배적 남성성은 모든 남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상적 남성성의 환상에 기초하고 있으나, 집합적이고 제도적인 실천의 여러 장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역시 군대에서의 실천에서-문화적인 실재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배적 남성성은 제도적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권위를 획득하고, 도전들에 쉽게 열리지 않는다. (Connell:121) 여기서 남성간의 동성애는 회화화되면서 동시에 비가시화된다.

진짜 장난인거지...웃긴 게 그게 장난이 되면 동성애라는 코드가 진짜 장난

이 되는 거야. 되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야. 행위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조롱하면서...외도하는 건 아닌데 뭔가 전체적으로 욕살시키는...우리 부대에 만약 동성애자가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을까...하고 생각해. 끔찍한 거지. (사례 9)

<사례 9>는 동성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서,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렇듯 자신들이 가담한 '동성간의 성행위'가 동성애자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성애는 편파적이고 회화화된다⁵¹⁾. 남성 동성애자를 편파하는 방식은 '남자답지 못한 존재'이며 '여성'과 가까운 존재'라는 논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 대학 다닐 때도 여장 콘테스트에서 1등 했었거든? (여장콘테스트는 어떤 거야?) 진짜 여자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 띄워주는 거지. 약간 아한 농담하고...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타입이구요. 그러면...그렇게 분위기가 퍼워지면 준비한 쇼를 하지. 그때 내가 했던 건 빛나는 브라자. 물을 뜨면 브라자가 빛나고...그러면 되게 좋아해.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를 보고 뛰어 나오는 놈도 있었어. 진짜 여자들로 이뤄진 문선대가 오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그래야 하나까 우리가 가는걸 더 좋아하지... (사례 15)

동성애자인 <사례 15>는 '여장' 여자보다 더 여자같으면서 위험하지 않은, 더욱 더 여성스러운 존재이다. 그는 자신이 소수이기 때문에 열외가 된 것이 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여러 명 드러났다면,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트랜스-젠더인 <사례 8>은 자신이 여장에 대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여성'이라는 것은 '여장'이라는 기호로 인해 인지된다. <사례 15>의 '여장'은 여자보다 더 여자같으며, 여성들이 오는 위문공연을 보기 위해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는 등의 수고로움도 없이 동요처럼 편하게 대할 수도 있는 안전한 성적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놀림받지는 않았어?) 팔부랑 걸음걸이 때문에 말을 많이 들었지. 너는 여자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지. 맞으니까. (웃음)
(고장이 되었을 때 무시당하는 경우는 있었어?)
없지...군대에서는 총 들고 나가지키는 애들은 몇 명 없고 그 외에는 다른 일을 더 많이 해. 시험도 많고 체육대회도 많고 미화도 많고...나는 오리를 이거나 꾸미는 거 좋아하고 또 총관리도 잘하고 요령도 많이 알려주고...또 행정과나 그런데 가서도 언어를 잘 알아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시할 수가 없지. (사례 15)

<사례 15>는 자신에게 여자같다고 놀리면 맞다고 수긍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남성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욕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자답지 않음에 대한 낙인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사례 15>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 군 생활에 적응해나간다. 그가 적응하는 방식은 사병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 부대의 환경미화나 미적 감각이 필요한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일, 발바닥에 물집에 잡혔을 때 치료하는 법 등이다. 이러한 역할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어머니, 여자친구, 간호사 등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사례 15>는 군대에서 실제로 총 들고 나가지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며, 자신이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대의 분위기가 타 군대에 비해서 비폭력적이고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례 15>의 '다른 방식'은 그가 소수이고 열외였기 때문에 인정받는다. <사례 15> 역시 자신과 비슷한 성향에 존재가 없었다면 군대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 15>는 '여성적'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닌 '여성'으로 취급받으면서 군대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남자다운' 동성애자의 존재는 지배적 남성성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를 여자라고 부를 수 없고, 그의 성적 행위는 권력을 가진 고장 남성들이 비밀스럽게 즐기는 성적 유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적'이라고 취급되는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예외'로 취급되고, 남자다운 동성애자는 남성화된 군대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낼 필요도 없는 존재로 '은폐'된다.

51) 니콜라우스 쾰바르트(2001:218)는 남성성년익 입문과정에서 나타나는 명백하게 동성애적인 어떤 행동들이 남성동맹의식으로 공공연하게 치러지지만, 남성동맹에 대한 공포는 이들로 하여금 남성동맹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같은 성적인 의식에 대해 한구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니콜라우스 쾰바르트, 2001, '남성동맹과 정치문화', [남성의 역사], 출)

V. 병역의무의 의미화 과정과 남성의 '국민화'

한국의 '국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인들간의 차이를 삭제하고 근대국민국가(nation-state)의 민족적·인종적·혈연적 공통점을 부각시켜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국민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는 '부국강병'으로 집약되고, 국민의 역할 역시 이 목표에 귀속된다. 이때 병역의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로, 노동은 국가를 부유하게 '유지해야할' 의무로 역할지위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국가를 '지키는' 의무인 병역의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통과례로 의미화 하면서 군인이 되는 것과 남성이 되는 것이 군복무를 매개로 융합한다. 이렇게 해서 병역은 남성중심적인 국민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유무가 '국민'이자 동시에 '남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가치로 의미부여하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남성들간의 위계질서가 재편된다.

이 장에서는 군대간 남성들이 군대경험에 대한 발언권을 독점하게 되는 과정과, 이들이 사회에의 입문으로서 군대를 의미화하면서 여성을 어떻게 배제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해서 남성들이 국민을 대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군대 경험의 사회적 의미화 과정

1. 군대 경험 유무에 따른 발언권의 배분

병역의무의 유무를 둘러싸고 남성들간에 보여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위계는 발화과정에서의 위계이다. 가장 힘든 군대 경험을 한 이에게 발화할 수 있는

52) '지키는 일'과 '유지하는 일'에는 성별적 기준이 삽입되어 다른 가치평가가 내려진다. 경비원/정소원과 직무평가를 비교한 정경아(2000:138-139)은 숙련,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비교한 결과 정소원들이 직무평가에서 2배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1/3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직무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임금격차는 '지키는 일'을 하는 경비원이 '유지하는 일'을 하는 정소원에 비해 더 가치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권리를 집중시켜주는 것은 특정한 남성들이 군대 경험을 독점하면서 군대경험을 중심으로 남성들간의 질서를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효과를 거둔다. 가장 힘든 군대 경험이라고 알려진 해병대를 제대한 <사례 3>과 <사례 4>는 친구들이 자신들 앞에서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다.

다시 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하기로는 아 우린 군대 얘기도 못해 입마. 이 자식 해병대 나왔어 그러는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례 3)

작년에 제대하고 얼마 안되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거든요. 초등학교때는 제가 몸이 작고마하고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10년만에 왔는데 키는 말대만 돼지고 등치도 이래가지고 해병대 갔다왔다고...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제 앞에서 군대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사례 4)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거나, 친구들의 군대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발언권은 누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발언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대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한다 해서 발언권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가장 '고된' 군대경험을 가진 이의 말을 존중해주는 이유는 가장 고된 군대경험을 한 것이 가장 '남성다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병대와 같이 누구나 남자답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부대를 갔다오지 않은 경우에 남성들은 각자의 군대경험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발언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

(카류사 갔다왔다는게 남자애들끼리는 어떤 취급을 받아?) 군대나? 정말 편했구나. 카류사는 그래서 군대 얘기 잘 안하잖아. 그런 얘기도 있지. 영어 잘하잖아. 미군 육반 배웠잖아. 놀기만 하다가 나왔잖아. 그런 선입견이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카류사도 장갑차 타다가 팔러죽은 카류사도 많고 헬기 레펠하다가 떨어져 죽고 그런 경우도 있어. (사례 12)

일단 안갔다는 애들한테는 마음놓고 허풍을 쳐, 스스로 남자로서의 성인식

을 치뤘다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과정을 아직 안 겪은 애들한테 허풍을 쳐. 그런데 그 갔다 온 애들끼리...역시 허풍을 쳐...나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그러면서...나도 다른 애들이 허풍치면 억울한 기분이 들면서 나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져. 그거 말고...갔다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들은 진짜 남자가 된 과정을 거친 '우리들'이다...이런... 서로 이렇게 비슷한 감정, 성취감을 느끼면서 남자가 아닌 사람들, 여성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거지. 우리끼리 화인하고...여성에 비해서... (사례 7)

(군대 얘기 많이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내가 보기엔 쏠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딱세게 근무했다. 나는 진짜 군인답게 군생활했다. 너는 제대로 된 군 생활 안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 내 말이나 잘 들어라. 내 말이 올바른 군대 생활에 대한 말이다. 그래야만 사람이 된다. 니가 뭐 뺏아가면서 군생활 해 봤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하죠. (사례 10)

카류사를 나온 <사례 12>는 카류사는 편하게 군대 나왔다는 사람들의 평가는 선입견이라며, 카류사 중에서도 장갑차를 타다가 팔러죽는 등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고된 군대경험에 대한 인정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남성전사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재생산된다. 남성들이 흔히 군대경험을 과장하거나 반복적으로 발화하는 이유는 군대경험이 고귀한 희생을 치른 남성적 의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례 7>은 군대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의 고통을 위로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한 남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행정병 출신인 <사례 10>은 편한 곳을 나왔다는 것은 곧 '제대로 된'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자신은 군대에 대해 아예 말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취급되었던 경험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군대가 남자로서의 성인식을 치르는 곳으로서 의미화되면서, 군대 경험의 반복적이고 과장된 발화는 아직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남성들을 무시하고, 서로의 군대경험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군비력자 남성의 남성 사회로의 편입과정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면제자 남성이 남성 사회로부터 축출되는 것은 아니다. 면제자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예비역 모임 등 남성 사회에 편입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군대를 안간 사람은 빠고 예비역 모임을 해요?) 아뇨. 같이 해요. 공익이나 면제받은 친구도 같이 해요. (그러면 예비역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사실 사회학과 내 남자들 모임이 되는거죠...계모임 비슷하게 해서 회비내고 같이 놀러가고...학기 중에 한 번씩 생일을 갔던 거 같아요. 여자 애들한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고... (왜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더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모임 자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의의에서도 그렇고... (사례 14)

예비역 모임이라지만 사실은 남자들 모임이죠. 제가 취직을 먼저 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래서 무시를 못하는 것도 있겠죠. (억울해해요?) 아뇨.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억울해한다기보다는 부러워하죠. 회사생활하면서 힘든 얘기를 해도, 꼭 그래도 너는 군대 안가고 회사 생활 바로 했으니 얼마나 좋냐 그런 소리 듣고... (사례 19)

<사례 14>는 과 내에 예비역 모임이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건 아니건 간에 이 모임은 '남성'이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군대를 아직 안 갔다는 이들이나 면제자는 이 모임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입을 다물고, 예비역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남성들간의 위계에서 최하위자리에 위치한다. 예비역 모임은 군대를 현역으로 정상적으로 마친 군필자'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성들만의 모임인 것이다.

<사례 14>는 예비역 모임을 남성들만의 모임으로 하는 이유는 결속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성들간의 결속력은 이렇게 여성을 배제하면서 공고해진다. 허리 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 19>에게 예비역 모임에 나가나고 물었더니, 예비역 모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남자들 모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 모임에서 유난히 말 수가 적다. 회사생활에서의 힘든 얘기를 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그래도 너는 행운이라는 말에 가로막히기 때문이

다. <사례 19>는 운동계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술값을 내주고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보통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 집단에서 여자들만의 모임을 만들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비역 모임은 사실상 군대를 갔는지 유무와는 관계없이 남자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들만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모임이라고 불리움으로서 여성들을 배제하는 것을 은연하고, 군대경험을 중심으로 남성들간의 위계를 만들어낸다.

3. 사회입문단계로서 군대의 의미화

군대는 사회생활의 입문단계로 의미화된다. '군대가면 사람된다', '사회생활에 도움된다'는 언설은 군대라는 남성조직에 대한 경험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기대는 단순히 기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포함하면서 군대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환산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군대를 거치지 않고 사회에 들어간 면제자를 비롯한 '비정상적' 군경험자들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배제되는 것부터 취업 면접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군대경험이 그 어떤 경험보다도 고통과 극복의 상징으로 자리잡혀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지 못한다. <사례 10>은 의가사 제대 이후,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할 때 군에서 일찍 제대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거나 가능하면 술자리에서 잘 안가게 된다고 한다. <사례 10>은 의가사 제대를 통해 남성들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잃었지만,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현역복무자보다 '덜'한 고통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습관성 탈골이라고 해도, 사실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농구도 할 수 있다고. 팔이 많이 쏠리고 빠지는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찢어 하면서 빠지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끼우면 되니까 사실 별 문제는 없지. 그런데, 농구하다가 내가 잘하면 꼭 그걸 보고 야 팔을 대제 언제 빠지는 거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세끼들이 있지. (사례 18)

<사례 18>은 습관성 탈골 때문에 군에서 면제되었는데, 축구나 농구같은 게임을 할 때 자신이 활약하면 비아냥에 시달리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군경험의 소유자들은 군대 경험 뿐만 아니라 남성다움과 연관된 모든 영역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사례 8> 역시 허리디스크 때문에 의가사제대를 했는데, 허리는 곧 남성 성 행위를 위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놀람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운동'이나 '성행위'와 같이 흔히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인식되는 행동은 정상적인 현역군무를 한 남성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가치로 인식되고, 정상적 현역군'을 마친 남성들은 그렇지 못한 남성들에게 우월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우월감에 머무르지 않는다. 남성이 되는 것은 곧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군무로 증명되는 우월성은 '인간'적인 우월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제가 남자들 보면 저것들이 군대를 안갔다가서 그런다고. 약간 양아치 스타일의 남자들이나...20대 초반의 애들 중에 귀찮아하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약간 통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 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들어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저것들이 군대를 다녀와봐서 인간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군대를 안간 연예인을 봐도 저것들이 군대를 갔다 봐야하지. 그런 얘기 하고. (사례 14)

(군대가면 사람된다...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아아 뭔가를 피생을 하고 배웠다고 생각을 하죠. 군대 갔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예요. 제가 지금 기숙사에 있는데 학교 정문에서 기숙사가 되게 멀어요. 한 1KM정도 되는데, 예비역들은...올라가면서 뭐 필요한 거 없다고 꼭 전화해요. 그런데 군대 안 갔다는 애들은 그런게 별로 없어요. 또 물건 같은 것도 잘 빌려주고 그러는데...예를 들어 우라카리 술먹기도 했는데 안주사리는 예비역 아닌 애들은 안보내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면 탄환을 주면서, 행을 술마실 거니까 너 먹을까? 좀 사고 안주거리랑 소주 다섯병하고 사와" 그러면 왔더니 새우밥, 초코칩 푸키, 술 다섯병, 콜라 그렇게 사고고 안주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했으면 탄환마리 사갔겠죠. (만원으로 술 다섯병 사구요?) 하하. 그러면요 (사례 4)

<사례 14>는 전이 덜 들거나, 자유분방해 보이는 남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군대 다녀와야 인간이 된다'는 말을 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고 한다. 그가 다른 남성들의 통제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군기가 빠진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대에서 훈육시킨 전체주의적 규율의 효과를 증명하는 말이다. '군기가 빠진 상태'는 군대식 집단 규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 집단에서 개인이 '뛰는' 행동을 할 경우 전체 기합을 받는 등의 군대식 집단 규율은 이렇게 집단에 익숙치 않은 개인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면서 개인주의는 곧 이기주의라는 공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군대 가야 인간된다'는 말은 사실 군대의 집단 규율에 모두 익숙해져야 비로소 아무도 기합을 받지 않았던 군대에서의 강박에서 비롯된다.

또 <사례 4>는 군대를 다녀온 애가 인간성이 더 좋다는 증거로 술심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만원으로 술을 다섯 병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때 군대를 안 다녀온 애들은 술 다섯 병과 음료수 정도를 사오고 마는데 자신 같은 예비역들은 닭 한 마리를 사 갔을 거라는 것이다. 만원으로 술 다섯 병과 닭 한마리를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안되면 되게 하는 것'이 사나이답고 군인다운 행동이다. 그는 군대에서는 술가락으로도 참호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군대식 강령이 역지스러움이 아니라 사나이답고 군인다운 행동, 곧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것은 사실상 군대의 집단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한 '인간(남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같은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은 학교와 직장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군대경험이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대답했고 몇몇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53) 여기서 '사회생활'은 학교, 직장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생활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복합했을 때 일인데...누군가 뭐 일을 한다. 학교일을 하든 리포트 작성을 하든, 방법이 보이는 거야.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예전에는 잘 몰라서 생각도 많고 종기도 낭비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랬는데... 군대갔다가서 느꼈던데 뭐냐면 그 전에 내가 못보던 체계같은게 보인다는 거야. 어떤 체계로 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데 그냥 보여. 조직이라는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안거든.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 체계라는 개념이 생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에 대한 감이 없었는데, 분명 개념은 있는데 위치질서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거지. (사례 9)

<사례 9>는 군대를 갔다는 이후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 군대식 조직체계가 효율적 분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역할을 배분하고 일을 성취하는데 있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사회도 일종의 그 사회 안에 계급들이 있잖아. 병장까지 주욱 있다보면 이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계급일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되고, 제일 위에 있을때는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된다. 그 안에서도 일종의 경지거든. 아무나 대접해주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대접을 해줘. 그런 걸 보면 아 이렇게구나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사례 6)

또한 군대에서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때의 책임과 역할이 계급에 따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사례 6>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⁵⁴⁾. 예비역들은 이러한 위계적 군사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군대경험을 통해 '배운 것'으로 취급한다. 또 군대 경험이 경력이 되어 경제적 자원으로 직접적으로 치환되는 경우도 있다.

54) 박노자는 제대 후 예비역이 된 남학생들에게서 "갑자기, 후배나 여학생 등의 학자들에겐 권위적으로 들리는 편인데, 마치 '장교'함으로 인식되는지, 교직원들에게는 더없이 존중하며 학듯이 대접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이를 '군사 문화 세뇌'의 영향으로 본다. (한겨레, 2001.8.29)

(해병대를 나온게 그 경호업체 취직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틀리스 알파까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이 해병대고 반이 특전사예요.
그 이외에는 쓰자를 맡아요. 사장까지 해병대출신이나 저희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제대할 때 회사에서 찾아와서 뽑아간거죠. 그래서 서류심사 그런
거 보고 합격이 된거죠. (사례 3)

한번은 술집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
더니 나를 보더니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태권도 단장이라나
그랬는데 자기가 5년만 길에서 해병을 처음 봤다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해병을 만났어. 그러면서 세워놓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 해병대 얘기하면서 자기는 반팔 해병복입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할 것 없으면 태권도
장에 오라고...그리고 용돈이다 그러면서 오천원 주고. (사례 4)

<사례 3>은 현재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직장동료들 중 절반은
해병대 출신이고 절반은 특전사 출신이다. 이렇게 해병대 출신이라는 군경력
은 경호업체 취업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또 다른 해병대 출신인 <사례
4>는 해병대출신 선배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용돈을 받거나, 취업자리를
소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의가사 제대를 한 <사례 10>과 면제를 받은 <사례 19>는 취업준비과
정에서 군면제라는 이유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고 말한다.

나한테는 제 군대 면제나고 묻는데, 허리 디스크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몸 쓰는 일 많은데...하는 거야. 그런데 앞에 있는 애는 육군 11사단
출신인데 부장하고 같은 부대출신이었단 거야. 그러면서 둘이 한참 군대
얘기를 하더라고...그래서 떨어졌지 뭐. 하지만 뭐 군대 안간만큼 나도 혜택
받은 게 있으니까. (사례 19)

취업면접관들이 남성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서도 군대와 관련된 것이
많다. <사례 19>는 자신에게는 군면제 사유에 대해 질문한 반면, 여자리에 있

있던 취업응시자에게는 면접관과 같은 부대 출신이라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
고 자신이 탈락할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사례 19>는 자신이 군면제이므로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군대가는데, 그동안 여자애들 돈받고 생각하면 뭔가 불공평하다
는 생각이 들죠. (그럼 군대 안간 남자는요?) 그건...열받지만 걔네들은 적
소리 안하잖아요. 적 소리 했다면 아주 탈락지...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
다는 말은 편히 나온게 아니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지. (사례 17)

또, 군대를 '제대로' 갔다오지 않은 남성들은 최소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
에 '용서'가 된다는 <사례 17>의 말은 남성들간에 군대경험을 중심으로 구성
되는 위계질서와 발언권의 특징이 남성들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묘하게 은연
하면서 남성동맹을 해치지 않고 남성들끼리 명예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남성들간에는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부터 추상적인 발화의 권력까지
현역의 군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남성들간의 불만을 해소하는 보상체
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군대경력이 경제적 자원으로 치환되는 경우
는 영어실력이 있다고 보장되는 카류사, 그리고 학사장교 등과 같이 특수한
경험의 군대경험에 집중된다. 그러나 명예로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해병대와 특전사와 같은 '남성전사'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군경력소지자들은 그들이 획득한 '남성성'을 명예로움과 관련된 의미있는 가치
라고 평가받는다. 군면제나 의가사제대 등 '비정상'적인 군경험자의 경험을 무
시하고 폄하하고, 특정한 대학출신인 남성들에게 수여되는 혜택(카류사, 학사
장교, 병역비리 등)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를 남성답지 못한 불명예스러운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현역복무의 신체적·도덕적 우월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군대경험을 의미화하는 이러한 연설 속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명예로운 제대'를 한 현역 복무자에게 국한된다. 권인숙(2001)은 "명예로운 제
대는 실대의 방황과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을 끝내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속에서
협조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있는 남성이 되었음을 확
인시켜주는 확인서 같은 역할을 한다"며 현역 복무자는 한국 사회의 일반 평

군 남성상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B. '국민'의 남성중심적 구성

1. 병역의무에 따른 정치적 권리의 차등분배

병역의무는 남성들을 정치적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만들어내는 준거로서 사
용된다. 국가에의 헌신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병역의무는 국가에의 권리55)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보장은 상징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병역의무의 유무는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을 구성하는데 핵
심적인 경력으로 사용된다56). 피선거권은, 국회의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군경력이 아들들의 군경력과 함께 청렴과 도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급되는
것과 관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진 97년 대통령 선거 결과이다. 또한 병역의무와 선거권은
군인들의 표가 오랫동안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표로 인식되었거
나, 군인들의 부재중 투표를 통해 선거비리가 가능했던 사실 등과 연관되어
있다57). 병역의무와 정치적인 권리는 이렇게 제도정치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의 정치적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미친다.

대학가의 학생회 선거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 정치까지 병역의무의 유무는
중요한 자격조건이 된다. 2001년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에서 출마한 총학생회

후보자의 약력에는 군경력이 명시되어 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구분없이 '만기제대'라는 항목이 후보약력에 들어있었고, 후보 정책으로는 예비역 복학생
들의 권리 증진과 더불어 월드컵 공개 응원전과 같은 항목이 들어있었다. 또
B대학의 한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약력에 포트리스와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
에서의 계급을 명시하고, 야구동아리 회장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표는
2001년 A대의 총학생회 후보들의 약력을 비교한 것이다.

A대 2001년 총학생회 후보 약력	
운동권(민주민주NL계열)	비운동권
1976년 충남 ** 출생	1976 서울 출생
1995년 **고 졸업	1995 서울 **고등학교 졸업
1996년 A대학교 사회과학부 입학	1996 A대 무역학과 입학
1999년 만기제대	1996.2 군 입대
2000년 중앙동아리 **** 회장	1998.4 군 제대 (육군 현역)
2001년 20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1999.3 복학
34대 총학생회장 출마	2000 비운동권 학생 협의회(ASA) 의장
34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후보	2000 A대 벤처연구회(UNIT) 활동
	2001 33대 총학생회 후보국장
	2001 총학생회장 후보 출마

정제: 2002 월드컵 응원전 개최

스포츠 경기, 남성들이 주로 즐기는 게임, 그리고 군경력 등은 주지하다시피
남성성의 상징이다. 이 경력이 총학생회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투표라는 정치적 권리가 남성들의 집단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토론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군면과 출신부대를 명시한 글이
다. 군면과 출신부대는 남성들 사이에서 '남성'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
로 사용된다. 더욱이 군대에 관련된 토론장에서는 군면과 출신부대는 토론자
격을 입증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자격증이 된다.

지도 민주당사에서 (군가산점 폐지) 집회할 때 갔었는데 전투복 입고 갔
어요. 항의하는 표시로. 이제 진술적으로 보자면 남성들이 군가산점 폐지에

55) 이때 권리는 개인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한 국민들에 의해 주
어지는 국민주권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56)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1790년 올레 드 구즈가 <여성공민권의 승인에 대하여>라는 유
명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1세기 반이 지난 192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여성
들에게도 허용된 참정권은,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終戰)에 따라 주권을 되
찾으면서, 자동적으로 파라는 권리였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어진 선거권은 피선거권
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하였다.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16명으로 5.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는 2.2%에 그치고 있다.

57) 멀리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영국의 불려이 총리 등도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이
책임과 신뢰의 징표로서 자주 언급되며, 그에 반해 여성 지도자는 군사와 관련한 결정
에서 판단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다는 이미지 때문에 결정적인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곤
한다.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그 영향력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우 누리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몇 번 글을 올렸어요. 나는 군대 갔다는 예비역 남성이다. 내 군번부터 약 해서 어느 부대 나갔다는 걸 주욱 쓰고 현재 군가산점은 잘 못 됐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당시 여성들이 쓴 글은 엄청난 반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글에는 반박을 못하는걸 봤거든요. 아무도 리플을 못달고,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발언을 하면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했는데...(사제 14)

<사제 14>는 군가산점과 관련된 논쟁에서 남성 현역 복무자들의 발언은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존중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군필자들은 더 많은 의무와 더 많은 참여를 한 자로 취급되면서 정치적 발언을 조직하고 발화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면, 전쟁반대, 징집거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제 23>의 이야기는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사회적 제약이 얼마나 심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비자가 15일 짜리였는데, (일본에 있다가) 15일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문제가 됐으면 군 미필자에게는 어떤 이 단수여권밖에 안나와요. 단수 여권은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군 미필자 남자가 여권을 받으면 2천만원 이상을 낼 수 있는 보증인이 두 명 필요해요. 나 안들어오면 보상금을 내야하고 돌아가면 군대를 가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 김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보증인들에게 연락이 갔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국에 돌아갔는데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엄청난 수난을 받고 너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꽃집에 글을 썼어요. 한국의 아나톨리아라는 아나키스트 사이트에, 그게 갑자기 많이 읽히면서... 돌아와서 **랑 같이 군대 반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때 한국 정부는 외국의 비판에 엄청 약했고, 일본에서는 한국 징병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방영되고 있었으니 분위기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이트를 만들어보니 그렇게 많더라구요. 토론회를 세 번 열었는데 정작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터넷 웹진에서 여기 골라주는 놀음이 있다. 사상은 진보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안될 말이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사제 23)

<사제 23>이 징집거부를 하게 된 계기는 이와 같이 '개인적 권리'와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개인적 권리가 완벽히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이다. 그는 병역을 '미필'한 자신을 보충하기 위해 보증인 제도를 두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사회가 병역미필자를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중학생이 도쿄로 자기 동생 데려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인터넷에서 보고 모방한 거라고 해서... 그때 한창 인터넷 웹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때 9시 뉴스에서 '올라가는 병무청'이라는 군대를 어떻게 빼냐 그런 내용인 사이트가 첫 기사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권이 발동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문제가 된 군대 관련 사이트는 '올라가는 병무청'하고 다음에 있는 사이트, 그리고 제가 만든 사이트였는데 다른 두 사이트는 자진 폐쇄를 했어요. 저는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채워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없었죠.

연합통신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이랑 저를 골수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갑자기 동물이 오빠한 거예요. 우선 피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국가 보안법에 걸리면 뭐든 새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가 독당하고 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피해야겠어요. 그때 만난 한겨레의 **기자가 그냥 형식적일 걸까? 라고 하면서 많이 도와주었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불러가니까 어떻게든 일단락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갔어요. 7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서류가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하나는 통화기록,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호스팅... 그런데 쌓여있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또 거기 있는 컴퓨터에 요구의 리스트에 올린 예들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면 딱 뜨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그런 일 있고 나니까 이메일 사용하기도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행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군대를 사실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갈등이 되더라고요...(사제 23)

<사제 23>는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도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생각에서 [징집반대]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국가에 의해 '요주의리스트'에 등록되어 더욱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가지만, 국가에 그러한 권력을 주는 것은 군필자 예비역 남성들이다.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읽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글이 많이 올라왔고, 나중에 는 이메일 테러까지 당했어요. 제가 예비역 마초세끼들이란 글을 썼거든요. 군대는 살인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식으로 썼고, 그런 식으로 썼더니... (예비역들이) 걸가다 만나면 죽인다. 너 칼로 죽이겠다는 내용까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인터넷 웹진의 기사가 제 개인 홈페이지에 있던 사진을 퍼와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조작해서 기사를 실었어요. 얼굴이 다 공개되었죠. 아이피를 추적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사제 23)

<사제 23>은 군대는 살인을 교육하고 군대에 갔다오면 남성우월주의자(마초)가 된다는 글을 쓰고 예비역 남성들에게 집단적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예비역 남성들은 그의 개인 아이피를 추적하고 살해위협을 하는 한편, 인터넷 웹진의 기사는 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러한 징집 거부 운동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편다. 이렇게 그는 병역을 거부하면서 국가와 남성들 양측으로부터 처벌되고 감시되고 배제된다. 그는 군대를 반대하게 된 계기를 고등학교 때의 남성집단문화에의 부적응에서 찾는다. 그는 자신의 꿈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인데, 군대를 다녀오면 개인들이 제도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제 23>의 이야기⁵⁸⁾는 병역이라는 대가를 통해 남성들이 국가를 통해 남성화된 지배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병역의무를 해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비로소 보장받는다는 사회적 합의는 다른 어떠한 권리(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도 병역의 의무보다는 하

58) 그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나키스트 봉어의 무일푼 시위' 한겨레 2001.11.15/2001.11.29. 384/385호.

위의 권리로 취급하는 것이다.

2. 여성배제의 장치들: 비가시화와 차별의 정당화

남성들을 강제징집하는 '충동원체제'는 여성들에게도 역시 병역의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부과된 의무들은 병역의무처럼 국가에 대한 의무이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교환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지 않고, 개별 남성들과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사적인 화해으로 취급되며 비가시화된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일상화된 성매매와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장애인들을 차별하며 군복무를 보강한 군가산점 제도 등 남성들의 권리는 여성을 성적·경제적으로 전유하면서 보상되는 권리이다. 또한 남성중심적인 군대문화는 권위적인 가족체제를 강화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타로 인해 유지되는 군대의 위계질서에 익숙해진 남성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남성이 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⁵⁹⁾. 구타가 이미 혼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거기에 적용했던 군대에서의 경험은 여성들이 구타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를 호소하는 것을 남성답지 못한-열등한 행동으로 취급하게 한다.

사실 사회가 착각하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여자를 대했다간 큰 일나는 사회잖아요. 가끔 군대에서 남자들끼리 있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자들은 머리위로 손만 올라가도 죽을 것처럼 기겁을 하는데, 그건 그냥 장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끼리 노는 문화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다음날 똑똑 화해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사제 16)

<사제 16>은 남자들끼리는 서로 치고 받으며 싸워도 화해를 할 수 있는데,

59) 한국여성개발원이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부평등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와 아내구타에 대한 허용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군대에서의 일차'에 대한 폭력에 대해 남성들은 81.2%가 허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여성개발원, 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74)

여자들은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여성들의 사회적인 부적응을 탓한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오직 높은 계급만이 대접을 받고, 고참이 아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신병들이 고참한테 대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성적 접촉과 음담패설 역시 남성들 간에는 권력관계에 대한 긴장감 없이 '장난'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남성들간의 성폭력을 친밀감의 표시라고 은폐해온 경험은, 성적 괴롭힘의 문제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친밀감의 표시'에 과잉 대응하는 여성들의 문제로 이해하게 한다. 이처럼 군사화된 남성성은 그 자체로 여성들에게 위협적인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남성성이지만, 이같은 폭력은 모두 '적'으로 규정되는 '더 큰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은폐되거나,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무례정도로 사소화된다.

(거기 여자가 전혀 없는 곳을 모델화시켜놔야 하는데 다른 사회에 갔을 때 여자가 있는 것 자체에 익숙치않기도 하겠구나.)

용 모델이라는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가. 여기에서 여자는 성적 대상으로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여자거나 부하직원인 있으면 어떻게 다뤄야할지를 모르는거야.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남자 중고등학교를 겪은 애들은 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거지. 그렇게 중고등학교, 군대에서 완벽하게 사회의 모델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거야. 황당한 거지. (사례 6)

또한 <사례 6>은 남성들은 군대를 기준으로 조직사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성이 있는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군대식 조직생활과 남성들간의 위계질서를 공적인 삶의 방법으로 습득하면서, 여자 부하직원이나 여자 상사를 대하는 법은 '예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여성들은 남성중심적인 조직에 일방적으로 적응할 것이 강요되거나, 군대를 모델로 한 남성조직에 어울리지 않는-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비가시화된다.

권오분(2000)은 남녀공학에서 여성들이 군대간 남자친구와 애인을 보살피기도

록 요구받으면서 실제로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은폐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들은 성매매/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보살핌의 노동과 감정노동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보상과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만, 이러한 노동들이 사회적 영역에서 개별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남성들은 국가와 관련된 여성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곤 한다.

계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보상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조세 부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책임을 같이 나누어 진다는 면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 가능성은 존재한다는게 남성이 국방의 책임을 했듯 여성들이 그것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파생되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례 14)

<사례 14>는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왔으니, 그에 상응할 만큼 여성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남성들이 국방의 책임을 한 만큼 여성들 역시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하지 않냐는 이같은 의견은 국가산점 논쟁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남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성들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한다는 이같은 의견은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며, 여성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성중립적인 의무(남녀 등과 같은)가 아니다. 병역의무는 남성이란 성역할에 따른 의무였으므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려면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따른 의무를 하거나, 아니면 남성과 똑같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같은 논쟁에서 일부 여성들은 '출산'을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따른 의무의 증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과 '출산'은 동등한 가치로 인식되지 않는다. 공사이분법의 가부장적인 분류는 병역을 공적이고 강제적인 의무로 인식하고, 출산은 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김현미(2000:38-49)는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국가와 일터로 확장시켜나갔으며 '생산성'있는 민족주의적 집합체'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군사주의 공포 문

화를 통해 사회전반적인 무력화를 이루어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국가에 기여함으로써만, 여성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게 했다. 하지만 이때 국가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에서의 여성의 역할로 제한되면서 가족과 관련된 사적 부조로 취급되면서 다시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남성들의 병역의무가 남성성에 기반한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집단적 의무'이자 '집단적 권리'로서 의미화되는 반면, 여성들의 의무는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되면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 가산점이어야 하는가?) 호봉중에 군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합리. 후배나 가능한 일로 군복무로 인해 당장 수험준비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군필자들에게는 '그럼의 땀'일 뿐이다. 군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세금우대는 국가재정형편상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탈세능력이 있는 군필자들이 돈으로 군필자를 보상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군필자들에게 또 한번 짐을 지우는 것이다. (www.ssaw.co.kr에서 배포한 '군필자들의 대응논리' 중)

세금? 어차피 남자들이 돈도 벌고, 그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봤자 여자들은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다. 대가리에 든 거 없이 돈을 쓸 줄만 아는 년들..(나우누리 플라자)

남자들이 군대를 간 동안 여자들 자격증 시험까지 가산점 붙이면 되고, 영어시험 한 자라도 더 공부해서 토익도를 쫓아 올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여자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내 친구는 토익이 900점이 넘는 데, 대기업 취업 잘 안되던데)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우면 눈높이를 낮추면 되잖아요. 꼭 대기업 가야 하나. (하지만 2차 시험에서 그 친구는 영어와 테스트 다 1등이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죠. 그 기업이 문제지. 그렇게 억울하면 여자들도 군대 가요. (사례 16)

군의무복무자를 위한 연대 [싸우]와 <사례 16>은 남성들이 군대 간 동안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연구자가 그에게 비슷한 성적이면 남성을 뽑는 관행에 대해 지적하자 여자들이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여성들에 대한 이같은 차별적인 관행은 병역의무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남성들의 피해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는 것이다. '억울하면 군대에 가라'는 것이다.

병역의무 때문에 남성은 시간을 낭비하여 취업시장에 늦게 뛰어들게 되고, 경력에서도 뒤처지게 되는 등 여성에 비해 불평등을 겪는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현재 여성들의 총임금은 남성대비 64.1%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정규고용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동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산점과 같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해 발언한 여성들은 의무 없이는 권리가 없다며 '억울하면 군대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때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비가시화 되기 때문에, 남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군대에 갔다오지 않으면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군필자가 잃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공부를 중단해야 했으며, 3년간 육체노동이나 단순사무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당함으로써 지적 능력이 쇠퇴하게 되었다. 반면에 여성 등 미필자들은 그 기간동안 학원을 다니며 수험준비를 하는 한편, 자격증들도 딸 수 있었다. 따라서 군필자와 미필자들을 동등한 조건아래서 경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www.ssaw.co.kr에서 배포한 '군필자들의 대응논리' 중)

이렇게 군필자들은 군대기간 중에 시간을 낭비한 동안 미필자들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여성들 개인의 능력문제라고 말한다. 이렇게 병역의무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의미화되면서, 남성중심적인 권리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무력화된다. 여성들은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되므로, 여성들에 대한 배제는 성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에 대한 문제로 취급된다.

남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구분되지 않고, '국민'이자 '병사'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강제징집에 따른 보상의 문제는 성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성중립적)

60) 서울특별시, 2000, [서울여성백서], p 72

불평등의 문제가 된다⁶¹⁾.

데킨슨(1989)은 성차를 갈등과 다툼의 문제로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 위계 체계, 불평등으로서의 성의 실재를 은폐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별의 '사회적' 의미가 문제이지 성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갈등'을 평등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성별 위계에 대한 비판이 마치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갈등'의 기준이 남성이라는 점을 은폐한다. 이때 여성들은 오직 남성들과 같은 방식과 맥락에서만 남성들이 얻었던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 여성들이 남성과의 '차이'를 주장하면 그것은 '특별보호'가 되거나 여성성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여성들은 '남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하지만, 남성들은 '기준'이기 때문에 권리에 있어서 여성과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없이 '보편적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병역의무의 성별정치학은 여성들을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사회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상태'로 취급하면서, 여성은 완전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 받는 것을 합리화한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남성들간의 위계질서에서 예외이자 그 위계질서를 지탱하는 열등한 지위의 성역할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병역의무'를 통해 남성들을 집단화시키며 지배적인 남성성을 구축하고 여성의 권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하여, 병역의무를 통해 남성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하여 국민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는 남성들간의 차이를 삭제하고 집단적 주체로서의 '정상' 남성을

61) C.Mackinnon(1989), "Sex Equality: On Difference and Dominance", [I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만들어낸다.

집단대상자의 선별과정과 배치, 징집과정에서의 경험은 남성'들'을 '남성'이라는 단일한 주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몸은 등급화되어 특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남성들은 도태되고, 병사로서의 자격을 입증한 남성들은 철저한 신체규율권력의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신체적 차이가 신체적 우열로서 해석되는 과정에서 정상적 남성 신체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보증하면서, 남성들간의 그리고 여성과 남성간의 정상적 남성신체를 기준으로 한 위계를 만들어낸다⁶²⁾. 이러한 몸의 위계화는 정상적 남성 신체를 특권화하는 성별적인 위계이다. 남성 동성애자, 체력이 약한 남성, 군대부적용자 등은 모두 남성답지 못한 신체를 가진 비남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군대에서 만들어지는 남자다움에 대한 정의는 남성답지 않음을 여성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을 배제하는 정의이다. 남성들간의 위계는 억압분담에 대한 성별적 해석에 의존한다. 신병에서 병장으로 자동 진급되는 군대계급은 병장에게 모든 권리를 집중시켜주면서, 남성들간의 위계질서의 하위에 있는 남성들을 '여성'이라고 정의하면서 '남성'의 집단적 권리를 보전하고 지배적 남성성의 권위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때 남성이 아닌 존재로서 이해되는 '여성'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상화되거나,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의미화된다.

둘째, 획일적으로 집단화된 남성은 남자다움에 대한 정의를 독점하면서 지배적 남성성을 구축한다. 군대는 남성을 획일화시키며 남성들간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한편, 남성들만이 공유하는 경험적 공간을 제공해주므로써 남성들간의 동질성을 부각시킨다. 군대에서는 '적'과 '나'를 구분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정상적 남성 신체를 가진 군인 남성들로 표상된다. 군사훈련 등을 통해 같이 고난을 극복하고,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경쟁하면서 서로 남성다움을 증명한 남성들만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62) 페이트만(2001:142)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그들의 육체적 건강상태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기 아니라 기술 발달로 육체적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점차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적 강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남성들이 '강함', 즉 힘과 폭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리를 지속시키려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주차. 반성폭력

- ▶ 「성폭력에 맞서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울/2009
- └ 몸으로 읽는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변화에 대한 탐색
-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반격과 넘어서기의 구상과 실제
- ▶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교양인/2005
- └ 「피해자다움」이라는 성역할
- ▶ 「여성주의 학교 '간다」 한국여성민우회/지성사/2008
- └ 여성주의 인식론, 석수열리터 - 자기결정의 철학

제2장

몸으로 읽는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변화에 대한 탐색

허은주 _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시작하며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몸으로 읽는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변화에 대한 탐색”입니다. 왜 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몸을 키워드로 가져올까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변화를 키워드로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성폭력 상담을 하며 느꼈던 것을 나뉘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성폭력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말해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소를 찾아온 여성들의 상당수가 사회의 어떤 공간에서도 자기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달리 여성주의 상담자인 저

는 이 여성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와 공감이 중요하고, 잘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지와 공감을 하는데 그치면 ‘정작 나는 폭력 피해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가?’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지지와 공감이 상담의 최우선 원칙처럼 이야기되는 분위기에서, 상담원이란 버튼을 누르면 지지와 공감의 말을 자동적으로 쏟아내는 자동 응답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앞으로 그녀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 즉 지지와 공감 이후에 나눌 이야깃거리는 참 빈곤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좌표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지금 고��스러워한다면 더 행복한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이 강의를 준비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 경험을 듣다보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처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 그 힘든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시선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등 진지하게 경청하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짧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워 있는 자세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지지와 공감 이전에 “가해자가 두 팔로 당신의 목을 눌렀군요. 하지만 당신의 두 팔은 자유로웠는데 왜 두 팔을 쓰지 않고 피해를 당하셨나요?” 같은 궁금함입니다. 이런 궁금함을 상담원이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녀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두 팔을 모두 사용하면 몸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우선 목을 조르고 있어 옆구리가 드러났을 때는 주먹의 뼈 있는 부분으로 세계 옆구리를 친다든지,

뒤에서 목을 잡았을 때는 단단한 팔꿈치로 잡고 강하게 상대의 옆구리를 타격하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옆구리를 쳐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변화를 위한 키워드 '몸'

'이후 똑같은 피해상황이 겹쳤을 때 어떻게 달리 대처할 것인가? 다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생각을 상담 과정에서 여성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지와 공감이라는 중요한 여성주의 상담 원칙을 이야기할 때도 변화에 대해, 즉 '나는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대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상담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좌표를 찾기 어려워 상담 자체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힘 기르기(empowerment)가 있습니다. 여성의 힘 기르기는 변화에 대한 탐색과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힘 기르기는 내면의 힘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는 것이 여성의 힘 기르기로 설명됩니다. 힘 기르기라는 용어를 성폭력 상담원 교육 때 이야기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세계를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틀, 그중에서도 주로 사회구조에 대한 설명을 중시해 다뤄왔습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폭력이 무엇인지 규

명하기 위해 여러 구조와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규범들, 즉 성별 규범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설명이 시도됐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조는 가부장제이고, 가부장제는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는 기제를 통해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여성들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큰 힘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피해는 당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당신만 입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성폭력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같은 설명이 강력한 예입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부여하는 혁명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힘을 빼버리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전의 양면입니다.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성폭력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구조가 성폭력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개별 피해자를 만나는 활동가인 우리가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는 기제입니다"라고 말하면 매우 허탈해집니다.

가부장제는 각자의 머리에서 떨어져 존재하는 추상적인 틀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제도와 규범이 여성들의 자궁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여성 개인에게 가부장제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부장제에 대한 설명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가부장제를 여성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이후에 일 상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수동적이어야, 여자가 하긴 필 해?". 이것이 일상적으로 개인들이 경험하

는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내용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도 남성들과 동등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애는 여자가 키워야지', '그래도 성폭력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일찍 다녀야지'라는 굉장히 모순된 생각도 한 개인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당신은 평등한 권리를 가졌습니다'라는 말과 '그래도 이 사회는 아직 여성들에게는 위험하니까 현실적으로 자신을 조금 통제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관념이 공존하는 문화가 여성들의 힘을 뺏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힘 기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을 빼는 사회에서 여자들끼리 힘을 키우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힘 기르기를 말하기에 앞서 여성단체의 위치, 혹은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폭력과 차별을 이야기하는 성폭력상담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성단체들도 역사가 오래되고 성폭력상담소도 2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여성운동이 대중화되자 성이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과 몸이 폭력과 피해로 경험된다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꼭 성폭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이라는 말을 접하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어떤 경험이 떠오르나요?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것들이 섞여 이름 붙이기 어려운 나머지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번역될 수 없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이라는 이슈를 성폭력이 아닌 다른 말들로 풀어보자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망 찾기 초급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꾸준히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은 성폭력만이 아니라 욕망이기도 하고, 자위(masturbation)이기도

하며, 성관계할 때의 체위이기도 하고, 관계이자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위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금껏 생각했던 폭력과 피해의 개념이 변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을 이야기해야만 성폭력 피해를 극복한다는 압박은 이런 프로그램의 운용 사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를 통해 자신의 몸을 더 단련하면, 성폭력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뿐더러 자존감도 높아지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섹스를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여성들은 꼭 성폭력을 주제로 이렇게 많은 운동을 지속해왔고, 왜 여성단체들 중에 성폭력, 성희롱, 데이트강간, 가정폭력, 성매매를 다루는 단체가 많을까요? 폭력과 차별, 고통으로 경험되는 '성'을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회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에 있어 굉장히 폭력적인 피해에 집중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온 것이 여성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여자 팔자 더럽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성폭력은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므로 가해자, 혹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2차 가해자인 국가와 경찰이 부정한 것이다"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으로 대체됐습니다.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이런 주장은 이제 성폭력상담소에서 통용되는 상담 매뉴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적 변화를 시도해왔던 여성운동, 혹은 상담소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다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다중인격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존

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진정서 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강간으로 상담소를 찾아온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알겠지만 그 상황을 경찰에게 진술했을 때, 경찰은 이해하기 힘들겠다는 것을 상담원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다섯 번의 피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고소해놓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좋아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강간이었습니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 진술을 다시 하고 재판까지 갑니다. 판사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정서에 솔직히 쓰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습니니다. 판사는 대뜸 "어쨌든 연애편계네요. 결국 내심 동의한 거 아니었어요?"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상담자는 그 여성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찰 진술할 때부터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거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 여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 여성과 함께 이 사회의 가부장제 규범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에서 그녀의 경험을 재단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 나는 실제 여성의 삶과 다른 규범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떻게 출발했고, 그녀의 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때문에 관계를 거절하지 못했는지에 놓인 복잡한 맥락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냈을 때는 재판에서 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내담자 여성과 전략회의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대차게 재판장한테 욕하거나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가해자에게 삿대질하며 욕하지는 마세요"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호감이나 동정심을

을 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실제 여성의 삶과 다른, '규범적인 여자다운 여성의 삶'으로 이야기를 각색해 누가 봐도 '피해 입었을 만하네, 고맙스런것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만 골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진정서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실제로 재판장님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사법부와 어떻게 하면 맞설지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법부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아니라 1년이라도 징역을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지원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할수록 비판적 시각이 크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이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 삶, 본격적으로 삶과 일상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니 (화가 나도) 좀 참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겪는 갈등입니다. 이는 폭력 피해를 법적·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는 등의 사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입니다.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안고 오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높아진 여성의식'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상의 괴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당당한 여성, 평등한 여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저녁 8-9시쯤 집으로 가는 길의 어두운 골목을 걷다보면, 무섭기도 하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성을 당당한 주체라고 이야기해왔지만 동시에 폭력과 차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나 또 이렇고 있어'라는 것을 느낍니다. 밤길 되찾기 시위에 참여하면 일부러 노출

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야한 옷이 문제냐? 야한 옷을 입었다는 핑계로 성폭력을 하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를 방치하는 이 사회가 문제다"라는 주제의 식이 밤길 되찾기 시위의 콘셉트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밤길 되찾기 시위를 할 때는 가슴이 다 보이는 쪽 파인 셔츠를 입거나 속옷 같은 바지를 입거나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밤길 되찾기 시위에서 야한 옷을 입고 급진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 나의 권리와 어두운 골목에서 나 홀로 품고 있는 현재의 공포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버지의 가부장적 인식과 삶에 분노하지만 여전히 힘없는 아버지의 기 살리기를 하고 있는 딸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성폭력 가해자일 때 "넌 성폭력 가해자야, 이 새끼야"라고 따지며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건 캄캄한 마루의 소파에 앉아 혼자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 가슴 한쪽이 쓰러진 감정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가장인데, 아버지가 가장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잘잘못을 묻는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들이 많습니다. '가장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가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지식입니다.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사랑하기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의 공존은 모순적이지만 우리의 삶이자 현실입니다. 이런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뭘까요? 굳이 사법부에 남작 없드리지 않고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제안은 '말을 바꾸기보다 몸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

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기에 말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3.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몸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몸이라는, 어렵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은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몸, 즉 뼈와 피와 살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문제시되지 않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내 차를 추월해서는 차문을 내리고 "이 쌍년아,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나보고 그런 거야?'라며 너무 놀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죽을힘을 다해 쫓아가 뺨뺨거리고 비상등을 켜며 그 차를 갇길에 세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자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차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운전을 거칠게 한 사람일수록 꼭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당장 삿대질을 시작하고 기차 화통을 삼아 먹은 듯이 커다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술투경 운전이나 하지, 여자가 왜 차를 갖고 나오는 거야." 대뜸 반말로 기선을 제압해옵니다. 그에 반해 많은 여성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제스처와 몸놀림에 너무 익숙합니다. 실제 이런 순간에 어떤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왜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그건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상대방은 거친 상육을 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 여

성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쪽에서 거칠게 나올 때에 대비해 이쪽에서도 평소 모습인 '나'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혼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라는 식으로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자기 몸을 다른 장(場)으로, 자기가 써보지 않았던 몸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몸에 대한 키워드로 '자발적 종속'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플라세보(Placebo)라는 영국 록 그룹의 노래 중에 「프로텍트 미 프롬 왓 아이 원트(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뭔가 시적인 말이죠? 어렵고도 힘든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연애 경험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연애 경험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끌렸습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나를 심드렁하게 대해도 그냥 헤어지자고 할 수 있습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

는 사람의 고통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욕망하지 않는다면 고통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연애 상담을 하겠다는 친구들을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은 새롭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니? 그렇게 단순하고 너한테 사기나 치는 남자한테 빠져 있으니 참 걱정된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더 좋은 사람 많으니까 다른 사람 소개해줄게"라고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욕망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속에 심한 폭풍우가 지나가야 시간도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연애가 아닌 다른 사건들이 생기고, 다른 관계가 이뤄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는 나의 역사가 계속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나에게 익숙한 몸의 느낌과 습관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를 점점 덜 원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욕망하지 마라." 이게 앞서 말한 플라세보의 노래 제목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성폭력 피해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종속적으로 주체화되는 몸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비슷합니다. 종속적으로 주체화된다는 것은 모순 어법입니다. 종속이라는 말이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외부 압력에 따른다'는 말이라면 주체화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종속과 주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듯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

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다이어트, 결혼제도, 성매매 같은 성별 규범이나 성차별적 제도들을 매우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의 설명 틀을 갖고 설명하다가도 어느 순간 예쁜 페미니스트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몸매와 표정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에서 '팔리는' 표정, 분위기, 생김새 등의 외모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모를 지녔고 매너를 갖춘 사람의 말발이 통하는 경우를 겪어봤을 겁니다. 이 사회에서 주체가 되고 적극적 발언권을 가지려면 어떻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규범에 맞춰야 합니다. 즉, 이 제도와 구조에 종속되고 그 구조에 내 몸을 맞추면서 사회의 성원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권력을 설명하는 틀이 이와 유사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죄수에게 공적 공간에서 신체 형을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을 쫓아 죽이고 태워 죽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몸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통제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파괴되는 신체를 보며 권력의 존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근대의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은 밀실에서 행해지고, 개인들은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춥니다. 이를 자발적 종속, 주체적 종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적인 권력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가부장제와 성별 규범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통제한다는 생각 자체를 잊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몸을 해석할 때의 핵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몸'에 붙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이어트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뚱뚱하면 개울러 보이잖아"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성에 결혼을 안 하면 평생 사회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예민하고 끈질기게 히스테리를 부리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험 살아 결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말합니다. 강제적 지배를 통하지 않고도 권력과 위계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심지어 1학년인데도 화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색조 화장 세트를 팔 정도입니다. 성별 규범이 익숙해지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규범은 시장과 결합해 상품을 만들어내고 구매됩니다. 규범과 위계에 대한 비판 능력이 있다라도 규범과 위계가 요구하는 사람이 됐을 때 누릴 행복감을 포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도 '아이스끼끼'를 하나요? 예전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딸들에게 분홍색 원피스와 흰색 타이즈를 입히는 것이 '로망'인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옷 깨끗하게 입으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흰색 타이즈에 구멍이 나거나 운동장에서 땀굴며 놀다가 옷이 찢어지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 깨끗하고 한 점 더러운 원피스와 타이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10대 여성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거나 달리기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런 활동적인 운동을 흰색 타이즈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하면 참 억울해질 일입니다. 예를 들어 뒤에 큰 리본이 달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흰색 타이즈를 신고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이 차마를 들어올리고 '아이스끼끼'라고 하면서 도망가서는 자기들끼리 킥킥칩니다. 이 여자애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 팬티를 본 너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여자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웬지 창피해하면서 쫓아가 혼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울기 일쑤입니다. 아이

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남자애들을 불러 “힘센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면 쓰나. 보호해줘야지” 하며 타이릅니다. 그럼 여자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선생님은 자신을 괴롭힌 부당한 남학생에게 자신이 느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언젠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기도 하다는 건가? 왜 저 씨가지 없는 놈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며 집으로 가서는 부모와 가족을 만납니다. “담임선생님이 힘센 남자애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래. 근데 나는 미워죽겠어. 때려주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딸이 울고 있으니 화가 나다가도 우선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 너무 예뻐서 그래. 널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때 이 여자애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이 세상에 대해 이상한 해석 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은 복수심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나 화가 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개가 다음에 또 너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가 너를 때리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방 어해. 그러다가 내가 맞더라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를 괴롭힌 그 녀석 잘못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자아이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밖에서 네 (여자)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게 ‘정의(正義)’라는 거야.”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여성은 자기가 ‘정의로로운 사람’일 수 있음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힘센 남자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성별

에 따른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는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관계와 삶의 총체로서 자신의 비전을 형성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비전을 갖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생기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나 인생의 가치를 형성하며,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무기력하거나, 누군가가 괴롭혀도 눈물만 흘릴 뿐 도와달라는 말밖에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적당한 사회규범을 몸에 체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미 몸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해볼까요? 앞서 욕망은 고통의 다른 얼굴이고 더 사랑할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를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해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고통 중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그럴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입니다. 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그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만 있기도 합니다. 수치심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욕망하는 것일까요? “여자는 정숙해야 해. 여자한테는 ‘정적으로 정숙하다’는 가치가 최고야.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아봤자 여자가 ‘걸레’면 무슨 소용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말들이 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장과 자의식이 강한 여성이고 그에 대한 자긍심이 있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싫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성적 수치심에 따른 고통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어서 괴로워라

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 고통은 어느 욕망과 맞닿아 있을까요?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정숙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욕망하는 것과 닿아 있습니다. 이를 원하면 원할수록 자신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정숙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이든 섹스 경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이든 간에, 남자가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에게 정숙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정숙한 여자가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지? 내가 중요하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욕망한다고 느낀 것은 사실 나의 욕망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다른 행복을 욕망했을 수도 있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상담원 선생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남자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요? “남자는 사기그릇이고 여자는 유리그릇이야. 사기그릇은 깨지면 불일 수 있지만 유리그릇은 불일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해.”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은 부모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자기의 성폭력 피해보다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병을 앓으며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어떤 가족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가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가요?”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성폭력 상담의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등을 묻지 않는다면 고통을 직면하기 힘듭니다. 가족에 대해 질문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이 이야기

를 놓아버린다면 여러분이 피해 여성들을 만나는 의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술을 먹었지? 그때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하지만 이 회한 어린 자책은 “어째서 이 사회는 성폭력을 입은 여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다른 활로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인생의 행복, 여자로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질문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상담하다보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놓칠 수 있고, 이를 나누는 방법을 훈련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연결되는 욕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로 전학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걸레’라고 소문이 난 친구였습니다. 학교 ‘일진’이 있는데 그 일진의 일등부터 십등까지 그 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아이가 없고 낙태를 몇 번 했다는 식의 소문이 휩쓸자 그 친구는 그 소문 때문인지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걸레’라는 말. 누군가를 ‘걸레’라고 말하면서 욕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한 후에 저는 사람한테 걸레라고 하는 것은 몹시 모욕적이고 기분 나쁜 것임을 중학생일 때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남자와 섹스를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매우 은밀한 부정행위이다. 나는 절대 걸레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순결교육이 이뤄져 왔고, 여기에는 성별화된 규범이 존재합니다. 자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공부에 집중하게 하려면 아들 방에 ‘크리닉스 티슈’를 넣어주라는 말을 합니다. 딸에게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크리닉스를 넣어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성교육에서 섹스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아이를 낳을 몸이니 청결해야 한

다'는 위생 문제를 언급할 뿐입니다. 많은 것들이 성별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고리타분한 순결교육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식의 규범이 재생산됩니다.

힙센 여자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개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신혼여행 첫 날밤에 여자를 살짝 들어서 침대로 살포시 던지는 것은 로맨스이지만, 반대로 팔 근육이 우람한 여자가 남자를 살짝 들어 침대로 던지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남자가 들 수 있을 만큼 여자가 가벼울까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찍을 때 NG가 많이 나는 것도 여자가 생각보다 무거워서입니다. 여중생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에 잘 다려진 교복 치마, 베이비비시온 냄새. 하지만 실제로 여중생 교실에 가보면 더럽습니다. 치마 속에 체육복을 끼입고 세 계단씩 올라가다 치마가 찢어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여자 중학교에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여중생의 이미지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미지는 그렇게 다릅니다.

힙센 여자는 멋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지도 못한 경험담 보다는 누가 자신을 공격하려 할 때 상대방의 앞구리를 가격해줬고, 무섭지만 상대방을 가격하고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훨씬 멋집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 상담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는 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고, 규범, 교육, 주변의 소문들을 통해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 결과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살래. '겨털'(겨드랑이 털)도 없고, '결레'도 아니고, 힙도 세지 않은 여자"로 살고 싶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규범에 맞춰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마치 전 세계에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원하게 되고, 그것에 종속된다고 이야기되는 주체는

어떻게 해방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만 기억할 것은 제도나 규범, 성별 이데올로기, 성별 이중 규범, 여자를 창녀와 성녀로 나누는 성적 등급화 같은 제도나 규범 등은 단지 개개인의 몸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제도는 절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규범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익숙하게 움직여야 제도가 유지됩니다. 즉, 권력관계, 피해를 만드는 구조는 개인들이 그 구조에서 요구하는 규범이 몸에 자연스러울 때 비로소 원활하게 유지·재생산됩니다. 이를 체현(體現)된 규범이라고 합니다. 체현은 몸에 딱 붙었다는 것, 즉 이유를 반문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범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몸이 변화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의사소통하는 몸

몸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의사소통하는 몸'입니다. 의사소통은 보통 '너와 내가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언어) 이외의 것이 의사소통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미 몸으로 파악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의사소통의 거의 70퍼센트 이상이 비(非)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밥을 먹기 싫지만,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느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먹으면 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상대가 "밥이나 먹고 가세요"라고 하면 "악속이 있어서……"라고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몸으로 서로의 느낌을 소통해 아는 겁니다.

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상대도 나의 불편함을 감지합니다. 몸의 메시지는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말 이전에 이미 몸으로 뭔가 오갑니다. 시선, 눈빛, 제스처, 손가락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말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의식할 필요가 없기에 빠르게 몸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이는 일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꾸중을 들 때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을 똑바로 쳐다봐?"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훈련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혼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 여러분은 혼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는 혼내는 위치에 있고, 누군가는 혼나는 위치에 있어야 '꾸중하는 순간'이 만들어질 텐데, 둘 중 하나가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꾸중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선을 아래로 향해야 한다는(이른바 '눈을 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몸 훈련을 거쳐서 터득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어른을 쳐다봐!" 이런 말을 100번쯤 듣다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꾸중하는 상황이 되면 자연히 위축됩니다. 위축된다는 것은 몸이 특정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깨가 움츠러 들고, 시선은 다소곳하게 발끝을 쳐다보고, 두 손은 앞전하게 마주잡아 최대한 상대에게 복종하는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혼날 때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눈을 깔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굴한 몸이 될 때 상대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럴 경우 상대의 비위를 가장 잘 맞춰 당시의 감정을 최소화합니다. 신입사원과 사장이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장이 "자네, 집은 어딘가?" 하면서 어깨를 톡톡 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이미 아우라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입사원이 사

장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서 어깨를 톡톡 칠 수는 없습니다. 사장과 신입사원이라는 권력관계는 몸의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라는 것은 '당신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꾸중을 듣고 있을 때 상대를 도발적으로 뻘뻘 쳐다보거나, 사장의 어깨를 톡톡 치는 몸의 움직임은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권력에 도전하므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입사원이 회사를 오래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아닌 몸으로 권력관계가 유지되고 재생산됩니다. 이 예는 낸시 헨리(Nancy Henry)가 쓴 '몸의 정치학(Body Politics)'에 나옵니다. 이런 권력관계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몸의 상호작용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그 권력관계를 부드럽고 오랫동안 유지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차별과 관련한 예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미국 사회에 사는 흑인인 당신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의가 바른 태도가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당신이 입사를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찾아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면접실에 앉아 있는 면접관이 모두 백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불편함을 느낍니다. 면접관들은 다른 백인 피면접자들보다 유독 자기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 능력에 자부심이 있던 당신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모습은 백인 면접관이 갖고 있는 '흑인에 대한 편견'을 입증합니다. 백인 면접관은 '흑인은 무능력하고 자신감 없으며 공적 장소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흑인 피면접자는 백인 면접관 앞에서 스스로 신경질적이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백인 면접관들이 흑인

피면접자에게 조직의 비전을 묻는 대신 "혹인이지만 잘할 수 있겠나?"라고 질문하는 순간, '상대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과 태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전달하는 액션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 맞게 리액션을 합니다. 상대의 액션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결국 흑인은 백인의 인종차별주의에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 생각하는 흑인에 대한 편견대로 대응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백인과 흑인 간의 권력관계는 몸을 통해서 재생산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권력은 우리의 몸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구조적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됩니다. '흑인은 원래 그래', '여자는 몸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조심했어' '아직 왜 밤에 늦게 돌아다녀?'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여자들의 이동권,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박탈은 '여자들은 원래 그래'라는 생각으로 정당화됩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원래' 그런 것이 없는 데도 말입니다.

부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유대가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무술을 오랫동안 배운 언니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몸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죠? 예전에 이 언니는 터미네이터처럼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해서 몸에 밴 겁니다. '나는 원래 풀리는 것이 없다! 누가 나를 때리면 바로 상대의 팔을 쳐낼 수 있다'는 느낌이 몸에 붙어 있었답니다. 이 언니가 중학교 1-2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던 중에 큰언니와 아버지 사이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본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를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해도) 때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를 막아서기보다는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그려질 텐데, 이 언니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뒤에서 꼭 껴안고, 무릎 뒤편을 자기 무릎으로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뒤로 비틀어 각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언니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했지?'라는 생각은 몸이 우선 움직인 다음에야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으로 뭔가 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파악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녀 관계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예절을 갖추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몸적 소통입니다. 아버지가 딸이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물론 부당한 일이지만) 상상할 수 있어도 반대 상황, 즉 어머니나 딸이 아버지를 때리는 장면은 어색하고 웃기거나 '패륜'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다고 치부됩니다.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버지가 딸을 때렸다고 하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런 몸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협상하는 것은 몸적인 협상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때리지 말라고 애원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나가든지 다리가 올라가든지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깨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몸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공격이 안 되면 잘 피하는 기술을 터득해 상대의 '때리려는 의도'를 실패시켜야 합니다. 부녀 관계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폭력 상황을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녀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몸'이 아니라, 그 몸을 벗어나 다른 몸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소위 '적벌남' 때문에 불쾌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소통은 액션과 리액션입니다.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어야 상황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리를 벌린 사람은 말 대신 몸으로 이미 자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리 좀 벌려도 되겠지? 나는 내 옆 사람이 불편한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도 감각도 없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다리를 벌리고 신문물 꼭 펼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데 어째서 옆에 있는 여자는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않게 느껴질까요? 적벌남 사이에 있는 여자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 여성은 '밀쳐내는 것이 왜 이리 어렵지?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리액션을 하는 셈입니다. '불편해도 뭔가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힘드니 그냥 있을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칸으로 가거나 '다리 좀 오므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공공거리며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상대에게 보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적벌남의 메시지에 대한 위와 같은 응답은 그냥 있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면 남녀 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팔을 휘젓는 각도, 보폭, 자기 몸을 기준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폭, 시선 등이 다릅니다. 특히 시선을 타인에게 두는 것을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시선을 주는 것을 얼마나 익숙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몸놀림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을 많이, 크게, 다양한 방식으로 써본 사람들은 몸놀림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남자와 여자가 원래 다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몸을 무척 다르게 써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놀림이 달라지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 날아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공을 어떻게 하시나요? 공을 가지고 놀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 어, 어, 공이 오네, 오네" 하다가 그대로 맞습니다. 머리로만 피할 수 있음을 알지만 실제로 공을 피해 보거나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피할 생각을 못하거나 반사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고, 공은 등을 때립니다. 공이 오면 피할 수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공을 치거나 막는다는 것은 내 공간이 넓다는 뜻입니다. 내 공간으로 들어온 이질적 존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자신의 공간이 넓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공에 대해, 세상의 다른 물체에 대해, 타인의 행동에 대해 무방비상태라는 것은 내게 속한 공간이 그저 내 몸 자체일 뿐임을 말합니다. 주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몸 공간이 넓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수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함에 대한 감수성은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작으면 내 공간이 딱 그만큼입니다. 내 공간을 누가 침범했을 때 "이건 내 공간이거든?"이라고 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나는 위축되고 축소된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당수의 성폭력 혹은 폭력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나누는 의사소통의 결과로 완성됩니다. 가해자는 '여자니까 나보다 힘도 약하고 날 무서워할 거야. 난 잘못도 가졌으니,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한 손으로 입을 막을 수 있어. 입을 막아버리면 여자니까 위축될 거야'라고 기대하며 가해를 시도합니다. 많은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가 원하는 바로 그 몸으로 변화합니다. 마치 흑인이 면접을 볼 때 백인 면접관이 기대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렵고 위축감을 갖는 순간 몸이 확 얼어버려

서 소리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가 판단하기에, '어려 보이고, 몸도 약해 보이고, 여자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라고 생각하며 가해를 시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 손을 물거나 옆구리를 칠 수 있고 소리를 엄청나게 지를 수 있습니다. "깹"하는 소리가 아니라 뺨속에서 나오는 짐승의 소리를 지른다면 가해자는 움찔하고 놀라면서 '이 여자 뭐야?' 하고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럴 때 고환을 세게 친다든지, 정강이를 친다든지, 눈을 찌르는 행동을 하면 적어도 100미터쯤 달릴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면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상황이 바뀐다면 성폭력 피해의 순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될 뻔했던 여성이 가해자가 기대하는 몸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 입을 뻔했지만, 그 자식이 나를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쳤어"라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 후 상담하고 치유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의 의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의도, 피해자가 무기력할 것이라는 가해자의 기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 즉 무기력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이 만든 메시지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성폭력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가해자의 의도가 실패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봅시다. 버스에서 누가 내 엉덩이에 자기 페니스를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나보다 어린 여자니까 내가 엉덩이 좀 만져도 가만히 있겠지'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까지 자기가 버스에서 만지고 추행했던 여자들이 별 반응 없이 부끄러워하면서 가만히 있거나 황급히 버스에서 먼저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경험칙에 근거해 역전을 하는 겁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성추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하러 찾아온 여성에게 "그것은 성추행이 맞습니다. 「성폭력특별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나 증인, 증언해줄 목격자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기동수사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라는 식의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죠? 물론 이런 정보를 내담자에게 드리기 위해 우리도 많은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알려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사용해서 훈련할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모의 상황(simulation)을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격당했을 때 어떤 몸의 반응이 주로 나오나? 이제까지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왔나? 그때 상대의 반응은 어땠나?" 같은 질문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내 몸이 상대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반응만 보았다면, 이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해보는 겁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라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대차게 소리를 질러보는 연습, 욕을 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의도한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일이 많이 생겨날 수록,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성폭력 피해는 줄어들고 많은 여성들이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무용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나 만만하게 본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뼈도 못 추렸지"라거나 "전에는 물렸는데 나 전생애 싸움닭이었나봐. 너무 잘 싸워"라는 식의, 자기 몸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로 인한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연히 피해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순간들은 뒤엎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세상, 이들이 체험하는 세

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엉덩이를 은근히 비비고 있는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욕을 할 수도 있고, 신발로 상대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로 상대의 정강이를 때릴 수도 있고, 페니스를 꼭 잡아버리거나 사람들에게 "여기 이 사람이 자기 꼬추를 내 엉덩이에 비비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남자의 메시지에 '사람 잘못 골랐거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야'라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실행에 옮겨질까요? "감히 나를 건드려?"라는 생각은 있으나, 남자 페니스를 만지는 것이 끔찍해 손을 댈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상대의 페니스를 움켜쥐고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때려본 적도, 욕해본 적도 없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발등을 찍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고, 페니스에 대한 공포감보다는 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반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보통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몸의 모양새, 행동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여자다운 규범이 요구되고 가해자에게는 남자다운 규범이 요구되는 몸바꿔가 어긋나면 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상대의 의지는 실패하게 됩니다. 가해 의도를 갖고 나를 공격하는 상대에게, 그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여성들은 성폭력상담소에 찾아오지 않고도 이런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하철 성추행 같은 사건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여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든 상담원들이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그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게는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몸 훈련들이 이뤄질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주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3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몸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써보는 경험을 통해 여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와 전략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여자들은 특하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말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지다가, 남편 혹은 남자 친구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 여자 친구나 부인의 뺨을 때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본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맞았는데도 분노하기보다는 눈물만 흘리는 여자 배우를 보면서 속이 터지기도 합니다.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때리려는 생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게 "때리지 마세요", "오빠 왜 이래?", "오빠 나 사랑했잖아?"라며 계속 말만 할 건가요? 심지어 그런 남자들은 때리고 나서도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로맨스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널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때리도록 둘 건가요?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 관계를 맺기 위해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선 그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때리려는 사람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뺨을 때릴 때 맞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팔을 이용해 막거나 상대방이 상상하지 못하는 '개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방귀를 뀌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 상황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협상카드를 몸이라

는 사실을 많은 여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협상력이 없다면, 누구와 관계를 맺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상대가 예의바른 사람이라면 갈등 상황에서도 우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상대한다면 주먹 한 방에 "살려주세요"라고 빌면서 한순간에 비굴하고 모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 몸으로 다시 읽기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가상 상황을 설정해 성폭력 피해 경험을 몸으로 읽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상황 1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와 나를 근처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가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액을 마시게 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상황 2 술만 마시면 뺨아버리는 여성이 있다. 술을 마시는 상대는 늘 다른 남성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같이 마시는 남성들에게 강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상황 3 결혼한 여성이 있다. 아이는 대학생이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친구 찾기 사이트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알게 되어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그 남자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강간 피해가 있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불안해한다.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여성은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고소도 안 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옷도 다 버렸습니다. 이 여성이 말하는 것은 '신고하고 싶고 고소해버리고 싶다'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압도되어 자신에 대한 정보도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자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해자에게 도청되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법적 지원', 즉 경찰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 신고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피해자들을 협박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협박이 현실화되기도 하므로 협박 내용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에, "가해자가 협박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신고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 앉아 있을 여성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이 여성이 여전히 가해자의 협박과 폭력에 압도된 나머지 그 상황을 현재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아무런 액션도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음을 피부로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 싫고 괴로운 겁니다. 이 여성의 공포와 무력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나는 피해 상황에서 너무 무기력했고, 지금도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당하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그녀의 고통을 극대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탐색은 실제로 내 삶에서의 그리고 구체적 장면에서의 나의 반응에 대한 '변화'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앞으로 또 비슷한 상

각각의 사례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상담하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변화에 대한 탐색이라고 한 만큼 '몸'으로 경험을 읽는 것이 상담에서 여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데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변화를 탐색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이분의 피해를 들으면 많이 압도되고 걱정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교육생 1 그 상황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었음을 인정해주면서, 그 상황에서는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과 여전히 남아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 상황에 처한 것 자체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간주합니다. 피해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네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난을 듣게 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특별히 이상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교육생 2 지금 전화했을 때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전화했을 테니, 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화나 면담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논의하며 상담을 통해 도달할 목표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함께 설정할

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친밀감 형성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상담 현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가해자에게 오를 섹스를 강요당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지면서 자신이 싫어집니다. 오를 섹스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분은 피해자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짐작하시나요? 오를 섹스의 피해에는 남성의 페니스에 대한 혐오나 공포심이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피해자 여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의 페니스는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살덩어리입니다. 페니스에 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기하면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다른 신체부위보다 더 외부 고통에 민감한 살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페니스는 유약한 외관과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자기 페니스를 꺼내 자위하는 사람을 '바바리렌' 혹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존레논(조니 레논)'이라고도 했습니다만, 바바리렌들이 자기 방 침대가 아니라 공적 장소에서 자위할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은 자기 페니스를 보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의 페니스만은 힘을 과시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살덩어리일 뿐인 페니스가 황당할 정도의 힘을 지닌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남자 페니스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 감수성은 강간 피해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상담할 때 사회적 의미의 페니스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여성이 느끼는 고통, 말하지도 못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페니스를 입으로 빨았다는 것이 왜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은 페니스를 보는 우리 사회의 규범과 관련됩니다. 남성의 페니스를 깨물 수도 있고 씹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페니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그와 관련해 이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 여성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행복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신체적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무기력감은 실체가 없는 공포입니다. 실체가 없는데도 그 공포는 절대적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원들은 실체 없는 공포와 무기력감을, 대면할 무언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페니스를 빨았다고 해서 당신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고 함께 말하지 못하고, 그저 '고소 과정에 대한 (법적)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그녀의 고통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녀의 고통에 다가가기 위해 욕망에 접근해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상황은 술만 마시면 뺄어버리고 강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 놓일 때마다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일어날 피해도 당신 잘못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피해도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에만 그치면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당신 잘못은 아니지만 피해가 일어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피해 상황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황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면,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의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소 기계적으로 사례를 넣기는 했지만, '애교'

는 여성화된 의사소통 방식이자 성적인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애교와 콧소리에 익숙한 여성이 술만 마시면 뺄어버리고 동성한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상담소에 전화를 하는 경우, 이 여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앞으로는 (이제까지처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일 겁니다. 아마 저는 술을 마시면 드는 기분, 술을 마시고 나서 주로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몸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대의 의지가 있고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응답해야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애교를 통해 섹스어필하는 데 익숙한 여성을 앞에 둔 상대 남성은 '저런 성적 제스처는 한 번 자지고 하는 거야'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물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만 논의를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어떤 남자들(가해자)은 당신의 의도를 오독하는군요. 그러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해봅시다.

중요한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술을 마시다 옆자리로 왔을 때 자신의 행동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옆자리에 앉는 것은 불편하니까 다시 자리로 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별다른 의도 없이 다가온 사람을 오해하게 될 것이 미안해서요"라고 한다면, 그녀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여성과의 의사소통에서 '성적 도발'을 보고 '성적 유혹'을 느끼며 반응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이 여성의 의사소통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교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과 많은 남성이 그런 의사소통을 해석하는 공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저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관 가서 손만 잡고 자자는 남자들의 말을 계속 믿어주고, 갈 때마다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을 강간하는 남성들에게 분노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상담원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만 주고 있다면 그만큼 무력한 상담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나요?"라거나 "상대의 말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라는 식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성폭력 피해 자체에 대해 상담하기보다, 자기가 피해 입은 것을 남편이나 부모가 알게 될 것을 더 걱정한 끝에 전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막상 통화를 해도 자신의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알까봐 미치겠어요. 제가 상담하는 거 남편에게 절대 비밀이에요" 같은 말을 남기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거의 가정 내 관계에 대한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폭력상담소니까 남편이나 가정 관련 상담은 다른 데 전화해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폭력 상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여성에게 전가되는 수많은 편견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겁니다. 나를 강간한 고등학교 동창을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가 나를 비난할까봐, 나를 믿지 않을까봐, 나를 더러운 여자로 생각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대한 상담인 셈입니다. 평소 남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남편이 부인의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바로 그 남편과

의 관계는 어떻게습니까? 결혼 이후 가족들과의 의사소통과 관계의 지형은 어땠고, 당신의 미래에서 남편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같은 것들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고통에 대해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 남편이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되죠?"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상담을 하는 것과 놓친 채 상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만들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욕망이 고통과 연결된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부장제 반대, 성별화된 규범 반대'에 대해 머리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성주의를 지향하고 여성운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몸이 여성주의적 가치나 규범에 익숙해질 때 여성주의적으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그 메시지가 상담원의 삶에도 익숙해서 몸에 편안하게 붙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한번 몸에 습관이 붙으면 내 것이 되지만, 그것이 바뀌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아니라 욕망을 질문할 수 있는 힘, 자신의 삶을 새로운 질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같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도 여성주의적 질문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과 '여자됨'이라는 것, 성별 제도와 규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스스로 바뀌기 전에는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고, 페미니스트 의식 교

육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낯선 곳으로 몸을 던지려는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그 변화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1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문화제 형식으로 시작한 촛불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잘 들리게 하려고 청와대로, '도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평화롭던 시위에 폭력적인 공권력이 행사됐습니다. 아 니러나하게도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과 과잉대응은 촛불을 폭발적으로 결집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현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군 클럽의 등장입니다. 예비군 클럽은 예비역으로 이뤄진, 일종의 인터넷 기반의 동호회·동창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군인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평소에는 평상복을 입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촛불시위에 오는 다른 시민들과 다를 바 없이 머리도 평범하게 기르거나 염색한, 대학생 혹은 20대 중반의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폭력진압이 시작되자 이들은 예비군 클럽을 결성해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으로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촛불소녀들의 행동에 감응해 나타난 것도, 촛불시위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클럽의 주요 행동은 "위험합니다.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행동 이상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위험하다'였습니다. 촛불시위를 시작한 것은 무기가 없는 댄스의 시민들이었는데, 이 시민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청와대로 몰밀듯이 밀려가는 와중에 시민이면서도 굳이 예비군이라는 이름을 달고 온 사람들은 시위 참가 시민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시민 중에서도 특히 여자와 어린이를 지키러 왔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나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까지 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그에 맞선 방식, 즉 그 폭력에 대항한 방식은 촛불소녀들이 시작한 시위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위대를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반격과 넘어서기의 구상과 실제

김민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시작하며

이번 강의는 제2강에서 살펴봤던 '몸에 주목하는' 시선의 이동이 성폭력에 맞서는 운동에서, 혹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여성들과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나를 위한, 그들의 대항 폭력?

촛불시위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촛불시위는 어느 여자 중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파 답과 다른 부당한 정책들에 대한 분노가 인터넷과 10대들의 문자메시지 사 이에서 폭주하고 있을 때, 거리로 나와 그 목소리를 촛불의 움직임으로 모

략아 세우면서 공권력과 대치하는 식이었습니다. 촛불시위의 적극적인 참 여자가 아니라, 시민을 지키고 막아서는 '예비군'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 다. 폭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요? 전경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과 거에 전경이었거나 군인이었던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행사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맞서 '시민'들을 지킬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다양하고 기발한 저항이 살아 있던 광 장에서 군인과 군인의 대치를 만들고 촛불시위의 주체들을 뒤로 빠져야 할 존재로 가두는 것을 보며 누가 폭력자인지, 무엇이 폭력이며 폭력에 대한 저항인지, 무엇이 폭력을 막았는지 (혹은 불렀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리인 남친

성폭력도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객체화된 폭력이고 피해자 중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 는 선택지, 즉 일차적으로 써왔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 상담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 니다. 피해자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 상담도 많습니다. 대 리인 중에서도 '남친'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이들의 대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사건이 이미 지나간 다음에 이들은 분노의 주인공이 되어 "넌 가만있어. 넌 뒤로 빠져. 내가 알아서 처 리할 테니까 넌 저리가 있어"라며 고소 여부나 복수 여부를 결정하려 듭니 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불안요소가 되는데도 그들은 잘 모르는 듯합 니다.

특히 여성의 성을 '유린'한 사건에서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집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여성을 성적으로 취한 상대 남성에 대한 남성의 분노, 여성은 지구 수단이 없는 보호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여성에 대한 공격은 그녀의 보호자인 남성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맞수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닌, 남성 대 여성의 전투. 폭력 자체는 철저히 남성화된 개념입니다. 여성이 폭력을 주체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던가요? 여성은 폭력적일 수 없는 존재이며 폭력을 경험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빠져 있어야 하고, 그녀를 제외한 양측이 싸워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친들의 흥분은 용두사미로 끝나 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여성들이 여러 방식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싸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안전을 의탁하라: 성폭력에 대한 대책

성폭력의 위험성이 강조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대책은 안전을 누군가에게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위탁은 원래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안전과 보호가 위탁된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여성이 이것의 주체임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 누가 먼저 맡아간 것인지, 어떤 계약이 이뤄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들은 아빠, 오빠, 남자 친구 등이었습니다. 특히 선택가능한 남자 친구의 경우,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조건에 미달합니다. 여성보다 체구가 작고 목소리 도 작으며, 성격도 여리고 경제력 능력도 못 미치는 사람은 남자 친구의 후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남동생이 어리더라도, 누나와 엄마에 대한 책임은 남동생에게 부여됩니다. 이런 실제 그런 기능이 잘 수행되느냐와 관련 없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폭력에 대항하고 안전을 책임질 주체는 결국 성별에 근거를 두어 결정됩니다.

이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폭력을 당하는 몸이 되며, 저항할 수 없는 몸이 됐을까요? "저항할 수 없으므로 보호됐다기보다는 보호되기 위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키워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10대 이전과 이후 여자들의 몸-살이를 한 번 생각해봅시다.

2. '보호받는 몸'이라는 정체성

여성으로 자라나는 몸

"우리 딸이 남자에 세 명을 뺐는데 커서 뭐가 될지……," 초등학교 여자 애들의 우악스러움에 어른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남동생이 말을 너무 안 들어 남동생 손을 문물에 놓고 방문을 닫아 손등을 으젠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간죽거리고 여자애들 무시한다고 그들의 팔을 깨 물어 살점이 떨어지고 남자아이의 부모가 와서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항복했다는 이야기가 곁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이 10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지는 것을 배운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10대 성교육에서는 '2차 성장'을 가르칩니다. 2차 성장은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그저 낯짐승 같았던 그들이 성숙한 인간이 됐다는 증명이고, 이 교육은 엄숙한 철학교육에 가깝습니다.

10대 여자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아니 가르치는 2차 성장에는 가슴 발달

및 생리가 있습니다. 자궁의 발달, 난소와 배란, 생리하는 이유, 가슴이 여자의 몸에 있는 이유 등이 성교육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성장을 소개하면서 그 기능과 존재 이유를 가르칩니다. 가슴, 자궁, 난소의 역할은 출산과 임신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공식 성교육 교과서에 보면 남성의 성기가 음경이라면, 이에 대칭되는 개념을 여자의 자궁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남성의 음경과 여성의 음핵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와 여자의 자궁이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와 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못박아줍니다. 양육 책임과 의무도 가르칩니다. 출산과 임신을 하도록 만들어진 몸은 양육하는 존재이기도 하며, 여성의 몸 생김 자체만 봐도 본능적으로 모성을 타고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기를 안아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젖을 먹이는 흉내를 내거나, 누군가를 도와 그것을 해봅니다. 그러니 양육하는 몸에 익숙하고, 익숙하니 도맡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본성화되는 것입니다.

임신·출산하는 몸의 태도

한마디로 여자들은 중성화·탈성화되어 있던 시기를 지나 "너 이제 여자가 됐구나"라는 말과 함께 2차 성장을,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교육받습니다. 몸가짐과 몸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도 배우는 것입니다. 생리의 시작, 가슴의 발달과 함께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화두가 됩니다. 월경을 배울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축하받거나 감사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이 첫 몽정을 했을 때, "자식, 남자가 됐구나"라는 말을 "드디어 성에 눈을 떴구나"라는 은근한 위안으로 말하는 것에 비해, 첫 월경파티는 뭔가 조신하고, 내 한 몸 전사하는 것이 아

니라 못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돌봄이 넘치는 여성이 되라는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첫 월경이 근사하게 축하받는 것에 비해 관리 책임은 엄격합니다. 냄새 나지 않고 티 나지 않게 관리해야 제대로 된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팬티와 바지에 빨갛게 흘리고 묻히던 초등 시절을 지나 중고등 '청소년'이 되면 TV 광고에 나오는 10대 모델처럼 예쁘고 맑고 자신 있게 순백의 생리대를 청결하고 능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악스럽게 싸우던 여자애들이 성교육을 한 번 받고 나면, 그 교육을 잘 이해한 아이일수록 전처럼 남자아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철없이 덤비면, 툭 부러지는 말투와 단호한 눈빛으로 "저질!" 하면서 "난 아기를 가질 몸이야" 혹은 더 세련된 말로 "내 몸은 소중한데"라며 두 주먹을 교차해 가슴을 지킵니다. "엄마가 찬 데 앉지 말랬어", "여자는 때리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보호해줘야지" 같은 대사를 구사합니다. 툭 툭할수록 이렇게 이지적이고 도도한 여자아이들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메시지는 여자아이들에게 매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재화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몸은 발에 비유되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 기능은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에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과 '씨'라는 생식적 몸의 기능은 본성화되고, 개체의 본성적 특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남성은 능동적이고 더 커지는 몸, 더 빠르거나 크고 더 많은 몸이 되고, 그것을 받는 여성은 수동적이며, 기다리고, 수용하고, 보완하는 몸이 됩니다. 보완자인 여성이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몸을 가진다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육이 없을수록 더 좋은

여성의 몸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두 성별 중 하나가 주어지고, 그렇게 결정된 남성이나 여성이 그 기능에 걸맞게 자라난 몸으로 그에게 충족된 삶이 된다는 식의 몸 결정론. 여성이라면 모두 다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은 몸을 상상하지도 않는 규범과 신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다양한 생식기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생리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기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성 정체성, 규범적인 역할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여성 - 몸이 맺는 사회적 관계들

이렇게 구성되는 몸은 사회적인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성의 몸 기능은 임신·출산과 연동되는데, 대개 결혼이나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역할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몸의 기능은 재생산에, 활동 영역은 사적 공간에 놓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출산 담론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가치명제로 살아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적 보수 여성단체인 모 협회는 얼마 전 “출산이 국력이다”, “출산하여 애국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누구보다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이런 구호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성폭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법상 “정조에 관한 죄”였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이나 인격을 침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속한 집안과 혈통에 중대한 침해를 했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을 잇는 것이 여성의 의무인데, 그 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일으켰으니 가부장제에도 전한 강간은 그 어떤 중대 범죄보다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강간범

처하는 남성이 주변에 없는 여성들은 아마도 ‘여성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져서 사회생활에서 무언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지나친’ 독립심으로 주변에서 “너 여자 맞니?”라며 타박을 받거나 원성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보호를 자청·자임하는 경우, 이는 빈번하게 로맨스가 되거나 성희롱으로 이어집니다. 회식 후 집에 데려다준다가나 생거줄 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로맨스의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가방을 대신 들어주거나 추울 때 옷을 덮어주는 행동을 하면서 그 남성들은 동생 같다거나 딸 같다는 식으로 사적 관계에 비유해 무리 없이 설명합니다. 가족 내 관계가 아닌데도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게 된 동료, 선배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정해진 역할이 아닌데도 모임 내에서 감정이나 관계 유지 노동을 한다면,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잡다한 일을 챙기게 되는 데 반해, 남성들은 여성을 가족 내 여동생이나 딸처럼 ‘편하게’ 대하고 보호자가 되는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과도한 예민함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가 성폭력, 성희롱 혹은 직장 내 스토킹, 무례한 강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문제제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도 곧잘 벌어집니다. 상황이 그랬는데도 딸 같고 동생 같아서 그랬는데 그걸 고작 오해와 모함으로 갖는다는 적반하장식의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과 함께 여성도 죄인이 됐습니다. 이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됐지만, 지금도 성관계 경험에 있는 여성은 성관계 전력이 없는 여성보다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쉽게 비난에 휘싸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정조 관념은 고수되어 여전히 성폭력을 가해자를 부끄럽게 하는 대신 피해자를 숨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 반면 우습게도 ‘친족성폭력’의 발생 비율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중 15퍼센트에 육박합니다. 가족, 집안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가부장과 유사 가부장들은 가족, 집안 내 여성들에게 성적 혹은 물리적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가부장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감의 실천 그 자체라고 합니다.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 맘대로 못하냐?” 혹은 “여자들에게 여자로서의 도리를 가르친 것이다.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정말 그렇다고 믿으며 반복합니다.

여성이 안전을 의탁하고 보호를 구한 사람 혹은 그 역할을 자처한 사람이 그렇게 획득한 권력으로 피보호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 의탁을 했으니 권력(힘)이 생겼고, 권력이 있으니 의탁하게 되는 구도. 보호·피보호가 자연스럽게 공식화되고, 그 공식 아래 여성들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성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하지만 여성의 보호자가 바로 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위탁의 관계가 적용·자임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 상사, 부하나 학교에서 만난 선배배도 어디에서든 여성의 든든한 보호자와 후견인을 자처합니다. 술자리의 풍경을 떠올려볼까요? 챙겨주는 역할을 자

3. 피해 - 가해 질서를 넘어서

문화화된 각본

이런 와중에 성폭력 가해자의 70퍼센트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통계를 몸으로 겪으면서 여자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조심과 걱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성폭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매우 불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오며, 내 몸이 그런 구도의 부속물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여성이 여성으로 자라고 존재하는 방식에서 모순과 배반을 발견하고 내 정체성, 역할, 존재감, 몸을 내 것으로 돌리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발생한 그 문제를 ‘성폭력’이라 명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 이제 무언가로부터 이탈하기로 다짐합니다.

성폭력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역에서 이미 문화와 질서로 흐르고 있었으며, 이성애주의가 자리 잡은 모든 곳에서 이러한 역할과 공식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보게 되고, 성폭력은 다만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낄 뿐 이미 자연스럽게 짜인 각본이고, 돌발적이고 예외적이라기보다는 패턴화되어 있음을 느끼고, 성폭력이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겪게 된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성폭력의 현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구도를 조금씩 균열 내고 바꾸거나, 여기서 벗어나 다른 것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해결하기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현재 성폭력 상담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뤄지므로 해당 사건을 지원

하면서 소송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이번 사건은 당신 잘못이 아니며 가해자가 '미친놈'이라며 지지·위로·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해서 같은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정말 그 가해자가 미친놈이었을 뿐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겪은 뒤 그냥 '똥 발은 썸 치고' 잊어버리고자 노력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치유, 즉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이 나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구조와 원리를 알고, 다른 삶을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방어, 가부장제가 권했던 호신술을 넘어

마사 맥코이(Martha McCaughey)가 쓴 『진짜 쓰러뜨리기(Real Knockout)』에는 복미의 자기방어(self-defense) 운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여자들,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여자들, 현실 속의 성폭력을 경험한 여자들이 모여 자기방어를 위한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의 문화에서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움직임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 혹은 그 너머로 몸에 각인되어 키워진 여성성을 다시 성찰하고, 다른 몸이 되는 상상과 실험을 하겠다는 운동입니다.

자기방어 도장은 심리적 지지집단, 자조집단의 형태를 띱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 자신이 경험한 공포, 그것을 깨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를 서로 나누고 지지합니다. 매일 훈련을 마칠 때 함께 어깨를 마주 안고 발을 구르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도장의 사범들은 그냥 발차기, 지르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의 진행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왜 왔는지 생각하게끔 돕고, 자신감을 얻지 못해 도저히 할 수 없다

구현해줄 수 없습니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맞서 싸우기(fight back)의 원리를 고민합니다.

성폭력보다 먼저 싸움을 맞이하라

맞서 싸우기는 말은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 같은 말 이전에 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이 날 때부터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로 살 것이 당연시되는 강간문화(rape culture)에서 사건은 곧 '가해자 = 남성', '피해자 = 여성'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동시에 가해와 피해가 만들어지는데, 여성은 이때 피해자가 되어 이후에 상담이나 치유를 받아야 할 존재일 뿐 그 전에 정당하게 싸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방어 운동에서는 피해나 가해라고 부르기 이전에 '공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폭력' 이전에 '성적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왔다는 것, 공격이 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공격'이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70퍼센트가 원래 알던 사람인 현실에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설마 했어요, 설마"라고 수없이 되뇌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의 말처럼 호의나 선의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해석투쟁이라고 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의 해석투쟁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가 예뻐서 그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자마. 다 그런 사람 아니거든? 너 예민하구나?"라는 말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만의 해석 틀을 작동시키고 자기만의 의문을 부여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 통찰이 생기고, 이러한 판단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점점 단축시키도록

는 여성들에게 할 수 있다며 기운을 북돋고, 차근차근 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각자가 자신에 대해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과정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자기방어 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청소녀를 위한 호신가이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던 시기였습니다. 성폭력에 취약하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은 청소녀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호신이라는 말이 지닌 보수적인 의미 때문에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호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오래된 호신 도구로는 한국의 온장도가 있는데, 온장도는 뱀가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지만 자신을 죽이기 위한 무기입니다. 청조를 지키기 위해 나를 죽이라는 메시지의 산물입니다.

요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스총이나 호루라기, 전기 충격기도 있는데 가스총을 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아야 합니다. 잘못 쏘면 분사된 최루액이 자신에게 날아옵니다. 사정거리에 따라 공격자와의 간격도 조정해야 합니다. 가스총을 꺼내려는 순간을 상대가 알아챘을 때 급작스럽게 가해지는 공격에 대응할 이차적 방도도 생각해야 합니다. 호루라기도 참 쉬운 도구처럼 보이지만 힘껏 부는 동시에 다른 액션을 취하기도 해야 하고, 큰 소리가 시끄럽게 계속되는 것에 대해 자신이 놀라고 불편해하지 않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도 사람 몸에 대야 하는데, 공격자와 가까워졌을 때 발생하는 변수에 대응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의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호신 도구를 지녔다는 것만으로는 여성이 스스로 방어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바람을 다

연습합니다. ① 감지 및 인지, ② 싸움 인지, ③ 조건 판단, ④ 진행, ⑤ 결과의 단계에서 ①부터 ③까지가 한순간에 끝날 때까지 연습합니다.

공격을 감지했고 싸움임을 인지했다면, 그 다음에는 현재 조건을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 사람이 가하는 공격과 가해를 그냥 겪어야겠다는 판단도 포함됩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나 자원이 없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 공격자는 여러 명이 함께이고, 다른 무기나 자원까지 넉넉히 갖추고 있다면 그냥 오늘은 저들의 공격을 참내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혹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떠올려봅시다. 이 같은 경우 공격자들이 나뉘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러 가지로 압력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면서도 돌킬까 걱정하면서 눈치를 보며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판단할 수 없게 했던 것이 여성들에게 부과했던 과도한 '공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던 사람이 뛰라고 말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몸은 잘 가누는지, 목소리는 굵은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중학생 정도인지, 칼을 들었는데 그것이 파도나 커터 칼(문구용 칼)인지 큰 칼인지 등 상황은 언제나 다릅니다. 이때는 조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커터 칼을 들고 온 사람은 본인이 먼저 두려운 내심을 보였다든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칼부림을 해본 사람은 칼을 잡은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당연히 대응책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만의 판단을 한 이후 진행되는 맞서 싸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펼쳐지고, 결과는 그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자기가 판단한 후의 결과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죠. 괜찮아요. 생각한 대로 됐어요"가 돼야 합니다. 결과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신이 평가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더 빠르고 명확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 그렇게밖에 못했니?”라고 비난하거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 아무 생각도 안 났을 거야”라고 위로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판단이나 평가를 확보할 과정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생 1 맞서 싸우기 개념으로 들어가면 가해·피해가 당연했던 때와 비교해, 결과 평가 신체적으로는 같을지라도 심리적으로는 달라진다는 건가요?

성폭력에서 ‘피해’를 구성하는 것은 무력감이나 소통 단절이라든지 신뢰감의 파괴에서 오는 후유증, 또는 오랫동안 발설할 수 없었던 것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배신감이 큼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생기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성폭력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화병이 쌓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응할 말을 찾지 못하겠고, 내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성폭력은 그 이후에도 계속 고통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비난이 부당하다면 거부하고 차단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하고 성찰할 점을 찾아보는 등 그 메커니즘을 깨야 합니다. 내가 다르게 해석했을 때 성폭력의 고통도 다르게 구성될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똑같은 상처라도 다른 힘을 지니게 되며 과정이나 속도도 달라집니다.

4. 반격을 위한 위밍업

자기방어훈련의 시작 1: 마음을 전환하라

맞서 싸우기는 매우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일단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 걱정이 앞섭니다. 여성들이 도장에서 가격연습을 할 때도 ‘상대방이 다칠까봐’ 가장 주저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여성들은 상대방이 다칠지를 걱정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 같은 여성들의 미덕과 규범을 위배해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성들의 배려와 친절은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인 데다가 다시 볼 일이 거의 없는 데도 기사의 말에 호응하고 맞장구치거나 웃고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그의 기분 나쁜 농담에 정색으로 불쾌함을 표하거나 마땅한 요구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러한 전환을 어려워합니다. 내내 심장만 뛰다가 결국 머릿속이 하얗게 채 목적지에 도착하고, 택시 문을 닫는 순간 분노와 자책, 후회가 밀려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함을 버리지 못하는 당신에게, 자기방어훈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며 걱정해야 할 것도 당신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방어훈련의 시작 2: 한계의 신화를 넘고 가능성을 연습하라

가능성 문제와도 많이 씩씩합니다. “여성이 할 수 있나요? 신체적 능력상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등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

었습니다. “여자권투 챔피언 김○○ 씨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기겠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격투기나 레슬링, 역도처럼 힘이나 완력이 요구되는 종목에서 챔피언이 됐거나 금메달을 딴 여성과 자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챔피언이지만 그래도 여자인데 자기가 이기지 않겠느냐고 진지하게 묻는 사람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각하게 이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남성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그것에 대한 도전이 못내 불안한 모양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 없다’는 통념은 여성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나 봅니다.

성별에 따라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고자 노력했던 많은 연구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어 활용됐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신체적 능력이나 두뇌 능력에서 뛰어나고 우수한 개체라는 ‘믿음’은 과학 실험 결과를 놓고, 이는 다시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훈련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너는(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너에게) 맡기자.”

그러나 남성들이 힘과 완력, 근육에 대한 무한한 ‘로망’을 충족시키고자 그들이 인생에서 근육 키우기에 투자하는 돈, 시간, 노력이 엄청난가를 떠올려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인 차이’ 같은 말이 신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의 몸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역사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운동에 빠져 아침에 수영 두 시간, 저녁에 조깅 한 시간, 주말에 배드민턴을 일곱 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휴가 때는 카약을 타고 도버 해협을 건너고,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도 회의실 문지방에서 팔굽혀펴기를 스무 개씩 합니다. 지금의 몸과 10대 때의 몸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어렸을 때의 몸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자기 몸 자체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변화한다는 것만 봐도 힘에 대한 고정적 한계, 그에 대한 깨지지 않는 믿음은 달라집니다.

남성들은 어떨까요? 개개인마다 힘과 근력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성과 어떤 여성이 만나는데 따라 ‘성대결’은 여러 결과를 낳습니다. 지구력 대 순발력, 지력 대 완력, 공격력 대 방어력처럼 힘을 무엇으로 정의할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처한 상황도 힘에 대한 다른 평가를 이끌어내는 변수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묶어 ‘보호 대상’이라고 할 때와 “여자들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할 때, 이처럼 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방어훈련의 시작 3: 욕망은 재/구성된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몸, 매끄러운 피부, 근육 없는 신체, 조용한 목소리, 조용한 성품 같은 것들은 여성적인 몸의 규범이지만, 규범은 스스로 운영되는 엄격한 자기검열이 되고, 검열인 동시에 욕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내면화되어 스스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0대 여성들과 자기방어훈련, 다른 몸 되기 훈련을 시작할 때 “땀이 나는 것이 싫어요. 얼굴도 까매지고 다리도 굵어져요”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구성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온갖 종류의 몸싸움과 운동에 미쳐 살아가는 남성들은 그것을 하거나 보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그것이 자신의 외모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그것을 하는 순간의 짜릿함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느낌만으로 서로 소통하고 희열을 나눕니다.

여성들이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진심으로 꾸밈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한국의 교과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체육교육을 열심히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는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 지리와 역사 공부를 좋아했나요? 이 과목들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존중해 가르치기를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삶에 - 물론 입시에! - 필요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또 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되리라고 장담하며, 어떻게든 꼭 빠져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공부에 대한 욕망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고 믿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교육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여학생에게는 체육교육을 소홀히 할까요? 미국에서는 헌법을 수정해 체육 기회의 성별 평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간의 남녀 분리 수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주(州)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농구코트를 차지하고 있다가도 여학생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적극적인 할당제도 실시합니다. 운동 동아리에 여학생 50퍼센트 할당제를 명시한 학교도 있습니다.

욕망은 구성됩니다. 운동이 얼마나 즐겁고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는지, 그것을 몸으로 채득할 기회를 여성들이 적극 제공받은 역사가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욕망이 새롭게 구성되기까지, 그것을 접하고 어느 정도 체도에 올라 스스로 그 가치를 삶 속 깊숙이 받아들이기까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옷을 반드시 44사이즈부터 88사이즈까지 망라해 만들어 항상 매장에 갖춰놓게 한 남미 어느 나라의 사이즈 법률, 일정 체중 이하의 마른 모델은 패션쇼에 나오지 못하게 한 이탈리아의 법률의 제정되기까지는 자신의 외모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여성들의 절망이 있었습다. 욕망은 욕망일 뿐이라고 자연화하는 순간, 그 말을 통해 유지·지탱되는 문제는 가려집니다. 그 의미가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 욕망을 다시 보

고, 싸우고, 그것을 새로이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상상이 필요합니다.

교육생 2 예전에 "침 흘려라", "방귀를 뀌어라", "미친 척해라"라는 성폭력 예방 스티커가 있어서 엄청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제2 정무장관실에서 제작한 스티커였습니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니 나라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훑아오는 것 같으면 "미친 척하세요", "방귀를 뀌세요", "침을 흘리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몹시 반대하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에 경찰청에서는 이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여름철 성범죄 예방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자 혼자 여행가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택시 타지 마세요", "밝은 길로만 다니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마중하라고 합시다"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려고 나라 예산을 쓴다는데, (예비)가해자를 교육하는 데 쓸 것이지, (예비)피해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뉘를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성폭력이 피해자 탓이라는 통념을 강화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저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이고 다른 영향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일상을 침해하며 이익을 현저히 제한하는 방식의 '예방'과 가해자의 의도와 각본을 정면으로 좌절시키는 방식의 반격이 갈을 수는 없습니다. 침을 흘리라고 주문하는데, 갑자기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기만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몸의 스위치를 바꿔 예쁘게 보이는 몸 대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훈련을 거쳐 자신감을 지닌 몸이 수행할 수 있는 선택항입니다.

5. 맞서 싸우기를 설계하는 법

반격의 원리: 각본 뒤집기

맞서 싸우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성폭력 상황은 하나 같이 어떤 각본에 따라 진행됩니다. 맞서 싸우기 원리는 이 각본을 간파해 뒤집는 데 있습니다. 이 성폭력 각본을 뒤집는 다양한 행동 모두 일종의 맞서 싸우기가 됩니다. 힘을 더 세게 하고 완력을 더 키워서 싸우는 것만이 반격이 아닙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지 마!"라고 했는데 자지러지게 웃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공포에 떨며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공격자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자, 그것도 어린 여자에 대한 각본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에 가서 조서를 쓰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못할 거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 못할 거고,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할 거고, 학교에서도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학생일 거고, 친구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좋은 자원을 알려주며 전략을 짜서 함께 행동하는 일도 없을 테고, 조금만 멋있게 굴거나 권위를 이용해 압박하면 쉽게 넘어오리라는 것 등이 그러한 각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성적 화물이나 협박, 친족성폭력, 성구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0대 여성은 -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 이러한 각본을 넘어서기에 아저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욕도 제일 잘하고 점도 잘 씹고, 거침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합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여간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패턴화된 성적 공격의 대명사인 '바바리맨'은 성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어린 여성을 수치심과 공포에 떨게 하겠다는 야심찬 각본에 입각해 전국의 여학교 앞에서 출몰합니다. 드러난 남

성 성기가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보이는 것 자체로 침입을 예고하고, 알 수 없는 공포의 원인이라 무기가 되고, 뵈다는 것만으로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데서 느껴지는 정복감이 그의 쾌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정한 어린 여자로 가득한 여학교 같은 공간에서 10대 여성들은 어떤 행위력을 발휘할까요? 이들은 바바리맨이 나타나면 "뭐야, 너무 작은데? 안습이네"라며 비웃고, 카메라를 유심히 들이대며 연신 찰칵찰칵 찍어댑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뿌리며 "더 해봐"를 연호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바로 잡아가도록 갑갑한 마무리까지 합니다. 돈을 손에 쥐어주며 영화 관람하듯 자신을 구경하고 폄평하는 그녀들 앞에서 바바리맨은 어떻게요? 목적인 대로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여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다양한 방어의 현장과 무용담이 나옵니다. 훈련받았던 한 여성은 지나가던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꼭 움켜쥐고는 도망도 안 가고 유유히 걸어가더라는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서 멍하니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으리라고 예상했으니 그런 행동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우물쭈물하며 아무것도 못하거나, 용기를 내어 따져보지만 남자가 빈정대는 비판적인 장면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이 여성의 반응은 자신조차 놀랄 정도로 빠르게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몸을 책 돌려 도움닫기를 하면서 그 남자의 몸을 돌려세우고 뺨을 내리쳤습니다. 몸을 벽까지 몰며 네댓 번쯤 정신없이 뺨을 올려붙이고 귀를 잡아채 경찰서에 가자고 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완벽하게 놀랐고, 깨달았고, 빌었다고 합니다. 연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하며 정신없이 빌었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미친 듯이 얻어맞는 그 순간, 그

것이 무엇에 대한 되갚음인지 너무 명확했던 것입니다. 가슴을 만지기까지 그가 해온 예상이 완벽하게 뒤집히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용정임을 곧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직장 내에서 회식이 끝나고 취한 기분을 빙자해 상사가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간 뒤 다음 날 아침이 된 경우, 사건 이후 첫 대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사도 몹시 떨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이 상사를 쳐다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말을 돌리거나 목소리와 손이 떨린다면 상사는 책재를 부를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은 저쪽이구나. 내 눈도 못 쳐다보는구나. 아, 여자들은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때부터 위세를 이용해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대면의 자리에서 위엄 있고 거침없이 절어가 상사의 책상 앞에 멈춰 두 손을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상사를 불러봅니다. 그가 몸이 펴질 정도로 놀라도 계속 "저 좀 보시라고요" 하며 으르렁댑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쳐다볼 정도로 음량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나리오들 중 어떤 것을 써봐도 괜찮을 겁니다. 내부 절차에 사건이 회부되면 상사의 치졸한 반격이 시작되겠지만 첫 순간 받아둔 시인, 확실한 사과나 약속 등은 정당한 기운이 초장에 일궈낸 압도적 우세의 징표가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다른 몸이 되어라

반격하는 몸은 어떤 몸이며,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몸에 뻗은 습관들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구상하고 살아가게 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봅시다.

여자들이 한목소리로 호주제를 폐지하러 들거나, 여자들 서른 명이 고깃집에서 밤새 술잔을 부딪치고 떠나갈 듯 소리치며 신나게 노래를 불러대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신체의 크기도 생각해봅시다. 신체를 확장하는 것, 몸 자체가 커지는 연습도 할 수 있다면 참 재밌습니다. 몸 자체를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절음절이를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몸이 차지하는 면적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 앉거나 걸거나 누운가와 악수하고 차를 타고 갈 때 차지하는 면적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다고 합니다. 자신의 짐이 많아도 가슴이나 배 위에 끌어안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어 더 편합니다. 어떤 수업에서 남학생에게 치마를 입고 일주일 살아보라고 했을 때, 한 남학생이 "앉을 때도, 땀을 흘릴 때도, 계단을 다닐 때도 쪼그라든 사람 같았다"라고 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인이 된 것처럼 속박되고 형벌이라고 느껴지는 몸의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시선을 받게 되어 기분 좋고, 행동이 제약되어 조심하게 되는 미덕의 복색이 됐던 것입니다. 남자의 몸은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앉는 데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서서 오줌 누고, 그 오줌이 어디까지 뿜어나가는지를 끊임없이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것도 신체의 크기, 확장과 관련된 듯합니다. 남자는 서서 오줌 누는 것이, 여자는 앉아서 누는 것이 생리적·생물학적으로 당연하다는 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체적 크기는 싸움과도 상관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고 두 팔로 작은 머리를 감싸 동그랗게 숨어든 경우와, 한 팔을 허리춤에 올려 걸치고 다른 팔을 쭉 뻗어 두 번째 손가락을 상대방의 눈앞에 치켜드는 액션은 사뭇 다른

시선에는 몸의 습관과 관계, 여성적 몸의 규범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시선을 받는 것에 익숙한 여자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똑똑히 줄 수 있는 곳까지가 자신의 영역입니다. 영역이 넓을수록 그 바깥에서 내게 다가올 일에 대비해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니다. 공격자는 대상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살금살금 접근해오는 시간이 있는데, 자신의 느낌을 믿고 이를 따라 느낌의 전원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공격을 중간에 차단하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주변을 살피는 짧은 시간의 시선은 나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건가, 눈빛은 어떤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살살이 살피리라고는 계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살피는 시간이 많아 질수록 계획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여성적인 소리가 있을까요? 부드러운 소리, 조용한 소리, 애교 넘치는 소리, 가냘픈 소리, 위험에 처했을 때 내는 비명 소리 등은 이미 각본화됐기 때문에 공격자가 놀라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자기방어훈련에서는 배에서 나오는 우렁찬 기합을 내지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공포에 질리면 꿈속에서도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기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도 실시합니다. 또 비명(scream)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함(yell)을 치라고 주문합니다. 췌소리가 나는 비명 대신 온몸에서 끌어올려 앞으로 쭉 뻗어 던져 채우는 소리, 음이 낮은 소리, 육설, 가래 끓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평소엔 못 내는 소리를 내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소리를 갖는 것 자체가 여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고,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큰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은 - 물리적으로 크든, 비유적으로 크든 -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더 불쾌하게 여깁니다.

싸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도구를 이용해 신체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공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에서 재미로

이 같은 각본을 깨는 반격의 기획은 피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삶을 계획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강간 규범, 가부장제 규범 안에서 피해를 경험했다라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말해야 하고, 얼마나 아팠고 고통스러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기도를 몇 번 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없애야 합니다. 이 규범 안에서 피해자로 승인되려면 회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규범 자체를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해보고 감정을 펼치며, 새로운 자신감을 구성하면서 규범 속의 몸을 넘어 다른 몸이 되고자 연습하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여자들, 새로운 해석 방식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 됩니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치유이자 다르게 살아갈 구상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들을 서로 지지하고 함께 지금의 세상을 이탈해가는 커뮤니티는 가부장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자기방어훈련은 처음에는 성폭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다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KBS TV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운동하는 주부 다섯이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수영이나 요가가 아닌 종목, 가령 축구, 배드민

턴, 사격 등을 꾸준히 해온 주부들이었습니다. 사격을 3년 동안 한 주부는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 누군가를 막 쏘고 싶어 시작한 사격인데 이젠 시댁이 고 뭐고 사격에 푹 빠져서 안 하면 몸살이 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도 링거를 빼고 탈출해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 시합에 나갔다고 합니다. 배드민턴을 5년 동안 친 주부는 동호회에서 저녁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신나게 치고 집에 가자고 일어서니 새벽 1시였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집에 와서 시계를 다 돌려줬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출근을 준비하다가 이 방송을 봤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여자들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 희열로 가득한지 느꼈습니다.

제작진이 자식과 남편을 앞줄에 앉히고 “그래도 엄마가 밥은 잘 챙겨주죠?”, “남편은 어떻게 이걸 허락하게 되셨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애써 가족 인터뷰를 유도하는데 출연진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지막 멘트를 할 때 카메라를 한 번 응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나와서 뭔가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성폭력 피해자 여성이 이제까지의 자기 비난의 틀을 완화하고, 그런 세상의 구도를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때 몸 자체가 달라지는 자기방어와 맞서 싸우기는 성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바꿔놓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 느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몸으로 겪은 여성만이 알게 되는, 만날 수 있는, 보여주고 이끌 수 있는 변화를 당신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성역할

79.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하려는 여성들이 법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제까지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하려고 하는가(남자가 생겼나)?”이다. 하지만 남편의 초기 폭력을 문제삼아도, “참을성이 없다”고 비난받기는 마찬가지다. 흥기를 들이대는 강간범을 만났을 때, 소리쳐야 할까? 빌어야 할까? 잘못 소리쳤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잘못 빌었다가는 “너도 즐겼지.”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피임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피임 준비를 잘하는 여성은 ‘신수’, ‘결례’ 취급받기 쉽고, 피임을 못해 임신하면 남자에게 부담 주는 ‘칠칠치 못한 여자’가 된다. 성차별에 저항하는 여자는 나쁜 여자로 찍히고, 가만 있으면, “여자들이 의식이 없어서 문제다.”, “팔 들어 깨어나라.”며 계몽이 덜 된 인간으로 본다. 남성 언어 안에서는, 여성의 저항과 순종 모두 남성 폭력과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

경찰서나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분노나 강한 감정 표현은

과장으로 의심받고, 침착하고자 애쓰면 피해자답지 못한 인상으로 해석된다. 제주도 도지사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은 '너무 똑똑한' 것이 문제 해결 과정 내내 비난의 구실이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가 어떻게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나, 누구의 사주를 받았나." 따위의 질문을 받았다. 남성의 구미에 맞는 '적절한' 피해자의 태도는 어떤 포즈일까?

피해의식은 남성의 전유물

남성은 여성이 성적 주체이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적 주체이기를 바란다. 사실 가부장제 유사 이래 여성은 언제나 성적 주체였다. '성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남성 젠더 시스템에서, 여자는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다. 스릴러 영화의 공식, 남자 주인공을 시험에 들게 하는 팜므 파탈(femme fatale), 요부(妖婦)는 남성의 모순을 여성에게 투사한다. 팜므 파탈은, 남성의 성이 저지르는 폭력과 파괴가 결코 남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다. 남성의 성욕은 무한대라서 어디로 '분출'할지 모르지만, 성욕 폭발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남자 자신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라는 것이다. 이때 남성은,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창하듯, 유혹자 여성의 '피해자'가 된다.

원래 피해의식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정치의식으로서 여성의 피해의식은 근대 이후 여성주의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아주

최근의 현상이지만, 남성의 '피해의식'은 수천 년 전 가부장제와 함께 시작되었다. 여성의 피해의식이 피해자로서 지니는 사회구조적 의식이라면, 남성의 '피해의식'은 가해자의 정신 분열, 프로이트식으로 말한다면 죄의 투사이다. 백인의 피해의식, 자본가의 피해의식, 미국의 피해의식을 보라. 피해의 의미와 내용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의 유동에 따라 구성된다.

지금 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여자라서' 당연히 해 왔던 노동을 거부하고, 너무도 오랫동안 당해 왔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폭력을 당하는 것, 폭력에 순종하는 것, 맞으면서, 강간당하면서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것,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여성의 성역할이었다. 동성애자 인권 담론의 가시화에 따른 이성애자들의 당황과 혼란처럼, '권리를 침해당한' 남성들의 '피해의식'은 당연한 것이다.

여성에게 섹스와 모성은 자원이자 억압이다. 남성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작동 기제이다. 여성에게 섹스가 자원(꽃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억압(성폭력 피해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바로 성폭력의 원인이다. 남성에게는 모순이지만, 여성에게는 연속선이다. 여성에게 섹스가 자원이자 억압이라는 사실은, 성매매와 성폭력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의 아니라고 섹스의 주체는 오로지 남성이라는 의미이다.

주체와 피해자의 이분법,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의 성별화(gendered)는, 남성 주체의 이해(利害)와 환상 속에서 구성된 '침묵

하는 피해 여성'이라는 관념을 낳았다. 이분법에서 각각의 범주는 겹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설정된다. 주체 아니면 피해자다. 그래서 여성이 행위자, 주체이면서 동시에 피해를 당한다는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피해는 곧 피해자화로 연결된다. 피해는 타자화를 동반하지 않지만, 피해자화는 타자화를 전제한다. 피해 여성은 남성 주체의 욕망에 의해 규정된다. 남성의 입장에서 강간당한 여성은 더럽혀진 여자이거나 '기껏해야' 무기력한 희생자지, 성별 계급 투쟁의 생존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의 시각이 곧 사회의 시각이 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화는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진부한, 가장 오래된 타자화 방식이었다.

피해자화는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젠더 사회에서 남자들은 성공을, 여성들은 불행을 '경쟁'하는 이유이고, 여성들이 '피해자 정체성'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피해자일 때만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내게 상담을 청한 어떤 성폭력 피해 여성은, 칼을 들고 덤비는 성폭력 가해자를 설득하여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게 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칭찬했지만, 그녀에게 고소를 적극적으로 권할 수는 없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피해자 각본에서, 이 여성의 뛰어난 행위성과 협상력은 '섹스(강간) 동의'를 의미한다. 여성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있어야만 피해가 인정되고, 피해자로서 '권력'을 부여받게 된다.

남성 언어로 말하기의 고통

전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고 쉽게' 제정되었던 한국의 성폭력 법제화는, 여성의 고통을 남성의 언어로 재현하는 것의 한계와 남성의 '피해의식'이라는 역효과(backlash)의 위력을 확인해주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만큼 인식론에서, 방법에서, 관계에서 논쟁적인 이슈도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인식론도 여성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한다.

성폭력 문제는 '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 '남성의 언어', '여성의 관계성과 남성과의 사랑-상처-고통-착취당함의 공통점과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성주의를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담론과 인식 체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거의 모든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논쟁이 폭발한다. 성폭력 사건이 가시화되지만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격렬한 논란에 휩싸인다. 또한 성폭력의 법제화는, 국가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의 하부 집행자가 된 여성운동 단체의 이중 역할 속에서, 여성운동의 정체성과 진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학생이든, 노동자이든, 공무원이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 강의를 하러 가면, 일단 그들은 자신이 교육 대상, 잠재적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한다. 어느 집단을 가든 남성들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 "성폭력당하는 남성도 많다.", "여성부는 있지만, 남성부는 없다.", "여성 상위가 지나치다. 페미

니즘은 여존남비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친일 과거사 청산’ 주장에 야당이 ‘친북 과거사 청산’으로 대응하는 것과 같은, ‘남자도 성폭력당한다.’는 주장은, 여성주의가 기존의 보편성, 객관성, 평등 개념을 해체, 재구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성폭력, 아니 모든 폭력 사건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남성들은 ‘가해자 인권론’으로 맞서고 있다.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여성의 권리 주장,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 자유주의 철학은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걸림돌인 것이다.

현재 반(反)성폭력 여성운동은 (기존의 언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과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는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하고, 성폭력은 섹스가 아니라 폭력인데 동시에 그것은 성적인 폭력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성폭력의 극심한 피해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피해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주장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여성 범주의 딜레마

모든 여성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여성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성폭력 반대운동의 결정적인 딜레마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당한다.”는 젠더 범주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인식론이기도 하다는 데 있다. 가부장제에 저항하기 위해 여성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환원하여 모든 여성을 동질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가부장제 프로젝트에 기능적이다. 성폭력 발생 원인은 물론, 이후 투쟁은, 피해 여성의 사회의식, 자원, 장애 여부, 인종, 사회적 관계망, 학력, 계급, 외모, 나이, 건강 상태, 비혼 여부, 지역 등등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폭력의 원인 그리고 성별 제도 자체가 젠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주의 인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여성의 불행이 젠더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개념 확장론’은 여성들의 차이를 젠더로 환원한다. 여성주의는, 이제까지의 객관성이 남성의 경험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의 경험이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는 기존의 객관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객관성을 부분화, 맥락화하는 것이다. 객관성이란 권력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며, 권력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마치 모든 피해 여성이 동일한 경험을 하며, 피해자의 경험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같은 성폭력이라도 여성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억압받고 다른 강도로 피해를 느낀다. 어떤 여성은 포르노를 보고 성욕을 느끼지만, 어떤 여성은 불쾌할 수 있다. 젠더 범주는 여성을 개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묶는다. 이때 포르노를 불쾌하게 느낀 여성의 경험은 의미화되기 어렵다. 남성 사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다는

여성도 있는데,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여성이 느낀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낀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인식의 근거를 젠더가 아닌 여성 개인의 몸에서 찾고, 법 담론 중심의 협소한 성폭력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성폭력뿐 아니라 모든 인권 이슈의 기본 시각이다.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실현되기 힘들며,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은 피해자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성폭력 사건의 객관성을 피해 여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에게 여자 역을 맡깁니다. 촬영을 함께 하면서 메이와 자령은 서로 끌리게 되고, 키스신을 찍는 날 두 사람은 "내 마음만은 진심이야"라는 대사를 읊으면서 뜨거운 키스를 나눕니다. 제가 볼 때 「금지옥엽 2」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다중적입니다. 먼저 원영의, 매염방이라는 당시 최고 인기를 자랑했던 두 여자 배우의 키스라는 점에서 관객들을 자극시킵니다. 동시에 영화 속에서 자령과 메이가 서로에게 끌리고 있으므로 동성애적 키스가 되니 사회적 금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장면은 영화 속 설정상 두 이성 간의 키스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객들은 이 상황을 묵인 혹은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가신 감독은 더욱 교묘한 장치들을 잡아놓습니다. 메이와 자령이 키스신을 촬영할 때 오로지 샘만이 "그만둬!"라고 소리치는데, 주변 사람들 눈에는 동성애자인 샘이 자령과 메이를 질투해 촬영을 훼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알죠, 샘과 자령이 이성 간이고 자령과 메이가 동성 간임을. 그리고 처음에는 여유롭게 웃으며 두 사람의 촬영을 지켜보던 샘이 갑자기 소리친 이유도 압니다. 샘은 촬영 전에 메이에게 자령이 여성임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플립이나 성적 긴장감 따위는 없으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고 두 사람의 눈길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자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자령이 남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랑에 빠졌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동성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말입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샘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설정들이 깔려 있죠? 이 영화를 여러 각도로 해석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성별의 위장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죠. 자, 어떤가요? 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별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무엇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표를 보면 자령의 성은 두 번 바뀝니다. 자령은 남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성으로 인식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습니다. 남자 가수상을 받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 영화배우로 데뷔하면서 여자 역할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령을 남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성별은 원래 바뀔 수 없는 것인데 인기 남자 가수가 여자 노릇을 한다니!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전략이죠. 자령은 이미 성공적으로 성별을 바꾸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니까 가능하지, 자령이 완벽하게 자신을 숨긴다는 건 불가능해. 페니스가 없으니깐 언젠가는 남자가 아닌 게 들롱날 거야" 하지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남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연히

그 사람의 성기가 페니스 모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치죠. 그래서요? 그동안 '남성답다'고 생각했던 그의 행동이 더 이상 '남성다움'이 아니고 '남성 흉내'였다는 사실이 충격인가요? 그의 성기가 우리가 생각한 모양이 아니어서 충격인가요? 그렇다면 그는 우리를 속인 것일까요? 페니스가 있다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립한 남성다움이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깨어진다면 결국 남성다움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이 예는 남성다움의 원천이 페니스에 있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만약 생물학적 남성과 남성스러운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성다움'이란 단어가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성은 위장이 가능합니다.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겉으로 수행하는 성별일 뿐입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말대로 우리는 각각 어떤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성을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타고난 성'대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 '타고난 성'이란 무엇인가요? 여성, 남성인가요? 각자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각자 타고난 것인데 왜 그것을 부르는 이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 임신한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자, 이 엄청난 질문들을 일단은 쌓아두고 이번에는 토머스 비티를 한번 만나보죠. 얼마 전 신문에 '임신한 남성'이란 제목의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주인공인 토머스 비티는 미국에 사는 트랜스젠더 남성입니다. 그는 10년 전 가슴제거 수술과 남성 호르몬 투여를 시작했으며 법적 성별도 남성으로 바꾸고 낸시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낸시가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 임신을 할 수 없어 비티가 대신 인공 수정을 통해 임신을 한 것이죠(그는 2008년 6월 29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물론 비티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자궁 등의 내부 생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때 자궁이나 난소 등을 적출하는 데 비해 비티는 제거 대신 보존을 택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티는 해부학적으로 자궁이 있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남성입니다. 그럼 이제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야겠군요.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토머스 비티는 인터뷰에서 "내가 비록 임신은 했지만 나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건 아니며,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또 어떤가요? 비티에게 "당신은 아이를 낳았으니 엄마야"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엄마

중에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사람도 있거나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명제도 성립시켜야 하는데, 이 사실도 인정하실 수 있나요? 만약 비티가 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할 것을 인정한다면 역시 "아버지도 임신할 수 있다" 라든지 "우리 아들이 임신했다"와 같은 표현도 가능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 모든 트랜스젠더는 반드시 내부 생식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비티는 자신이 임신을 원했고 실제 출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비티의 자궁은 그가 여성임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아니라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내부 장기인 것이죠. 우리는 위, 간, 십이지장, 폐 등의 모양이나 기능으로 성별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비티에게 자궁이 다른 장기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단지 자궁의 유무로 남성과 여성 범주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웃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더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주머니를 딱 두 개만 만들어서 세상 모든 것을 그 두 주머니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성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질문만 계속 더 쌓이는군요. 하지만 좀더 파고들어보겠습니다. 자량이 영화 속 인물이라 실존 인물과의 비교가 불편하다면 이번에는 저를 표본으로 하겠

습니다. 저는 남자가 되고 싶거나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키가 크고 볼륨 있는 몸매도 아닌 데다 짧은 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아서 남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한번은 일부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더군요. 오히려 여자 화장실에 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통상 말하는 대로 하면 여성임이 틀림 없지만 사람들에게 여성으로 보이려면 일부러 여성스러운 척해야 합니다. 여성인 제가 여성스러운 척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은 좀 당황스럽고 때로는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분명 저는 '타고난 대로' 살고자 할 뿐인데 말입니다. 갑자기 제가 타고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아해집니다.

한편 비티는 생물학적, 해부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남성이 되기 위해 호적상 성별도 정정했습니다. 겉보기에도 남성으로 보일 만한 외모를 가지기 위해 호르몬 투여도 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았더니 멋진 턱수염을 가지고 있더군요. 여기서 하리수 씨도 한번 떠올려볼까요. 하리수 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되기 위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아주 여성스럽게 자신을 잘 가꾸고 있죠. 여기서 재미있게 짚을 지어볼까요?

비티와 저는 생물학적 분류로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

다. 처음 출생신고가 여자로 되었다는 점이나 자궁이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저와 하리수 씨가 같은 집합에 속하고, 또 둘 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됩니다. 하리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남성인 것에 비해 비티와 저는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성별 관계로 따져보면 저는 동성애자이지만, 하리수 씨와 비티는 이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또 공통점이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달은 점과 다른 점을 아마 계속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되니 또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여성은 뭐고 남성은 뭔가요? 앞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여성과 남성은 각 문장마다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맞나요?

이미 너무 복잡하고, 쌓인 질문들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내친김에 좀더 고아볼까요.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죠. 보통 동성애를 동성끼리의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동성은 어떤 기준으로 '같은 성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와는 상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토머스 비티를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인가요, 하리수 씨를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인가요? 아니면 트랜스젠더가 아닌 같은 생물학적 여성이어야 할까요?

제가 아는 한 (여자)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여성스러워서 좋다고..... 그 남자의 여

성스러움을 사랑한다는 그 친구는 이성애를 하는 것이 맞나요? 반대로 어느 레즈비언이 "난 내 애인의 남성스러움이 좋아"라고 말한다면요? 남성스러움이 좋으면 그냥 남자를 사귀지 왜 여자를 사귀냐고, 애인은 남자 흉내를 내는 것이니 사실 이성애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지요. 이성애가 동성애를 흉내 내는 것은 결코 상상되지 않습니다. 항상 동성애만이 이성애를 흉내 낼 것이라고 의심받죠.

잠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샐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질문을 종합해보자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대체 여자, 남자, 여성성, 남성성, 여성다운, 남성다운, 이런 것들이 뭐냐는 것이죠. 어떤 대단한 고정불변의 본질이 있는 양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현재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어디에 동일시를 하고 있는지 동등을 알려주는 하나의 정보나 지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단지 '구분'되어질 뿐입니다. 누군가 태어나면 그 순간, 의사이든 간호사이든 조산사이든 아기의 아랫도리를 보니 다. 페니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대아이'가 태어났다고 외치고, 없으면 '계집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부모의 귀에 들어가면 아들이 태어났다 내지 딸을 낳았다가 되고, 조부모의 귀에 들어가면 손자나 손녀를 얻었다가 됩니다. 그 소식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말하면 출생신고서에 남 혹은 여라고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숫자 맨 앞이
정해집니다. 만약 아이가 페니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클리
토리스라고 하기에는 큰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의사와 부
모는 수술을 결정합니다. 어느 한쪽의 성별에 부합하도록 특징
크기 이상이나 이하로 그 외부 생식기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렇
게 성은 짝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 구분은 허구입
니다. 마치 밑이 터진 봉지와 같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꼴입니다. 머리 모양, 옷 스타일, 행동
거지를 비롯해 어떤 색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취향
까지,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낭만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는가 하는
문제까지 모두 성별화하고 있으니깐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에서는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하늘이 주신, 신이 전해주
신, 부모님이 낳아주신 성별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며 고
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
은 동시에 현실에서는 성별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성별을 결정할 권리란 다시 말해 사회가 일괄적
으로 정하는 성별을 거부할 권리, 더 정확하게는 오로지 두 개로
만 나누어놓고 그 두 가지에 사람들을 끼워 넣는 이 사회의 성별
결정방식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주장입니다. 저는 성적 자기결정
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결정권

이란 개념이 왜 지금 대두되는 것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
이 그저 '내 맘대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입
니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좀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로 하겠습니다.

::춘향에게 필요한 것은 이몽룡이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춘향전』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
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폭력 문제에 있어 기존의 정조
권적 해석을 뛰어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춘향은 변화도의 수
청을 거절하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곧 목이 잘릴 판에 암행어
사가 출두해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 사건을 만약 춘향이 이몽룡
에 대한 정절을 지킨 것으로 해석하면 암행어사는 반드시 이몽
룡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정절이 있음을 증명해줄
지아비이자 동시에 정절을 지킨 것을 보상해줄 인물이어야 하니
깐요. 결국 착한 남편이 나쁜 사또로부터 자신의 여자를 지킨 스
토리가 됩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자면 춘향은 변
화도의 부당한 요구에 맞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면 가림주구의 학정을 떨치고 약자를 괴롭히는 변화도를 벌하기

만 하면 될 뿐, 암행어사가 춘향과 미래를 약속한 남편이라는 것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행어사가 여자여도 상관없게
되죠. 꼭 남편이 아니어도 백성을 부당하게 괴롭힌, 즉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관리를 처벌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기존의 성폭력 사건들이 재판 과정에서 (예를 들어) 춘향에게
지킬 정조가 있는가, 그렇다면 춘향은 누구의 여자인가, 얼마나
정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등을 핵심으로 다루었던 것은 바
로 정조권 침해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접근한다면 변화도는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
는가, 요구를 거부한 춘향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는가에 초점
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건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 자
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갖다 쓰기
만 하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섬세하
게 현실을 살펴야 합니다. 춘향의 입장에서 볼까요. 만약 춘향이
꼭 이몽룡 때문이 아니라 단지 변화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다면 '자발적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혼인
서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거부
했다면 '강제적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의의 차
원으로 볼까요. 만약 춘향이 나를 버리고 간 이몽룡보다 나를 사
랑해주는 변화도가 차라리 나으니 수청 들겠다고 했다면, 이는

'자발적 동의'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수청 들지 않으려고 했
는데 매를 맞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수청을 들기로 생각이 바뀌
었다면 '강제적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자가 동의했다면 아무 문제없고, 거부
했음에도 강제적으로 했을 때에만 강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레
서 법원에서도 어디까지가 동의인지, 어느 정도까지 거부를 했
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거부와 동의의 네 가지 경우
를 다시 찬찬히 살펴볼까요? 대체 춘향이 직면한 상황에서 동의
와 거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의했느냐 거부했느냐, 자발
적이었느냐 강제적이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왜 춘향이 왜 그런 요구를 받아
야 했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는
요구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
입니다.

동의와 거부를 따지는 것은 마치 춘향에게 그것을 결정할
힘이나 선택할 기회가 있었던 양 착각이 들게 합니다. 결국 거부
의 의지는 춘향이 정조를 지키려 했다는 것으로 귀결되어 칭송
받게 되지요. 몸은 모진 매질로 이미 엉망이 되었다고 해도 말입
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춘향에게 변화도의 수청을 거절할 권
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 춘향이
수청을 요구받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

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회의 젠더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즉, 거부나 동의를 표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윤함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거부나 동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실례를 살펴볼까요. 2004년도에 정신지체장애 1급 여성 강간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하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해자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고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는 항거 불능의 상태로 보기 힘들고,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로 작용한 것이죠.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단순히 개인 간의 동의와 거절, 침범과 피해 발생 등 사적 관계로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은 채 변죽만 울리는 것이니까요. 만약 성적 자기결정권을 단지 여성이 언제 누구랑 섹스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오류를 전제하게 됩니다. 첫째, 여성은 항상 자신의 욕구를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부하지 동의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둘째, 여성이 섹스하기

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침해가 촬영을 당한 여성에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 사회적 인식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여성은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므로 사회가 톨돌 뭉쳐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란 몰래카메라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해주길 바랐어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여성'의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몰래카메라 촬영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이 은밀하게 어느 남자의 자위용으로 쓰이든 인터넷에 유포되든 그 사진의 쓰임새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다리가 성적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나 어느 남성이 몰래 다리를 촬영한 것은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온당히 있어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폭력을 여성(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어난 일방적인 폭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는 것이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가 침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본인의 의사나 의지가 기준이 되는 것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표현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표현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여성의 관점이 아닌 남성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쓰인 몇 가지 사례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에서 항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곧 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중략) 사진 촬영 행위, 사진이나 이미지의 유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공론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표현을 쓰면서 더 예민하게 생각

를 들어 짧은 바지를 입은 남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다면 이것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일까요? 아닙니다. 남성의 다리는 여성의 다리처럼 성적 대상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렇게 단순히 적용시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지켜야 할 권리로 병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논지가 흘러가게 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런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유난히 침해받기 쉽다. 그래서 유난히 침해하기 쉬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이 아내와 섹스하고 싶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해주면서 남편의 섹스하고 싶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식의 부부 강간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을 사회가 보호해야 할 정숙한 부녀자의 정조가 침해당한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률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을 그런 식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했는지, 죽기 살기로 거부를 했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지, 성매매 여성인지, 유부녀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가해자인 남성과 어떤 사

이었는데 동등을 따지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여성과 보호하지 않아도 될 여성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불평등을 드러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 허구 속의 동성애자와 성적 자기결정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는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분류했습니다. 이때 엑스존이 결정무효 소송을 걸면서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동성애자 사이트를 막는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동성애자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성애자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자기에 대해 탐구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동성애 사이트는 이성애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유보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고, 이 두 권리가 상충하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서로 약간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에 유해 매체 표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기준이 된 것은 동성애를 정신병리학적 문제로, 왜곡된 성욕 과잉의 문제로, 윤리적·도덕적 감각이 상실된 이들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이성애만이 옳다는 이성애주의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은 마치 동성애자가 어떤 권리 하나를 인정받지 못해 항의하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것을 중재한답시고 너의 권리, 나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자는 식으로 나온 것이죠. 동성애자 차별 문제가 마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간의 권리 충돌로 비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니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글자 그대로 성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권리로만 해석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그에 걸맞은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애에 대한

정보나 지식, 사회적 지지는 동성애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란히 쓰일 수는 없습니다. 권리가 있거나 없기 때문에 이성애자가 되거나 못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성애자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에 놓여 있지 못하므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강간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다루어져야 했던 것은 그동안 남편의 성적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만 했던 아내, 즉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었던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불편함이 없었던) 남편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평등도, 공평도, 형평도 아니니까요.

청소년 성교육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섹스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순결을 지키라는 말 대신 너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라는 식의 설명을 종종 들곤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섹스를 마음껏 하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지는 않죠. 결국 소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슴 속에 품어 둔 은상도와 같습니다. 거부할 때에만 권리가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권리에는 책임도 따르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원하는 섹스를 하고 난 뒤의 책임은 선택한 여성이 모두 져야 할까요? 만약 원하지는 않았지만 차마 거부하지 못해 섹스를 하게 되었다면 그

때의 책임은 누구의 몫이 되나요? 분명 섹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듯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치 24시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권리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행동하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모임(약칭: 아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사람들끼리 워크숍을 하기 위해 '청년의 집'이라는 유스호스텔에 묵게 되었는데 아카가 동성애자 모임이라는 사실이 금세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방문에 대고 "호모 새끼들!"이라고 욕을 한다거나 공동 샤워실에서 아카 회원들이 씻고 있으면 괜히 와서 구경하는 등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카 측은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고충을 잘 알겠다며 '청년의 집' 이용 단체 대표들을 소집했지만, 그들이 토론을 벌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갑자기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등의 행동으로 아카 회원을 모욕했고, 아카는 아무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죠. 하는 수 없이 아카는 '청년의 집' 관리소장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소장으로부터

터 놀라운 내용의 답장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청년의 집’은 동성애자들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아키는 ‘청년의 집’의 차별을 고발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이 소송 과정에서 ‘청년의 집’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청년의 집’은 동성애자 이용 금지가 차별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청년의 집’은 공공장소로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따로 방을 써야 한다는 남녀별실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방을 쓰면 그곳에서 성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함인데 이런 남녀별실 규칙을 동성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면 동성애자는 동성끼리 사랑하고 섹스를 하므로 동성애자들은 남자들끼리 한방에 넣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게이와 레즈비언이 한방을 쓰게 하면 원래 있는 남녀별실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 내부 규칙을 평등하게 적용한 결과 동성애자들이 쓸 수 있는 방이 없게 된 것일 뿐 일부러 동성애자를 차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논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말이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만약 논쟁한다면 이 논리의 허점은 무엇이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계속

성적 자기결정권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평등의 실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녀별실 규칙은 애당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남자와 여자만 분리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존재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규칙을 만들어놓은 뒤, 그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성애자(특히 이성애자 남성)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동성애자들에게는 알아서 맞춰 살라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하고, 어쩔 수 없다 해도 최소한 동성애자라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동성애자라고 떠벌리지 않는 한 이성애자와 구별할 수 없을 테니, 이성애자로 보이면 ‘청년의 집’을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지만 잘 들어봐주세요. 자, 차근차근 풀어보죠. 남녀별실 규칙은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있을 때에는 성적 긴장감, 애정적 끌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끼리의 공간은 무성적 공간이며, 따라서 동성애는 부정되어야만 합니다. 남녀가 있는 공간은 사적이고 성적인 공간, 동성끼리 있는 공간은 공적이고 무성적인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믿죠.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 공적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불편해 합니다. 다른 남자를 욕

망하는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세상 모든 공간이 다 사적이고 성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까요(하지만 인정한다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늘 자기 중심으로 공간을 줄여온 이성애자 남성들이 중심성을 뺀 것 같아 불안해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동성끼리 있는 모든 공간을 너무나도 탈성애화시켜놓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회사에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성애자 남성이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 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청년의 집’이 내세운 논리의 두 번째 문제는 동성애자를 동성끼리 섹스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동성애자를 제대로 정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정의일까요? 이런 해석은 사랑을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으로 정의내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다 보니 다른 성이 아니라 같은 성이라는 차이를 일러주느라 그런 것이죠. 가령 제가 동성애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저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시나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성격은 어떻고 고향은 어디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여성이구나 하는 것 하나는 알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동성과 섹스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나 동성과 섹스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섹스를 하는지, 성적 욕망을 갖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뿐이지 그것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성애자도 자신이 이성과 섹스한다는 사실로 자신을 이성애자로 증명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랑하는, 혹은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사람의 성별로 분류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성애자,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성애자’ 이렇게 말입니다. 양쪽 다를 사랑하면 여·남성애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역대 사랑했던 사람들의 성별의 수로 나누어보죠. 주로 여성 한쪽이나 남성 한쪽에만 끌린 경우에는 단성애자, 양쪽 모두에게 끌렸다면 양성애자나 다성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론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 붙이기 놀이도 가능합니다. 앞서 저는 성별을 두 개로만 나누어선 모

두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애자나 단성애자라는 말이 동성애자보다는 신선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 말도 성별 이분법에 기반 편협한 단어일 뿐이죠.

::홍내 가능한, 위장 가능한, 의심 가능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의심하고, 의심하고 제발 의심하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머리와 입을, 말과 개념을 말랑하게 펼쳐서 틀 안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들을 의심하고, 믿었던 것들도 의심해보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의심해보고 자기 안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억지로 성을 바꾼다. 하리수가 너무 여성성을 강조해서 보기 싫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투여를 하고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만 보이시나요? 소위 생물학적 여성들이 다이어트하고, V라인·S라인 만들고, 화장하고, 기미나 주근깨 없애는 약을 먹고, 피부가 매끈해지는 온갖 제품을 쓰는 것은 어떤가요? 여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리수

씨 같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여성성이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나 배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치(butch)나 뽀(emme)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기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레즈비언은 왜 굳이 이성애 역할놀이를 하느냐? 왜 이성애자들을 흉내 내느냐" 그런데 이성애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성애가 '흉내 가능한 것'입니다. 흉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성애 커플로 보이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이성애가 위장 가능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애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본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흉내 가능하도록 학습되고 세뇌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좀 놀라실 수 있지만 저는 레즈비언도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분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데 익숙해서, 레즈비언도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레즈비언을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들로 오해하실까 걱정되지만 조심스럽게 의미 확장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레즈비언은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와 결혼하고 섹스하고 애를 낳고 모성본능이 풍부해야 한다"는 따위의 역할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젠더를 깨고, 젠더를 뒤집고, 젠더를 확장시키고 있으니 트랜스젠더

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레즈비언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라고 질문합니다. "레즈비언 중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이성애자들 가운데에도 아이를 낳고 싶어 않은 사람이 있으니 당연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성이다. 그런데 레즈비언은 여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레즈비언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레즈비언은 여자가 아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남자다. 그래서 레즈비언은 남자 같을 것이다. 결국 레즈비언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 흉내를 내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많은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레즈비언은 "남자 같은 존재, 남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며, 애당초 젠더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이 가능한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는가, 설거지를 잘하는가로 젠더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모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부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를 해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이섹슈얼 부치"는 가능할까요? '이성애자 부치'는요?

제가 읽은 글에서 어느 부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에게 부치는 여성, 남성과 같은 정체성일 뿐이다. 나는 남성스러운 레즈비언이나 남성이 아니라 그냥 부치다. 나는 있는 그대로 부치고 24시간 부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치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치나 뽀는 레즈비언들 중에서 스타일과 섹스 포지션을 중심으로 나누는 용어인데 이를 좀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령 '이성애자 여성 부치'는 어떤가요? 보기에는 엉뚱한 부치인데 성적 지향은 남성애에만 향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이시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섹스를 할 때 좀더 다른 역할도 하고 싶다고 느끼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인 경우입니다. 이성애자 여성이란 말로는 자신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기존의 여성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헤테로 부치(hetero butch)'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나를 여성이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버립니다. 좀더 예뻐야 하지 않겠니? 다이어트는 안 할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생각에 내가 정확히 부합하지도 않고 동시에 나를 다르게 명명하고 싶다면 이성애자라도 부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뽀는 여성인데 남자보다 남자 같은 여자를 좀더 좋아하는

사람' 이고, '부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남자인 줄 알고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팸' 중에는 바이섹슈얼이 많다. 팸은 원래 여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를 좋아하지만 언제든지 남자를 다시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팸은 타고나는 것이고 부치는 마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삽입 섹스를 하고 싶은 팸도 있고 삽입 섹스를 받고 싶은 부치도 있습니다. 보이시한 팸이 있고 치마 입기를 좋아하는 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성애자 여성은 단일한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서 레즈비언만 팸과 부치로 나누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성애자 여성들이 결코 단일한 스타일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성애주의의 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애 바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이성애 바깥도 끊임없이 이성 간 역할과 모델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거부를 팸, 부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쪽쪽 펼쳐봤으면 합니다. 레즈비언을 설명하면서 부치와 팸을 설명하고, 부치와 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 역할과 남성 역할을 설명해야 하고 그 역할을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의 나뉘기로 설명해야 하니, 아무리 설명을 잘해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성과 남성이란 두 글자

안에만 갇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벽에 균열을 내야 합니다. 양성애자 부치, 이성애자 부치라는 말을 통해 사실 생물학적 성별이 딱 두 가지뿐이고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분류, 명명되었을 뿐이며 우리는 그 역할을 짐짓 수행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애자 여성 역할을 하거나 동성애자 여성 역할을 하거나 할 뿐입니다. 역할에는 할당받은 역할과 선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 시스템은 모든 역할을 자연의 이름이나 신의 권위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강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은폐된 진실은 역할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하려는 시도 자체를 범죄화하거나 죄악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오묘한 자연의 섭리나 위대한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 하나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든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규정짓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장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본인이 이성애자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신가

요? 자신이 정말 이성애자인지 석 달 열흘 이상 고민하고 결론 내린 적 있으신 분들 말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강연을 다니면서 항상 이 질문을 던지지만 아직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성애자가 정상이고 다수이고 주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질문을 던지면 긍정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물었을 때 만약 제가 "예, 철수예요" 라고 하면 "어머, 축하해. 둘이 결혼할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제가 영화나 순회 같은 이름을 말하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럼 동성애자란 말이야?" 라고. 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반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성애와 사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이성애자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이성 간 교제는 극히 자연스럽게 그 관계의 진행(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으로 질문이 넘어가지만 동성 간 교제로 인식될 때에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질문을 던져버리죠. "레즈비언인 거야? 설마 아니겠지. 정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차이에 주목해주세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권리나 동성애자로 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할까요? 그 권리를 존중받으면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맘껏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웃기게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존중받으려면 먼저 틀림없이 동성애자라는 사실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정을 착각한 것이거나 누군가의 폼이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니며, 앞으로도 이성에게 끌리게 될 일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가짜 동성애자가 아닌 진짜 동성애자가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성애자라는 사실은 밝힐 것도, 밝혀질 것도, 밝혀야만 하는 것도 없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의 권리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순향전』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살펴보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섹스할 것이냐를 결정하거나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 정도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오래된 차별과 편견의 문제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더욱 더 많은 연구와 논의, 그리고 성찰이 더해져야 할 개념이자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저의 부족한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끝나겠지만, 세상을 주어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나아가는 여성주의적 실천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성의 동일
 근대성과 시는 '근대성의 여
 주인공들'을 역사 밖으로 사라
 게 했고 여성의 근대성
 이 갖는 독특한 특수한
 성격들을 간과하게
 했다는 점은 리타 펠스키를
 비롯해 성별화된
 근대를 논하는 페미니스트
 들에 의해 여러 번 강조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

3주차.

여녕 넥슈얼리티 /

몸 / 욕망

- ▶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박혜림/2007
- ▶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동넛/1999
 - ↳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욕체
- ▶ 「춤추는 입술 2호,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올림>/2009
 - ↳ 따옴표 속의 여성을 벗어나고 싶은데
-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동넛/2006
 - ↳ 자위하기
- ▶ 「Open-ended 4호,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2006
 - ↳ 폭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의 소통
 - ↳ 지위와 보지, 그리고 소통 - 가능성을 만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 성적 주체의 추상화와 피해자화를 넘어서 -

박혜림*

국문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금지의 언어만이 존재했던 기존의 성교육 담론장에 십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성교육 담론이 등장하였다. 십대의 성적욕구를 인정하고 성적 소통을 성교육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는 성교육 담론의 등장으로 십대의 성적 현실과 성교육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성교육 담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담론에서 역시 성적 각본 상에서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남녀의 위치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는 성교육 담론 속에서 십대여성 및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고찰하여 알 수 있었다.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분석에서 성적 존재로서 성적 탐험을 하는(의) 주체를 상징할 때에는 젠더 차이가 무화되고, 젠더 차이가 부각될 때에는 여성의 성적 위험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십대여성화

신체와 관련하여서는 가부장적 의미방에 군림이 되고 있지만, 관계의 차원에서 는 섹슈얼리티와 연상 관계 속에서 십대여성이라는 젠더적 위치가 부각됨으로써 십대여성의 성적 욕망이 위치할 만한 공간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이 규명 되었다. 십대여성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는 섹슈얼리티를 달성하지 않기 위해 'No'라고 단정하게 말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십대여성이 주체의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없는 현재의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관념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적 관계를 맺는 주체의 성별이 표기되어야 하며, 십대여성이 주체적으로 섹슈얼리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요구된다.

주제어

성교육, 십대여성, 섹슈얼리티, 성폭력, 성적 주체

1.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성행위, 임신, 출산,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한 십대¹⁾의 성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성행위를 촬영하여 유통시킨 '빨간 마후라' 사건과

1)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만 13-18세의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십대를 사용하기로 한다. 흔히 통용되는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이 집단을 포괄해야 하는 대상이거나 일방적으로 규제를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함의를 가지며, '청소년'라는 호명 역시 이러한 틀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청소년이라는 용어보다는 이들의 생물학적 연령과 성을 지칭하는 십대, 십대남녀, 십대여성, 십대남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 용어에 '청소년보호'와 같은 기존의 보수적 위상스가 실려있지 않고 따라서 좀 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십대여성, 십대남성이라는 용어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철되는 여성, 남성이라는 젠더적 위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원조교제 사건들에서 드러난 십대들의 '자발적인' 성적 실천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전에는 성적 존재로 간주되지 않던 십대가 성과 관련한 문제들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자, 십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²⁾ 이전에도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엄연히 실시되고 있었지만, 섹슈얼리티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십대의 성과 관련한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합쳐지면서 십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성교육이며 십대들의 섹슈얼리티가 성장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급지의 언어 만이 존재했던 기존의 성교육 담론장에 십대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성교육 담론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적 의미를 내에서 이해되는 한 상황에서 십대남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과 십대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의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차가 고려되지 않은 십대라는 범주 속에서 이들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라는 성교육 담론은 십대여성의 특수성을 탈락하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의 섹슈얼리티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부담을 가지며, 십대의 경우에도 남녀간의 젠더 차이와 권력관계는 엄연히 작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라는 주제가 기존의 성교육에 대한 연구들에서 부각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

2) 1998년 MBC에서 방송된 구정애의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라는 TV 성교육 강좌가 대표적이다. 구정애는 성이 더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폭발적인 사회적 호응을 얻었으나, 성으로부터 성적 욕망을 삭제하고 생명 탄생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십대의 성적 현실 그 자체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과 성교육 담론의 의미구조 속에서 실제 십대들이 처해 있는 위치와 섹슈얼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성교육 담론에서 재현되는 십대들의 성을 젠더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성교육 담론에서 십대남녀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차이가 지워진 채 남성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십대의 남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조우하고 있는 그들의 성적 현실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십대에게 제공되어야 할 '올바른' 성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성교육이 십대의 성적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은 많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글은 기존 성교육 담론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

2. 성교육 담론장의 형성

1990년대 중반은 성교육 담론이 폭증하였던 시기이다. 그리고 기존의 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한편에서는 강화되었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인식론이 변화하였던 시기이다. 이 장에서는 십대의 섹슈얼리티 및 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들과 성교육 담론의 생산 주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성교육의 장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1) 성교육 담론장 형성의 배경

① 청소년 보호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으로 임신한 여중생 및 가출 후 알고 지내던 또래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한 여고생이 임신 사실을 계속 숨겨오다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거나 출산한 영아를 화장실에 유기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남녀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집단 성교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유통시킨 속칭 '빨간 마후라' 사건이 터져나왔다.

십대들의 섹슈얼리티 관련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이들을 유해환경과 분리시켜 보호하려는 청소년 보호론이었다. 청소년 보호론은 1980년대 후반 민간 활동 중심의 유해환경 추방 운동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시민단체, 청소년 단체 그리고 종교 단체들은 가출은 물론 성범죄, 약물남용 등의 청소년 강력범죄나 비행의 원인으로 가정과 학교 이외에 유해환경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의 활동은 유해환경의 정화 및 추방을 막연하게 홍보하는 수준이었으며 자율규제와 각성 촉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대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전성으로 집약되었다(도종수, 1990).

1980년대 후반의 유해환경 추방 담론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십대 성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 합세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 정보법) 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정보위) 설치 논의로 결집되었다. 제도 차원으로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정보법의 제정과 정보위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정보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의 청소년 보호가 제도화되었다. 십대의 성적 일탈을 유도한다며 유해환경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강조하는 인식은 학교 성교육 담론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② 소비 주체로서의 십대의 등장

한국 사회의 경제적 향상과 함께 전반적으로 소비가 증대하면서 1990년을 전후하여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비 수준이 증가하였고, 십대는 소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소비자로 포착되었다. 십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십대는 기성 세대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감성, 스타일, 사고 방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성 세대와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고자 하고, 소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차별화는 대부분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엄연수, 1996). 소비 자본주의 체제의 소비자인 십대는 민족적 주체성이나 가족 성원으로서의 주체성보다는 소비적이고 성적인 주체로서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조한혜정, 1996). 끊임없이 성관계에 대한 욕망을 제조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십대는 상업적 유흥 공간에서 자신들의 성적 기대를 표출시키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성문화를 구축하고 있다(김은실, 2001). 이들의 성적 관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다른 문화적 공간과 기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십대들이 일상적으로 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정상/비정상이라는 기존의 이분법 하에서 성에 관심이 없는 '정상'으로 분류된 십대들도 다양화된 성산업 속에서 스스로를 성적인 주체로 구성하고 있다. 확대된 성적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소비 주체로서의 십대의 등장은 이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와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③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몇 가지 상징적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질서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성폭력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운동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라면 합구시키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에 도전하며 성폭력의 실상을 드러내었다. 성폭력은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자와 일부 행실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전대 관계에 기반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로 개념화되었다.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 규정은 성범죄들의 조합으로 귀결되고 말았지만 여성 단체들 사이에 합의된 성폭력 정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였다. 성폭력특별법만 따를 경우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여성 단체 사이의 지난한 논의 끝에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규정되었다. 성폭력이 정조를 침해한 범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것을 환기시켜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라면 합구시키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을 극복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성적 자유와 자율성의 구체적인 의미들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주의의 대항 담론을 통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단체들이 규정하는 성폭력 개념의 핵심 골자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신상숙,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반성폭력 운동으로 인해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넘어, 성적 관계가 가부장적 틀 내에서 구조화되어 성문화 전반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

이 가시화된 성폭력 사건들의 공론화와 함께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의 해결을 위한 성교육의 요청으로 이어졌다.³⁾

2) 성교육 담론의 생산 주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 성교육 담론의 생산 주체로는 주류 학교 성교육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교육계와 보건계, 사회 교육으로서의 성교육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가 있다.⁴⁾

실대의 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자,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성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⁵⁾ 보건계는 가족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 차원에서 성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계의 성교육은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교육계 공무원, 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에 의해 기획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계의 성교육 담론을 생

- 3) 이러한 요청은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한 성교육 의무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성교육 의무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은 수시 교육,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연간 10시간, 고등학교 2, 3학년은 연간 5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고 있다.
- 4) 기존의 주류 학교 성교육이 교육계와 보건계의 상호보완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둘의 성교육 담론의 분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교육계와 보건계의 성교육 담론은 학교 성교육 담론으로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은 담론 생산의 배경 및 맥락, 발할 성과 내용에 있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5) 교육계의 노력은 성교육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었고 다만 이전에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성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 전담교사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성교육은 여전히 주변부화되어 있다(유은주, 2000; 알현정, 2002).

산하는 주체로는 <연구보건복지협회>와 <구성애의 푸른아우성>이 대표적인데, <연구보건복지협회>의 경우는 교재 개발 및 판매와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 등 교육계의 성교육을 보완하는 활동 위주로 성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성애의 푸른아우성>은 교육 사업의 경우 대표인 구성애의 외부 출강 위주로 성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단체는 1980년대 후반 유해환경 추방 운동이 전개될 때 그 핵심 주체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도 하의 청소년 보호 법제화 움직임에도 동참하면서, 십대를 위협한 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십대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성관련 사회적 환경에 일상적으로 대면하면서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상당과 성교육의 구체적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자, 이들은 십대의 성적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의 성교육과 결별하고 십대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성교육 담론을 생산하게 되었다. 청소년 단체에서 생산되는 성교육 담론을 대표하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담론을 분석하였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성교육 담론이 청소년 단체 성교육 담론 고유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여기서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여타의 단체들에 그대로 소개·활용될 정도로 그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성 단체들은 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반성폭력 운동의 차원에서 성교육의 장에 참여하였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남성중심적·성폭력적인 성문화의 변화를 모색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섹슈얼리티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하는 성교육을 구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 단체의 성교육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이 차츰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질서가 십대에게 더욱 심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십대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십대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여성 단체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성문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있다. 이 세 단체는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성교육 담론을 생산하고 있지만 반성폭력 운동 차원의 성교육 담론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성교육 전명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3. 주체별 성교육 담론

1) 학교 성교육 성적 일탈 예방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는 신체 발달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성적 실천으로 인한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면 사춘기를 통과하는 십대가 자신의 성과 관련하여 당황하지 않고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전제 하에, 발달 단계에 맞는 과학적 성지식의 전달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십대의 성적 관심 또한 과학의 차원에서 발달 단계 상의 성호르몬 분비와 연관되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된다. 그러나 이성적 관심의 실천은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와의 관련 속에서 언급된다. 성 행동과 그로 인한 위험이 결합되는 대표적 방식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관계로 인한 임신의 위험을 강조함으로써 성행동에 대한 공포를 환기시키며 책임있는 성을 위해 성적 관심을 절제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성적 실천을 유예할 것이 요구된다.

사춘기 이후부터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이상에 접근하려는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본능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절도있게 사가는 일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직 미숙하여 서로의 일면 만을 보기 쉽고 그릇된 판단이나 경솔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만약 임신이라도 한다면 아직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부작용과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뒤따릅니다(한국보건복지협회, "청소년기의 성").

성적 실천으로 인한 위험의 강도는 결혼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성충동의 절제를 통해 성적 실천을 유예해야 한다는 도덕의 제시로 이어진다. 성충동의 자제와 조절하를 바탕으로 성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는데, 그 의미는 결혼할 때까지 성적 실천을 유예하면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의 확립이다. 서구화, 산업화 및 성을 상품화하는 상업주의로 인한 쾌락주의적 성인식이 '올바른' 성윤리의 확립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로 지목된다.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향락 산업의 발달과 그로 인한 쾌락적인 성문화의 확산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무분별하게 분출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혹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성적 주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서울특별시교육청, 1998: 100-101).

요컨대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는 성적 실천을 금지하는 규범을 통해 심대를 성으로부터 차단하여 성적 일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다.

2) 청소년 단체 성교육: 개인의 섹슈얼리티 개발

청소년 단체는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성지식을 전달하거나 성도덕을 강조하는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심대의 성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

6) 그 방안으로 운동이나 등산 및 창작 활동 등을 통한 성충동의 승화가 권장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심대어성의 섹슈얼리티 | 박혜림 2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단체 성교육 담론에서는 전통 보수주의 성담론 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심대 섹슈얼리티의 적극적인 개발이 주요 의제이다. 심대들이 다양한 성적 상황에서 주체적, 합리적으로 성적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의 바탕에는 성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들과 섹슈얼리티의 공론화를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다음이라는 전제가 놓여있다.

3) 여성 단체 성교육: 남성중심적 성문화 변화

여성 단체들이 주목하는 성교육의 직접적인 동기는 성폭력의 예방이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 단체들은 성문화의 남성중심성을 드러내고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대안적 의미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성교육 담론을 생산한다. 여성 단체들은 '성을 매개로 하는 억압'을 밝히고 이것의 변화를 위한 장으로 성교육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적 성인식의 교정이, 또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예방책으로 성을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자신의 성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의 육성이 부각된다.

여성주의 성교육은 성의 생리적 요소나 과학적 요소보다 성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은 남성중심적인 수직에 있고 이성 간의 성관계는 이성 간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반영시켜, 과정, 결과 등에서 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2a: 7).

이 책의 목적은 단지 '어떻게 잠재적인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소극적인 문제의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느낌과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심대어성의 섹슈얼리티 | 박혜림 251

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심대 섹슈얼리티를 금기시하는 성교육은 결국 심대 성담론의 음성적 유포와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뿐이라며 심대 섹슈얼리티의 억압에 문제제기하였다.

청소년 단체의 성교육은 성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섹슈얼리티의 공론화를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성적인 존재로서의 체험을 중시하여 성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이라고 간주되었던 심대의 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에 대한 느낌을 성찰하는 것과 또래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심대가 성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또다른 훈련으로 자신들의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경험을 언어화하여 또래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섹슈얼리티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성과 관련한 가치, 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성 관련 지식 및 인식을 드러내도록 하여 성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공론화 역시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표현 및 소통을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서 청소년 단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성적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이다. 성적 의사결정 훈련은 성적 상황에서 자기 결정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들을 고려한 후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성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단일한 도덕을 제시하는 '선도'가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와 선도에 의해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더불어 성적 주체인 청소년에게 성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4a: 19).

250

카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을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성적자기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04a: 1).

성문화 및 성인식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심대를 성적 존재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여성 단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이다.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한국여성민우회, 2004a: 93)'이다. 이 능력의 향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기,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듣기, 배려를 통한 합의의 과정으로 성적 의사소통하여 성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상에서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에서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확보를 통해 평등한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하여 가부장제 사회의 성폭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심대어성의 섹슈얼리티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들의 의미구조 속에서 심대어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위치지워져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심대어성 섹슈얼리티의 의미화를 살펴보는 이 작업을 통해 성격이 다른 각 성교육 담론에서 공통으로 간파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52

1) 성적 존재로서의 십대여성의 재현

① 십대여성의 이분화: 순결을 지키는 정상아 / 성적 실천으로 인한 타락한 문제아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 십대는 성적으로 건전함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고 이들의 성적 실천은 문제로 의미화된다. 이는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의 성에 대한 이해가 전통 보수주의 성담론의 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주의 성담론에서는 성이 개인의 쾌락이나 욕구 충족보다는 가족의 구성 및 유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결혼 제도 내에서의 성, 그 중에서도 재생산과 관련이 있는 성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성적 실천이 쾌락보다는 재생산과의 관련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므로 섹슈얼리티를 전제로 한 남녀관계는 결혼 이외의 맥락에서는 용인되지 않는다.⁷⁾

전통 보수주의 성담론의 문법에 기대어 성이 사고되는 학교 성교육 담론 내에서 재생산과 관련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결혼 제도 바깥의 십대의 성이 인정받을 여지는 없다. 결혼에 진입하기 전까지 성적 실천을 유예하고 순결을 지키라는 규범이 강조되며 십대의 성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전통 보수주의 성담론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모성으로 환원된다(조영미, 1999). 성이 재생산의 맥락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자리매김되기 때문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자연히 자녀를 생산하는 생식 행위로 한정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도달해야 할 종착점에는 신성화된 모성이 자리잡고 있다. 섹슈얼리티의 행동 강령 역시 혼인으로 맺어진 가문의 자녀를 낳고 대를 잇기 위한 성행위이다. 성행위는 결혼 이후에나 가능하며 혼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7) 공식적 체계에서는 재생산 중심의 성,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만이 인정받지만 남성의 외도나 성매매에는 허용적이다.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 역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재생산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 십대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정결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재현된다. 현실의 십대여성은 문제아 집단을 제외하고는 성적 실천에 무관심하다고 간주된다. 십대남성은 강력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반면 십대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다고 간주되는데, 이는 성호르몬의 차이로 정당화된다.⁸⁾ 십대여성은 성적 욕망 보다는 친밀감의 표현이나 연애 각정에 더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 담론 내에서 십대여성의 성적 욕망은 성에 대한 과학의 용어로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십대여성에 게 있어, 이성교제를 할 때 건전함을 유지하여 순결을 지키라는 규범은 십대남성의 성적 욕망까지 절제시켜야 하는 책임이 된다.

십대여성은 성충동을 별로 느끼지 않는 존재로 이해되기 때문에 십대 여성의 성적 실천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탈적 사건이 된다. 성관계는 준비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극적 쾌락에 대한 순간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건이 된다. 성관계는 임신이라는 문제적 상황과 직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순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성적 실천을 한 십대여성은 순결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일탈적인 문제적 상황과 맞닥뜨리는 문제가 된다. 십대여성은 순결을 지키는 정상아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아로 이분화된다. 이것은 여성을 성경험의 유무에 따라 성적으로 조선한 여성과 문란한 여성으로 이분화하는 성통제 기제와 쌍을 이룬다.

② 위험한 섹슈얼리티의 (잠재적) 피해자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 성폭력은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범

8)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은 십대남녀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성적 욕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있다(황은자, 1993).

죄인들에 의해 여성의 정조가 침해당하는 사건으로 의미가 규정되는 문제물과 단절한다. 성폭력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전반의 문제로 의미화된다.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에서 성폭력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규정된다.

성폭력을 인식하는 의미물에 대한 문제제기는 '성폭력적 성각본', 소위 '정상적'인 섹슈얼리티의 폭력성에 대한 환기로 나아간다. 폭력적 성문화가 지배적이라는 문제제기는 폭력적 성관계가 성애화되어 성관계와 성폭력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미까지 강하게 내포하였다. 여성단체 성교육 담론에서 섹슈얼리티 질서는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정치적 영역이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여성은 폭력적 성각본의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는 위험한 영역으로 파악되어 성폭력의 위협으로 의미화된다. 이중적 성윤리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 가부장제 사회에서 십대여성은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거나 성폭력, 성매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된다.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피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성폭력에 문제제기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물로 성교육을 사고하는 것은 자칫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폭력적인 성이 지배적인 위험한 사회에서 십대여성의 성욕이 위치할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십대 여성은 섹슈얼리티를 드러내지 않는 무성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저항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겠다는 여성 단체들의 성교육은 여성의 성적 위험을 강조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여성의 성적 쾌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③ 성적 권리의 담지자

십대의 성적 실천을 문제 내지는 위협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는 십대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청소년 단체는 성적 주체로서의 십대를 인정하며 다양한 차원으로 십대의 섹슈얼리티를 개발하는 성교육을 제출하였다. 여성 단체에서도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그리고 신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십대를 적극적으로 성적 존재로 인정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성교육을 기획하였다.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십대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여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청소년 단체 성교육 담론과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 모두에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향상은 핵심 과제가 되고 십대의 섹슈얼리티는 성적 의사소통으로 개념화되었다.

청소년 단체 성교육 담론에서의 성적 의사결정 훈련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계획적, 주체적 선택이 외부의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의사결정 + 다른 영향력 = 행동'(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4a: 113)이라는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성적 의사결정 훈련에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영향력과 개인의 선택은 분리된다. 성적 상황이 제시되고 외부적 영향력이 열거된 후 이 외부적 영향력과 구분되는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섹슈얼리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객관적으로 성찰한 후라면 성적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의 계획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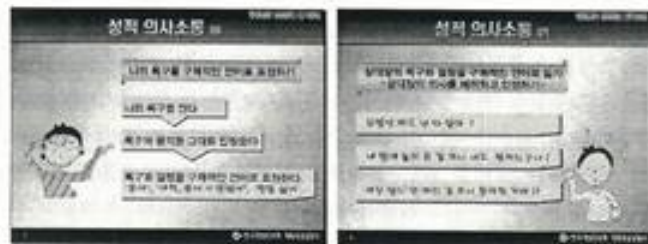
9) 또래집단의 압력, 대중매체의 메시지, 이성친구의 일러, 부모의 소망, 약물과 술의 영향력 등을 주요한 영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4a: 113).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 도덕적 규범이 절대적인 반면, 청소년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규범을 가르치는 성교육이 거부된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강조되며 관계에서의 규범 자체가 설정되지 않는다.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선택을 개인의 몫으로 남기면서 대신 그 선택이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청소년 단체의 성교육이다.

성교육은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기보다는 아이들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상의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문제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성적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로 되고 있다(야야 청소년성문화센터, 2004a: 81).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여성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단체의 성적 자기소통의 과정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욕구와 결정을 존중하면서 들으며 상호 배려와 인정을 통해 서로 만족하는 해결점에서 합의를 본다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그림 1> 성적 의사소통 (1), (2), (3)



출처: '내 몸의 주인은 나', 한국어성문화(2003)

청소년 단체 성교육 담론과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 모두에서 심대가 성적 의사소통의 주체가 될 때에는 주체의 위치와 조건, 즉 섹슈얼리티 구성의 남녀 차이가 삭제되고 개인의 선택이 강조된다. 청소년 단체 성교육 담론의 경우 주체들의 위치와 조건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없이, 주체와 별개의 외부적 환경을 상정하고 주체가 그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 것이 강조되는 방식이다.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의 경우에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의 원칙일 뿐이다. 성적 의사소통의 주체는 위치와 조건에 대한 설명이 없이 성별화되지 않는 추상적 개인이다. 성적 쾌락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 개인은 남녀 구분되지 않은 개인으로 재현된다.

그러나 외부적 영향력과 분리된 순수하고 주체적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외부적 환경의 영향 하에 있는, 그 외부적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구성되는 존재이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관계적 자아이다. 관계적 자아의 성적 욕망은 젠더 관계의 효과 속에서 구성된다. 성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때 섹슈얼리티 구성의 성찰을 고려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성적 관계를 맺는 성적 의사소통 상황은 그 자체가 이미 권력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성적 의사소통의 주체들, 즉 현실의 심대들은 이미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 추상적 개인이 아니다. 성적 의사소통이 젠더 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 젠더적 위치에 대한 고려없는 성적 주체가 상정된다는 점은 이 담론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2) 심대여성 섹슈얼리티의 의미화

① 여성 신체에 부여된 가부장적 의미망: 지속과 균열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 심대여성의 신체는 재생산 및 순결과 관련한 의미망에서 해석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심대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순결 개념으로 환원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재생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심대여성의 신체가 주목받게 된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 심대여성의 신체는 재생산을 중심으로 재현된다. 재생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식 기관들이 있고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심대여성의 신체가 언급된다.

이렇게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는 여성 신체에 대한 가부장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심대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가부장적 의미망에 균열이 가해지고 있다.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생식기와 재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던 협소한 성개념이 포괄적인 것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심대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성교육 담론을 생산하는데,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담론에서 심대를 성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성적 욕구를 느끼는 곳으로서의 신체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포괄적 성개념

은 이렇게 심대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으로 귀결되지 않고 성적 욕구와 욕망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동물처럼 생식적인 욕구(임신과 출산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욕구, 성적인 즐거움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몸,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몸, 성적인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와 능력,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능력……(한국여성민주회, 2004a, 32)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 신체 및 재생산에 대한 정보는 특히 심대여성이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가부장적 의미망에서 월경은 금기와 터부의 대상이었고 여성은 월경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였다. 월경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월경을 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월경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의미부여에 비판이 가해지며 월경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 월경은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으로 의미화되어 심대여성은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성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심대여성의 신체 변화와 성적 욕구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는 심대여성으로 하여금 신체와 성적 느낌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심대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당당한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심대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가부장적 의미망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다. 심대여성이 자신의 성적 느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신체의 성적 느낌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또한 처녀막에 대한 설명이 순결 개념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면서 심대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가부장적 의미망에 균열이 가해진다. 처녀막은 여성의 재생산이나 건강, 성적 쾌락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제의 심리상대가 반영되어 그 존재의미가 극대화되었다(김현미, 1997: 132). 가부장적 의미망에서 여성의 가치는 성경험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고 여성은 순결을 지키는 훌륭한 여성과 성적으로 문란한 부도덕한 여성으로 이분화되었다. 청소년 단체와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는 처녀막과 순결의 연상 관계가 해체되고, 순결 개념으로 인하여 여성이 '억압받고 단죄되었다'고 서술되면서 순결 개념에 대한 비판이 가해진다.

'처녀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질 입구를 감싸고 있는 근육조직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여성들에게 있어 처녀막의 존재는 성관계의 경험 유무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되었어. 원래 막혀 있다가 성관계 시 파괴되는 것이라면 월경이나 질 분비물은 나올 수 없는 거잖아. 첫 성관계 시 출혈이 되는 경우는 원래 막혀있던 막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첫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무리하게 성기결합을 시도하게 되어 질 입구의 약한 근육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 생기는 거야. 물론 출혈이 없는 경우도 있지…… 잘못된 처녀막에 대한 환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단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야(한국여성민우회, 2004a: 25).

② 성적 관계 장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행위의 처방: 'No'라고 말하기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학교 성교육 담론의 성적 각본은 다음과 같다. 심대남성은 '그저 같이 있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심대여성과는 달리, '적극적인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따라서 성적 실천의 시작은 심대남성의 성충동이다. 심대남성의 주도로 성적 접촉이 시도된다. 그런데 심대여성은 접촉 욕구가 없

기 때문에 심대남성의 성적 접촉이 좋지 않다. 이 경우 심대여성은 'No'라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심대여성은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여 원치 않는 성행동에 저항해야 하고 심대남성은 이러한 저항을 존중해야 한다. 심대여성의 'No'는 '내성'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고, 심대남성은 심대여성이 싫어하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남자들은 여자와 적극적인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여자들은 그저 같이 있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도의 마음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교제 시 여학생은 남학생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남학생과 단둘이 있게 될 때 남학생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가 성적 관심을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 깊이 있는 신뢰감이 없으면 성적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 만화나 포르노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힘부로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남녀 성심리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성교제를 할 때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No'를 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 108).

이러한 성적 각본에서 심대남성은 강력하고 억누를 수 없는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심대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으며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존재로 제한된다. 심대남성의 성충동은 자주, 그리고 강하게 일어나고 심대여성은 성충동이 미미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전제되기 때문에, 심대여성은 원치않는 성교에 'No'라는 거부의를 표현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 성교육 담론에서 성적 관계를 다루는 부분, 특히 이성교제를 다루는 부분은 데이트 폭력 예방의 차원으로 제시된다. 성적 관계 장면에서 심대여성에게 처방되는 행동 강령은 'No'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뿐더러, 성적 문제 상황의 예방을 위해서 'No'라고 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처방이다.

심대를 성적 주제로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도 성적 관계 장면에서의 심대여성의 섹슈얼리티 제한과 관련해서는 학교 성교육 담론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대를 성적 주제로 인정하는 성교육 담론에서 심대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가부장적 인식틀에는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서 심대여성의 신체에 부여된 가부장적 의미망에는 균열이 가해지고 있지만 성적 관계 장면, 즉 성적 의사소통 장면에서 심대여성이라는 젠더적 위치는 성폭력의 연상 관계 속에서 부각된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그림 1>은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이 제한하는 성적 의사소통 과정, 즉 성적 관계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여성 단체 성교육 담론에서 성적 의사소통의 주체는 성별 구분이 없는 개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적 의사소통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제시하는 대화들을 살펴보면, '눈빛만 봐도 난 다 알아?', '내 방에 놀러 온 걸 보니 너도 원하는구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동의한 거야?',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등 관계의 상황이 성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성적 의사소통의 상황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의사소통이 구체적 행동 강령 수준에서는 성폭력적 성인식을 교정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 되고 있다.

섹슈얼리티의 재구성을 모색하는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 역시 성적 관계 장면에서 심대여성에게 제공되는 구체적 행동 강령으로 'No'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부재한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는 심대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대상화시키고 성적인 문제 상황의 책임을 심대여성에게 전가하면서 여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여성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포괄적인 섹슈얼리티로 성개념을 확장하면서 성적 욕망에 긍정적 의

미를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강령화한 것에 비하면, 관계의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맺기는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은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주의의 대항 담론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구체적 의미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호인정의 규범이라는 대안적 관계의 차원보다는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관계 이전의, 관계 바깥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권리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라는 맥락으로는 성적 권리의 언어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쉽게 성폭력이 아닌 것 정도의 개념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남녀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섹슈얼리티 역시 이러한 젠더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섹슈얼리티 체계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기 십상이다. 남성적 시선의 대상인 여성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부당한 동의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성적 각본 하에서 여성은 친밀성의 영역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심대여성 역시 마찬가지이다.¹⁰⁾ 성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심대남성과 심대여성은 섹슈얼리티의 각본

10) 심대남녀의 성을 얘기할 때에도 엄연히 남성과 여성을 다른 방식으로 위치지우는 가부장적인 섹슈얼리티 각본이 작동하고 있다. 심대여성은 한편으로는 보호받아야 하는 순결한 존재로 간주되면서도 다른 한편 심대남성들과는 달리 남성 욕망의 대상이자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자로서의 여성이라는 표상으로 쉽게 환원된다. 밝히는 여자가 필히 폭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실제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해야 한다면 미혼모라는 낙인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구조에 기인하는 심대여성의 부담이다. 이와 같이 심대여성들의 성적 현실은 심대남성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상 매우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의 성적 각본 하에서 십대여성의 성적 욕망이 위치할 공간은 없다. 따라서 십대여성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주체의 위치를 점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성의 이러한 성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십대 성교육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이다. 십대들은 미래의 성인이 될 사람들이고 청소년기에 받은 교육의 내용이 성인기의 행동 양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성교육에서 십대여성을 건강한 성적 존재로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교육 담론에서 의미화되는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서는 가부장적 의미망에 균열이 나고 있지만, 관계의 차원에서는 성폭력과의 연상 관계 속에서 십대여성이라는 젠더적 위치가 부각됨으로써 십대여성의 성적 욕망이 위치할 만한 공간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여성 단체의 성교육 담론에서조차 십대여성이 주체적으로 성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의 상황이나 행동 강령의 제시는 미진하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십대가 성적 존재로서 성적 탐험을 할 때에는 십대남성과 십대여성이 섹슈얼리티 질서에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젠더적 위치가 무화되어 젠더 관계의 맥락이 삭제된, 성차가 고려되지 않는 주체가 상정되는 반면, 젠더 관계가 부각될 때에는 성폭력과의 연상 관계 속에서 여성의 성적 위험이 강조되고 있다. 성적 관계를 맺는 주체는 추상적 개인으로 상정되면서 남성의 입장이 대표되고 있으며, 십대여성이라는 젠더적 위치가 표기되지 못하고 있다. 젠더적 위치가 강조될 때에는 십대여성의 성적 욕망은 표현되지 못하고 십대여성은 주체의 위치에 자리할 수 없게 된다.

성교육을 여성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한 섹슈얼리티 질서와 십대여성의 성적 쾌락을 동시에 고려하여 젠더 관계의 변

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재의 여성주의의 언어로 표현하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성문화 속에서 십대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질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된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남성의 성적 시도에 대하여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의사를 잘 밝혀서 'No'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유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 관계를 맺는 주체에 성별이 표기되어야 하며, 십대여성이 주체적으로 성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행동 강령이 요구된다.

성적 의사소통의 주체에 젠더 관계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관계와는 별개로, 즉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자유주의적 인식틀에서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자아, 즉 개인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인식틀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관계 속에서 성적 욕망을 알고 이에 반응하는 십대여성의 재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3장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육체

식민화된 감독과 해방의 영토라는 이분법 사이의 고민들

1. '영화'와 '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들과 그 관계

아마 현대적인 주제들 가운데서도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접근 방식을 수립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바로 '성'일 것이다. 성은 흔히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협애화되기도 하지만, 근대적 주체가 지닌 자아의 핵심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또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외적인 부가물과 의미가 가장 많이 더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은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으로, 정치적이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으로, 역사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어쨌든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성은 점차 인간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범주이자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19세기 말에 등장한 영화는 20세기 들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예술 장르이자 대중 매체의 하나가 되었다. 영화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거대한 규모의 문화 산업이자 우리 여가 생활의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오락이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대중 문화의 지배적인 표상, 즉 대중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매체이자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화와 성이 연결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점은 영화가 이미지와 스펙터클에 크게 의존하는 매체이자 장르라는 것과 문화 산업으로서 갖는 상업성일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영화가 성적 표현은 물론이고 여성의 육체 이미지와 맺을 수밖에 없는 밀접한 연관이 비롯된다.

조야한 형식을 지닌 짧은 길이의 초창기 영화들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기가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옷을 벗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는 그 탄생에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인 '관음증(voyeurism)', 즉 타인을 훑쳐보는 데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도착적 충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시선(look)을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흔히 '가학증(sadism)'에 입각한 서사 구조로 이어진다. 따라서 거의 모든 영화에서 남성은 시선의 주체이자 서사의 능동적인 역할을 맡는 반면, 여성은 시선의 대상(즉 이미지이자 스펙터클)이며 서사 내의 수동적 위치를 부여받는다(로라 멀비, 『시각적 쾌락과 서사 영화』, 김명혜 외 공역, 『성, 미디어, 문화』, 나남, 1994). 이것은 영화를 구조화하는 원리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이고, 영화 내에서 펼쳐지는 행위와 환상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의 욕망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영화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폭력이나 구원의 대상이 되고, 성적으로 순결한 존재 아니면 과잉된 성욕의 주체가 되며, 비극적인 희생자 아니면 위험한 위반자로 재현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성에 대하여 남성들이 갖고 있는 상호 모순되고 이분법적인 욕망이 투사된 결과물이자,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해 한편으로는 착취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남성들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영화에 재현되는 '성'을 논의할 때, 그것은 성적 행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화가 당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가장 통속적인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 장르 영화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저급한 장르나 유치한 드라마로서 경멸받아 온 멜로와 공포, 그리고 에로물(소프트 포르노그래피)을 분석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이 장르 영화들이 주로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흔히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일상의 세계와 감정의 영역을 다루거나(멜로), 여성이 자신의 육체성이나 모성 이데올로기와 맺는 불편한 관계를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표현하거나(공포), 여성의 육체나 성에 대하여 남성이 갖고 있는 환상과 욕망 또는 공포와 지배욕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다(에로)는 점에서 여성성, 여성의 육체,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재현에 있어서 항상 '문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시각과 욕망의 역학을 비판적으로 거슬러 읽으면서 이에 대하여 개입하고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말에 등장한 두 편의 한국 영화 '산부인과'와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앞서 제기한 문제들과 통찰의 연장선 속에서 더 급진적이고 능동적으로 독해해 보고자 한다. 두 편의 영화는 그 완성도나 상업적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여성의 성과 육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논쟁적인 지점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텍스트들이기 때문이다.

2. 멜로 드라마: '희생자'로서 여성의 위치

멜로 드라마(이하 멜로)는 가장 여성적인 장르였다. 멜로는 여성 관객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된 관심사와 여성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처하게 되는 갖가지 모순된 위치들을 반영하고 또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멜로는 관객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여 눈물

위뿐 아니라 성적 욕망과 환상까지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지시하는 동시에(그러나 '성'은 주로 여남간의 성적 차이와 관계를 포함한 일상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반면, '섹슈얼리티'는 성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정치적인 의미와 성심리적이고 이론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여성성·남성성과 같은 성별 개념 역시 전제하게 될 것이다.

성별의 문제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섹슈얼리티는 철저하게 성별화된(gendered) 형태로 주어지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에 입각해서 여남의 섹슈얼리티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라본다. 즉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원래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면 여성의 경우에는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것으로 상정되면서, 여남의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것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그 성애(eroticism) 역시 이미 불평등한 것으로 구조화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성별로 환원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영역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별 중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는 성별이라는 틀을 통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방식의 억압, 차별, 구속을 보이지 않게 가장 효율적으로 매개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 수많은 개별 영화들과 영화라는 장르 자체는 여성에 대해서 섹슈얼리티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불편하고 억압적인 특성을 가장 통속적이면서도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영역이 된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여성의 육체가 철저하게 대상화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불완전하거나 문제적인 것으로 재현되는 과정에서 섹슈얼리티,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모순과 긴장감을 역시 명료하게 또는 과도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한편에서는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완고하고 전통적인 통념들과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들이 여전히 영화 텍스트의 표면을 지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텍스트의 이면과 그 결들속에서는 그런 통념과 이미지들이 지니고 있는 모순적이고 불일치하는 지점들이 폭로되면서 도전받기 때문이다.

을 쥐어짜고자 하는 목적, 전적으로 사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내용, 순응적·희생적인 여성상을 일반화하는 태도 때문에 경멸받고 비난받아 왔다.

그러나 1960년대 197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엄없이 여성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멜로가 여성 관객들에게 주는 쾌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멜로를 보면서 여성들은 자신을 둘러싼 가정적·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위치와 주체성을 부여받고 형성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멜로 텍스트가 단일하거나 응집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모순과 불일치점들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용 과정 역시 끊임없는 순응과 도피, 협상과 저항의 과정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멜로는 한 시대에 여성성이 정의되고 구성되는 방식과 여성의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성과 육체가 다양하게 통제되고 억압받는 과정, 반면에 문화적 주체로서 여성 집단이 영화라는 재현물을 둘러싸고 벌이는 심리적·이데올로기적 투쟁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드러내 보여 준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가족 멜로나 호스텔스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멜로 영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 당시 멜로 영화들은 급속한 근대화가 야기한 전통적 가치의 붕괴, 여남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이데올로기의 동요를 포함하여 전통과 근대 간의 충돌과 갈등을 '희생자로서의 여성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해 왔다. 흔히 '아름다운 부대', '고무신 관객'이라고 불리던 여성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고통과 비극에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모순들을 어렵게 깨닫기도 했다. 마치 '근대의 기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멜로의 여주인공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타자화되는 여성들을 지배적인 담론 내로 재포섭하려는 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 내에서 끊임없이 이탈하거나 충동을 빚어 내

던 여성들 자신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김소영, 1996).

『별들의 고향』

1970년대 최고의 인기 작가였던 최인호의 소설을 이장호 감독이 영화화한 『별들의 고향』(최인호, 1974)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평범한 여성이 호스텔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멜로적 관습에 입각해서 지극히 통속적으로 그려 낸다. 그런데 이 영화가 멜로 드라마 장르의 관습들에 따라서 여성이라는 위치와 여성의 성을 애초부터 취약하거나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진 것으로 그려 낼 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양면적 현실, 즉 끊임없는 탐구와 매혹의 대상이자 가부장제 사회에 만연된 반여성적 폭력과 여성 혐오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환기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순종적이고 희생자적인 여성 이미지는 영화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여성의 주체성이나 욕망에 대한 '희미한' 기록들과 부분적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경아의 타락과 죽음을 반복해서 정당화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영화적 장치들이 오히려 여성 관객들에게 통절함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사랑, 결혼, 성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여성의 삶과 육체에 각인되는지, 그 결과 여성의 삶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채 어떻게 남성들이 지닌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되고 제약받는지를 잘 보여 준다. 영화의 서사 구조, 이미지의 구축, 그리고 공간 및 사운드의 사용 모두가 어우러져서 여성을 하나의 '대상'으로, 즉 남성들의 성적 욕망과 환상이 관념적으로 투사된 하나의 '기표'로 구성해 낸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한마디로 '과잉적' 텍스트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강박증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스스로 그 작동 논리와 모순성을 노

출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성차(性差)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남성의 지배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선 서사적 차원에서 이 영화는 경아가 네 명의 남성들과의 관계 끝에 타살에 가까운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회상 구조를 통해서 비연대기적으로 보여 준다. 문호와 경아의 만남과 마지막의 죽음 장면만이 현재 시제를 구성하고 있다면, 나머지 사건과 행위들은 경아의 회상 형식을 통해서 화면에 제시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는 관객이 경아의 역사를 관찰자적으로 지켜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이미 과거 시제의 것들이라는 점에서 경아의 비극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이야기 속의 행위 주체인 경아에 대한 관객의 동일화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무너지면서, 관객은 전체 이야기의 이면에서 끊임 없이 작용하고 있는 반여성적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게 된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공간들 역시 주로 여성을 소외시키거나 위협하는 기능을 하면서 성차별주의를 더 확장한다. 경아의 순결이 깃잡히는 여관, 그녀의 성과 육체가 전시와 교환의 대상이 되는 술집, 그녀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결혼 생활의 파경을 초래하게 되는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경아에게는 소외와 억압, 불편함과 위험을 내포할 뿐인 만준의 저택과 문호의 아파트 모두 마찬가지이다.

영화는 도입부에서, 쇼윈도에 걸린 옷들을 훑던 듯이 바라보다가 곧 이어 마네킹이 되어 그 옷들을 입고 있는 경아의 모습을 몽타주로 보여 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아의 환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아를 소비 자본주의의 논리에 포섭된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영화의 시작부터 그녀의 불행은 '그녀의 욕망' 탓으로 돌리게 한다. 더구나 경아라는 존재 자체를 '보여지는 이미지', 남성들의 관음증적이거나 불신주의적 시선의 대상으로 위치짓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의 보기(looking) 구조 역시 철저하게 반여성적이다.

그러나 멜로 영화로서 『별들의 고향』이 지니는 순응성은 여러 지점에

서 저항을 받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몽타주 장면이나 결혼에 대한 경아의 꿈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하는 종이학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장면, 그리고 죽기 직전에 경아가 첫사랑인 영석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는 환영에 빠지는 장면 등은 이 영화에다 경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기입함으로써 부분적이거나 여성 주체성의 흔적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아가 누드 사진 모델 일을 하는 장면에서는, 누드 모델의 전형적인 포즈로 플래시 세례를 받는 경아의 이미지 중간 중간에 머리 위로 손을 얹고려 뺏는 여자의 쇼트가 삽입되는데, 그 쇼트들은 피사체가 누구인지, 카메라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기 구조를 동요시킬 뿐만 아니라, 손을 위로 뺏는 포즈 자체가 상징하는 저항성 때문에 수동적이고 착취당하는 여성 이미지와 충돌한다.

또한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대사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의 성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이중 기준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여성 또한 이를 당연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결국 경아의 타락과 죽음이 여성에게 성적인 수동성과 불평등한 위치를 강요하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이것을 스스로 내면화한 여성의 피학증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강요된 타살임을 오히려 드러내게 된다. 더구나 여성의 순진성과 희생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지극히 서정적인 가사의 노래들이 경아의 비극적 모습 위로 반복해서 흐를 때, 우리는 이미지와 음향 간의 극단적인 부조화를 통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들의 작용이 얼마나 가혹하고 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압권은 영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아의 죽음 시퀀스인데, 여기에서는 이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문호마저 떠난 후 경아가 술을 마시기 위해 술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최후의 매춘을 하는 순간까지 모든 음향은 반향 효과(echo effect)로 처리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막다른 절망감에 다다

른 경아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제 완전한 타자와 이방인, 즉 마치 유령 같은 존재가 된 경아의 위치를 증후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향적으로' 준비된 여성 주체성의 지위집은 눈 위에서의 죽음으로 '시각적으로' 마감된다.

또 다른 하나는 영화 속에서 경아의 사적 공간과 가족 관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문호와 경아의 마지막 밤은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지는 경아의 자취방에서 이루어지고, 그날 밤 경아는 비로소 어머니와 고향 이야기를 꺼낸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나마 경아에게 삶의 현실성과 역사성을 찾아 주려 하는 시도였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시골 눈밭에서의 경아의 죽음은 그녀를 어머니와 고향을 상징하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만다. 결국 남성적 욕망의 수신자이자 그 욕망 사이를 떠도는 기표에 불과하던 한 여성의 실존과 역사는 다시 초월적이고 신화적인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3. 공포 영화: '괴물화' 되는 여성성

대부분의 공포 영화에서 여성들은 연약한 '희생자'이거나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대가를 치르고 살아 남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이런 사실 역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온갖 모순되고 불편한 위치들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포 영화의 역사는 '괴물로서의 여성'이 또 하나의 중심적 이미지였음을 보여 준다. '희생자'로서의 여성과 '괴물'로서의 여성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 닮았는데, 하나의 본질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일 뿐인 것이다.

193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게 된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공포 영화들에서 여성은 관객을 흥분시키고 경악시키는 가녀린 희생자였다. '킹콩'(메리언 C. 쿠퍼, 1933)에서 거대한 킹콩의 손바닥 위에서 절규하는 아름다

은 여성이 그 전형적인 경우인데, 여기에서 유발되는 공포는 성적 욕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 자체가 합의하는 육체적인 연약성에다 여성은 어린아이와 더불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더해지면서, 그녀가 겪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는 일단 관객들을 최대한으로 자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녀가 지르는 비명과 반쯤 벌려진 입술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적 오르가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제라르 렌즈, 1993).

그러나 196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격이라도 가하려는 듯이 1970년대 이후 할리우드 영화의 여성 혐오증은 점차 증폭되면서 영화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역시 극단화되어 간다. 이것은 마치 자신을 파괴하는 폭력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는 듯한 태도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은 원래 과학증적인 존재라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과학증적인 폭력을 은밀하게 기대하고 있다거나 여성의 과잉되고 무분별한 성욕이 그런 폭력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는 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포 영화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지니는 심리적·육체적 속성과 사회적 위치는 더욱 풍부한 의미 작용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모성'이라는 지위와 여성이 지닌 '육체성'을 위협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여성을 괴물의 모습으로 그려 낸 영화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이코'와 '데드 얼라이브'

'사이코'(히치콕, 1960)는 흔히 '난도질 영화(slasher movie)'라고 불리는 공포 영화 하위 장르의 출발점이자 공포의 근원을 다룬 아닌 인간 내면에서 찾는 흐름을 촉발시킨 영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주는 공포의 핵심은 바로 괴물과 여성이 한 몸 속에 구현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어머니와 거의 근친 상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노먼

은 여성의 재생산적 기능에서 비롯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여성성 자체가 가부장제의 타자로 위치지어지면서 문명과는 대립되는 자연으로 귀속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육체가 표상하는 것들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캐리'(브라이언 드 팔마, 1977)의 여주인공은 인간의 육체와 성교를 극도로 혐오하는 광신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녀이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체육 시간 후 샤워하고 있는 캐리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과 낭만적인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시작된다. 마치 어머니가 과잉 억압하는 육체성을 캐리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장면은 곧바로 캐리의 몸 위로 흐르는 피, 즉 초경과 이에 대한 공포로 발작 상태에 빠지는 그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드 팔마라는 감독 자체가 원래 공포 영화라는 틀 내에서 여성성이 안고 있는 문제적인 측면들을 심도 깊게 다루기도 했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는 생리로 상징되는 여성의 육체성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공포를 영화의 핵심이자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캐리는 생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열등 작용(telekinesis: 마음의 힘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초현실적인 능력)을 일으키게 되면서, 괴물(더 정확하게는 어린 마녀)이 되어 간다. 더구나 상급생 파티에서 올해의 커피로 뽑힌 캐리는 친구들의 장난으로 돼지피를 온몸에 덮어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영화의 공포는 절정으로 치달는다. 마치 온몸으로 생리를 하듯이 전신에 피를 덮어쓴 캐리는 막강한 힘으로 파티장의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딸의 타락에 절망하며 딸을 죽이려 하는 어머니마저도 죽인다.

결국 여성이 자신의 육체성과 맺는 불편한 관계는 캐리의 어머니가 보여 주듯이 극단적인 육체 혐오증이나 캐리의 경우처럼 자신과 자신의 육체를 낳아 준 어머니를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는 파괴성으로 표상될 뿐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섬뜩한 마지막 장면은 여성의 육체성이 갖고

은 어머니에게 애인이 생기자 그녀를 살해한다. 그러나 모친 살해에 대한 죄의식은 그의 자아 안에 어머니의 자아를 영원히 살려 놓게 되고, 그 결과 다중 성격자가 된 노먼은 여성의 유혹을 받는 순간 질투심 강한 어머니의 자아가 되어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다. 이것은 결국 살인을 하는 육체는 남성의 것이지만 살인의 동기와 심리적 주체는 여성의 것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 영화는 영화 사상 가장 섬뜩한 여장 남자의 모습(가발을 쓰고 여성의 옷을 입은 채 칼을 휘두르는 노먼)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살인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남성의 육체에 깃들인 괴물스러운 여성(더 정확하게는 모성)의 이미지를 확고 부동한 것으로 만들어 낸다.

이러한 괴물로서의 모성 이미지는 '데드 얼라이브'(피터 제슨, 1993)에 이르면 더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띠게 된다. 아들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 때문에 아들의 연애를 방해하던 어머니는 좀비가 되고,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과 병행해서 어머니의 육체는 끔찍하게 변형되어 간다. 아들은 할 수 없이 어머니를 죽이고 말지만, 영화 마지막에 거대한 유방과 엉덩이를 지닌 괴물로 부활한 어머니는 아들을 통째로 삼켜 버리고 만다. 이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기 희생적인 양육자인 반면에 가장 강력한 억압자이자 금지자이기도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모성의 본성을 그려 낸 결과이다.

그런데 모성에 대한 이런 형상화는 자식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모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어머니들을 가장 추하면서 사악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단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모성이 지닌 재생산적 기능에 대하여 남성들이 느끼는 질투와 두려움을 악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다.

'캐리'

전통적으로 여성은 항상 '자연'으로 유비되어 왔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육체성, 즉 생리·임신·출산과 같

있는 이런 파괴성과 여기에서 나오는 위협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영속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해 준다.

'악마의 키스'

공포 영화의 주된 소재 가운데 하나인 뱀파이어리즘은 사실 성적 환상과 에로티시즘을 가장 강력하게 공포와 결합시킨 경우이다. 우선 피를 빠는 행위는 모유를 빠는 행위와 더불어 남성에게서 정액을 짜내는 여성의 행위와 같은 궤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일체감은 물론이고 노골적인 성적 흥분감을 환기시킨다. 또한 이런 유형의 영화들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미묘하게 변화하는데, 최초에는 무기력한 희생자에 머물던 여성이 항상 치명적인 유혹자와 공격 행위의 공모자가 되기 때문이다.

'악마의 키스'(토니 스코트, 1983)는 뱀파이어리즘이 담고 있는 치명적인 유혹의 이미지들을 현란하게 펼쳐 보이면서 시작된다. 여자 뱀파이어인 미리엄은 남자를 불문하고 타인의 피를 통해 불멸성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녀는 2000년 이상 파트너들을 바꿔 가며 살아왔고, 200년 동안 함께해 온 존의 육체가 급속도로 노화해 가자 새로운 파트너로 여성 과학자인 사라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이제 뱀파이어의 역사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성들간의 관계를 정점으로 해서 매듭지어진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뱀파이어리즘을 매개로 해서 표현되는 두 여성 사이의 레스비언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친 미리엄의 불멸성을 깨뜨리면서 그녀가 썩은 시체들 사이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 역시 바로 같은 여성과의 관계이다. 즉 이 영화는 한편으로는 뱀파이어리즘을 통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가 갖고 있는 위협성과 매혹을 표현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섹슈얼리티가 여성들간의 관계로 향할 때 얼마나 치명적이고 저주받은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엄청난 유혹의 힘으로 표출되는 과잉된 섹슈얼리티와

파트너들을 바꿔 가면서 영위되는 영속적인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것일 때, 더구나 그것이 동성을 향한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일 때 스크린 이미지가 얼마나 매혹적이면서도 끔찍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을 '악마의 키스' 만큼 화려하고 인상 깊게 보여 주는 영화는 없을 것이다.

4. 에로 영화의 성적 상상력과 여성 섹슈얼리티

아마 영화가 인간의 성과 맺어 온 역사적 관계는 포르노그래피(이하 포르노)라는 장르 안에 압축되어 있을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과 조롱의 수단으로 탄생한 포르노는 처음에는 매춘부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물에 불과했지만, 20세기 말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나 형식들을 망라하는 보편적인 산업적·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이제 포르노는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나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특정한 분야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성적인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상상력을 지배하는 중요한 문화적 약화와 몰신화된 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포르노 영화를 둘러싼 논의들은 1970년대 이후 주로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면서, 포르노는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몰신화나 상품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여성에 대한 비하나 물리적 폭력의 원천을 이룬다고 비난받았다. 우선 포르노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관객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육체를 전시하고 대상화하며, 관객의 자위 행위적 환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성행위를 재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남성 관객을 위한 포르노가 역설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만족과 쾌락의 표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실을 두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다른 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는 금기시되거나 제한되는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이

표현되거나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실제로 일부 포르노에서는 여남간의 권력 관계가 종종 전도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 여성의 성적 능동성이나 다양한 성적 기호들이 그려진다는 사실은 포르노 자체가 불안정한 재현 형식일 뿐만 아니라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성적 환상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7인의 남성 감독들이 만든 '백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 가지 이유'와 서구의 세 페미니스트 여성 감독들이 만든 '에로틱'은 흥미롭게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상상력과 성심리 그리고 성적 환상을 펼쳐 보인다. 전자는 남성이 철저하게 성적 주체가 되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육체가 그에게 가져다 주는 환상과 공포를 파노라마적으로 그려 내는 반면, 후자는 기존에 항상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포르노 장르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재전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백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 가지 이유' (박철수 외, 1996)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여성에 대해서 강박증적으로 펼쳐지는 환상과 불안이 남성을 흥분시키지만, 여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성행위를 나누게 되면 쾌락보다는 실망과 두려움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과 환상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실제적인 모습, 특히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이나 성적인 능동성, 그리고 남성이 도저히 확인할 길 없는 여성의 성적 순결성에 의해서 시종 일관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남성이 지니고 있는 여성에 대한 환상은 처녀성, 모성, 그리고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로서의 여성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남성이 여성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거세 위협, 동성애, 결혼, 그리고 여성의 능동적인 성욕 자체에서 나온다. 그러나 사실 여성에 대한 환상과 공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집안 내력으로 소

개되는 술은 남성성을 부추기고 확인하는 매개물인 동시에 남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드러내면서 조롱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술을 매개로 표출되고 정당화되지만 결국 술 때문에 위협받고 붕괴되는 남성성이라는 것은, 술을 통해서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불가해하고 두려운 여성 섹슈얼리티와 애초부터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또는 여성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결코 확인하거나 끌어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남간의 권력이 전도되는 순간 여성들이 갖는 것으로 설정되는 성적인 능동성 때문에 애초부터 위협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처녀성'을 소재로 한 두번째 에피소드는 낭만적인 분위기로 시작한다. 다른 에피소드들과는 달리 섹스도 인내를 갖고 기다린 후에, 그리고 긴장에 찬 상태에서 어둠사리 이루어지고, 남성의 성적 흥분과 쾌락은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침대 위의 혈흔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성의 처녀성이다. 그러나 찾는 것은 없고, 그녀는 '딱 한번의 실수' (이것은 후에 조나단의 환상 속에서 서너 번, 대여섯 명, 바로 오늘 아침에 치른 섹스 등으로 악몽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때문이라며 용서를 구한다. 실망한 그는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그녀에게서 도망친다. 그러나 그녀와 만나는 동안에 작곡한 노래들이 히트하면서 그는 순결한 여자의 첫 남자라는 지위를 얻지 못한 대신 작곡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남성에게 '최초의 정복자'라는 명예를 주지 못하는 여성은 '영감'이라는 보상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식이다. 어떠한 여성은 성적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봉사하거나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존재로 설정된다.

첫번째와 세번째 에피소드는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불안과 공포를 압축한다. 현실적인 권력과 풍부한 성적 경험을 지닌 여성에게 조나단은 성에 관한 테크닉을 교육받고 성에

눈뜨게 되지만, 그녀가 지닌 지배적 위치는 조나단에 의해 결국 전복되고 철저하게 조롱받는다. 또 과도한 성욕을 거리낌없이 표현하고 추구하는 성 해방주의적인 여성은 남성의 성적 환상을 침해하기 때문에 거부된다. 즉 여성이 지닌 우월한 위치나 성적인 능동성은 결코 남성의 성적 만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다.

네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여성은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한껏 이상화된 여신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신비한 그녀의 여성성은 조나단에게 예술적 영감과 성적 매혹을 하나로 통합시키게 되고, 이에 걸맞게 그녀와의 관계는 육체적인 섹스가 아니라 춤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환상은 그녀가 '아이 엄마'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진다. 생식이나 모성과 같은 여성의 본질론적 지위는 관념화되고 신비화된 여성상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여성 시나리오 작가는 조나단이 작곡한 영화 음악이 표절임을 알고 있고,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그의 성적 모험을 중단시킨다. '백주와는 달리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없을 때' 그녀에 대한 성적 욕망은 거세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섯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까지 만난 여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여성이 사실 여장 남자였음이 밝혀진다(영화 '크라잉 게임'의 주제가가 이를 암시한다). 그녀의 '가랑이 사이'에다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카메라는 여남간의 생물학적 차이로 섹슈얼리티를 환원시키지만, 그녀가 외견상 가장 완벽한 여성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사회적·심리적 성(성별)과 생물학적 성(섹스)이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조나단이 술에 취해 '무의식중에' 저지른 사건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규범적인 남성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이제 가정을 지닌 평범한 남성(단정하게 잘린 머리는 그가 이제 사회적 질서 내에 편입된 존재임을 암시한다)으로 변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방은 진이 직접적으로 의미화하는 '거세 공포'(그녀는 항상 손에 가위를 들고 다닌다)를 어둠사리 극복한 후에 남성의 정체성과 역할 모델을 받아들

이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가 보여 주는 수동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친 후에 획득하게 된 사회적인 남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약한가를 드러낸다.

'에로티크' (리치 보르덴 외, 1996)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리치 보르덴), '금지된 방' (모니카 트로이트), '완탕면' (클라라 로)이라는 세 에피소드로 구성된 유니버스 스타일의 이 영화는 성적 환상, 성적체성, 여남 섹슈얼리티 차이와 같은 이슈들을 페미니스트 성정치학에 입각해서 서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세 명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영화 감독들은 기존의 포르노적 관습과 악호들을 철저하게 여성의 시각에서 전복시키는데, 이때 엄청난 힘으로 방출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에너지와 여성에게 고유한 성적 환상들이다.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에 대해 말하기와 환상의 표현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기존의 영화들과는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로지는 폰섹스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 지망생 아가씨이다.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이 영화가 중심에 놓는 것이 바로 환상의 작용 논리와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폰섹스라는 것이 바로 익명성과 간접성을 매개로 해서 성적 환상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자본주의적 사업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면, 배우라는 직업 또한 사적인 환상을 사회적·공적으로 소통시키는 매개 지점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서사의 핵심 원리로 '환상'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본주의 및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맺는 관계, 그리고 환상의 사회적 의미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 앞부분에서 로지가 오디션을 치르는 장면이나 폰섹스 클럽에서 여성들이 남성이 주도하는 성적 환상에 수동적으로 복무하는 모습은 여성의 성과 육체가 얼마나 남성적 욕망과 시선에 따라서 대상화되고 물신화되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한 남성 고객이 로지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는 사적인 환상을 기꺼이 들어 주고 즐기게 되면서, 서

사적 전환이 일어난다. 로지의 환상 속에서 그녀는 먼 옛날 어느 국가의 여왕이고, 많은 남자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관음증, 가학증, 난교, 구강 성교 등을 적극적으로 즐긴다. 그리고 이런 환상 속에서 펼쳐지고 제공되는 쾌락에 남성 고객 역시 자의적으로 동참한다.

이것은 환상의 차원에서는, 현실 속의 권력 관계가 전복될 수도 있고 여성의 성적 욕망이 검열 없이 능동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처럼 환상 속에서 가능했던 여남의 권력 관계 전도는 그 남성 고객이 로지의 환상을 흥취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 사실을 알고 경찰로 위장하여 그를 찾아간 로지는 그와 성기적 섹스가 아닌, 환상의 논리에 기반한 애무를 나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성기 중심적인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이제까지 여성의 성과 육체, 심지어 성적 환상까지 빼앗고 착취해 온 남성의 성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쾌락이 남성의 그것과는 얼마나 그 원천과 작동 기제에서 다른 것인지를 보여 주는 의미를 지닌다.

'금지된 방'의 감독인 모니카 트로이트는 그 자신이 레스비언으로서 퀴어 영화의 흐름을 이끌어 왔다. 그만큼 '에로티크' 전체에서 이 에피소드는 가장 급진적이고 도발적인데, 감독이 기존의 모든 성적 관습과 고정 관념들에 도전하면서 그 권력 관계를 전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화의 몇몇 지점은 성을 둘러싸고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쟁들을 그 역사적·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영화는 부치(butch : 레스비언 관계 내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여성)인 클레어와 펴(femme : 레스비언 관계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여성)인 줄리아가 딜도(dildo : 남성의 페니스 모양을 본떠 만든 성적 기구)를 갖고 성교하려는 장면, 즉 기존의 영화들에서는 은유적이거나 우회적으로만 접근하던 레스비언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면적인 묘사로 시작된다. 딜도는 남성의 페니스가 성관계에서 갖는 주도적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섹슈얼리티 내에

존재하는 여남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이 지니는 헤게모니라는 것이 결국은 해부학적인 기관에 불과한 페니스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차와 이에 입각한 성별 권력 관계를 위협하고 탈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첫 장면에서 딜도를 사용하려는 클레어에게 줄리아가 진짜 페니스를 갖고 해 보고 싶다고 말하자, 클레어는 줄리아를 데리고 클럽에 가서 빅터를 유혹해 집으로 데려온다. 빅터와 줄리아가 섹스를 하는 동안, 클레어가 뒤에서 빅터의 항문에다 딜도를 삽입하자 빅터는 화를 내며 가 버린다. 이것은 성관계에서 딜도와 페니스가 하는 역할의 차이는 단지 양자에 주어지는 사회적·심리적 의미와 전적으로 사적인 환상에 달려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두 여성과 한 남성이 이루게 되는 이성애와 동성애, 페니스의 사용과 딜도의 사용이 병렬되는 순간 그 차이에 대한 구별 자체는 전복되고 조롱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성적체성이나 욕망이 생물학이나 불변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자 광범위한 가능성들 중에서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홍콩에서 태어나 현재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여성 감독인 클라라 로의 '완탕면'은 앞의 두 에피소드와 비교할 때 논쟁적인 면모는 덜하다. 이 영화는 중국 반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홍콩이라는 도시 국가의 운명과 그 위에서 펼쳐지는 뿌리 잃은 두 젊은이들의 성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같은 중국인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온 앤과 애드리언은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이는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앤의 심리적 불편함과 거리감으로 표현된다. 이 때문에 고민하는 애드리언에게 삼촌은 먼저 중국인이 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성에 관한 문서를 찾아내어 거기에 나오는 서른 가지 체위를 연습시킨다. 드디어 앤과 만난 애드리언은 연습

한 대로 정성껏 실행하지만, 여전히 앤은 이별을 이야기한다. 그 이유를 묻는 애드리언에게 앤은 '당신이 나에게 완탕면을 사 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때 완탕면은 한편으로는 중국인다움, 또는 중국 문화 자체를 표상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드리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치 중국과 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애드리언이 구사하는 갖가지 체위는 남성이 이해하고 또 남성에게 익숙한 성일 뿐이며, 여성의 그것과 거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뿐이다.

5.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성과 육체에 대한 오해와 왜곡

'산부인과' (박철수, 1997)라는 의료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여성의 성과 육체를 둘러싼 이슈들을 펼쳐 보이는 이 영화는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는 산부인과가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설부론' 판단과, 그런 여성들의 공간을 마치 여탕을 훑쳐보듯이 엿보고 싶어하는 '관음증적 충동'이다. 두번째는 "여성의 자궁이 깨끗해야 세상이 깨끗해진다", "이 영화에서 보여 주는 것은 여성성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는 감독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 영화 속에서 여성의 성과 육체를 재현하는 시각 자체는 그 출발점으로부터 반여성적인 가치 판단이나 치명적인 오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영화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건과 이미지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물론이고 서사와 시선 구조를 포함하여 영화적 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여성의 성과 육체를 왜곡하고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또 한 편의 영화를 우리

앞에 던져 줄 뿐이다.

우선 이 영화에서 감독은 공간적 통일성이나 연속성의 많은 부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시선의 주체'라는 위치를 견지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흔들리면서 어떤 상황이나 장소 또는 어떤 개인의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장악하는 감독의 전지적이고 편재하는 시선은 산부인과라는 의료 공간 내에서 환자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진단하는 의사의 시선이 갖는 특권적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여성의 육체는 물론이고 여성들의 이야기와 관계들까지도 감시하고 판단내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더구나 그 시선이 담고 있는 '남성적' 태도와 위치는 이 영화 속에서 끈질기게 반복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들(순결 이데올로기, 남아 선호 사상,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 등)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하고 이에 순응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이데올로기가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 능동적이고 관음증적인 카메라는 주로 여의사들의 허탈한 표정이나 여성 환자들의 무기력한 표정에 대한 클로즈업으로 상황을 마무리지음으로써 그에 대한 저항을 끌어 내기보다는 반대로 순응과 타협이 예상되는 결말로 관객에게 반복해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가십 시네마'라는 이름에 걸맞게 에피소드의 나열과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느슨한 서사 구조 역시 여성의 성과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회 현실의 갖가지 모순들을 현상적·무비판적으로 나열하고 파편화시킴으로써, 기존 이데올로기들의 강한 작용력을 은폐하고 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더 가중시킨다.

또한 이 영화는 '산부인과'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아 내기 때문에 불가불 생식(임신과 출산)이라는 문제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운용(혼전 성교, 혼외 정사, 자위 행위, 피임, 낙태 등)이라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진지하고 급진적인 성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지는 우리 문화 속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 육체에 대한 착취적이고 물신주의적인 재현 방식의 또 다른 종류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이 영화는 여성의 성과 육체라는 문제를 '생식'과 '위험스러운 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만 양극화시킴으로써 여성에게서 성적 권리와 주체성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또 다시 '쾌락'보다는 '위험'에 한정지으면서 규제하고자 하는 남성 중심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큐멘터리적 촬영 방식이나 단편적인 에피소드 구조와 같은 이 영화의 스타일 역시 결과적으로 관음증적인 남성의 응시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응시를 더 소외시키고 여성의 목소리를 더 침묵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산부인과'는 여성의 성과 육체라는 주제 의식이 비성찰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과 관념에 기반하여 고착되고 재현될 때, 오히려 그 주제가 질박하면서도 첨예한 대립과 논쟁의 지점들을 상실한 채 다시 한 번 더 남성의 욕망과 환상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물신화된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6. 여성의 육체와 성적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

'처녀들의 저녁식사'(임상수, 1998, 이하 '처녀들')는 여성의 육체가 사회와 물질적 조건들이 가하는 변화와 압력을 기록해 내고 각인하지만, 이것이 패배주의적으로 또는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육체를 장으로 해서 어떻게 그에 대한 협상과 저항을 벌일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는 텍스트이다. 이 영화가 제기하는 쟁점들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역사에서 성적 쾌락이 갖는 양가적 의미(호정), 육체화된 자아에서 출발하는 여성의 권력화(empowerment) 문제(순이), 그리고 여성간의 연대와 동일화가 가능케 하는 대안적인 쾌락과 환상의 영역(언이)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여성이 자기 육체에 대해서 갖는 자율성과 결정

우선 감독은 산부인과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임신, 출산 또는 낙태와 같은 경험들을 '여성성의 본질'로 바라보는데, 이것은 오래 전에 본질론이나 낙태를 둘러싸고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서 이미 비판받고 극복된 성에 대한 본질론적이고 생물학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여성의 자궁이 깨끗해야 세상이 깨끗해진다"라는 감독의 노골적인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의 낙태를 바라보는 이 영화의 태도는 생식과 성이 분리되는 것(즉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을 도덕적 타락이자 자연적 질서의 전도라고 매도해 온 반낙태주의자들의 보수적인 입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또한 이 영화에서 그리는 섹슈얼리티는 배타적으로 '성기적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신체 기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서만 자리매김하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섹슈얼리티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희생자로 위치짓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전개되는 수많은 에피소드는 여성이 가부장제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 성(생리, 임신, 출산 등)이 얼마나 커다란 심적·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지, 반면에 여성들이 시도하는 성적 이탈은 얼마나 위험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관한 갖가지 사례를 나열한 데 불과하다. 물론 그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거나 순치시킬 최극적 장치와 내적 정화 장치(여성들의 반성과 한탄, 의료진 내부의 경멸적 시선 등)들은 어김없이 배치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인 출산 순간의 '질(vagina) 이미지' 역시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영화에서 출산이라는 상황 속에, 즉 말 그대로 여성만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적 성의 일부로 의료 공간의 수술대 위에 오른 질 이미지는 철저하게 '모성의 신화'에 입각하고 있다.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수반되는 인내와 고통들을 위대하고 숭고한 것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끈질긴 모성 이데올로기와 다름없다. 출산의 '바로 그 순간'을 '직접적인' 이미지로 보여 준다고 해서 그 이데올로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질 이

권,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영화는 역설적이게도 여성 관객이 뽑은 1998년 최고의 영화 2위와 최악의 영화 2위에 동시에 올랐다. 일단 이런 모순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영화가 그만큼 논쟁적인 텍스트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부 일처제, 이성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성에 대해서 갖는 모순된 태도나 불편한 감정을 양가적으로 반영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 영화 안에 여성 관객을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동일화시키는 텍스트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그 결과 특정한 종류의 쾌락을 가능케 하는 의미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우선 이 영화는 뚜렷하게 다른, 각각 상당한 현실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여성을 배치하고 상호 관련시키고 있다. 그들이 '정형(stereotype)'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세 여성의 '성별화된(gendered)' 경험들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을 매개항으로 하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매우 풍부하면서 현실주의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 명의 여주인공들은 여성 일반이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사회적·심리적으로 처하게 되는 모순된 위치들과 구체적인 경험들을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게 됨으로써 여성이 된다는 것, 여성의 육체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물론이고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이 어떤 깨어짐과 재형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식과 위치들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이 영화 속에는 표면적 텍스트에서 제시되는 여성들의 '성적' 쾌락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간의 연대와 깊은 교감,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발화하는 데에서 나오는 쾌락이다. 한 명의 남성 관찰자가 끼여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과 환상, 경험과 느낌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솔직하고 과감하게 털어놓는 세 번의 저녁 식사 장면은 물론이고 세 명의 친구들

이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화하고 상상하고 또 그 결과 자신의 성과 육체에 대한 인식과 느낌, 주체성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묘사가 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피소드 중심의 험거운 이음새, 편집을 대신하는 핸드헬드 카메라 사용, 뒤로 갈수록 찾아지는 암전의 사용 등은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 인물들이 펼쳐 보이는 욕망과 행위, 환상과 현실들을 능동적으로 추체험(追體驗)하면서 동일화하거나 반대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들을 폭넓게 제공한다. 그 결과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긴밀하게 진행되는 세 여성들간의 교감과 동일화를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변화하거나 순간적으로 모순된 위치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받게 된다.

호정은 능동적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 해방론자이다. 그녀에게 섹스는 사회가(직접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수동적인 여성성과 여성의 순응적 위치에 대한 거부이자 조롱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녀가 남성들과의 성적 관계에서 누리는 권력과 쾌락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몫이었던 것을 대신 물려받은 것, 즉 주체의 성별이 뒤바뀐 성적 권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여 주는 것은 사실 남성들과 별이는 무분별한(casual) 섹스에 불과하고, 성적 쾌락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성기 중심적으로 사고되면서 단지 누구와 언제 어떤 채위로 섹스할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하는 데에서 나올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섹스'에 국한된, '성기 중심적 쾌락'에 초점이 맞추어진 실천이 과연 자동적으로 여성을 새로운 성적 주체로 세워 줄 수 있는가? 여남의 권력 관계를 섹스를 매개로 단순히 전도시키는 것이 절기다 절긴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여남의 불평등한 성애(erotic)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순결한 것 아니면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제한되었고 성적 쾌락에 대한 말하기는

금기시되었다. 그 결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항상 억압받거나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적 해방, 즉 여성을 성적 주체로 수립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쾌락의 추구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에게 근본적인 해방과 새로운 권력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해방과 여성 해방의 관계가 반드시 무모순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성해방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듯이, 많은 경우 성해방은 남성의 무한한 성적 자유를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보호를 저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성해방은 여성도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성의 성이 더 폭넓게 허용되고 더 당당하게 주장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적 파트너로서 여성을 동원하고 성적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재구성'이 수반되지 않은 성해방은 여성의 육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더 정교하고 비가시화된 형태의 억압과 통제를 낳을 뿐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호정의 경우처럼 '섹스'에 국한된 실천과 도전이라는 것은 성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호정이 자신의 행태에 대한 남자 친구의 비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간통죄 사건 이후에 그 전과는 달리 남자 친구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순이나 연이와는 달리 섹스 장면에서 그녀가 느끼는 어떤 종류의 쾌락도 묘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그녀는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가졌던 수동성과 소극성, 환상과 기대감, 이 모두를 조종하면서 거부했지만 그 누구보다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여성이 욕망 및 쾌락과 맺는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만다.

이러한 호정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바로 순이다. 그녀는 여자들이 남자와 맺기 쉬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와

는 거리가 멀고, 그녀의 삶의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그 원천으로 한다. 성적 경험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참여'보다는 '관찰'의 방식에 가깝고, 성욕은 '평화롭고 경제적이고 깨끗한 자위 행위'로 해소하며, 논리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지만 우연히 임신하게 된 그녀는 미혼모의 삶을 주저 없이 선택한다.

이처럼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녀에게서 일차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자기(self)에게 집중을 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충만감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식민화되지 않은 여성 육체'의 이미지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해방감이다. 그녀의 육체는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이나 자아와 생산적인 방식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육체를 남성의 육체보다 더 유순한 것으로 길들여 버리는 다양한 종속의 형식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순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섹슈얼리티와 육체의 관계, 그리고 자아와 육체의 관계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킬 때에만 새로운 성적 주체로 재구성되면서 쉽게 위협받거나 깨어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쾌락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육체'라는 이슈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생물학적이고 본질론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논의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정치적 기획이 성별과 섹슈얼리티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삼게 되면서 새로운 맥락 속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이제 육체는 해부학적인 신체 기관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국한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정체성이나 자아, 욕망이나 환상과 같은 더 넓은 지형 속에 위치지어지는 것과 동시에 권력 관계의 장소이자 표현으로 설명된다(T. E. 베일리, 1997). 푸코에 따르면, 방대한 규모의 권력 조직과 가장 미세하고 지엽적인 실행이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주체의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육체를 바라보게 될 때 여성의 자아가 육체와 맺는 관계, 즉 '육체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성적인 관계와 담론

들을 매개로 해서 길들여진 여성의 육체는 다양하고 모순된 형태의 억압들을 통해 성별로 차이지어지는데, 이 억압들은 또 다른 일련의 억압들과 얽히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여성으로 성별화된 육체'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정체성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가, 섹슈얼리티가 어떤 식의 억압을 통해서 물질화되는가라는 것과 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여성의 저항과 권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순이에게서 전달받을 수 있는 자기 완결적이고 충족적인 느낌은 바로 자율적이고 충만한 '자기'에 대한 그녀의 감각에서 출발한다. 그녀는 항상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통제와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녀가 옷을 벗고, 자위 행위를 하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미혼모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운용하는 방식은 지배적인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각과 에너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모습의 많은 부분은 바로 식민화되지 않은 육체와 그에 기반을 둔 경험들과 관련된다. 순이에게는 로맨스, 섹스, 결혼에 대한 굴욕적이거나 수동적인 환상은 물론이고, 실제로 남성과의 성적이고 제도적인 관계를 통한 피지배와 피착취의 육체적 기억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이것은 남성과의 무리한 성관계 때문에 방광염에 걸리거나 생리 때문에 삼입 섹스가 불가능해져서 남자로부터 오랄 섹스를 강요당하며, 팔이 부러지자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성 때문에 취약하고 위험한 위치를 할당받게 되는 연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그녀에게서는 성과 쾌락이 갖는 의미, 성과 생식 간의 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그녀의 자위 행위는 만남-흥분-절정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성적 서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쾌락 역시 성기적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상호적이며 환상에 힘입어 나오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임신은 미혼 여성의 위험하고 일탈적인 성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영위하거나 추구하는 전반적인 삶과 그 방향성이 낳은 결과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된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적 관계의 산물 또는 단순히 남자와의 성적 접촉이 낳은 물리적 산물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성과 쾌락의 문제에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순이는 남자와의 첫 섹스에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 자체나 결과 역시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것과는 분리된 채로 그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이고 그로 인한 '우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직면한 그녀는 주저 없이 미혼모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그녀가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 역시 미혼모로서의 자족적인 삶을 살아나갈 사회적·물질적 준비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여성상으로서 순이의 모습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가부장제의 남성 권력과 육체를 둘러싼 투쟁의 미시 정치학 사이에 얼마나 넓고 복잡한 경쟁과 협상의 지점들이 존재하는지, 통제와 억압이 각인되는 여성의 육체라는 것이 동시에 페미니스트 성정치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여성 자신이 육체화된 자아와의 주체적인 관계 위에서 섹슈얼리티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조율하고 역동적으로 에너지화시킬 때 육체와 쾌락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저항과 투쟁, 또는 권력과 활기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평범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성적 쾌락을 모르고 남자와의 로맨스나 결혼에 대해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자 친구는 떠나 가며 직장에서도 밀려난다.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지만 그것 역시 무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존적이고 나약한 여성성을 스스로 경멸하던 그

또 순이와 떠난 여행에서 그녀는 순이가 자연 속에서 갖는 느낌을 따라가 보고자 하고, 만화가와 만나 섹스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순이와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객관화시키는 동시에 그녀와 공유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녀가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관계 의존적이고 타자의 위치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성별화되었음을 보여 주지만, 그녀의 전체적인 변화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녀의 불완전하고 수동적인 정체성이 서서히 깨져 나가면서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내면의 목소리들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영화 마지막에 자신의 성적 환상을 실천에 옮긴 후, 유리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연이의 나신은, 호정이 남성들과의 성적 관계에서 보여 주던 쾌락의 주체로서의 능동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순이가 자신의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 향유하던 고요하면서도 힘 있는 해방감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이의 경우에 실제적인 섹스에 있어서도 환상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매개적이고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만화가와 나눈 하룻밤의 섹스는 순이와 철저히 심리적·육체적으로 공유되면서, 직접적인 경험의 당사자라는 자신의 위치와 이를 '듣고 상상할' 순이의 위치 사이를 오가는 데에서, 즉 즉각적이고 온밀한 경험에 머물지 않은 채 이를 담론화시켜 타인과 소통하고 상호 동일화하는 과정에서 쾌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장면은 연이의 심정과 느낌을 전달받은 순이가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순환하는 동일화와 주체 위치를 분명하게 가시화시킨다. 이처럼 여성들간에 순환하는 욕망, 전이되는 주체 위치,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해지는 쾌락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영화 마지막의 연이와 영작의 섹스이다. 이 순간에 연이의 욕망의 대상은 영작이라는 구체적인 남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쾌락 역시 영작과의 직접적인 섹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고 변화된 연이 자신의 욕망과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작이 순이가 임신한

녀는 점차 자신의 여성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취약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깨닫는다. 그 이후 헤어진 남자 친구와 가진 능동적인 섹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오르가슴을 느낀다. 나체로 유리창에 기대 그녀가 손을 내밀어 창 밖으로 비를 맞는 마지막 장면은 해방과 감금, 쾌락의 주체와 응시의 대상 사이의 어딘가에 서 있는 그녀의 절반의 자유와 양가적인 위치를 보여 준다.

이러한 연이에게서 우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육체를 매개로 해서 현실 내에서 마주치게 마련인 다양한 형태의 모순들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손상된 정체성과 불안정한 주체성이 여성의 육체와 성에 대한 통제나 제약과 얼마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로 다른 유형인 호정과 순이의 중간형으로서 그녀가 갖는 유동적인 위치는 그녀를 세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와 소통, 상호 작용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는 동시에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든 변화 가능한 존재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자면 과연 여성이 무엇을 작용점으로 삼아서 통제나 제약에 대해 반작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성적 주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연이의 중간자적 위치와 취약한 주체성은 대조적인 두 친구인 호정과 순이의 관계에서 여성 관객을 대신해 반응하고 전이(transference)하는 역할을 하면서 여성 관객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과 가치 평가를 끌어들이 수 있는 장치들로 기능한다. 분명히 남성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과는 다른 식의 충만하고 상호적인 이런 관계성은 여성 등장 인물의 성적인 환상과 욕망들을 훨씬 더 복합적으로 매개하는 결과를 낳는다.

연이는 두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두 사람에 대한 모방 충동과 동일시 욕구를 강하게 드러낸다. 그녀는 호정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기를 관찰하게 되고, 만화가와 만난 후에 그녀가 보여주는 행위는 마치 그녀가 호정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를 두 여성간에 공유되는 하나의 기표로 만들으로써, 연이에게서 그가 가졌던 특별한 의미가 깨지는 동시에 그녀로 하여금 그에 대한 연무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 결과 연이는 자신의 성적 환상과 행위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던 그의 특권적 위치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성적 주체로 재구성되고, 바로 이것은 다른 방식의 성적 관계와 더 능동적인 성적 환상으로 연이를 이끌어 간다. 이는 동시에 연이의 위치가 이전에 자신의 성적 체험을 듣고 상상하던 순이의 위치로 곧바로 전이되면서 자신이 부분적으로 순이의 위치가 되고, 또 자신의 환상 속으로 순이의 환상을 끌어들이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를 반사하는 환상과 긴밀하고 유동적인 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섹슈얼리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과의 이성애 관계에서는 도저히 경험되거나 표출할 수 없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여성다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다움이자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에 불과한 반면, 여성들간의 관계에서 동일화와 욕망이 활성화되면서 풍부한 교차 지점을 만들어 낼 때 여성들은 차이를 지닌, 그리고 그 차이 위에서 상호 작용하는 존재들로 확장되면서 서로를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7. 영화와 여성의 다른 방식의 만남을 기대하며

대부분의 주류 극영화들은 어느 시대이든 변함없이 여성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착취적으로 사용해 왔다. 영화들은 그 두 가지에 유독 집착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미지와 담론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반여성적인 폭력과 가치관들을 전제하고 또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비평가

들은 영화의 이미지나 서사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여성 혐오증, 그리고 남성 중심적 욕망과 이데올로기들을 해부하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런 작업들은 많은 경우 여성=선, 남성=악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에 매몰되거나, 텍스트를 정태적이고 무모순적인 의미 작용으로만 설명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영화 속에서 제시되는 여성상은 일방적인 희생자의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영화들은 여성 관객들에게 현실에 대한 순응적이거나 패배론적인 전망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쾌락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그러하다. 더구나 이런 논의들은 영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수많은 여성 관객들을 수동적인 소비자로서만 존재하게 만들면서 영화 관람이 갖는 심리적·사회적 의미들을 현실과 영화 내에서 똑같이 작동한다고 여겨지는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로만 재단할 뿐이다.

이제 여성에게 성은 '위험'인가 '쾌락'인가와 같은 이분법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아 형성의 장소, 진정한 쾌락과 권력을 여성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 이럴 때 자아나 정체성, 욕망이나 환상과 같은 계기들에 의해서 풍부하게 매개되는 여성의 주체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구성해 낼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영화라는 매체가 더욱더 의미 심장한 텍스트이자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순적이고 갈등하는 텍스트'라는 전제 위에서, 영화가 펼쳐 보이는 성담론과 성적 스펙타클들, 그 안에 숨어 있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복합적인 환상의 논리들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섹슈얼리티라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오랜 기간 전개해 온 사고와 실천,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쟁점과 통찰들을 중요한 맥락과 근거로 삼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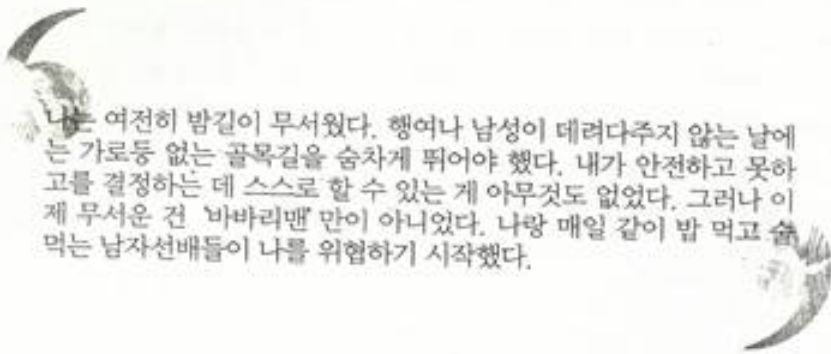


다음표 바깥의 여성을 찾고 싶은데

어린 시절, 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숨기며 살았다. 가슴이 솟아오를 무렵, 브래지어를 했다는 사실이 남자애들에게 들릴까봐 일부러 허리를 구부정하니 다녔다. 생리가 시작된 것도 숨기다가,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팬티가 발견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뽀뽀 혼났다. 나는 정말로 정말로 '여성'이 되기 싫었다.

첫째, '여성'은 위험받았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섹슈얼리티를 원망한 순간은 학교길에서 바바리맨과 마주친 골목이었다. 바바리맨은 다리를 펴 벌려서 나를 막았고,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바바리맨에게 가로막혔다. 뉴스에서 봤던 성폭행범과, 신문에서 봤던 안신매매범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바리맨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페니스를 갖다대더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골목으로 하교하지 못했다. '여성'이 되면은 언제나 낯선 남자의 성희롱, 성폭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았다.

둘째, '여성'은 보호받았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한 말은 '나는 아기를 낳을 몸이야'였다. 성교육 시간에 배웠던 그 말 그대로, 심지어 성교육 시간에 배웠던 그 포즈-양 손을 가슴 앞에 역스자로 감싼 자세- 그대로, 아이스케기 하려는 남자애들에게 그렇게 외치곤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이에 질세라 울 아빠는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남자애들을 야단치며 아버지 체면을 차렸다. 그 한 마디에 그동안 시도해도없이 나랑 치고 박던 남자애들이 갑자기 나에게 조심조심하는 모양새가 어쩌나 웃기던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보호는 엄중해지고, 나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그 보호라는 것이 '젊은 치마는 입지 말라' 느니 '밤늦게 노는 건 안 된다' 느니 각종 '여자는 할 수 없는 것'만 늘어놓는 방식



나는 여전히 밤길이 무서웠다. 행여나 남성이 데려다주지 않는 날에는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숨차게 뛰어야 했다. 내가 안전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무서운 건 바바리맨 만이 아니었다. 나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남자선배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때문이다. 높은 사람에게 내 모든 행동이 간섭받고 관리 받는다는 압박감아래, 항상 명령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아단치는 '보호'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처럼 느껴졌다.

보시다시피 어린 나에게 '여성'이 된다는 것은 당최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여성'이 되면 나는 항상 위험한데다,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더욱더 위험해졌다. 그래서 나는 '여성'을 감추기 위해 목욕하고 나서도 위아래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펜티만 걸치고 TV앞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더니 흐뭇하게 말했다. "우리 딸, 여자 다 됐네."

초등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려 애썼다. 과반의 선배들이랑 친해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여성'스러운 사람이 유리했다. 나는 그동안 조산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콘돔의 사용법을 배우면서 나는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섹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고, 돈돈한 남자 애인이 매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골목에서 바바리맨은 안중에도 없었다. '여성'이 되면 나는 항상 주목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라는 권위적인 거부장이 아니라 다정한 남성 애인이 사랑의 이름아래 날 보호해주었다. 나에게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는 어느새 '여성'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여전히 밤길이 무서웠다. 행여나 남성이 데려다주지 않는 날에는 가로등 없는 골목길을 숨차게 뛰어야 했다. 내가 안전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무서운 건 바바리맨 만이 아니었다. 나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남자선배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남자선배들은 나의 애인에게 '진도'를 까발릴 것

을 요구하고 그걸 안주거리 삼아 나불거렸다. 나의 성경험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내 애인의 것이며, 곧 내 애인의 남자선배들의 것이었다.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가 더 가관이었다. 그래도 겉으로는 나의 '섹시함'과 '개방적인 모습'을 칭송하던 그들이 갑자기 나를 '문란한 여자'라며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성에게 성경험은 자랑이 되지만, 여성에게 성경험은 추방 사유가 될 뿐이었다. 그 속에서 그들을 공동체의 남성에게 '정조'를 바치지 않는 여성은 결국 공동체에서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 게다가 남자선배들은 호시탐탐 나의 섹슈얼리티를 희롱하고 공격하고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렸다. 술자리만 가면 스리슬쩍 내 다리를 지분거리는 남자선배,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호호 안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남자선배들 앞에서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거절했다가는 괜히 어색해질까봐 무서웠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겁났다. 나에게는 성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친밀감과 호감의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의 섹슈얼리티는 안전해지지 못했다. 단지 위협의 범위가 바바리맨과의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남자선배들과의 일상적 만남으로까지 확장된 것뿐이었다.

게다가 남자애인의 보호 역시 '사랑'이라는 용각지가 덧씌워졌을 뿐, 거부장의 보호와 별다른 것이 없었다. '사랑'이라는 글자만 보면 정말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나와 소통하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결국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아단치는 방식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짧은 치마는 입지 말라'느니 '밤늦게 노는 건 안 된다'느니 하는 아빠가 했던 명령 앞에 단지 '다른 남자 앞에서'가 붙었을 뿐이었다. 애인에게 남자선배의 성화물을 고백하면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한 분노에 가득 차서 나를 쳐두고 남자선배랑 쟁판을 치러 나갔다.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것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정조'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친구의 정조를 지켜주지 못한 남자의 위선'이었다. 결국 아빠도 남자애인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고분고분한 여성상을, 정조를 지키는 여성상을 따를 것을 명령했고, 그에 맞지 않으면 누구보다 열심히 나를 비난했다. 여성이 스스로 섹슈얼리티를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 그들이 안심하고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의 섹슈얼리티는 내 손 밖에 있었고, 성적 모델같은 치유될 틈이 없었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 모든 위협과 보호는 성인이 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모든 관계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것뿐이었다.

참 웃긴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과 나를 위협하는 사람은 모두 그 남성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조금 더 '여성'스러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나를 보호해주려 했고, 더 현질나게 나를 위협하려 했다.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었던 나의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딱 고만큰뿐이었다. 남성이 좋아하는 '여자', 남성이 연애했만한 '여자', 남성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동적이고 약한 '여자', 그러니까 마음표 속에 갇힌 딱 고만한 '여자' 만큼. 그 이성애주의 각본 속의 '여자'를 벗어난 나의 욕망을 말했다가는, 성적 매력이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질까봐 무서웠다.

대학생이 되고, 나의 섹슈얼리티는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지만 결국은 위협과 보호의 섹슈얼리티. 그 이성애주의의 수동적인 섹슈얼리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단지 위협하는 사람이 바바리맨에서 남자선배까지 확장되었을 뿐이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빠에서 남자 애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내 몸을 맞추어가는 데 익숙해지고, 그것만이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것 인양 길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아기를 낳을 몸이야!"라고 외치면 어린 내 모습과 바바리맨의 뒷모습이 떠올랐 다간 사라진다. 아직 시원한 맘으로 글을 끝내질 못하겠다. 가슴이 답답하다. 결국 난 이 글에 서조차, 이성애주의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의 '여성' 밖에 말하지 못했다. 사실은, 작고 약해서 언제나 남성이 '지켜주고 싶은' 혹은 '만지고 싶은' 여성이 아닌 나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싶었다. 사실은, 이성애주의라는 숨 막히는 벽장 밖으로 나온 나의 섹슈얼리티로 활개치고 싶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성이 스스로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배워온 터라, 쉬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 난 아직, 한 번도 나의 입술로 나의 섹슈얼리티를 말한 적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by 엄주희와 입술 - 파니



자위하기

분리된 여성의 욕망과 몸의 제자리 찾기

원사

1. 왜 자위인가?

그동안 자위를 비롯한 성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남성들의 특권인 것처럼 전유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직간접으로 듣는 여성의 입장은 단지 성적 희롱을 할 만한 대상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 경험을 듣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성희롱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게 되고, 이에 대해 그저 피해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들은 일상에서 이와 같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종종 강요받게 되는데, 여성의 처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체적인 결정일 리 없다. 양자 모두 이미 여성의 비주체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¹⁾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사회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체득해 가는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며, 성의 문제야말로 남녀간의 가장 뿌리 깊은 지배·종속

자위하기 81

을 보여 주는 정치적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장필화, 1999)으로, 한국 사회 페미니즘은 성을 중요 영역으로 다뤄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섹슈얼리티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임이 틀림없다. 학계에서 발표되는 많은 연구물과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주요 논쟁에서 '성'은 주요 주제로 자리를 잡았고, 마치 '성'이 언급되지 않으면 새로울 것이 없다는 듯이 성적 언어와 해석과 담론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들이 실제 여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설명하고 만들어 냈는가?', '성적인 문제에서 여성들이 갖는 여러 딜레마는 어쩌면 이러한 논의 속에 더욱더 뿌리를 틀어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면서 반성폭력운동사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 문제 해결이 급선무였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경험을 비롯한 섹슈얼리티 논의는 여성들이 겪어 왔던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성폭력 사건에서만 기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해 피해자가 오히려 혐의를 받는 '성적 유발론'에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인 여성이 유혹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고, 그 결과 현 사회에서 남성들이 얼마나 무지한 여성의 성을 이용했는지, 해당 여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무력함을 느꼈는지, 상실감의 여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의도와 달리 여성의 성은 기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수동성을 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 사회의 언어와 해석을 부분적으로 공격하는 한계를 안고 왔다(조영미, 1999; 조주현, 2000; 김은실, 2001; 변해정, 2004).

이와 같이 성폭력, 그것도 법적 해결이 중심인 성 담론에서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갈등과 실질적 고민, 다양한 욕망의 층위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성폭력법 담론 안에서 성폭력 피해 남성들의 뻔뻔한 자기방어에 대응하느라 여성들은 성적인 욕망과 경험을 비롯하여 여러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단순화하고 단일하게 묶어 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이 글에서 여성의 자위를 말하려 하는가? 자위는 혼자서 하는 성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선택한 소재다. 그래서 글쓰기를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성적으로 무지한 것이 마땅한 줄로만 알고 있던 평범한 여성이 '자위'를 알게 된 후 그야말로 '성혁명'이라 해도 좋을 만한 변화를 겪었고 그러한 경험을 여러 여성들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자위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계발되지 않은 성적 욕망의 내용과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여성들이 얼마나 열망하는 것이 많은지를 깨달았다. 그때부터 성적 경험으로서의 자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공공연하게 특강이나 인터넷에서 여성들과 더 자주 자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의 경험을 그대로 설명이라도 하듯, 전영미(2001)는 여성들의 자위 경험이 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주요한 기제가 되는지 말해 주었다. 그는 자위 경험이 여성의 성적 쾌락을 금기시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현실에서의 여성 욕망이 경합하고 조정되는 경험이며, 그렇게 때문에 자위는 자신을 찾아 가는 성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인터뷰한 여성들을 통해, "자위를 하는 많은 여성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자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위를 하면서 새롭게 자신을 인식하고 긍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우리 주변에 적극적으로 자위를 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성적 욕망을 계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적 실천을 하고 있었으며, 자위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여성의 시각에서 해석했다. 자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들에게 욕망이나 성적 실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해방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극히 일부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자위 경험을 중심으로 그동안 단일한 형태로 묶여 있던 여성의 욕망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자위 경험을 성적 경험으로 인지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들 일부 여성들의 생각과 실천, 자위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전략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여성의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의 성적 쾌락과 욕체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었고 대상화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남성의 논리에 대응하느라 여성들은 의도와 달리 자신의 언어를 찾는 데 큰 장애를 느꼈고 한계를 절감했다. 따라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여성의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반응할 뿐이었다. 성적 행위와 욕망, 정체성의 문제에 집중되는 섹슈얼리티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여성으로 구성되게 하는 자아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변혜정, 2004) 이제 여성들이 수동적인 자아 찾기라는 한계에 머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글이 한국 사회에서의 성 담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성의 실제 언어와 경험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공유하는 일부 집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정체화한 만큼 이들의 경험 역시 모든 여성의 경험을 대신하진 않으며, 분명 다른 지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위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여 어쩌면 억지스러운 주장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과 성적 욕망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의 말이 혹은 이 글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가진 생각의 일부 혹은 어떤 가능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자신이 하는 자위가 성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반면, 사람들은 자위를 즐기는 것을 '쾌락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위 횟수의 많고 적음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자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성적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로만 한정되는 일반적인 '성적' 코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를 하는 많은 사람이 자위를 성적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마치 '유사성행위'까지 필요할 만큼 왕성한 성욕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될까 봐 우려가 되어서일 것이다.

여성의 욕망에 관심이 있고 자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부 여성들은 자위를 성적 행위로 본다. 자위는 엄연히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며, 자위에서 충분히 오르가슴을 경험하고 즐긴다는 것이다. 자위를 성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들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성적 행위인 자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성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동안 사회에서 얻지 못한 여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찾아 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위가 성적인 이유는 자위를 통해 충분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필자가 인터뷰한 여성들은 오히려 자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지 못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성적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자위가 성적 행위이며 그를 통해 여성들 안의 잠재된 욕망을 알게 되므로 자위는 어쩌면 억압된 여성의 감정과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 소수지만 자위를 즐기는 여성들의 의견이다.

다. 이 글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여성주의를 표방하여 영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언니네'의 '여성 전용 자위방'²⁾ 커뮤니티의 자위 경험 나눔 사례와 면접, 채팅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그 외 페미니스트 잡지 《이프》의 온라인 게시판 '자위 프로젝트', 여성의 자위를 비롯하여 성에 관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 '파시 러브', 단행본 《하이테 리포트》, 《버자이너 모놀로그》,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 《즐거운 딸들》, 《New Our Bodies, Ourselves》, 논문 《20대 여성의 자위 경험과 성적 주체성 형성》 등이 주요 분석 자료가 되었다. 이들의 생생한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인용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자위하기

자위는 가장 원초적인 성표현 방식이다. 자위는 아이들이나 애인이 없는 외로운 사람 혹은 혼자서 성적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 평생 지속되는 자신과의 애정 행위다.

베티 도슨(2001)

자위에 대한 모순된 일반적 통념 가운데 하나는 자위가 '성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성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자위를 즐기지만, 이상하게도

자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섹스, 성적 경험이지,
나와 나의 상상이 하는 듀엣 혹은 나의 손과 나의 몸과 마음이 하는 삼중주
혹은 나의 몸이 하는/상상이 하는 독주.....^^
때론 오르에 오르기도 하고
때론 안 올라두 나의 몸과 친해지는
(대상이 있는) 섹스랑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성경험인 거라 생각해요.

언니네 '여성 전용 자위방(이하 여자방)' 게시판

자위를 하면서, 자신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것으로 배워 온 비밀스러운 성적 사실들을 몸과 마음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쾌락과 성적 창의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보다 나은 방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

베티 도슨(2001: 18)

남성의 성적 욕망의 해소가 중심이 되는 이성애적 관계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발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가 섹스의 좋고 나쁨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여남³⁾간의 성관계에는 어쩌면 관계라기보다 일방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각자 자신이 만든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거나 그에 맞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하고 과장하게 된다. 더구나 성별 권력 차이 때문에 그나마 여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⁴⁾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더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까닭에 '자위'는 특히 여성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에 더없이 좋은 성적 실천이다. 성관계 파트너의 비위를 살피며 가장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욕망을 채워 주기 위해 원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고를 전환하면, 상대가 있는 성관계가 자위 개념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파트너와의 관계는 소통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소통 혹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관계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사실은 혼자만의 성적 판타지를 실천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러한 까닭에 어떤 여성들은 자위가 성관계라 칭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의 성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맺더라도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상대를 놓고
여러 가지로 자위를 시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잖아요.
물론 상대가 나의 움직임으로 오르가슴에 오를 때
명달아 기분 좋은 느낌도 있고 또 그것만을 위해 노력할 때도 있지만
그 또한 간접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모든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자위인 것이지요.
모든 게 자한테는 자위의 틀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프) 자위 프로젝트 제시판(2004)

자위는 자연스런 성장 과정에서 한때 있을 수 있는 성적 놀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위는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성적 실천이다. 그동안의 편견과 달리, 여성들은 은밀하게 자위를 해 왔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피로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성과 몸을 분리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몸의 경험이 주는 쾌락에 연

흥…… 정말 승질 나는 프로였죠.

여자방

한국 사회에서 자위 경험은 매우 성별화된 행위다. 남성의 자위는 자연스런 성장 과정의 하나로 보는(예로 '하우성'⁵⁾) 반면, 여성의 자위는 금기시되는 행위, 혹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대상화되고 변태적인 행위(인터넷 성인 사이트)로 묘사된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처럼 보수적인 태도가 있었음에도 1990년대 들어 성담론이 좀더 활발하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자위 경험을 비롯한 성적 경험과 그것을 둘러싼 고민이 은밀하게 교류되기 시작했다. 1989년 《하이테 리포트》가 번역되어 여성들의 자위와 성에 관한 솔직한 사례들이 소개되었고,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는 대중적인 영화나 책에서 여성의 자위가 기존 포르노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다뤄지고 공개되기 시작한다(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 서갑숙의 책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심지어 '보지'⁶⁾의 독백이라고 번역되는 《버자이너 모놀로그》가 번역 출판되는 동시에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네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도 여성의 자위와 그 방법론, 자위에 관한 생각을 꽤 심도 있게 다룬 책으로, 비슷한 시기에 번역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유포되면서 여성 주의자들 사이에 자위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떠돌기 시작했다(이프, 언니네, 콕시 러브, 팻캣닷컴). 자위를 하면서 죄책감을 갖던 많은 여성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자위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성경험의 하나이며, 자신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아 가기 시작했다(영화 《바람난 가족》에서 남자 영당이에 대고 자위하는 여성의 모습이 건조하게 그려지는가 하면, '콕시 러브'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여성들의 성경험과 자위 경험이 적나라하게 붓물 타지듯 쏟아졌다).

연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는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이며, 특히 여성이 쾌락을 추구하면 타락한 존재, 순수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자위를 당당하게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그들에게 덧씌워진 '순수'라는 족쇄를 부수고 싶어한다. 순수라는 것이 현실에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 줄 때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울타리가 오히려 공격을 가하거나 그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위험 역시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이 택한 것은 순수함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 바로 성적 존재로서 자신감을 찾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위를 하면서 그동안 사회에서 말한 '성욕이 없는/없어야 하는 여성'이 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사회가 정해 놓은 틀을 비판할/비판할 수밖에 없는 창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으며, 순수를 포기하면서 갖게 된 내면의 힘을 한 가지 더 얻은 셈이다.

3. 자위가 여성들에게 갖는 정치적 의미

성적 쾌락과 주체성은 자매다

저번 주 TV 보니까 남자들 자위, 엄청(), 착극(), 굉장()하더군요.
의학적으로 건강에 훨씬 좋다는니

뭐 남자의 성욕은 주체할 수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구요~...;

무엇보다 사정은 참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들의 자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더라 말이지요!!

남자들 자위하는 건 당연한 거구 여자들이 자위하는 건

무척이나 예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불만이야요!!

엄연히 성적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거나 묘사하면 곤란하더군요~

그런 것 땀시 죄책감으로 고통받았던 것도 사실이구요.

뭐…… 지금은 저 스스로 당연한 걸루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여자방

자위는 여성들이 조금씩 자신의 욕망을 알아 가는 것, 즉 여성인 '나'를 되찾는 행위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힘이 됨을 간과할 수 없다. 전영미(2001)는 "자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자위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성적으로 주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자위가 성적 주체성 형성의 실천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작동 기제가 있다. 첫째, 자위를 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기를 보며 몸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들은 자위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를 쳐다볼 '용기'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탐색하고 발견해 가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과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위는 이성애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를 떠나 욕망을 실천하고 느끼는 장으로서, 관념과 체계로부터의 자유로 다가온다.

자신의 성적 욕구가 어느 정도이며

(이건 스스로 자위를 하면 알 수 있으리라 보는다……)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성적인 문제에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방

자위는 특히나 나를 상대와의 성적 협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나 스스로 상대의 성적 행위에 집착하지도 않고 의존하지 않게 되니까요. 아마 자위를 하지 않았다면 좀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위를 통해 내 몸에 대한 욕망과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찾았고, 그리고 나서 내 파트너에게 더 요구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파트너와 함께 자위도 하구요.

사례 B

남성들에게는 성욕이 '참기 힘든' 본능이지만 여성에게는 생식을 위한 일 시적·기능적 욕망일 뿐이라는 남성 위주의 왜곡된 성 관념은 이들 여성들의 성적 실천 과정에서 여지없이 깨진다. 이들은 여성인 자신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받아 온 교육과는 달리 자기 안에 잠재된 성적 욕망이 강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성들과는 달리 '참기 힘든' 본능을 장소나 시기에 따라 참는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이는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며, 사회적 인식에 따른 행동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이들 일부 급진적(으로 보이는)⁸⁾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성적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며 자위를 권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이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언젠가 처음 자위에 대해 말을 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있었고, 안전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어떤 법칙의 율가미가 지금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있나요?

몰아 버리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자방

맞아요, 자위를 하면 내 몸과 친해져요.

글쎄 내 몸이지만 서로 길들여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소통이 필요해요.^^

여자방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되고 지배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욕망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은 위험한 것, 더럽혀지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어, 심지어 남성들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원인을 여성의 존재 자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고, 여성이 유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그들의 성 인식을 문제 삼기보다, 유혹하는 몸으로서 여성의 몸이 범죄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행실이나 옷차림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사회가 규정한 대로 인식하게 되며, 굳이 누군가가 알려 주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를 더러운 존재,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가!

일부 여성들에게 자위는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계기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일어났죠.

전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괴괴한 동굴 속에 숨어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동굴에 조그만 창문 같은 구멍이 나고,

그리로 햇살과 달빛이 번갈아 나를 비춰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조금씩 밖으로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냥 '난 아주 어릴 적부터 자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힘 있는 말인 줄 미처 몰랐어요.

여자방

4. 가부장제 비웃기

성역할 고정관념을 넘고 넘은⁹⁾ 성적 실천으로서의 자위 경험

자위를 성적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자위가 가부장제의 여러 측면을 뒤흔드는 실천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은 우선 비하된 나 자신,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는 것',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난 좀더 일찍 자위를 했고 섹스를 했음에 감사하죠.

내 몸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세상은 상대적이지요.

를 주는 성적 실천이 되었다. 자위를 즐길 줄 알고 자위를 통해 성적 정체성을 찾아 가는 여성들은 자위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하지 않고 보는 법을 조금씩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미래의 배우자 남성에게 줘야 한다'¹⁰⁾는 생각으로 차마 자신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성기를 보고 만지기도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여성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다.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몸을 새롭게 자각하는 동시에 실존하는 '나'를 경험하는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여성은 자신의 몸을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하게 된다. 타자화된 몸을 관찰하면서 차츰 자신의 이성과 떨어져 있던 몸과의 간극을 좁혀 가는 것이다.

자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들, 싸워 나가야 할 지점들을 알려 주기도 한다. 이들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얘기되는 것은 자위 행위를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게 된 뒤로 자신감이 생기고 다양한 성적 욕망을 알아 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이다.

자위를 하면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과 만나는 기분이에요.

그 시작부터 한 톨 한 톨의 과정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나'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게 돼요.

늘 '나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온전히 나 자신이기 — 특히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이기 — 어려운 나에게,

이 소중한 체험은 잠시나마 내가 '나'임을 느끼게 해 주어요.

여자방

성적인 욕망의 권리는 투쟁을 통해, 투쟁 안에서 획득된다고 보는 것에 더 가깝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배려하는…… 개인들은 고립된 원자가 아니며, 집합적 집단 만도 아니다.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갖는 사회적 개인들, 동시에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스스로의 욕망의 권리를 공유하는 소유권으로 만들어 가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현경(2001)

남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여성들에게는 싸워 나가야 할 과정이라는 게 과장된 말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러움이 남성의 시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도 그 옷이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다. 옷의 유행을 잘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연스럽다'거나 '세련되었다'는 기준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알 수 있다. 목에 줄을 달아야만 정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의 기준이 여성의 온몸에 줄을 감아 놓으려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자위가 가부장제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는 정화 의식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가부장제가 만들어 내고 가부장제가 추구하는 여성의 몸은 가부장제로 인해 끊임없이 상처받고 부위와 부위로 해체된다. 이들은, 자위가 그런 상처받고 아픈 몸을 위로하는 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여성의 몸은 남성들에 의해 성기를 중심으로 분절되어 평가받는다. 얼굴과 가슴, 엉덩이 등 여성의 몸은 통합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부위별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으로 재단되어 왔다. 자위는 이러한 분절된 경험을 가진 여성이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과 만나는 경험이며, 현실 세계에서 여성의 몸에 가해진 폭력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깃발한 욕

망을 복구하는 느낌'으로, 또 어떤 여성은 원하지 않는 폭력적인 성적 경험에서 '새롭게 내 몸을 복구하는' 마음으로 자위를 실천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런 남자에게 강요당한 내 몸이 불쌍했고…… 그 남자의 손길이나 성욕의 분출이 내 몸에 남아 있는 거 같아서…… 으음…… 새롭게 내 몸을 내가…… 복구한 단어가 어울리기도 하네요^^

사례 A

글쎄…… 나를 좀 좋아해 준다는 의미, 좀 뜬금없지만 힘든 발제를 마치고 나서 나를 상 준다는 의미로 열라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열라 비싼 화장품을 사거나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즐겁게 해 주는 거지. 그동안 학대했으니까, 하하하

사례 D

5. 클리토리스와 질의 경계 밖 욕망을 찾아서

서구에서 매스터스(W. H. Masters)와 존슨(V. E. Johnson)이 여성의 오르가슴이 음핵(클리토리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힌 후, 남근 삽입과 질 중심으로 여성 욕망을 설명한 프로이트의 이론이 어찌면 허구일지 모른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었다. 서구의 음핵 색수열리티 담론은 이제까지의 남녀관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성 담론이 재구성되면서, 여성들은 이성애 성교가 자신들의 성적 기쁨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다(조은희, 2002). 이후 코에트(Anne Koedt)는 <질 오르가슴이라는 신화>에서 여성이 남

성과 상관없이 음핵을 통해 오르가슴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일종의 '여성의 성 독립 선언'을 하여 새로운 성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이나, 음핵이나 하는 논의 역시 남성들의 기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논쟁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여성의 다양한 성적 욕망, 이분법적이지 않은 다중 욕망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에 따르면 "여성의 쾌락은 클리토리스의 적극성과 질의 수동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질 애무의 쾌락이 클리토리스 애무의 쾌락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대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각각 여성의 쾌락을 돕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여성들은 양자택일이라는 남근 형태적 담론의 함정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과 여자방 회원들은 굳이 이리가라이의 논의를 가져오지 않아도 자신의 본능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그동안 치한 딜레마적 선택의 상황을 비켜 가기도 했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의 욕망은 과연 우리 자신의 것인가? 페미니스트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당당한 욕망, 진정한 욕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잠시 거두고 이들은 오히려 페미니스트 윤리¹²⁾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도치 않게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이 만든 기존의 굴레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억압하는 또 다른 방식의 페미니스트 윤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는 말이다. 이들은 '그 기준의 기준이 다시 여성을 억압한다면, 그 윤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며 거짓이든 허상이든, 혹은 만들어진 것이든, 그 무엇이든 여성들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선은 토해 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몇몇 여성들은 질은 남성 파트너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냉담하게 얘기하는데, 전

여성의 질에 대해 우리가 이성애적 관계 때문에 넘 팔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두 했었답니다. 웬지 질에 넣는 거는 그런 관계가 연상되고 또 여러 코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을 좀 달리하구 있는 중입니다^^ 질두 내 사랑수런 성기니까. 자위시에도 좀 친해 볼까 고민 중이에요. — 클리엔만 연연하는 자위 매니아 올림^^

여자방

특히 자위를 하는 동안에는 이성애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행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채위와 성적 실천, 상상 등이 실험된다. 이들은 이성애 섹스에서는 상상하거나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시도해 보고, 쾌락을 얻는 감각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겉게 그을린 피부의 색시한, 약간 힘 있는 남성의 몸을 떠올리기도 하고 (약간 흥분해서 땀방울이 맺히면 더 흥분되기도 하죠) 너무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의 몸을 떠올리기도 하죠.

여자방

혹자는 이러한 시도 역시 남성 중심의 이성애적 성관계의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하지만,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자위의 성적 실천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여성들은 자위를 하지 않는다/하면 안 된다'라는 가부장제의 충고를 비롯하고 무시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때론 기존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때론 통념에 대한 정치적 의미 부여

를 부러 배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아직은 숨겨지고 감춰진 욕망을 찾는 것으로도 분주해 보인다. 이들의 비정치성과 행위를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한계에 대한 거부'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여유'로 해석한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일까.

전 질에서도 성적인 느낌을 받거나 오름을 받기도 하지만
클리보다 빨리 오르지 않아요.
느낌을 못 받을 때도 있구요.
그래서 자위를 할 때는 삽입을 하지 않고 클리를 만지는 것으로만 해요.

여자방

6.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하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라

나는 섹스방을 생각했더랬죠. 공중전화 부스처럼 길거리이고 투명하죠. 물론 안은 안 보이고 안에서 밖은 흰하게 보이는…… 그런 부스 안에 들어가 섹스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거죠.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 섹스방에 들어가서 하면 정말 흥분될 텐데…… ㅋㅋ

여자방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위험한 것으로 경험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저 상상일 뿐이라도 남성에 비해

원인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이유는 없다.

여성학자 반스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궁극적인 권리로 주장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좋고 나쁜 성을 가르는 기준을 없애야 하며, 여성이 스스로 비규범적이라고 정의하는 성적 실천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ance, 1984: 22~24).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그것에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성적 상상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자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성적 상상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가부장제와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비웃고 희롱하는 것이다. 남성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상상, 가부장제의 상징적 남성 권력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하는 성적 상상은 일종의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수인 셈이다.

그때 (남자) 성폭력 가해자를 놓고 했을 때 하다가 재수 없단 생각이 들어 하다 말았던 거 같고, 여튼 했을 때 기분이 묘했던 거 같아. 은근히 짜릿한 거…… 재수 없기도 했지만…… 폭력적인 것은 남성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남성들에게) 심술을 부려 보는 거죠. 모욕해 보고.

사례 B

하지만 이러한 상상이 온전히 가부장제에 대한 통제된 저항과 비웃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명 반가부장제를 지향하고 권력을 가졌거나 혹은 평소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들을 비웃는 상상이지만, 현실과의 연결성 때문에 상상 자체가 방해받기도 하고, 그 상황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도 한다는 것이 이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한계였다. 또한 현실의 권력관계 너머로 상상력

더 많은 여성들이 성적 상상의 내용에 한계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성들은 그들의 성적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남성의 성적 폭력까지도 방어하고 책임져야 하는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인식의 주체가 남성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조차 그 책임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지우는 현실은 성적 상상에서도 여성들이 이성을 놓지 않도록 방해하는 등 이처럼 가부장제는 여성의 욕망에 간섭하고 그것을 '위험'으로 만들어 버린다

Vance(1984; 전영미, 2001: 14에서 재인용)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성역할과 인류학을 강의할 때 한 여자 대학원생은 아내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은 결코 S/M주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발화 즉시 아내를 구타하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들도 S/M주의자라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은 외(2002: 69)

하지만 이제 일부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성적 상상의 내용이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데 비판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험의 가능성으로 여성들의 상상력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만든 당사자인 남성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자는 것이다.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그 욕망이 현실로 실현되었을 때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될 수 있다. 욕망과 현실이, 욕망과 욕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욕망이 현실로 실현되어서 좋은 것과 불쾌한 것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성들의 위험한 성적 상상이 일부 남성이 저지르는 성범죄의

의 범위가 확장되지 못하기도 했다. 예로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은 이들의 상상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방해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현실과 동떨어져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한쪽에 치워 놓았을 뿐, 그로 인해 상상에서 가능한 그림을 아예 차단하지는 않는 듯했다.

제 자신이 강간당하는 건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자꾸 겁이 많이 들어 잘 안 돼요. 현실의 윤리적인 것과 아주 동떨어질 순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은 걸 억지로 하는 폭력적인 장면은 많이 연상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서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와 하는 장면은 재미있고, 그리고 누군가 지켜보는 거…… 혹은 내가 지켜보는 거…… 그런 건 짜릿하죠.

사례 B

그럼 내가 강간하는 건 어떨까도 했지만 여자들은 강간하기 미안해서 싫고, 남자들은 강간당한다고 생각 안 하고 좋아할 놈이 더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이……

사례 C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나 복수의 의미를 띤 상상 외에도 성적 쾌락, 오르가슴만을 위해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치부했으나, 사실은 다만 억압된 것이었을지 모르는 성적 실천, 상상으로만 욕망하던 것들이 시도된다. 성 정체성을 넘나들기도 하고, 수간과 같은 말로만 들던 위험하다고 하는 성적 경험들도 상상한다. 포르노에 그려지는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그대로 재현해 보는 상상에서부터, 그동안 남성들의 판타지에 가려 재단되거나 평가되던 여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깨는 그 이상까지 상상하

나의 몸과 내가 분리된 듯한 기분이 들면서
내가 다른 한 여인의 몸을 바라보고 애무하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이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이중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사례 A

한동안은 (포르노를) 미친 듯이 봤어. 메일이 오잖아,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레즈비언 포르노 아니면 재미있게 생긴 안내문이 있으면 보거나. 그중 특별히 맘에 드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있어. (어떤?) 엉덩이를 핏는 다거나 오물을 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해 주는…… 가끔씩 자극적인 게 있어. 자위할 때 그런 걸 떠올린다거나 해. …… 하하하. 그렇다고 꼭 내 환상과 들어맞는 게 아냐. 근데 내 몸이, 생리적인 것이 반응하는 거지. 왜 내 몸이 흥분하는 거랑 나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거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보는 걸루 하지.

사례 D

사실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걸리지요. 실제 상황에서는 상상두 못할 것까지 자위할 땐 자극을 위해 잠시 하거든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그 사람을 실제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금기에 대해 깨고 싶은 욕망인 거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별로 죄의식은 없구요.

사례 B

음…… 여러분도 오릴 좋아하나요? 많은 여성들이 오물을 참 좋아하지요. 저두 마찬가지. 그래서 때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나를 해 줄 수 있을 얼마나 좋을까 하구요. 지난 번 어떤 워크숍에서 다른 친구들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가웠는데…… ㅋㅋ 그래서 서커스단 소녀들의 곡예 중 허리를 거의 반으로 굽혀 엉덩이 쪽으로 얼굴을 내미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물론 그러기까지 그녀들이 감당한 노력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더 들지만). 살짝 가서 알려 주고 싶을 만큼 좋은 기술인데…… “오랄해 보세요” 할 수도 없고, 아쉽기만 할 뿐이에요.

여자방

난 내 유두를 내 입술로 애무하고 싶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자방

신뢰하는 사람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자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위하다가 마음 맞으면 섹스도 하고…….

여자방

7. 나가며

데이트 성폭력 피해 생존자¹⁴⁾인 나의 경험에서 봤을 때,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여러 충위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보게 된다. 거기에는 싫은 감정, 혐오스런 감정 외에 좋았던 순간, 혼란스런 몸의 반응이 분명 있었다. 벌레가 기어가는 느

낌도 나지만 기분 좋은 간지럼 태우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그로 인해 몸의 좋았던 반응을 찾아 그 상황을 '좋게 좋게' 해석하고 넘겼고, 성폭력으로 문제 삼지 못했지만, 그것은 분명 원하지 않은 성폭력이었다. 이와 같이 특히 아는 사람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생존자들은 모순된 혼란 속에서 자신을 더욱 비난하고 그 혼란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분열시키기도 한다. 원하지 않던 이성, 반응했던 몸, 순간적인 호기심과 지속적인 폭력 사이에서 이를 소화할 만한 언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안의 분열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성지식은 성폭력과 임신, 성병에만 한정되었으며, 아주 분명한 경계만 있었기에 경계를 넘나들거나 모호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고, 어떤 이름을 붙여야 좋을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

여성들의 생각과 느낌, 욕망과 쾌락, 역동하는 감정과 반응이 거의 설명되지 않은 채로 깊은 호수에 잠겨 꺼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동안 밀어왔던 세계를 거꾸로 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다만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위에 떠 있는 잡다한 것들을 치우느라 바빠서, 어쩌면 호수 자체의 정화 작용을 더욱 죽여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위를 하는 많은 여성들이 자위를 즐기면서 자신의 몸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자신의 성기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에 경외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성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여성이 그 누구보다 성적 경험을 좋아하게 되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취급했던 여성들이 몸이 느끼는 것에 귀 기울이고 또 다른 느낌을 찾아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위가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위를 즐기면서 몸을 긍정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성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관계에서는 오르지 못하지만 자위에서는 오르가슴에 쉽게 다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성별 권력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성들은 어떻게 자위를 하기 시작하며, 어떤 형태의 자위를 즐기고 있을까? 자위를 하는 행위에 성별 권력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즐거운 성적 놀이를 방해하는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자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여성들은 그 문화적 요인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웃고 있을까? 그 안에서 갖는 해방감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글은 위와 같은 질문으로 출발했고 자위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성찰해 온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자위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자위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성적 실천임을 주장하고자 했다. 사실 이들은 실제 자위 경험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 욕망들이 때론 가부장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론 여성주의 윤리와 갈등을 겪기도 하는 모습을 봤다.¹⁵⁾ 이들 여성들은 자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재인식하고 긍정했을 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등 여러 충위에서 반응하고 있었다.

성은 근대적 주체가 지닌 자아의 핵심으로 강조되는 만큼 인간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범주이자 가장 논쟁적인 주제다(주유신, 1999).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성은 그 실체를 드러낼 시점에 와 있으며, 자위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앞서 살펴본 가능성들로 인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성주의라는 프리즘으로 힘을 얻을 것이다.

왜 원하느냐고 한다면…… 글썽 그 기분이 날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해야 하나?

몸이 살짝 덥혀지고 숨이 약간 가빠지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
죽을 때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거. ㅋㅋ
여성주의 덕분이죠.

사례 C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표현을 고집한다. 여성주의는 '별것 아닌 것' 속에 스며든 '자연스러움'에 균열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자연스러움은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러울 리는 없지 않았는가!

- 4) 특히 성적으로 무지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여성, 이른바 순수하게 보이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천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수동적이고 고분고분한 여성성이 성적 실천 과정에서 재현되는 것이다.
- 5) 아우성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의 약자다. 구성애의 아우성은 대중매체에서 성에 대해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으나, 그녀가 말하는 '우리들의 실제와 아름다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여성에게도 해당할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든다. 그녀가 말하는 성이 남성들의 성이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구성애는 자위 역시 남성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성욕 해소법으로 보지만, 여성들에게는 조심할 것을 더 강조한다("여성의 경우는 생식 구조가 다르므로 지나칠 경우, 남자와의 다른 문제 발생→임증이 유발될 수 있음(자궁암도 유발 가능)"(아우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 6) '보지'는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지는 남성들에 의해 모욕적인 '욕'으로 사용되었다. 남성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성의 성기를 부르는 '보지', 즉 '여성임'이 상대를 모욕하는 수단인 욕이 되는 일은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이기에 가능하다. 남성들의 이러한 외식을 바꾸기 위해 일부 페미니스트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용어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일부는 그 용어를 복원해 여성의 몸에 드리워진 폭력과 부정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후자 쪽에 더 가까워 (주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 '보지'라고 불러 보거나 불러 보게 했다. 그렇게 시도했을 때, 기존에 비하되고 혐오스런 것으로 치부된 욕이었던 '보지'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버자이너 모놀로그》에서 말하듯, 이 용어를 불러 볼으로써, '여성임'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 했던 모욕감이 조금은 씻기는 느낌

◆ 주

- 1) 성은 성적 욕망을 창조하고 구성하고 표현하며 추구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성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 지향, 성적 환상과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조은희, 2002). 이 글에서는 성과 섹슈얼리티로 혼용하여 쓴다.
 - 2) 이곳은 지난 2003년 8월 13일 '여성들의 자위 경험을 통한 성적 주체성 논의(가제)'라는 주제로 연구 목적을 밝히고 시작된 커뮤니티다. 이곳에서는 여성주의에 공감하고 여성의 욕망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자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이 교환되었다. 활동하는 사람은 주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사람들이며, 여성주의자라고 스스로 명명하는 사람들, 자위를 성적 실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성적 취향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고루 섞여 있다. 회원 수는 24명이며 의견을 개진하거나 '번개' 등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적극적인 회원은 13명 정도다. 대략 13명의 게시판 글(필자의 글 포함)과 그 외 8명을 인터뷰했는데, 이 글에서는 4명의 인터뷰만 직접 인용했다.
- 사례 A는 20대 초반에 자위를 즐기게 시작한 여성이다. 사례 B는 30대 초반으로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된,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여성이다. 사례 C는 20대 초반으로 그녀에게 자위는 너무나 일상적인 경험이다. 사례 D는 20대 후반으로, 그녀 역시 자위는 생활 자체라고 할 만큼 일상적이지만 자위가 성적 경험으로 인식된 것은 오히려 파트너와의 섹스를 통해서라고 말한다. 그녀는 앞의 세 사람과는 다르게 자위가 성적 경험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즐기는 정도라고 얘기한다.
- 3) 항상 남성이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남녀'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연시된다. 언어의 질서는 그 시대 권력관계를 그 무엇보다 잘 드러내는 것 같다. 필자는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여남'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여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누군가 '남녀'가 표준어라 주장해도 설득할 마음과 의지는 없다. 다만, 독자들이 이 말을 읽는 순간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북하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

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 의미를 정화함으로써 맛보는 해방감이 상당히 컸던 것이다. 아직까지 여성계에서 이에 대해 정리되어 토론된 적은 없으며, 나 역시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장소나 대상에 따라 '보지'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 7) 가부장제에 의해 만들어진 젠더 개념의 '여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한다.
 - 8) 나는 여성학계·여성운동계에서 거의 7년 동안 활동하고 공부하면서 '너는 너무 급진적이야'라는 말을 자주 들곤 한다. 그러나 '급진적'이라는 말의 근거는 아래 변정수의 말처럼 내용의 급진성보다는 대부분 '성적인 것'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다. 따라서 진정 이들이 말하는 '급진적'이라는 수식의 골자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을 이야기할 때 '급진적'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사람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 주고자 이곳에서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용한다.
- "여성의 성을 여성 자신의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다지 급진적이랄 것도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는다 뿐이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일 때조차도, 그 자체로 급진적이다."(변정수, 《즐거운 말들》 서평)에서
- 9) 고정관념을 넘어선다는 의미는 물론이고, 가부장제의 편견도 때론 그 의미가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넘은'을 강조했다.
 - 10)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남간의 이성애적 성관계에서 '먹다', '주다'라는 표현을 쓴다. '먹는다'의 주체는 남성이며 '주다'의 주체는 여성이다. 여성의 몸과 성기는 남성들에게 주는 선물(치녀성, 흔히 말하는 육체적 순결)이며, 음식물로 언어화된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사랑하는 남자 말고는 아무한테도 보여 주기 싫었다. 나 스스로에게도 보는 걸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이연희·지은숙: 2003)
- 11) 태혜숙(1998), 《몸의 정치, 성차의 윤리》, 《여/성이론》 통권 2호에서 재인용.
 - 12) 페미니스트 윤리라는 것이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윤리의식은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 참으로 다

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페미니스트 윤리는 '성폭력 중심의 성 담론 속에서 성적 욕망과 성폭력 사이에 놓인 페미니스트의 해석과 행동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의미한다.

13) 이러한 상상들은 '우리끼리의' 은밀한 대화에서나 가능하다. 이들 역시 일반 남성들과 일반 여성들에게 그들의 상상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 남성들에 의해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며, 그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도 온전히 실지 못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상상이 가능하다는 힌트 정도만 줄 수 있을 뿐이며, 그럭저럭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제시했다.

14) '나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다'라는 말은 위험한 '커밍아웃'일 수 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여러 번 망설였다. 필자는 지난 2005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피해 생존자를 위한 웹터인 '열린터'의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서 친족 가해자 사례를 보았는데, 가해자인 아버지가 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난 후 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 그 아버지들은 대놓고 '너는 버린 몸이니까'라며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했다. 또한 필자는 1999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는데 종종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말한 '성폭력을 당한 몸'은 '더럽혀진 몸, 순수하지 않은 몸,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규정되며,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몸'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마땅히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변 남성들의 윤리, 잘못된 성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가부장제에서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하다. 따라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미묘한 긴장을 지울 수 없으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더럽혀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고 그 편견을 가진 자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밝힌다.

15) 다음은 여자방의 한 여성이 한 말이다.

폭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과의 소통

나는 욕망한다. 내가 욕망하기 단추의 셔츠를 과격하게 뜯어내며, 한 휴대폰 광고의 레슬링 장면처럼 섹스 하는 것을.

하지만 내 욕망은 여전히 걱정을 동반한다. 이것이 TV에서 매일 매일 내보내는 강간 판타지의 일종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지 않을까, 물.

하지만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따라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여성인 내가 갖는 걱정일 뿐이다.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서의 폭력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서 난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난 내가 그 대상이 될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재를 살피지 눈치 채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컴퓨터 가지는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렇다.)

남성의 강간 판타지는 욕망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들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를 그들은 욕망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을지 몰라도, 집단적인 '욕망'으로서,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들의 왜곡된 이미지만 -무성적이거나 아니면 언제나 그들과 섹스 할 수 있는 '성적인 존재'이거나- 생산해내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단순한 섹스 '판타지'만이라고 주장하고 싶을지 몰라도, 집단적인 '욕망'으로서 그들의 강간 판타지는 끊임없이 실현 가능한 활로를 찾아낸다. 그들의 '욕망'의 재현인 포르노, 실천인 성매매 등으로 여성에게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승인을 받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정당한' '욕망'을 분출하려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성 관계를 전제로 설정해놓은 성적인 욕망은, 욕망의 주체인 남성과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정상화'한다. 그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욕망'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일방적인 권력 관계, 주체와 대상이 뚜렷이 나누어져있는 상태에서 이미 소통이라는 과정은 존재할 수 없다. 가부장제 사회의 소통 없는 '욕망'은 '욕망'의 일방적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권력 관계의 하층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좀 더 과격한 섹스'와 '강간'의 차이조차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폭력이 아닌, 욕망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의 욕망이 만났을 때, 그것은 쌍둥이처럼 동일할 수만은 없다. 서로 욕망했음이라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망이 충돌했을 때 소통하지 않는다면, 욕망은 자연스레 권력을 가진 자의 것만으로 충족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는 폭력에 '욕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강간, 일방적인 키스 등의 이미지를 멋지게 포장해 드러나 등의 많은 매체들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쌍방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여성도 그것을 원하니까,' 하지만 이 사회에 폭력을 당하지 않을 욕망 외의 선택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폭력을 당당한 욕망, 그것이 지금 사회가 생산해내고 있는 욕망의 전부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시화된 이성 관계의 성적인 욕망에서 그 폭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를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욕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 대답은 나올 것이다.

여성도 주체로서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비가시화되었던 것들을 언어로서, 몸으로서 새로 구성해나가기려는 지금, 가부장제에서의 '욕망'은 우리의 욕망을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통의 힘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숨겨져 있던 욕망을 소통으로서 지금 꺼내려고 하는 여성들은 지금 무거운 가부장제의 억압을 벗어나서 폭력 없는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과격한 섹스를 원한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가 나를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답습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욕망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소통했을 때, 나는 나의 섹스 판타지를 욕망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과격한' 섹스가 가부장제의 그것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소통으로서 풀어가며, 그녀들이 말하는 폭력 없는 욕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욕망을 말하려고 하는 그녀들의 힘을 받으면서,

by. 상어
책상밑만 머리의 욕망하는 상어

"페미니스트로서의 나와 성적 환상 속의 나.....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할까 봐 조마조마해요."

자위와 보지¹⁾, 그리고 소통- 가능성을 만나다.

임신 못해?

언제부터 이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대학 아주 어렸을 때였다. 나와 세살 터울인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부터 기억이 있으므로, 내 첫 실험이었을 것이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았다. 그게 자위인줄도 몰랐다. 업드려 누워 치구를 바닥과 마찰시키다보면 어느새 찢찢찌찌함을 느낄 수 있었고, 난 그저 그 느낌이 좋았었다. 잠이 안 오는 날이면 꼭 자위를 했고, 계속하다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고, 오줌을 싸고 방에 돌아와 누우면 곧 세근세근 잠에 빠졌다.

그게 '자위'인 줄은 몰랐으나, 하면 안 되는 행동 혹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남들 앞에서 '아랫도리'를 만지는 것은 금기였으므로, 어쩌다 엄마와 같이 자게 되는 날이면, 혼날 것 같아 침다지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져서 몰래 꿈틀작을 거리고는 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몰래'가 가능할 리 없었다. 아주 몇날 일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하다. 엄마가 나를 불러 방에 앉혀놓고 혼내던 그 날의 기억이.

"너 자꾸 그런 거 하면 나중에 임신 못해!"

지금 그 얘기를 꺼내면 엄마는 진짜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엄마가 한 그 말 때문에 거의 십여 년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웃음부터 나오는 얘기다. 아니, 클리토리스 자극 좀 한다고 임신을 못하더니 어떤 말이 자위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무조건 막고 싶어 했던 스물다섯의 어렸던 엄마와, 자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불임'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던 다섯 살인 여자아이 사이에는 그 이상의 소통이 없었다. 아마도 스물다섯의 엄마는 그렇게 말하게 겁을 주었으니 더 이상 자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안심이 있었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날의 일을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섯 살의 딸은 그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여, 그 이후에 자위를 할 때마다 '이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딱 오늘 까지만'을 되뇌었다. 조금씩 커가면서 '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딸은 엄마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계속되었던 믿음 아닌 믿음을 떨칠 수는 없어 '그렇다면 거짓 거, 임신 따위 안하고 말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 소녀에게 있어 몸과의 소통은 위험한 행동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러나 끊을 수 없던 달콤한 마약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는 행동이 '자위' 인줄은 몰랐다. 그것은 그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으며, 쾌락일 뿐이었다. 한참 성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왕성하던 때에도, 내게 자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질에 오이나 담긴 따위를 넣어보는 것 (훗, 이 얼마나 날근 중상적인가!)만이 '자위'라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게 자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마도 스무 살 즈음이었다. 어느 때쯤은 볼날, 한 언니의 자위 이야기에 힘을 얻어 아주 조심스럽게 '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위를 했어'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날 꺼낸 말은 고작 그 한마디뿐이었으나, 그녀의 발화는 나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주었고, 나의 몸을 사랑하게 된, 시작점이었다.

보지와의 첫 만남, 그리고...

1) 여성의 성기를 자극하는 다양한 말이 붙 붙기 힘들다. '보지'라는 말이 매우 여성비하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을 여성이 필요로 이야기 했을 때는 전복성이 있다고도 생각해 본다. 더 좋은 의미를 가진 언어를 만들어 내고 싶은 욕망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보지'로 정하겠다.

그 때의 발화 시점을 계기로, 조금씩 내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만난 책이 있다. 베틀 도슨의 <내 방에 아미온을 키워라>이다.
 그 책이 내게 물었다.
 "넌 내 보지를 본 적이 있니?"
 깜짝이야. 갑소사! 없어! 없다구! 단 한번도!
 오몸 놀 때 위에서 쳐다보거나, 씻을 때 만지기는 하지만 들어저라 바르곤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없을까?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만 및 주었다. 두려웠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무엇이 내 몸을 보는 것을 두렵게 만든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용기를 냈다. 샤워한 후 발문을 꼭꼭 감어 잠고그 침대에 몸을 기댔다. 거울을 꺼내 들었다. 잠깐- 잠고 있던 눈을 서서히 떴다.

와아!
 이렇게 생겼었다니! 동고랑 질이 이렇게 가깝구나! 오도도 신기하게 생겼네. 그럼 이게 대문손이고, 이게 소문손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 것도 이렇게 생겼을까?(아니다! 다 다르게 생겼!) 다들 이런 색인가?(색도 다르다!) 좀 더 분홍색이면 좋을 텐데, 살짝 거무죽죽한걸. 나는 왜 털이 조금밖에 없을까? 대문손 양 옆으로도 털이 나네? (보지 생김새에 '장갑'은 없다. 나 얼굴 내 얼굴 다 다르게 생겼듯 말이다!)
 책에서 봤던 보지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내 보지와 비교해보기도 하고, 여기가 음핵(클리토리스)구나! 한번 건드려보기도 하고, 원지 민망하여 (이전 전혀 그런 것도 없지만) 금방 웃을 주섬주섬 잊었다.

원지 재미있고 신기해서, 이후로도 자주 거울을 들었다. 자주 볼수록 예쁜 것 같고, 그날그날 조금씩 달라보이기도 했다. 나중에는 대문(?)해져서 거울을 보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위를 해보기도 하고, 오묘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색소로는 쉽게 만날 수 없던 오산생(?)을 만나기도 하고, 의대생 언니가 진행한 자위 워크숍에 참가해 질경이(?)로 질 내부와 자궁경부를 보기도 하고, 흡입형 생리대인 키퍼사를 쓰며 점점 내 보지와 친해져 가고 있다. 내 몸에 대해 더 알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저런 강연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소통, 가능성의 확장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볼록 나온 아랫배를 귀엽다고 자랑하는 스물 한 살의 나에게 마흔 한 살의 엄마는 말했다.

- 2) 현실문화연구에서 나온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위'를 '천도'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베틀 도슨이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자위행위의 의미와 필요성에서부터 자위행위를 통해 오로가점으로 가는 실제적인 방법, 성적 쾌락과 자위행위의 관계, 기타 다양한 논제들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다루었다. 저자 자신의 오랜 연구, 여러가지 사례, 독자들과의 친밀한 교류가 풍부하고 문장도 쉽게 편하게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자신의 성기가 추하고 기형적이라는 대다수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 성을 자각하게 해주고 오랜 성적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 '가장 본능적인 행위'이자 자신의 성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자기 성애'의 과정, '성적인 자신감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성적인 활동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yes24]
- 3) 질경은 질 내부와 자궁경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입구를 벌려 고정시키는 도구다. 질과 자궁경부를 스스로 관찰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온, 심지어 두려워했던 나의 몸 일부를 볼 수 있다. 준비물, 자궁경부 색깔, 크기, 형태, 질경이 단계에 따른 질벽의 변화 등,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이나마 돌려받기 위해 의술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용하는 것이다.
- 4) 키퍼는 질 흡입형 생리대다. 끝대기처럼 생긴 고무컵에 생리혈을 빨아낸다. 매번 깨끗이 씻어 쓰면 일회용 생리대 보다 안전하기도 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5) 추천하고 싶은 책들
 <섹스북> 권터 아멘트 지음 / 이윤숙 옮김, 비영를 출판사 (성애 관해 쉽고 재밌게 쓴 책, 한번쯤 읽어볼만 해요.)
 <버자이너 오솔로그> 이브 연슬러 지음 / 류숙정 옮김, 북하우스 (한국으로 더 유명하죠. 9월에 새로운 공편이 있다고 하네요!)
 <내 방에 아미온을 키워라> 베틀 도슨 지음 / 권리원이 옮김, 현실문화연구 (위에서 얘기했었죠, ~^^)
 <한때의 섹스일기>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섹스 가이드 북) 한 채은 지음, 해물 (상세하고 친절하게,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득,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 여성들이 읽기에도 유용한 책이랍니다. 보통 서점엔 잘 없어요. <http://www.koonn.org/>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 용어학술회설 전에 페미니티에서도 빌려보실 수 있어요.)

"말, 몸을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해. 네 몸은 소중한 거야."
 "내 몸이 소중한니까 자랑스러워니까, 부끄럽다고 감추거나 공중 싸매지 않지. 뭐, 누가 본다고 몸이 닳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소중해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 보이는 내 몸이 아니라 대상화 하는 시선이 문제인걸."
 "아이고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이제 너 감당 못하겠단."
 "에이, 사실은 자랑스러우면서 뭘- 오호호"

자위하면 임신 못한다는 말을 굳이 굳대로 믿고 두려워하던 여자아이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스무 한 살이 되었다. 그 때의 엄마가 내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라고 말해주었다더라면, 내가 내 몸과 만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엄마도 엄마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서 자라났을 테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는 엄마도 어렸을 지도 모른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실제적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 삶의 한계를 확대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6)

그래서였을까, 처음부터 '성(姓)'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내가 들었던 강연에 대한 이야기,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슬금슬금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도,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서로 공감 감추고 있던 이야기들, 절대 풀어놓지 않던 서로의 경험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번 허가 받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엄마와도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여자친구들과 소통하며, 다른 여성들과 경험을 나누며, 한걸음 한걸음씩 가능성의 확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 되었다.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가를 묻는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만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해방감과 가능성을 느끼고 만날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은 소통의 기쁨이고, 억눌려왔던 것들을 터뜨리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여성의 욕망, 감추기만 했던 그 무엇. 실재도 없고, 정황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규정내릴 수도 없지만 너무나 생생히 무한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뜨거운 무언을, 꺼내어 놓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나도 살고, 그녀들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by_ 아이서
 파랑새를 찾아서

6) <내 방에 아미온을 키워라> 아드리엔느 리치 지음, 김민정 옮김, 문민사 300p

4주차. 이닝애종님주의

- ▶ 『여성주의 학과 '간다'』 한국여성민우회/지성사/2008
 - ↳ 전덕, 섹스, 색수열리터
- ▶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퀴아론문화연구모임WIG/사람생각/2008
 - ↳ 범주와 명명, 그리고 경계지대
- ▶ 'lesbian festival' 자료집 /이화여대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벤티소
 - ↳ 여아들을 날다>/2005
 - ↳ pre 클리닉
- ▶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자료집 /레즈비언 문화제 기획단+19대 총여학
 - ↳ 생화 <Inside OUT>/2007
 - ↳ (기조글) 레레레레 레즈비언

지금까지 생
적으로 태어난
자 알고
가능합니
“생물학적으로
어났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원이 있는가?
태어났다면,
은 그렇게 살
하는가?”

이에 대해

1강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김은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의료인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민족(국가)담론과 여성, 지구화, 탈식민 지식 생산, 근대적 의제로서의 성별과 20세기 한국 여성사, 여성의 시민권, 역사와 여성학 등에 관심이 있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이고, 1997년부터 여성영화계의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책은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공제) 등이 있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성인 남성을 사랑하고 욕망한다. 그런데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남성 중심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여성의 섹스, 몸,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여성이 누군가를 욕망하고 사랑하고, 또 그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안정시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도화하고, 이런 제도 밖의 여성들은 제도가 부여하는 권리와 지위로부터 배제되어도 되는가?' 입니다. 여기에서 배제는 취업에서부터 아이를 낳는 문제, 양육하는 문제, 어머니가 되는 문

제, 정치적 피선거권을 갖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성운동 혹은 여성학 진영에서는 매스 미디어나 공적인 장에서 여성의 몸이 전시되거나 혹은 여성의 몸이나 외모에 대한 공개적 논평이 있을 때 여성에 대한 "성적 모독", "성적 대상화", "여성에 대한 비하" 등으로 반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대응에 대해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거나 "그것이 왜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이나?"라는 반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것과 그들이 느끼는 성적 주체성 그리고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모든 여성들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과 여성의 욕망, 몸과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이고, 동시에 여성과 여성의 몸, 여성의 욕망과의 결합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했고,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개념들은 서구에서 발전시키고 통용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험을 성찰하고 비교해보는 데에도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흔히 우리 사회를 가부장제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부장제는 간단히 말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체제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전복, 변화를 위한 운동을 여성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모든 여성들의 일반 운동으로 말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사회가 언제서 가부장제 사회냐?", "모든 여성들이 지배받고 있고, 모든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남성들 역시 나이와 지위, 계급 등에 따라 위계가 있고, 여성들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의 위계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남성 지배 혹은 남성 중심의 사회, 성차별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정도에서 가부장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운동이 호명하는 '여성' 범주에 자신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불명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고, 여성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자신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여성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

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정치(sexual politics)가 등장하고 영 young 페미니스트 운동, 장애 여성 운동, 아줌마 운동 등이 등장하면서 한국 여성운동 혹은 여성학에서는 여성들 간의 차이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소위 '주류'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레즈비언 이슈나 장애 여성 이슈 혹은 섹슈얼리티 이슈 등 '주변적'이거나 소수 여성 집단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일반적', '중심적' 이슈를 분산시켜 운동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슈'에 초점을 두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이 여성운동이 비판하고자 하는 가부장적이고 중심 지향적인 인식 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여성주의·여성운동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를 인정하거나 차이를 수용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은 일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여성들 차이를 관련해서 어떻게 논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미혼 여성 노동자, 저소득층 기혼 여성

노동자, 전업주부, 여학생 등을 여성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혹은 여성 이론화의 핵심 집단으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이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여성이 사회변혁의 주체가 될 때 가장 핵심적 주체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패권적 아이디어 속에서 여성 내의 부분 집단을 '여성'의 대표로 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성을 둘러싼 범주의 경합, 누가 여성인가, 그리고 여성들 간의 '차이'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가, 여성의 성적 욕망과 성 정체성의 문제는 여성이라는 성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이 정책이나 정치적 연설의 중요한 포설 대상 혹은 주체가 되면서 '여성'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여성'은 누구지? 나는 그 '여성' 범주에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여성 문제가 주류 연설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문제가 더 주변화되고, 성차별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관심이 적어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물론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제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이유도 있지만, 제도와 '나'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시키지 못하는 사고방식에는 내가 제도 밖에 있다는 인식도 한몫합니다.

더욱이 정책이나 정치적 연설 속에서 다루지는 여성은 규범, 법, 권리, 지위, 가치의 문제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인식

물에서는 이해나 차별, 불평등의 문제 등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여성' 범주에 속하는가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성들 내부의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성 일반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독신 여성, 레즈비언, 장애 여성, 이주 여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의 '여성' 주체 혹은 '여성' 운동에는 서울 중심의 '여성', 가족과 관련된 '여성', 이성애 중심의 '여성', 정상인(비장애인) '여성', 한국인 '여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자신들은 그 여성 범주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주변 범주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레즈비언은, 장애 여성은, 노인 여성은 여성인가? 아니면 그들은 단지 레즈비언, 장애인, 노인인가? 할머니, 어머니, 아가씨는 여성과 어떤 관계인가? 그들은 여성성이라는 차원에서 '초과' 여성, '충분' 여성, '과소' 여성인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역순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동안 명확하게 인지되어 왔던 '여성'이란 말이 특정 맥락 속에 위치할 때 그 의미는 소위 여자라고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던 여성과 불일치하고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차이'와 '정체성'의 문제가 '여성'과 결합하면서 여성은 누구인가, 여성은 어떻게 개

념화되고 설명되는 범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성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여성이라는 말이 동원하는 의미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고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성이라는 말은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는 성역할과 관련되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사적 영역에서의 자녀 출산, 양육, 가사노동 등 재생산 영역을 담당하는 자로 의미화됩니다. 혹은 긴 머리, 가슴, 허리, '여성다운' 몸매와 얼굴 등 '몸'의 이미지로 연상됩니다. 이때 여성은 생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고 또한 성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198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학은 생물학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존재인 여성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호명하고 구성해냈습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피지배자로서 여성 노동자를 '여성'으로 호명해내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주체로 구성해 내면서 '여성'이란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1990년대에는 여성운동이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 억압을 가시화하고 정치화하면서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의 '여성' 주체를 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섹슈얼리티 통제를 통해 어떻게 여성이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기반하는 전제는 인간은 생물학적 차이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인데, 태어나자마자 그 차이에 인간이 부여한 역사와 문화의 의미가 결부되면서 성차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화되고 문화화되는 과정은 생물학적 성차를 지닌 여성이 역사적·사회적 차별을 지닌 피해자, 종속자로서의 여성이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유명한 진술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여성의 운명 혹은 종속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역사적인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성들은 바로 가부장제의 종속성 그리고 피해자 경험이 갖는 동일성에 의해 여성으로 묶일 수 있었고, 자매애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여성들끼리 여성이라는 이유로 묶일 수 있습니까? 혹은 묶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자매애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떤 여성들은, 여성주의자는 다른 여성들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하는

*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정치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생자로서의 여성운동의 주체로 구축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조주현 선생님의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230~266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데 개인주의적이고 성취 중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사실 여성들 사이에 자매애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유사성 때문에 여성들이 서로 친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왜 같은 여자들끼리 싸우냐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이 이해관계에 따라 싸우고 있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언설에는 여성은 평화적이고 부드러워야 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는 비난이 깔려 있습니다. 여자 대 여자의 싸움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부간의 갈등인데, 이것도 사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이성이 갖는 공통성이 곧바로 사회적 연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연대나 자매애 같은 것은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자각에서 나온 정치적 행위입니다.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상황의 차이가 정치적 연대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관련되는가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커지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여성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고 느끼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이라는 말을 피해와 연결해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또 남성들에게도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성을 과다하게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젠더 혹은 양성평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

도 있습니다.

:: 여성에 대한 나의 경험의 편린들

이야기 하나

1996년에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의 하라 히로코 교수가 당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이었던 장필화 교수를 방문했을 때 여성연구소를 젠더연구소로 바꾸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연구소'는 여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주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향력 있는 남성 교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다 지시할 수 있는 '젠더'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일본 오사카 여대의 구니코 후나바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 아카데미에서는 젠더라는 용어가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말이 젠더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장필화 교수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말이 갖는 정치성 그리고 여성 경험을 소구해 운동적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서 '여성' 사용의 필요성을 고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에 정부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여성정책의 핵심어로 수용하면서 성 주류화

라는 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성 주류화·젠더의 주류화란 무엇이고, 젠더는 무엇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젠더, 성 주류화, 성 인지, 성 인지 예산 등의 용어가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전혀 의미가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여성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용어들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성 인지'를 '양성평등' 혹은 '남녀평등'으로, '젠더'를 '남녀별'로 변경하는 지침을 전달했으나 정착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성 인지, 양성평등, 젠더의 사용은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의미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야기 둘

지난 2005년 6월에 세계여성학대회가 이화여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우리는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를 '경계를 넘어서: 동서남북' (Embracing the Earth: East-West, North-South)으로 정하고 전통과 근대, 저발전과 발전으로 상징되는 지구의 동과 서,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논하는 언설의 난장을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여성들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참가한 여성들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여성학자들은 2년 반 동안 준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회 중간에 사건

도 많았지만, 사건은 우리의 현실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을 보게 하고, 현실을 구성하는 경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여성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여성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문제 제기를 통해 그 여성적 시각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젠더에 기반한 문제라기보다 개인적인 성의 문제이거나 계급이나 지역 혹은 세대의 문제임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알 때가 많습니다. 사건은 바로 현상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균열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모두 참여자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임박해오자 자신들이 대회 조직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항의를 비롯해, 공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여성이 공적 기금을 받는 대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항의 등등 여성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성과 배제되어야 하는 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여성들을 소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적 차원에서 '여성'은 한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범주인 것입니다.

세계여성학대회 폐회식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사건도 어떤 여성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또 어떤 여성이 대표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개회식은 조직위원회의 얼굴이라 생각해 참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폐회식 페스티벌은 다양한 참가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선정해 프로그램에 시간을 배정하는 정도만 개입했습니다.

그 사건은 패션쇼였습니다. 패션쇼에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복을 하이패션으로 발전시킨 디자이너 패션쇼였고, 다른 하나는 한복을 일상적인 평상복으로 발전시킨 브랜드의 패션쇼였습니다. 여성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주최국으로서 한복을 소개하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패션쇼에서 굉장히 멋진 파티 의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는데, 운동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부 여성들이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성학대회에서 '여성성'이 이런 식으로 현시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보던 오숙희 선생님이 힘들게 무마했습니다(물론 오숙희 선생님은 대회가 끝나고 패션쇼 주최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문제를 상쇄해주리라 기대했는데, 그 다음 패션쇼 팀은 '삼식아'를 외치대면서 전투복치

럼 개량한 한복을 입은 남녀가 쌍을 이루어 전쟁놀이 같은 무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레즈비언 활동가들을 포함해 호주에서 온 팀들은 다 일어났고, 몇몇은 무대로 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 팀의 문제 제기에 반대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팀이 끝나자 사회자는 즉석에서 자기 나라 민속 옷을 입고 나온 참가자들을 무대 위로 초대해 민속의상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나이 든 페미니스트들은 프로그램이 끝나자 국제대회에서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말하며 화합의 촉진이 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강강술래를 추며 신나는 춤판으로 끝났지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런 해프닝을 큰 흐름 속에서 수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페미니스트들의 모습을 느꼈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날 여성들 간의 연대, 자매애란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여성학대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패션쇼에 대한 언급도 많았습니다. 여성의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의 '연대'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

건은 단순한 사건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메일도 있었고, 호주 팀의 이의 제기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페미니스트 정치를 보는 듯했다. 21세기의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여성대회에 패션쇼가 등장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인가. 오히려 더 희화적으로 느껴져 재미있었다. 호주 팀의 반응은 전체주의적인 방식의 거부로, 순진하면서 더 문제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개최되지만 오늘날의 '여성'이라는 범주에는 그 내부에 엄청난 이질성이 숨어 있고, 어떤 순간이 되면 '여성'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서로 경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으는 힘은 여성이지만, 그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집단의 의연 경계는 다른 경계와 만날 때 아주 유연하게, 또 취약하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셋

2005년 겨울, 일본에 갔을 때 교수인 페미니스트 친구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귀엽게 생긴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교수의 남편이 '딸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래서 '아, 여자같이 생긴 보이프렌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손님인 젊은 여교수가 들어서면서 누굴냐고 묻기에 제가 "이 집 딸애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목소리로 "여자같이 보이는데? 레즈비언이야? 아니면 트랜스젠더야?"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라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그)는 정말 작고 예쁜 손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몸과 표정을 보면서 '여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젊은 여교수가 자기의 어린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B(딸의 남자친구)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젊은 여교수에게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남자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나는 여자지! 그리고 레즈비언이고 페미니스트이지!"라고 답변하자 B 짱은 "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컨대 이런 내용이었습니.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남자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자만 좋아했다. 남자 성기가 생기지 않으면 수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 교수가 처음 집에 내려온 B 짱을 보고 딸에게 "같이 온 여자애는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은 "재는 여자애가 아니라니까! 쟤 내 남자친구야"라고 주장하면서 "B 짱이 자신을 남자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라며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딸은 실제로 B 짱이 누구이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친구로서 그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 모두 B 짱을 '남자친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B 짱 스스로 남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딸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꺼이 인정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성(성별) 정체성에 대해 전혀 회의하지 않는 레즈비언을 보고, B 짱이 처음으로 자신의 갈등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당신은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성별에 대해 갈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자신은 레즈비언이 아니고, 또 자신의 여자친구도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섹스와 젠더로 시작하는 여성학 수업

흔히 여성학 수업에서 '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혹은 '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섹스와 젠더라는 용어를 소개합니다. '섹스는 생물학적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젠더는 '문화적 혹은 역사적인 의미의 여성과 남성(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한다'고 배우고,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이나 환상을 포함한 성애적인 관념이나 실천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B 짱은 여성인가 남성인가? 아니면 남성적 자아 이미지를 지닌 여성의 몸을 갖고 있는 남장 여자인가? B 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인가? 지금은 몸이나 성별, 섹슈얼리티가 여성학이나 여성운동을 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그들을 포함하는 정치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B 짱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규정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규정할 때 대부분 여성과 남성, 혹은 몸의 형태, 여러 가지 이미지 등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성'이라는 범주 혹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명명(naming)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어려움을 느끼는데,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상대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하다"는 반응을 합니다. 또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성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n개의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번역할 때 섹스라는 말은 '성차'로, 젠더는 '성별'로 씁니다. 여기서는 영어와 번역어를 섞어서 쓰겠습니다.

니다.

::섹스와 젠더 개념의 고안은 왜?

섹스와 젠더 용어의 계보학을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이래로 영어권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인 차이를 섹스로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젠더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실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간성(intersexed) 혹은 트랜스 섹슈얼 '환자'들과 함께 지냈던 정신의학자나 의료진들에 의해 발전된 개념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고, 1960년대에 다른(잘못된) 몸에 갇힌 젠더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갖는 성(섹스)이 마음의 성(젠더)과 맞지 않는다는 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 전환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성(sex)에 대한 소속감(gender identity)을 발전시키는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즉, 섹스와 젠더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몸을 바꿈으로써 섹스와 젠더를 맞추는 것입니다. 섹스와 젠더의 차이는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섹스는 생물학적, 의학적인 것이었고 젠더는 순전히 심리학적 범주의 문제였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로버트 스톨러(Robert Stoller)가 처음으로 젠더 정체성을 인명했는데, 이때 젠더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섹스에 속하는가에 대한 압의 인식으로, '나는 남자(male)다' 혹은 '여자(female)다'라는 인식을 의미했습니다. 젠더 정체성은 특정 섹스에 대한 소속감,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섹스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와 그 섹스에 속하는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1968년에 스톨러는 "섹스는 생물학적 함의를 갖는 용어임에 반해 젠더는 심리학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를 갖는 용어다. 섹스에 대해 적합한 말이 남자와 여자라면, 젠더에 대해 적합한 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젠더 정체성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기의 섹스에 자신이 소속된다는 지식과 의식에서 비롯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젠더 정체성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자신을 남자로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여자다운 남자, 그리고 자신을 여자라고 상상하고 인지하는 것 등을 젠더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섹스에서 독립될 수 있었습니다.

1955년에 스톨러의 동료인 성 의학자 존 머니(John Money)는 성 역할(gender role)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을 말합니다. 즉, 사회 속에서 개인이 드러내는

행위에 대한 언급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성역할이라는 말로 많은 여성학자들이 여성성과 남성성,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의 성역할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공사 분리¹⁾에 의거해 여성의 종속을 논하는 로잘도 M. Z. Rosaldo나 오토너 H. Orner 등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성역할이 최초에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해 발전되지만, 사회적 실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으로 환원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성³⁾인 젠더에 초점을 두고 생물학적 조건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몸(섹스)과 젠더의 간격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1970년대 여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들의 상상력을 발동시킨 것은 바로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 스톨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마거릿 미드 저, 조혜정 옮김 『세 부류사회에서의 성과 기질』(1988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은실 『공사 분리에 대한 여성주의 인문학의 문제 제기』 『여성학 논집』(1998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페미니스트 진영으로 들어온 섹스와 젠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섹스와 젠더의 구별은 섹스에 대한 스톨러의 이해에 기반합니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봅시다. 섹스와 젠더가 여성의 현실을 설명하는 맥락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경험을 정치적·사회적으로 이론화시키는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례 기술적인 방식으로 설명되던 남녀의 차이 및 여성의 경험들이 젠더를 통해 일반화되고 추상화되는 형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운명이라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논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섹스/젠더 체계로 만들어 페미니스트 논의의 틀로 바꿔놓은 대표적인 1970년대 페미니스트로 게일 루빈(Gayle Rubin)을 들 수 있습니다. 루빈은 『여성 교환(The Traffic in Women)』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스톨러의 범주를 페미니스트적으로 전유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성들의 억압이 광범하게 유지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생활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영역을 섹스/젠더 체계로 이론화했습니다. 섹스/젠더 체계는 일종의 관계 배열의 세트인데, 이 관계 배열 체계에 의해 생물학적 섹스

얼리티는 인간 활동의 산물로 변형됩니다. 즉, 여성을 교환하는 남성의 사회 체계가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적 결합을 사회관계가 구성되는 모델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변형된 이성애적 성적 욕구가 규범으로 구성되고 또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루빈은 가부장제라는 말 대신에 여성을 억압하는 장치로 섹스/젠더 체계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개념화·이론화하고자 합니다. 루빈의 관심은 젠더입니다. 섹스에 속하는 신체적 성차와 성적 충동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그것은 젠더를 생산하는 원재료라는 입장입니다. 젠더는 사회적 생산과정의 억압적 결과로서, 그것의 궁극적 의미는 억압적인 사회규범을 구축하는 제도로서 작동합니다.

물론 젠더라는 말이 이때 처음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젠더가 사회적 차원에서 성차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젠더는 여성과 남성, 인도의 히즈라나 북미 인디언 사회의 버다치 같은 제3의 성을 설명하는 복수의 형태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젠더에는 분류의 개념만이 있을 뿐 위계나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젠더를 전유하면서 젠더는 분리의 개념을 비롯해, 차별과 위계의 개념을 포함하게 됩니다. 섹스가 생물학적, 자연적, 중립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과는 달리 젠더는 정치적 개념이 되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성차를 역사적인 개념

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이런 작업은 여성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대 여성 연구는 어떻게 해서 섹스가 젠더로 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가장 중요한 논쟁이었던 여성 종속의 논의를 보겠습니다. 왜 여성들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종속되어 있는가? 종속의 기원, 억압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종속을 탈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와 해방, 자율, 사회적 지위 향상,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까? 등등은 어떻게 해서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사회적·정치적 차등, 차별을 가져왔는가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생물학적 차이를 섹스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차별을 지닌 차이를 젠더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섹스가 젠더로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여성학이 생물학적·자연적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차별을 문제 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정치적 존재로서 여성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섹스가 바뀔 수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젠더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섹스와 젠더를 분리함으로써 섹스라는 개념이 자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일

니다. 젠더라는 말이 등장한 뒤 한동안 젠더가 섹스와 독립된 것처럼 간주되었는데, 여기서 먼저야 할 질문은 "젠더는 섹스와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성이나 여성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일종의 자연이나 환경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섹스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자연 그리고 여성과 환경은 기본적으로 친화성을 갖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성과 본질적인 여성과의 관계, 그 거리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젠더가 문제라면, 사회적·역사적 억압 규범이 사라질 경우, 그것은 본질적이고 비정치적인 섹스에 닿는가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젠더 규범에서 무엇을 제거했을 때 본질적 섹스가 될 수 있는가? 순수한 성차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그 순수한 상태를 알 수 있을까? 젠더는 섹스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젠더가 섹스의 기원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가? 몸은 생물학적이고 기원인가? 섹스는 곧 몸인가?

:: 섹스, 젠더 그리고 이성애

모니크 위티그 Monique Wittig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문에서 여성 억압의 기초가 생물학적이며 역사적이라고 간주하는 여성주의 이론들은 사회의 기초 혹은 사회의 시초에 남녀가 있고, 남녀는 이성애로 관계 지어져 있다는 전제가 성별 범주의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섹스/젠더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성애의 성별 범주에 갇혀 있는 인식 체계라고 말합니다. 여성이라는 범주는 여성에 대해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젠더 체계가 여성이라고 명명되는 범주에 부착되는 것으로, 특정 사회관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개별적 개인들 각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범주이고 이성애적 관계의 산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위티그는 젠더란 성차화^{sexed}된 몸을 의미하며 그것은 이성애를 불가피하게 하는 기반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애 구조 밖에 존재하는 레즈비언은 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성애에 기반한 성별 범주 밖에 있는 레즈비언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데올로기적으로 남성과의 특정한 사회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티그는 남성과 이성애 관계 속에 있는 여성을 당

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구조에서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여성/개인들의 해방적 기획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페미니즘 내에서 후기구조주의 시각의 등장은 "섹스와 젠더의 차이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젠더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섹스란 무엇인가? 그것이 본질임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섹스와 젠더의 구분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후기구조주의 입장은 섹스나 젠더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섹스나 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양식화가 되는가를 질문하면서, "언어로 재현되는 것이 젠더라면 섹스는 그리고 몸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그리고 본질로서의 섹스나 몸은 무엇에 준거해 재현되는가?" 등을 질문합니다.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는 섹스나 젠더 모두 담론의 산물로서 섹스가 본질인 것은 바로 담론과 지식 권력의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섹스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이고 구별이고, 젠더는 여기에 위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와 구별은 생물학적 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위계는 역사나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나 문화가 만든 위계만 없다면 단순한 차이와 구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섹스/젠더 체

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차이와 구별, 위계라는 말이 젠더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흔히 위계라는 것은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차이와 구별은 노동의 성별 분업에서 온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성별 분업에 대한 가치 체계를 바꾸면 차이에 기반한 평등한 남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를 포함해 가치 중심의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구조가 먼저인가, 가치가 먼저인가라는 논의에서 전통적인 사회과학자들은 구조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구조가 먼저 생기고 거기에 어떤 기능이나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론자들은 구조와 가치가 함께 움직인다고 말하겠지요. 반면에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가치나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을 구성한다는 방식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차이와 구별이 먼저 있고 나서 위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위계가 먼저 있고 남녀의 차이, 구별 범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남녀 차별 혹은 남녀 불평등이라고 할 때 '남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위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녀가 있고 구조가 만들어져 그것의 역사적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위계적인 범주이고, 그 위계가 바로 남녀를 중심으로 한 제도들을 구축했다는 의

미입니다.

남녀라는 범주는 항상 차이를 기반으로 하고, 이 차이는 서로의 보완을 통해서 온전함, 하나(일치), 통일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집니다. 남녀라는 것이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항상 결합을 필요로 하는 강제적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섹스/젠더 체계가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불가피하게 하는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섹스/젠더 체계가 이성애에 기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애(heterosexuality)'라는 개념 없이 이런 식의 분류 체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섹스/젠더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성애의 불가피성, 재생산과 쾌락의 분리 문제 등이 등장하면서 섹스/젠더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섹스의 차이에 기반해 여성성/남성성이 있는 것이라면, 평등한 여성성/남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물론자 페미니스트들은 "평등한 남성성/여성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미 불평등한 위계 속에서 여성성/남성성이 나눠지는데, 평등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말로 불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틀러는 "젠더는 수행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젠더는 생물학적 섹스의 발현이 아니라 이미 실천되고 있는 여성성, 남성성의 행위를 준거하며 그 행위들을 인용해 실천하고 반복, 수행하는 행위를 통해 구성

된다는 것입니다.

:: 젠더 · 섹슈얼리티

섹스가 이미 젠더이고, 젠더의 토대는 바로 '이성애주의', '이성애 매트릭스'입니다. 성차화된 젠더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상애화된 젠더로서 존재한다고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 gender trouble』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의 논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섹스/젠더, 젠더/섹슈얼리티라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젠더/섹슈얼리티 논의는 루빈이 『성에 대해 생각하기(Thinking Sex)』라는 논문에서 페미니즘의 틀 내에서 성애가 어떻게 위계화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페미니즘 내의 백인, 중산층, 이성애, 결혼 중심의 성애가 다른 형태의 성애들을 억압하고, 비가시화하고 통제하는 측면을 기술했습니다. 페미니즘 내의 섹슈얼리티는 젠더 틀 안에서의 소위 '정상적인 성애'를 기본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논문입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성의 역사』는 페미니즘 내의 젠더/섹슈얼리티 논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푸코의 섹슈얼리티 논의는 페미니즘 논의에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1994년 게일 루빈과 주디스 버틀러의 인터뷰¹⁾에서 루빈은 푸코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시각을 확장시키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합니다. 이전까지 페미니즘 논의에서 섹슈얼리티는 성별화된 존재로서 여성이 갖는 섹슈얼리티였습니다. 성별화(gendered)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억압받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역시 불평등하고 억압받는 관계 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페미니즘 내의 섹슈얼리티는 피해자화된 섹슈얼리티를 의미했습니다. 성폭력, 낙태, 재생산권……,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니다. 여성들도 성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은 질이 아니라 클리토리스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으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1971년, 1972년에 많이 나옵니다.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도 여성 쾌락과 섹슈얼리티라는 차원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²⁾ 그렇지만 푸코의 섹슈얼리티 논의는 이전의 섹슈얼리티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젠더가 그런 것처럼 섹슈얼리티 역시 역사적으로 고안된

용어입니다. 19세기 서구에서 등장한 말로, 처음에 이 말을 만들어내고 사용한 사람들은 성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어떤 개별 개체들이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애, 동성애 하는 식입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도 개별 개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섹슈얼리티를 탐구했습니다. 라캉(Jacques Lacan)도 마찬가지인데, "성적 욕망과 성적 만족이 불일치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의 이슈는 섹스와 섹슈얼리티의 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은 "섹스는 두 다리 사이에, 섹슈얼리티는 두 귀 사이에, 즉 대뇌에 존재한다"는 미국 성정보 및 교육평의회 설립자들의 섹슈얼리티 정의와도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생리 현상이 아니고 심리적·사회적·문화적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푸코의 등장으로 아주 다른 인식론이 가능해졌습니다. 푸코는 섹슈얼리티가 몸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담론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론이 생산한 효과로서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 자아를 관리하는 권력으로 드러난다는

• 이 인터뷰 내용은 Elizabeth Weed · Naomi Schar, 'Feminism meets queer theory' (1997년, 68~108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은, 조주현, 김은실이 쓴 『성해방과 성정치』(2002년)의 23~90면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담론을 통해서 다른 사회제도라든지 관계들을 통제하면서 개인들을 성적인 주체로 구성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코식으로 말한다면 젊은 여성이 늙은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섹시하다는 것은 본질적일 수 없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을 보면 섹시하고, 나이 든 사람을 보면 성적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무엇이 성적인 것이고 무엇이 매력적인 것인가라는 담론의 산물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푸코의 아이디어가 페미니즘과 결합하면서 젠더의 고정성, 젠더의 이분적인 고착성을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관계 맺는 방식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푸코의 논의는 또한 여성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설명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여성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채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구획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푸코의 아이디어는 본질주의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논하고, 여성의 쾌락, 피해성 등을 논하는 방식에 교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포르노그래피, 성매매 문제 등에 관한 다른 시각들이 제기되는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여자로 태어난 나는 곧 여성이며, 나는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에 기반하는 여성주의 정치학에 맞서 "너 여자로 태어났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네가 하는 바가 여성적인 것 맞아? 그런 섹슈얼리티가 여성적인 거였어?"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반격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특정 맥락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젠더에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 푸코의 인식론은 여러 곳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성 논의에서 푸코의 출현은 여성의 성의 자유는 남성지배적인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입장과 여성의 성해방이 남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성을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성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의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논의들을 진전시켰거나 혹은 이동시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의 문제 해결을 주로 문제를 만든 남성을 처벌하는 것에 두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여성들을 치유해왔는데,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처벌이지, 그것이 곧 피해자 여성 자신에 대한 치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푸코식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 중심으로만 풀기 시작하면 여성의 몸이 남성의 권력이 행사되는 장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권력이 생산되는 장이 되지 않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이 아니거나, 성이 권력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이 변화되어야겠지요. 여성의 몸이 남성의 권력이 생산되는 장이 되는 한 성폭력은 사실 없어지지 않겠지요. 푸코는 권력이 생산되는 것으로서의 성은 인정하고, 권력은 부정하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내는 것, 다른 주체성을 갖는 것이 성폭력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지요. 최근 자기 방어적 몸 만들기 프로젝트 등은 이런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이라는 표현들은 모두 '가변성, 임의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임의적입니다.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규범 혹은 특정한 권력 작용에 의해서 의미를 획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여자'를 '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당신이 여성인 것이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아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 사회가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살도록 규율화하고 구속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나와 오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자인 나는 서로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계 지어져 있으므로 그 관계를 끊거나 혹은 그 관계가 주는 구속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기보다 문화적 규범 속에서 규범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의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기반 위에서 구축된 거야. 그리고 나의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범주에 속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소위 '이탈자'들 혹은 규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 경계를 힘겹게 느끼고 있겠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같은 활동가나 저와 같은 여성 연구자는 모두 젠더에 기반한 정치학 혹은 젠더에 기반한 지식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젠더가 안정적이고 균질적인 기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주의 정치

* 이화여대 여성학과 허은주의 석사 논문인 「여성 권력가의 몸-해방과 여성 주체성에 대한 연구」(2006년)는 이런 논의의 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을 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젠더라는 기반 자체가 엄청나게 엉성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젠더에 기반하고 있는 운동들, 정책들, 지식정치학은 그와 같은 불안정한 토대를 어떤 방식으로 붙잡을지를 고민해야 하겠지요. 많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같이 출렁인다고보다 젠더 정체성을 정박시키려고 합니다. 정박을 시키려고 하면 밧줄이 튼튼해야 하고, 모두가 밧줄을 매는 데 매진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젠더를 둘러싼 기본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질문되지 않은 채 전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이런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좋지 않다"거나, "옛날에는 여성에게 좋은 것이 사회에도 좋고, 사회에 좋은 것이 여성에게도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성이 좋다고 하면 사회는 안 좋다고 하고, 사회가 좋다고 하면 여성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위해 정책을 폈더니 정작 그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위해 했다고 했더니, 그 여성들이 자기는 '그 여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성을 둘러싼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관계들이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좀더 맥락적이고 구체적인 천착이 필요하고,

여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주체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주와 명명, 그리고 경계지대

루인 with H, 많은 TG들과 CO들

주위를 둘러봐도 나(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 creature)는 나와 같은 이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달아나고 부인하는 이 세상의 오점, 괴물 monster 인가?

- 셸리(Shelley 2003)

이 페이지들엔 위대한 서구의 진화적, 기술적, 생물학적 서사에서 불안정한 자리를 점하는 괴상한 경계창조물들 odd boundary creatures - 유인원들, 사이보그들 그리고 여성들- 이 살고 있다. 이들 경계창조물들은 증거하다 demonstrate와 어근 이상을 공유하는, 말 그대로 괴물 monsters이다. 괴물들은 의미 작용한다 Monsters signify.

- 해러웨이(Haraway 1991a)

괴물들은 언제나 서구 상상력 속에 있는 공동체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해러웨이(Haraway 1991b)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만하게 말한다: 나는 트랜스섹슈얼이다. 고로 나는 괴물 monster이다. (...) 신체를 파악하기 위해 살을 가공품으로 변형하는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방식을 통해서만, 몸은 의미 있게 된다. (...)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 creature 처럼, 나의 괴물성이 내게 마주하길 요구하는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가치를 주장하고 살 가치가 있는 삶을 다시 정의한다.

- 스트라이커(Stryker 1994)

스트라이커(Stryker)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비록 기억하고 싶진 않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죽을 운명인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몸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창조물 creatures이다.

- 쉐먼(Schman 1997)

이방인들은 귀화 절차를 통과했다고 내부자로 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국과 고향에서도 이방인인 그들은 틈새에 놓인 '부적절한' 존재들일 따름이다.

- 임옥희(2003)

경계지대는 전무지대가 아니라 비무장지대이다.

- 헤일(Hale 1998b)

※ 이 글은 'mtf/트랜스여성'과 'fm/트랜스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많은 'mtf/트랜스여성'의 커뮤니티에선 트랜스젠더나 TG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다. 동시에 여성이라고 자신을 얘기하지 트랜스여성이나 mtf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그럼에도 이 글에선 'mtf/트랜스여성'이라는 언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이 나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환

원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말해야 하는 지점이다(이 얘기를 각주로 쓰지 않는데, 각주는 언제나 읽지 않고 지나칠 수 있고 이 내용은 각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 글을 시작하는 부분에 위치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큰 따옴표(“”)를 두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을 경우엔 큰 따옴표 뒤에 (저자, 연도)를 표시했다. 직접인용이 아닌 경우에도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성별이 분별의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들일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여성”/“남성”을 큰 따옴표로 표시하는 건, 사람마다 “여성”/“남성”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이미지로 상상하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호명할 뿐 분명한 어떤 실체가 없음을 환기하려는 의도이다.

루인의 글 「젠더를 둘러싼 경험들 gender dysphoria : 트랜스/젠더 정치학을 모색하며」는 “하리수 이후, 트랜스젠더란 말이 인구에 널리 회자되었지만, 하리수 이후에야 트랜스젠더가 한국사회에 존재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이를테면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성전환자들은 존재했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루인 2006c)란 인용구로 시작하고 있다. 1990년대 동성애가 매체를 타기 시작하고 페미니즘/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성애건 페미니즘이건 모두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더니 생긴 현상이라는 얘길 자주 접한다.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역시 이런 “수입품”이지 한국의 “전통”엔 없다는 인식들. 이런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쓴 인용구이지만 “트랜스젠더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와 같은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역사 찾기는 자칫 트랜스젠더를 초역사적인 존재로, 현재의 사회문화적

인 맥락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현상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과거의 누구를 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로 부를 것이며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는 상당히 논쟁적이고, 역사적인-이미 죽은 인물을 현재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범주로 명명하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여장남자나 남장여자를 트랜스베스타이트나 크로스드레서 혹은 드레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방지를 간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여성 국극엔 남성역을 담당하는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드래킹으로 단정하거나 미국의 드래킹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분류 범주들은 크로스드레서나 트랜스젠더 등은 고정되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함의한다. 하지만 주변에서 만나는 트랜스젠더들은 개개인마다 트랜스젠더를 정의하는 방식/의미가 다르고, 트랜스젠더지만 자신을 명명하는 방식 또한 제각각(트랜스여성/트랜스남성, mtf/ftm MTF/FTM, 여성/남성, 트랜스, 트랜스젠더 등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인물들을 크로스드레서나 mtf/트랜스여성, 게이만 식으로 부르는 것은 당시의 맥락을 무시하고 현재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작업이다.

과거의 흔적을 찾는 작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점은 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성전환자가 근대 이후에야 존재하기 시작한 산물 혹은 미국문화의 유입이 만들어낸 “병폐”도 아니지만-그렇기에 역사적인 흔적을 찾고 말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역사 속의 인물들을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 환원할 수만도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범주의 잣대에 일부 부합하는 어떤 흔적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한 범주로 명명할 수 있을까. 모든 기록은 그것을 기록하는 이의 위치나 기획에 따라 구성되기 마련이고 그런 기록을 해석하는 것 역시 해석자의 위치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남아있는 기록들을 근거로 어떤 특정 정체성 범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

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그렇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이 글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특정 정체성으로 명명한다는 것의 의미, 각각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긴장과 그 의미 등을 읽고자 한다.

1. 정체성 구성과 인터뷰

1) 나의 정체성 구성 과정

지금까지 살면서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기 시작한 건 길어야 3년 가량이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렇게 자각이 늦었으니 그 전엔 주민등록번호상의 젠더와 별 갈등 없이 지냈느냐는 질문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인식하지도 않았거니와 주민등록번호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했다(관련해 이 책에 실린 루인의 다른 글 참고). 어떤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기 전까지의 삶은 상당히 ‘무난’했고, 그래서 기원서사와 고통을 통해 과거를 재현하는 일부 다른 트랜스젠더들과는 어느 정도 경험 해석에 있어 거리가 있는 편이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 기원서사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경험을 오직 트랜스젠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구성하기도 힘들다. 성폭력 피해 경험 후 자살을 시도한 역사를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여성으로 인식했으며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규범적인 반응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중학시절 “누나”(“언니”가 아닌)나 엄마의 치마를 입기 시작한 것 역시 (트랜스)여성으로서의 기원이나 증거로 구성할 수도 있

다. 주변 사람들, 어른들은 나의 “여성스러운” 행동에 “사내자식이 계집애처럼 뛰는 것이냐.”고 화냈지만 그것을 욕으로 듣지 않았던 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시절 난,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은 만큼이나 여성으로 정체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 경험을 “천생 여자”로서의 역사로 해석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의 경우, 남성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았던 만큼이나 여성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은 한편으론 “나는 원래부터 (mtf)트랜스젠더였어.”라고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서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이를테면, 치마 입기).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와 ‘죽고 싶을 만큼’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서사에 견주어 ‘남성이라는 몸’과 그렇게까지 갈등한 것은 아니란 점(갈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에서 언론 등을 통해 얘기하는 “트랜스젠더 서사”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는다.

갈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시기는 학부 여성학 수업을 들으며 젠더라는 언어를 배우고 나서부터이다. 그 수업에서 정의한 방식으로서의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명확한 구분과 젠더라는 양성체계에 기반을 둔 설명 방식은 이제까지 ‘편안’했던 경험들을 갈등과 규정할 수 없는 모순, 골칫거리로 만들었다. 그 수업은 “이성애”-양성체계를 전제로 설명했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로 할당된 1번과 2번에 고착되어있으며 젠더역할은 이렇게 구분한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고착해 있다는 전제에 근거해서 설명했지만 이런 전제 자체를 얘기하진 않았다(그렇다고 버틀러나 수행성, 동성애나 하리수를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건 언제나 별도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젠더 설명과 만나면서 삶은 모호함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방식의 젠더로는 나의 생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치마를 입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첫사랑은 “여성”이었고 잠깐이지만 “남성”을 좋아한 적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자연’스러웠고 갈등을 할 거란 상상도 못

했는데 젠더라는 설명·분류체계와 만나면서 돌연 부정하거나 망각해야 할 경험들(치마 입기)과 억지로 끄집어 내야하는 경험들(“이성애자”로서의 증거)로 바뀌었다.

과거, 하리수의 등장 때만 해도 매혹을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여기진 않았다면, 젠더란 ‘범주’와 만나고 갈등을 느끼는 과정에서 다시 만난 트랜스젠더는 내게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론 내가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고 고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것에 붙어 다니는 금기가 주는 두려움과 나를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그 과정이 주는 긴장이 상당했다. 트랜스젠더는 “하리수”같거나 아주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하려면 관련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구성할 이유는 없었다.³⁾ 이 지점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기 힘들었는데, 아니라고 하기엔 트랜스젠더인 것 같고, 이라고 하기엔 ‘가짜’ 같고 뭔가 ‘부족’하다는 압박이 있었다.

2) 인터뷰⁴⁾ 전후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언론에서 게이, 크로스드레서, mtf/트랜스여성을 같은 존재로 얘기했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인’되는 상황 때문에 이들 사이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mtf/트랜스여성의 경우 자신은 게이나 크로스드레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예전에 놀러 간 한 크로스드레서 카페의 주인(mtf/트랜스여성)은 루인과 동행에게 “크로스드레서 애들을 폄하하지 말아라.”는 얘길 했었다. 이 말은 참 인상적이었고 오랫동안 고민거리였는데, 왜 mtf/트랜스여성은 크로스드레서를 폄하하는지, mtf/트랜스여성과 크로스드레서는 그냥 잘 지내면 안 되는지와 같은 고민을 하곤 했다.

술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며 자신은 트랜스섹슈얼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라고 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적인 성이 “여성”인 사람을 의미하고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미국 주류 트랜스젠더 연구에서는 크로스드레서를 트랜스젠더의 하위 범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반면, H는 크로스드레서와 트랜스젠더를 겹치지만 다른 범주로 해석하고 있었다. mtf/트랜스여성이지만 호르몬 투여나 수술을 할 수 없어 주말에만 크로스드레싱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이반이나 크로스드레서였다가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서, 크로스드레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반이나 트랜스젠더를 포괄하거나 상당히 겹치는 의미라고 얘기했다. H의 이런 해석에, 명확한 구분을 기대했던 바램은 아쉬움, 뭔가 미적지근함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선 이 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인터뷰 전에 개략적으로나마 잡은 내용으론 인터뷰를 하고 난 뒤의 고민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터뷰를 안 한 척하고 그냥 글을 써야 하나 갈등했지만,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갈등으로, 인터뷰를 통해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고민해야 했고,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가 함께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리고 인터뷰 직후의 고민은 “있다/없다”의 이분법 순환 구조에 빠져 있었고, 이럴 때 H와의 인터뷰 내용, 게시판에 남아 있는 mtf/트랜스여성이나 크로스드레서들의 글들은 어디에도 위치할 수 없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질문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왜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 하며, 이런 구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로 질문을 바꿔야 했다. 이럴 때 H가 말해 준 “크로스드레서는 굉장히 포괄적이다”란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재구성할 때야 나의 경험을 설명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게이들 역시 트랜스젠더를 싫어하거나 자신들과 mtf트랜스젠더를 혼동할까봐 극구 부인하며 명확하게 구분하려 하지만, 모든 게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끼순이(게이 중 “여성스럽게” 행동하는 이들)나 보갈의 존재는 게이와 트랜스젠더, 게이와 크로스드레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적지 않은 mtf/트랜스여성들이 게이로 살고 있고, 게이로 정체화한 역사가 있고 게이 중에서도 자신은 mtf/트랜스여성이 아냐고 고민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그렇기에 긴장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긴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고민도 했다. 하지만 크로스드레서 카페 운영자이며 과거 자신을 크로스드레서로 (사후)해석하고 있는 mtf트랜스젠더인 H와의 인터뷰 자리에서는 정작 긴장과 ‘명확’한 구분에 대해 듣고 싶었다. (이 글의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트랜스젠더 연구, 특히 백인 중산층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등장한 논의에서, 트랜스섹슈얼은 성기재구성수술을 중심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들, 크로스드레서는 대체로 “이성애자”이지만 “이성”의 복장을 입곤 하는 사람들, 트랜스젠더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서 수술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젠더이분법과 젠더규범이 요구하는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론가에 따라선 “동성애”나 “양성애”도 트랜스젠더의 범주로 얘기하기도 한다. 반면 H는, 인터뷰 시작부터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이반(이 인터뷰의 맥락에서 게이만을 의미)을 구분할 수 있긴 해도 명확하게 딱 잘라 구분하긴 힘들다고 얘기했다. H의 경우 이반은 남성을 사랑하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함에도 수술을 할 수 없는 이들의 경우, 이반으로 살기도 한다고 얘기했다. 크로스드레서와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을 해석하는 방식은 꽤나 흥미로웠는데, 젠더를 정신적인 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H는 트랜스섹슈얼을 정신적인 성과는 상관없이 수

그렇기에 이 글은 인터뷰 내용을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인터뷰 내용뿐 아니라 카페나 공동체 내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들도(당연히) 따로 인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 글이 혼자만의 작업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나눈 사람들(특히 H)과의 공동 저작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글 곳곳에서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이런 나의 경험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H와의 대화,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 경험이란 점에서 ‘나의 경험’ 역시 공동저작이다(Scott 1992). 이 글의 제 1 저자의 위치에 나를 두는 건, 같이 얘기를 나눈 ‘공동’ 작업이지만 결국 그 내용들을 해석한 사람이 나라는 점, 그래서 이 글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나만의 깨달음/지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2. 젠더경합 Gender Dysphoria

1. 하리수 그리고 (mtf)트랜스젠더

2001년 초, 하리수란 여성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트랜스젠더는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트랜스젠더라고 말하지 않고도 연예인이 될 수 있었을 테고,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한국 최초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 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리수는 커밍아웃을 하며 방송에 등장한 ‘최초’의 트랜스젠더(연예인)이다. 그리하여 그 전까지 “게이” 혹은 “게이 여성”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여성스러운 남자” 혹은 “여장하는 남자” 중 일부는 하리수의 등장을 통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다시 명명할 수 있었고, 그전까지 자신을 세상에 고립된 존재로 믿고 있던 트랜스젠더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과 만날 수 있었다.

트랜스젠더들에게 “하리수”는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온다. “나는 트랜스젠더이다.”란 자기 선언을 통한 “하리수”의 등장은 그간 자신을 설명하고 모색하려 했던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명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1990년대에도 관련 방송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게이로 알려졌고²⁾ 그래서 “나는 게이인가 보다”라며 자신을 게이로 정체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게이가 아니라고 여긴 이들도 많았다. 이들에게 인터넷의 보급은 자신과 비슷한 집단과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역할을 했지만,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아니란 점에서 접근도나 파급력에 한계가 있었다면, 하리수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실제 꽤 많은 이들이 하리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하리수”의 등장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야기한 건 아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를 곧 mtf/트랜스여성으로 얘기하며 “ftm/트랜스남성도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mtf/트랜스여성만을 의미하는 얘기를 할 때에도 트랜스젠더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1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성차별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지점이며, ftm/트랜스남성의 존재는 없거나 극히 드문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낳는 동시에 강화하는 지점이기도 하다.³⁾ 그렇다고 하리수의 등장을 통해 mtf/트랜스여성만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고 ftm/트랜스남성은 그렇지 않았나면, mtf/트랜스여성뿐 아니라 ftm/트랜스남성들, 트랜스젠더들도 하리수를 통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하리수”가 트랜스젠더라고 명명하며 등장하면서, 하리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언론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외부성기재구성수술까지 ‘모두’ 한 사람”이란 공식을 만들었고, 그래서 현재 언론과 언론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모두’ 끝마친 사람”

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은 필수가 되고 수술을 바라지 않는 트랜스젠더는 “가짜 트랜스젠더”가 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mtf/트랜스여성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면서도 훨씬 위험하고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ftm/트랜스남성들에게까지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2006.09.06. 대법원 지침 참고, 지침과 관련해서 이 책의 한상희 글 참고).

“하리수”의 존재가 ‘트랜스젠더는 모두 예쁜 여성’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고, 그래서 ‘못생기거나’ ‘여성처럼’ 생기지 않은 mtf/트랜스여성은 “진성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외부성기뿐 아니라 얼굴과 몸의 ‘성전환’ 수술⁴⁾을 기본적인 행위로 여기며, 트랜스젠더=mtf/트랜스여성이기 위한 조건과 규범으로 외형의 수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효과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이의 “회피 수단”으로 간주하며, 수술이나 호르몬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mtf/트랜스여성을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럴 때, 트랜스라고 얘기했음에도 너무도 자주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간주되는 나는, “트랜스젠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달라 당혹스럽다”는 얘길 듣거나, “신체가 멀쩡하면서도 징병을 회피하려는 ‘기생충’...의로 기록을 조작해서 ‘나는 몸은 남자지만 정신은 여자’라고 주장해서 징병을 회피하려는 정신 나간 놈”(웹사이트에 달린 댓글 인용) 정도로 간주된다. 동시에 (앞서도 언급했듯) 트랜스젠더는 어릴 때부터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가진다’는 식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는 나는, “가짜 트랜스”거나 뭐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하리수를 통한 트랜스젠더의 규범은 “여성성”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좀더 두드러진다.

2) “여성성”을 둘러싼 경험들

하리수가 등장한 초기, 하리수는 “여자보다 예쁜 여자”란 말뿐 아니라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여자”란 얘길 들었다. 하리수는 자신이 여성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고 그래서 “여성성”을 “과잉” 재현하곤 했다. 데뷔한 지 7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하리수는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진짜 여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 ‘승인 받은’ 하리수의 여성성/여성임(femaleness, womanhood)은, 사실 하리수가 “진짜 여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임을 환기하는 것이며 “어쨌든 넌 남성이야”란 함의를 드러내는 것이다(“여자보다 예쁜 여자”,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여자”란 수식 자체가 “여자”가 아니란 의미이다). 최근 들어 더욱더 자주, 하리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결혼과 관련한 소식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 역시, “이성에 여성”의 “증거”를 통해 “진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하리수에게 “하리수(=트랜스젠더)는 이성애와 젠더를 강화한다”는 식의 말을 하는 건 트랜스젠더라고는 맥락을 무시한 비난이지만 하리수를 통해 얘기하는 여성성이, mtf/트랜스여성들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성들에게도 억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리수를 비난하며 “트랜스섹슈얼이 근세기의 여성이 잃어가고 있는 여성성을 거의 완벽하게 잘 복원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여성성에 대한 일종의 명령어로 기능한다. 오죽하면 남자가 다 나섰겠냐 하는 탄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이다.”(이경 2001)라고 말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이런 식의 독법은 트랜스혐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여성성/여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는 건 mtf/트랜스여성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2번으로 할당 받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현대 사회에서 다이어트, 성형수술, 화장 등은 여성임을 증명하는/여성이 “되는” 과정의

하나다. 모든 “여성”이 이러한 과정에 불편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모든 “여성”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억압인데, 바로 이 과정이 “여성”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무엇인가는 언제나 모호하기에(관련해서 루인 2006C 참조) ‘나’가 상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성성 및 남성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물론 이 ‘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위치하는 ‘나’이다). mtf/트랜스여성에게 “진짜 여성”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기존 역시, 이처럼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인 젠더 규범이란 맥락에 위치한다. 하리수가 끊임없이 “과잉 여성성”을 재현하는 것 역시 이런 문화적인 맥락에 따른 것이며, 이런 재현을 통해서만 자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하리수의 “과잉 여성성”은 “과잉”이 아니라 현재의 젠더규범이 요구하는 “여성성”, 그것이다. 그렇기에 하리수 개인에게 젠더규범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건 가혹한 일이며, 비판대상은 하리수가 아니라, “하리수”를 통해 규범적인 “여성성”을 유포, 강화하려는 그 구조이다.

3) 젠더를 둘러싼 경험

홀리 데이비(Holly Devor)는, 인종과 지역 등에 따라 맥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하지 않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의 논문 「여자 젠더 경험(Female Gender Dysphoria)」에서 사회 문화적인 젠더 규범과 여성이 관계 맺는 방식을 분석한다. 젠더 경험(gender dysphoria)을 젠더 규범과 갈등하거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버는, 이러한 젠더 경험은 ftm/트랜스남성뿐 아니라 상당수의 여성들 역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Devor 1997). 하지만 나의 경우는, 젠더 규범과의 긴장관계뿐 아니라 젠더 규범과 갈등하긴 편하게 받아들여진, 부정하긴 긍정하긴 상관없이 젠더 규범(여기선 여성성)과 관계 맺는 방식,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젠더경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 게이, 크로스드레서, mtf/트랜스여성 등 각자의 여성성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지배적인 젠더규범에 의해 의미가 발생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고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맥락에 따라 젠더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도 읽을 수 있다.

게이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자주 접하는, 여성성이나 끼 따는 것에 대한 혐오와 이에 대한 반박들, 크로스드레서들의 여성임(femaleness)과 남성임(malehood)(어떤 크로스드레서는 입(“여장”의 은어)했을 때 언니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크로스드레서는 업했을 때에도 형으로 부를 것을 요구한다), mtf/트랜스여성의 여성성은 별개의 동떨어진 문화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며, 사회가 요구하는 중산층 규범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부정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여성”들이 트랜스여성은 자궁이 없고 임신할 수 없으니 가짜라고 비난하며 자신들만이 “진정한/진짜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게이들이 자신은 남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고 트랜스젠더는 여성으로서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구분하는 것, 동시에 mtf/트랜스여성들 역시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 트랜스젠더 혹은 여성이며 여성으로서 남성을 좋아하는 것이지 동성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mtf/트랜스여성들이 크로스드레서들을 “재네들은 단지 취미일 뿐이야.”라고 말하는 것, 크로스드레서들이 mtf/트랜스여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반응들은 서로를 향한 적의나 불안 혹은 부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거나,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자꾸 ‘오인’되어 문제라는 인상을 준다.

물론 이런 비난엔 여러 맥락들이 걸쳐 있다. 동성애 혐오와 금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그리고 “진짜 여성”은 “이성애자 여성”임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mtf/트랜스여성에게 “동성애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와 같은 얘기는 ‘이중부정’-“이성에 여성”인데 “동성애 남성”으로 간주하는 것-인 셈이다. 또한 게이에게, 수술을 혐오하는 사회적인 맥락과, “여성”만이 “남성”을 좋아할 수 있다는 “이성애” 규범 속에서 mtf/트랜스여성을 게이와 같이 묶는 것 역시 ‘이중부정’-“동성애 남성”인데 “이성에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인 셈이다.

크로스드레서와 mtf/트랜스여성 사이의 긴장 관계는 게이와는 조금 다른 결에서 발생한다. 호르몬 투여 등을 시작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신체 의 형태가 변하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남자냐 여자냐”라는 질문을 듣는다. 이후 얼굴이나 체형, 성기재구성 등의 수술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통한다고 해도, 호적상의 성별이 그대로일 때 취직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에 반해 크로스드레서(혹은 게이)는 이런 생활에서 불편이 덜하다는 인식하에, 트랜스젠더들이 크로스드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mtf/트랜스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은 여자인데 크로스드레서들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여장한 것뿐이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하며 무시하기도 한다. mtf/트랜스여성들이 크로스드레서를 무시하는 바로 이런 이유가 크로스드레서들이 mtf/트랜스여성을 불쌍히 여기는 지점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비난 혹은 부정의 과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이나 mtf/트랜스여성, 크로스드레서를 같은 존재로 간주하고 ftm과 부치도 같은 존재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나는 ○○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다.”와 같은 언어 형식을 통해 한국사회가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것과 자신은 상관 없음을 주장한다. “나는 ○○이 아니다.”와 같은 언어 형식은 “정상성”을 획득하는 언어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상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승인’ 받는다. 또한 이러한 “정상성” 획득은 부정과 부인을 통해서일 뿐만 아니라 “넌 장애인이야.”, “넌 인종차별 주의자야.”, “넌 동성애자야.”와 같이 타인을 “비정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복장 도박”에 대한 혐오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건, 앞서 “크로스드레서 애들을 폄하하지 말아라.”는 말에 “그냥 잘 지내면 안 되냐”라고 느낀 것처럼, 서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환상에 근거하며, 이런 환상을 재생산한다. 이를 통해, 게이, 크로스드레서, mtf/트랜스여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의와 경계가 있다는 착각을 만들며, 각자 이러한 명확한 규범에 따라 자신을 잘 정체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만든다.

하지만 H의 지적처럼, 크로스드레서 중 꽤 많은 수가 mtf/트랜스여성임에도 크로스드레서로 지낸다. 이는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가족 관계에서 mtf/트랜스여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수술이나 호르몬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여성의 옷”을 사기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상황, 크로스드레서로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의 mtf/트랜스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인되는 건 아니라는 인식 등을 통해 협상한 효과다. 게이로, 이반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며 게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mtf/트랜스여성들도 많은데, 이것은 여자로서 남자가 좋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서나 호르몬과 수술을 할 의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성애자”(게이커뮤니티에선 “동성애”로 통하겠지만)로서 “남자”와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mtf/트랜스여성은 과거에 게이단체에서 게이 활동가로서 활동했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크로스드레서로 살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mtf/트랜스여성이라며 자신을 얘기한다. 크로스드레서 바에서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떤 이는, “여자를 좋아하면 상관없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까지 고민할 정도라면 성전환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mtf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크로스드레서인지(mtf)트랜스젠더인지 여전히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이가 있다. 이런 헷갈림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해서 특정 범주로 자신을 지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주설정과 명명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감정이다.

“여성”, 게이, 크로스드레서 그리고 mtf/트랜스여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명확한 범주를 통해 설명하다 보면 어느 하나로 환원할 수 없거나 양쪽 모두라고 얘기하는 이들, 생애사를 통해 과거엔 게이였지만 지금은(트랜스)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들, 범주들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설명하거나 그 행위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의 존재를, 양자택일을 통해 부재로 만든다. 또한 이것은 어떤 존재들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게이”, “크로스드레서”, “(mtf)트랜스젠더” 각각을 단일하고 보편적인 범주로 만든다. 이런 식의 범주를 통해 구분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삭제하는 것만큼이나 동일한 범주로 만드는 것 역시 위험한데, 범주를 명확히 할 때 “여성”이 “여성”이기 위해선 레즈비언이면 안 되거나 “남성 같은” 행동을 조금도 할 수 없게 된다. 가령 모든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라고 가정하며 레즈비언 트랜스여성이란 존재 자체를 상상하지 않으려 하며, 과거엔 게이 남성이었다가 지금은 레즈비언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가능성조차 없는 부재로 만든다. “이성에 남성”이었거나 결혼한 경력에 있는 mtf/트랜스여성은 가짜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리하여 mtf/트랜스여성으로 자신을 명명하기 위해선 “이성에 여성”(이나 “게이”-즉, “남성”을 사랑한다는 증거)으로서의 역사를 구성할 수 없는 생의 일부는 삭제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거나, 삭제하진 않는다고 해도 말해선 안 되는 금기로서 숨겨야 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앞서 적었듯) “여성”을 좋아한 나의 경험은 모든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란 가정에 의해 숨기고 발화해선

안 되는 경험이 된다. 대신 내가 “진성 트랜스젠더”란 걸 증명하기 위해, 아주 잠깐 그것도 단 한 번 “남성”을 좋아한 경험을 확대해서 내가 “이성에 여성”인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사를 구성한다면, 누가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되는지 묻기 힘들고 모든 것을 본질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믿음들은 사회적 규범들을 질문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승인·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정체성의 범주영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에 이런 범주 설정과 명명은 이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음에도 ‘소수자들끼리 단합해야지 왜 싸우느냐’로 얘기할 내용이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호에 각인되어 있거나 반복수행을 통해 본질적인 욕망으로 체화하길 요구하는 문화적 규범을 드러내는 지표란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경계 짓는 언어들과 경계지대

지식이 늘어날수록, 내가 비루한 추방자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 셸리(Shelley 2003)

누가 누구에게, 어떤 용어로, 무슨 이유로, 저항의 어떤 행태에 반하며,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이해시켜야 하는가?

— 스킴만(Scheman 1997)

1) 용어와 경계 짓기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상당히 논쟁적이고 복잡한데 이는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자와 같은 용

의료 식민화를 거부하려는 의도로써, 크로스드레서를 사용하는 편이다(다른 용어들이 그러하듯, 현재에 와선 트랜스베스타이트를 반드시 의료식민화의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종종 의미를 재전유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번역어를 제시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크로스드레서는 드랙과 어느 정도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미국의 경우) 크로스드레서 대부분이 “이성에 남성”으로서 종종 결혼을 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 여성복장을 하는 이를 일컫는다면 드랙퀸은 대부분이 게이로서 무대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성을 상연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드랙킹은 무대에서 남장을 하고 남성성을 상연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편이다(물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선 개략적으로만 얘기하고자 한다).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성과 육체적인 성이 불일치하는 사람”이란 식으로 정의한다면⁹⁾, 트랜스섹슈얼은 “정신적인 성에 육체적인 성을 일치시키려는 사람, 호르몬 투여나 수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mtf/트랜스여성과 ftm/트랜스남성 사이에 수술의 의미가 다르단 점에서 반드시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는 건 아니며 호르몬 투여와 가슴수술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트랜스섹슈얼이란 용어 자체는 트랜스베스타이트처럼 의학에서 정신병 진단 용어(성전환증 [transsexualism])로 사용하면서 등장했던 점에서, 의료계에 식민화된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의료 식민화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트랜스젠더를 사용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1960년대, 버지니아 찰스 프린스(Virginia Charles Prince)가 처음으로 만든 용어이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고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은/않는 사람을 일컬으며, 버지니아는 자신을 트랜스젠더리스 트랜스젠더로 불렀다. 이런 트랜스젠더란 용어가 운동의 성격으로 바뀐 건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트랜스섹슈얼리즘이라 부르며 의료담론을 통해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젠더를 둘로만 고정하

어들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자의 의미와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특히 백인 중산층 중심의 학계에서 생산한 이론을 중심으로 읽은 내게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은 어느 정도 모호하긴 해도 구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범주이다.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섹슈얼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편이고, 이런 범주 논의에서 드랙퀸, 드랙킹, 크로스드레서, 트랜스베스타이트,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는 같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크로스드레서는 트랜스베스타이트(transvestite)와 함께 얘기해야 하는데, 용어의 역사에서 둘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둘을 번역하자면, 트랜스베스타이트는 복장도착자로, 크로스드레서는 이성복장착용자로 표현할 수 있다. 비록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가 1910년 트랜스베스타이트를 자기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병리 현상으로 환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이 히르쉬펠트를 비롯한 동료 몇 명이었기에, 히르쉬펠트 이후 의료담론에서 트랜스베스타이트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트랜스베스타이트를 복장도착자로 번역한다는 건 트랜스베스타이트가 정신병리의 범주로 여겨지는 측면을 드러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크로스드레서는 이성복장착용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번역의 차이는 이 두 용어 사이의 역사적인 맥락과 의미가 가지는 차이를 분명히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비록 트랜스베스타이트이란 용어 자체가 크로스드레싱의 라틴어 표현(trans=across, vestitus=dressed)이긴 해도, 의학계에선 트랜스베스타이트를 정신병리로, 여성복장에 대한 폐티시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트랜스베스타이트를 용어로 정의하면서 “이성에 남성”만을 포함하고 “여성”이나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고

는 측면을 비판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트랜스젠더는, 그래서 젠더 규범과 갈등하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젠더 자체가 이미 “이성애”를 정상화하는 규범이라고 해석하는 이론가의 경우 트랜스섹슈얼, 크로스드레서, 드랙퀸, 드랙킹,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를 모두 트랜스젠더 범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트랜스젠더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트랜스섹슈얼과 크로스드레서 정도만을 트랜스젠더 범주로 설명하는 이론가도 있다.

트랜스섹슈얼과 트랜스젠더란 범주가 구분할 순 있지만 모호하다고 하는 이유는 상술한 용어의 역사뿐 아니라 수술 범위 등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트랜스섹슈얼은 단순히 병리적인 의미만 지닌다고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의미를 재전유해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트랜스젠더가 젠더 규범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호르몬 투여나 수술 경험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즉,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을 경험하는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자신을 명명하곤 한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역시 호르몬 투여나 수술을 하지 않는 건 아니란 점(이를테면 트랜스섹슈얼은 아니지만 부치 중에서도 호르몬 투여를 하거나 가슴수술을 하는 이들도 있다), 트랜스섹슈얼과 트랜스젠더의 수술 경험의 경계가 모호하단 점(호르몬 투여와 가슴수술은 하고 성기재구성수술을 안 하면 트랜스섹슈얼인가 트랜스젠더인가?)에서 이들 구분이 명확한 건 아니다.

미국의 이런 용어 사용과 범주 구분에 비해¹⁰⁾ 한국에서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크로스드레서의 구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을 다니다 사퇴하고 크로스드레서 카페를 운영 중인 H는 크로스드레서를 트랜스젠더와 구분하면서도 상당히 넓고 겹치는 범주로 보았다.¹¹⁾ 이성복장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미와 유사하지만, 크로

스트레스를 트랜스젠더 범주로 포괄하는 미국의 논의에 반해 H는, 앞서 얘기했듯, 크로스드레서와 트랜스젠더를 개별 범주로 설정하는 듯했고, 그렇다고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정신적인 성(젠더)"이 어떠한가로 얘기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적인 성이 (mtf/트랜스여성일 경우) 여성이고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한다면 이는 정신적인 성이 여성이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이다. 트랜스섹슈얼은 정신적인 성과는 상관없이도 수술을 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자신은 트랜스섹슈얼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트랜스젠더나 크로스드레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어떤 이는 호르몬 투여나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크로스드레서이고 호르몬 투여를 하기 시작했으면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이런 식의 구분에 분개하며 내가 여성인데 호르몬 투여나 수술 여부가 무어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트랜스섹슈얼을 트랜스젠더보다 넓은 의미라고 얘기했다. 하리수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면서 등장한 이후,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자를 구분이 안 되는 언어로 사용하는 이들도 있고, 이제 용어가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구분이 되는 용어도 아니란 지적 역시 존재한다. 또한 성전환자란 용어가 의학계나 법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자 커뮤니티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mtf/트랜스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트랜스젠더나 티지¹²⁰로 지칭하는 편이다.

이런 일련의 기술은 결국, 이 글의 저자인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한국의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사람은 잘못 알고 있기에 교정해야 한다는 의미일까?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단지 내가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생산한 영어 논문을 몇 개 읽었기 때문에? 미국의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집단(이들테면 학계)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식의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

싼 논쟁은 "하리수"의 등장을 빼고 얘기할 수 없으며,¹²¹ 이 용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섞어 사용하고 있는 맥락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곧 성전환자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그리고 성전환자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부여하는 의미가 미국과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미국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더 문제며 미국의 특정 집단의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미국에선 운동의 의미로 트랜스젠더를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한국에선 트랜스젠더 바나 텔레비전 화면 속의 "하리수"와 같이 성적 대상이나 "이국적인" 볼거리란 의미로 소비되기도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민한다면, 한국어로서 트랜스젠더와 미국어로서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한국어 표기법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단어이며 한국어로서 트랜스젠더는 그 의미를 현재로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다고 이 말이 미국에선 합의된 정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 아울러, 단체 활동을 하며 mtf나 ftm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며 자신은 여성(혹은 남성) 또는 트랜스젠더인데 "mtf(혹은 ftm)는 뭐냐?"고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자신은 여성이지 mtf나 트랜스여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트랜스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그를 트랜스젠더라고 함부로 규정할 수도 없거니와) 용어/명명/범주를 둘러싼 복잡한 지형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이 용어들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공유할 때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자신을 어떤 정체성의 범주로, 법률상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재)명명하는 건 "사회적, 육체적, 언어적으로 지워진 트랜스젠더 주체의 삶을 정당화하는 한 가지 방법"(Hale 1998b)이다. 즉 이름 짓기는 자신을 주장하는 과정이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위치 짓는 작업이자 자신의 위

를 들여오면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한 하리수를 트랜스젠더의 표준, 규범으로 여기면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리수"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며(비록 최근 들어 몇 명 더 있긴 하지만, "하리수"만큼 대중적이진 않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젠더=하리수=외부성기재구성수술까지 한 사람=성전환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 하에 mtf/트랜스여성이지만 가족관계나 주변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어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크로스드레서 바에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이성애 여성"으로서 성전환수술을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이 게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성전환수술을 했지만 그 "남성"과 사귀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앞서서도 얘기했듯, 주말 크로스드레서이고 자신은 크로스드레서라고 얘기하면서도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남성이고 그래서 그와 결혼을 고민할 정도라면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그는 크로스드레서일까, 트랜스젠더일까, 트랜스섹슈얼일까, 이처럼 욕망의 복잡한 지형도는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뿐 아니라 게이, 크로스드레서 등을 둘러싼 범주를 정의하고 개개인을 명명하는 데 있어 더욱더 복잡하게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트랜스젠더를 젠더 범주로, 게이를 섹슈얼리티 범주로 나누는 경향은, mtf/트랜스여성이지만 게이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모든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남성으로 더 자주 통하는 내가 "전 트랜스예요."라고 말하는 건 "전 게이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통해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구분 역시 모호한 동시에 복잡하게 다시 사유해야 한다(일테면, 트랜스젠더가 섹슈얼리티를 의미하고 게이가 하나의 젠더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하여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란 범주와 명명을 둘러

치를 통해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서로를 부정하며 나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게이다, 나는 게이가 아니라 트랜스젠더다, 란 식의 얘기를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나의 경우 종종, 적어도 여섯 가지 방식(ftm트랜스여성, 트랜스, 드랙퀸/킹, 레즈비언 트랜스, 트랜스젠더 펌/부치, 트랜스퀴어)으로 나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들은 내 삶의 일부를 설명하고 나의 경험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언어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겐 유사한 것으로 혹은 동일한 것으로 여길 '정체성'에 여섯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건, 이러한 명명과 범주로 나누는 과정이 생의 특정 부분은 설명하고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배제하고, 특정 범주로 나를 부름으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조차 박제하기 때문이다.

명명은 언제나 그러한 명명을 통해 적절한 범주에 속하길 요구하고 그런 범주에 따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리수"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맥락에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하리수처럼 "여자보다 예쁜 여자"거나 "이성애자"거나 mtf/트랜스여성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는 mtf/트랜스여성만 있을 뿐 ftm/트랜스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몇 번이고 "ftm/트랜스남성이 정말 있느냐?"고 반문하며 놀람을 표한다. 한 트랜스남성의 경우, TV에도 여러번 등장하여 꽤나 유명하지만, 인터넷상에서 그와 관련한 글에 "남자에서 여자로 되기까지"란 댓글이 달릴 정도로 트랜스젠더들은 모두 트랜스여성으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나는 트랜스다."라고 나를 명명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 트랜스예요."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mtf일 거라고 가정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 편이다. "수술은 언제 할 거냐?" 혹은 "호르몬은 할 거냐?"와 같은 질문들은 트랜스젠더는 모두 mtf/트랜스여성이라고 가정할 뿐, 내가 ftm/트랜스남성으로서 이미

호르몬 투여를 상당 기간 했고 수술도 했을 가능성은 상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나의 목소리가 때로 지나치게 저음이거나 행동이 “남성스러울” 때 적지 않게 당황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가까이서 얘기할 상황이 생기면, “가까이서 보니 예쁘게 생겼다.”, “천생 여자네.”란 식의 관습적인 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하리수”를 매개로 소비하는 트랜스젠더의 이미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며 내 얼굴을 조각내어 쌍꺼풀이 진한 눈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내 턱에 난 수염은 무시한다. “나는 트랜스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떤 식으로건 “여성”이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내게서 “여성”스러운 어떤 지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질문한다. “제가 이성애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라고 되물을 때에도, 이런 반문은 무시되기 마련이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꽤나 집요하게,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안 사귀어요?”,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즉, 트랜스젠더는 당연히 “이성애자”라는 가정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트랜스예요.”라는 말은 곧 “나는 이성애자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자신을 레즈비언 트랜스라고 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비록 나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범주로 정체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규범적인 “이성애”의 틀로 나를 해석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레즈비언 트랜스라는 명명을 사용하곤 한다. 이런 명명은 트랜스젠더 부치/웹이란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트랜스젠더를 mtf/트랜스여성과 ftm/트랜스남성이란 이분법으로 나눠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선 나를 mtf로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의 욕망을 설명하려는 명명이 트랜스젠더 부치/웹이다. 한편으론 소위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옷을 입고 싶어하고 드물게 치마도 입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저 험렁한 티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에도 편안

고 다른 한편으론 옷과는 별개로 외모/외형을 통해 “남성”으로 여겨지는 몸으로 치마를 입고 다닐 때 발생할지도 모를 사람들의 혐오행동을 예상하며 느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모색하며 떠오른 명명이 드래킹/킹이었다. ‘어떤 땀 드래킹이고 다른 땀 드래킹’이 아니라 ‘드래킹인 동시에 드래킹’이란 의미로, “여성”이지만 남성성을 상연한다는 의미로 드래킹이라고만 부를 수도 있었지만, “여성의류”를 입고자 하는 바람이 반드시 “남성의류”가 싫다거나 옷이 나를 부인한다는 식으로만 느낀 건 아니며, “여성의류”라고 불리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 지점, 즉 옷을 통해 사람을 특정 젠더로 해석하고 그렇게 환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러면서도 이런 옷을 입는 행위에서 편안함도 느낀다는 측면, 옷을 입는다는 것, 옷을 산다는 것이 간단한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측면이란 점을 드러내고 싶어, 드래킹/킹이라고 나를 부르곤 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주로 나를 설명하는 것은 한편으론 개인의 정체성이 단일하고, 단 하나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일 수 없다는 인식에 균열을 낸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이를테면 ftm과 트랜스여성이란 말은 “완전히 반대인 성”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전 ftm트랜스여성이에요.”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에게 많은 고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당연히 “이성애자”라고 여기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나는 트랜스면서 레즈비언이지만 여성은 아니예요(남성은 더더욱 아니요).”¹⁹ 라고 말하는 건 트랜스젠더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면 레즈비언이란 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용은 각각의 용어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실제 이런 용어의 혼성 자체가 이미 각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범주 경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함을 느낀다. 이른바 “선머슴”처럼 입고 다니며 “남성”으로 너무 잘 통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심하다 소위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 부치란 명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tm트랜스여성이란 말 역시 이런 일련의 흐름에 위치한다. 나를 mtf/트랜스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도 mtf/트랜스여성이라기보다는 너무도 빈번하게 ftm/트랜스남성으로 여겨지고, 다른 ftm/트랜스남성들과 얘기를 할 때, “여기엔 ftm 밖에 없네.”란 얘길 듣기도 한다. 물론 이 말을 한 사람은 곧 무안해하고 미안해하지만, 정작 이 말을 들은 나 자신은 웃으며 넘어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ftm트랜스여성이란 명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트랜스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명명이기도 하다). 흔히 ftm을 female-to-male의 축약형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 ftm과 트랜스남성을 같은 범주로 사용하는 편이다(이 용어들 간의 차이는 이 책의 용어설명 참고). 하지만 소문자로서 ftm을 female-to-male의 축약형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남성으로 여겨진다.”란 측면에서의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다면, ftm트랜스여성이란 말은 트랜스여성 ‘이지만’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나 관련 모임에서 트랜스라고 얘기했을 때조차 mtf보다는 ftm으로 더 자주, 더 쉽게 인식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ftm트랜스여성이란 명명/범주를 사용하는 편이다.

드래킹/킹은 현재로서는 잘 안 쓰고 있지만, 한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용어였다. 드래킹이란 용어 자체는 다소 무대에서 상연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반드시 극장의 무대로 의미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남성”이 아님에도 소위 “남성의류”라고 불리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너무도 자주 “남성”으로 불리는 지점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그럼 “여성의류”라고 불리는 옷을 사서 입으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한편으론 옷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나를 최소한 여섯 개의 용어로 설명하기보다는 트랜스젠더라고 설명함으로써, 하리수도 나도 트랜스젠더란 점을 통해 트랜스젠더에 각인되어 있는 고정된 의미에 균열을 내고 의미를 재전유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종종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신을 특정 정체성으로 범주화하는 건 현재의 맥락에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동시에 끊임없이 어떤 고정된 의미에 박제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정체성의 범주 구분에 문제제기하면서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것, 즉 또 다시 특정 범주로 구분하고자 하는 건 “모순”이 아니다. 기존의 “이성애”-양성체계를 통해 구성하는 언어체계에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설명할 언어들이 없을 때(기존의 언어로 자기 경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정체성을 주장하고 특정 언어로 자신을 명명하는 건 어떤 식으로건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을 위치 짓는 작업이다. 그것이 비록 가장 좁은 범주 경계를 설정하는 용어이고, 그래서 자기 경험의 많은 지점을 쳐내야 하는 용어라고 해도, 이런 명명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나를 설명하는 방식에 반하는 명명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왜 그런 명명을 사용하는지 묻지 않으며 상대의 자기 명명을 임의로 재단하는 행위다. 앞서 자신은 여성이지 mtf나 트랜스여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트랜스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이러한 맥락이기도 하다.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넌 트랜스젠더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단일 범주로의 명명은 그렇게 명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험/인식들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그래서 남성이란 얘기야, 여성이란 얘기야.”란 질문은 젠더는 둘뿐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우리” 혹은 “나”에게 타인의 정체성을 명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권한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명명하는 자를 신의 위치에 놓는다(Hale 1998b). 이

런 식으로 경계 짓기를 할 때,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혹은 소속해야만 하는가? 정체성 명명은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경계 짓기를 통해, 끊임없이 어느 한 범주에 속하길 요구하고 그래서 주어진 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진짜”/“가짜”의 증명을 요구하며 몸이 살아온 역사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서라도 “우리” 혹은 “그들”에 편입하길 요구한다. 하지만 경계지대에 머물면 안 되는가.

2) 경계지대에서 살기

우리의 탈구된 위치성은 우리에게 주체 위치를 제공한다.
[Our dislocatedness provides us with subject position.]
- 헤일(Hale 1998b)

저기 쌍둥이 빌딩 사이 주름치마 같은 돌계단을 따라 올라본 적 있나요?... 커다란 빌딩들이 쪼그라들 정도로 보일 때쯤 거기 페르나가 있어요...
(중략)
페르나 페르나 사건을 뒤져보지만, 페르나라는 단어는 없다
- 황병승(2005)

ftm 트랜스여성이면서 트랜스이고 트랜스킹이면서 레즈비언 트랜스, 트랜스젠더 펌/부치인 동시에 트랜스퀴어이기도 한 나는 게이, 크로스드레서, mtf/트랜스여성이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범주 설정에 따를 때 어떻게 경계 짓고 명명할 수 있을까. 오드리 로드의 지적처럼, 월요일부터 하나씩 살다가 일요일엔 아무 정체성도 아닌 상태로 ‘정체성 휴무’를 내걸고 휴식을 취하는가? 트랜스를 둘러싼 정체성을 어느 한 가지 범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동시에, 나는 또한 중하층계급의 부산 출신이면서 서

트랜스젠더’란 명명으로 통칭하는 순간, 트랜스젠더들 사이에 있는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경험들은 무시되고, ‘모든 트랜스젠더’는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마스떼(Namaste)의 지적처럼, 이분법으로의 경계 설정은 끝없는 이분법의 순환에 빠져, 다른 가능성과 상황을 상상할 수 없게 한다(Namaste 1994).¹⁴⁾

“하리수”를 비난하는 글을 통해 트랜스혐오의 혐의를 드러내는 이경은 글 제목, <하리수, 그 낯선 변성선의 코드읽기>(2001)처럼 트랜스젠더를 “남성”과 “여성”의 경계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역설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안정된 범주로 만든다. 이처럼 경계는 “안전과 불안의 영역을 정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분할선” 역할을 한다(Anzaldúa 1999). 이에 비해 경계지대는 “부자연스러운 경계로 인한 양극이 만들어낸 모호하고 결정되지 않은 장소”(Anzaldúa 1999)이다. 사실 범주를 가르는 경계는 “불명확”하며, 특히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범주를 나누는 경계들은 구획선이 아니라 겹치는 영역들이다(Hale 1998b).

게이와 크로스드레서, 게이와 mtf/트랜스여성, 크로스드레서와 mtf/트랜스여성이란 식으로 명확하게 범주를 나누는 것은 경계지대에 사는 이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혹은 무엇이나)’며 양자택일로 “명확”하게 속할 것을 요구한다.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을 구분하거나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루인의(나의) 글, “젠더를 둘러싼 경합들”(루인 2006c) 바로 이런 구성을 통해 내가(루인) 페미니스트 트랜스이기도 한 지점을 부인하는 아이러니를 만든다. 또한 이런 경계 짓기와 명명은 mtf/트랜스여성이지만 크로스드레서로 살고 있거나 호르몬과 수술을 할 의향이 전혀 없고 게이공동체에서 지내는 mtf/트랜스여성, 크로스드레서인지 mtf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을 “아직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삶으로

올지역 거주자이며 채식주의자이기도 하다.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들이 비정규직이고 “이성애자”가 있는가 하면 “동성애자”도 있고, 출신지역, 종교, 학력이나 학벌 등에 따라 다양한 삶의 결들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런 결들은 나의 경험을 구성하는 데 전혀 무관한 내용일 수 있는가. 나는 나의 하루 24시간을 오직 트랜스라는 정체성으로만 경험하고 있을 뿐인가. 트랜스는 다른 맥락 없이 트랜스일 뿐인가. 개인을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단일 정체성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을 자체가 일종의 특권이다(루인 2006a; Halberstam 1998; hooks 2000). 앞서 적었듯 나는 나의 생애 경험보다는 트랜스젠더란 용어로 나를 부르는 과정이 더 힘들었고(동시에/그래서 쾌락을 느꼈고), 그런 명명의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가능성으로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그렇다면 명명과정은 경험의 삭제일 뿐 아니라 혐오범죄의 잠재성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때로 어떤 명명은 “피해자”, “소수자”로만 자신을 구성하게 하고 가해자이거나 권력자/기득권자일 수 있음을 성찰하지 않게 한다. 피해자/가해자나 소수자란 식의 경계 구분은 내가 트랜스로서 받는 “억압”을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서울 거주자이며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누리는 특권은 없다는 뜻이 여겨질 수 있다. 트랜스일 때도 “남성”으로 통하기에 누리는 “특권”(물론 이 ‘특권’은 동시에 나를 부인하는 폭력이기도 하다)을 성찰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나’의 위치를 본질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트랜스젠더 바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mtf/트랜스여성의 경우,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mtf/트랜스여성,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운송업에서 일하는 ftm/트랜스남성에 비해, 수술비 마련이라는 측면에선 용이하다가 말해지는 편이다. 동시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mtf/트랜스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건 ‘쉽게 돈 벌려는 선택이다’란 식의 비난에 매이기도 한다. 하지만 “트

랜스젠더’란 명명으로 통칭하는 순간, 트랜스젠더들 사이에 있는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경험들은 무시되고, ‘모든 트랜스젠더’는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마스떼(Namaste)의 지적처럼, 이분법으로의 경계 설정은 끝없는 이분법의 순환에 빠져, 다른 가능성과 상황을 상상할 수 없게 한다(Namaste 1994).¹⁴⁾

만들거나 문제가 있는 삶으로 만들고, “분명한” 것으로 교정하려 한다. 나를 설명하려고 만든 용어가 나를 규정하고 재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이는 트랜스젠더라고 정체화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란 식으로 mtf/트랜스여성 아니면 ftm/트랜스남성 어느 하나로만 선택할 것을 강제하는 것과 닮아 있고¹⁵⁾ mtf에게 “염색체가 여전히 XY인데 내가 어떻게 여자냐.”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범주 구획과 그에 따른 경계짓기는 이미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정하고, 그렇기에 이미 주어진 정체성에서 변하거나 바뀔 수 있음을 부정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명확하게 “이성애”-양성체제를 기획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경계짓기와 부정을 통한 트랜스젠더의 자기 정체성 확인은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인 동시에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태어날 때 주어진 범주인(그리하여 고정되거나 고착된) 1번 아니면 2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구별짓기에선 말이 안 된다.

동시에 이렇게 “명확”한 범주의 경계짓기는 경계지대에 거주하는 이들의 몸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고통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계분쟁”이라는 말은 정체성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경계지대에 거주하는 이들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 아니면 “그들”이란 이분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경계거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경계분쟁”이란 말 자체가 경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을 뜻한다. 경계분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실 “명확”과 “불명확”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이다. 세상엔 “남성”과 “여성”뿐이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인식에선 간성, 트랜스젠더, 양성애나 동성애, 퀴어 등은 모두 불명확할 수 있지만, 간성이나 트랜스젠더의 위치에선 “남성”과 “여성”은 고정되고 본질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불명확할 수 있다. 질문은 누가 무엇을 불

명확하고 경계분쟁지역이라고 명명하고 단정하는지, 그것이 가능한 맥락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우리는 “불명확”하거나 “부재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한다고 간주되는 지역dislocatedness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명확이 명확”인 지역에 살고 있다. 게이나 크로스드레서나 mtf나란 질문을 통해선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존재할 수 없음’, ‘존재하지만-부재-중첩’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이리이러하다, 라는 서사구조와 그런 연구보고서는 결국 트랜스젠더를 특정한 틀 속에 구겨넣고 그리하여 오직 그것만이 “진성 트랜스젠더”의 서사라고 얘기할 위험성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이러한 서사에서 벗어난 경험과 몸의 부분들은 모두 예외나 가짜가 되고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하길 요구받는다. 범주, 명명, 경계설정 은 언제나 이런 위험 속에 있고 mtf/트랜스여성, 크로스드레서, 게이의 범주는 언제나 “모호”한 상태에 걸려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욕망, 그것이 존재를 부재로 만들고, 과물을 “과물”로 만든다. 그렇기에 mtf/트랜스여성, 크로스드레서, 게이라는 식의 범주와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이런 경계짓기가 한국 사회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신의 경험 중 일부를 부정해서라도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질문구조가 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글 전반에 걸쳐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고 있지만, 나의 경험만이 특별하다거나 유난하다고 믿지 않는다. 이른바 “트랜스젠더 서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얘기하는 이들 역시, 나와 비슷하리라고 믿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는 트랜스젠더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런 주장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는 맥락이 있기에 “트랜스젠더 서사”

에 맞추어 설명하지, 다른 트랜스젠더들의 삶 역시 이런 서사에 완벽하게 일치한다곤 믿지 않는다. 이런 서사를 통해서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맥락이 있고, 이런 서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통해 주장들을 재단할 뿐이다. 특히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 있어, “나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성(혹은 남성)이었다.”, “페니스(혹은 유방)를 도려내고 싶었다.”와 같은 형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들은 척도 하지 않거나 “가짜”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에서, 이런 서사에 맞춰 경험을 구성(재현)하는 건, 기존의 구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협상한 것이다. 그렇기에, 질문 구조를 바꾸고, 나를 끊임없이 특정 서사에 맞춰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그것에 문제제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믿는다. 어떤 범주에 맞추지 않으면 부재한다고 얘기하는 그것, 불명확한 상태에선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내’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부재”한다고 “침묵”한다고 간주하는 맥락, ‘나’의 ‘다른’ 경험들은 무시하고 특정 지점만 포착해선 “모든 트랜스젠더는 이리이러하다”로 만들어 버리는 맥락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주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가 부재한다고, ‘우리’가 주장한 적 없다고 간주하는 답론이 있을 뿐.

- 1) 그 수업에서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구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으로서 소위 생물학적인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성으로서의 섹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서 한 사회에서 특정한 성에 부여하거나 강제하는 성질로서의 젠더, 성적 지향성이나 성적 욕망, 소위 성적이라고 부르는 것 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였다. 이런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에서 이 모든 설명은 “여성”의 섹스로 태어난 사람은 “여성”의 젠더를 가지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실행한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젠더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여성”이란 섹스에 본질적으로 부착해 있었다. 버틀러(Butler 1999)나 윌킨스(Wilkins 2004)의 지적처럼, 이런 식의 설명에선 섹스가 아니라 젠더가 운명이며 본질이다.
- 2) 이 글에서의 “여성”, “남성”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할당된’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할당한 양성에 기반을 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주민등록번호가 2번인 동시에 여성으로 정체화할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트랜스여성 이지만 자신은 트랜스여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정체화와 구분하고 “여성”과 “남성”이 호명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따옴표로 표시한다. 그렇기에 이런 식의 젠더 표시는 상대의 외모나 스타일을 통해 추측하고 해석한 젠더가 동시에 그 사람의 “섹스”이며, “섹스”에 근거한 정체성에 어떤 갈등이나 긴장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간주하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환기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 3) 아홉살때 3~4살 무렵 엄마가 빨강 원피스를 입혀주며 예쁘다고 좋아하는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것이 조금도 싫지 않았고 그때의 기억이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경험을 들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성이었다”고 “트랜스젠더 서사”에 맞춰 나의 생애사를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험을 내가 ‘트랜스임’을 증명하는 기원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아들”로서(물론 이것이 곧 “남성으로서”란 의미는 아니다) 빨강 원피스를 입고 좋아했던 것으로 얘기하고 싶다. 머구나 엄마의 입장에서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누나”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 예쁘게 꾸민 것을 보고, 나 역시 싫다기보다는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여성”으로 느꼈다는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즉, 그 경험은 “진성” 트랜스임을 “증명하는” ‘경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
- 4) 2006년 12월 10일 효용과 함께 진행한 이 인터뷰는, 사실 그 목적부터가 모호했는데, 누군가의 생애사를 듣고자 했다가보다는, 크로스드레서와 mtf/트랜스여성 사이의 긴장관

- 5) 1990년대 중반 서동진씨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서동진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온 사람은 동성애자나 게이뿐 아니라, mtf/트랜스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서동진 2006)
- 6)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령이> 운영위원들의 경우, 굳이 mtf/트랜스여성과 ftm/트랜스남성이란 식으로 구분하자면 mtf/트랜스여성이 3명, ftm/트랜스남성이 5명(이는 2006년도 현황이다.)이다. 때문에 한 신문기자는 <지령이>를 “ftm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체발족준비기간 동안 기대표가 트랜스남성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mtf/트랜스여성:ftm/트랜스남성=3:1 정도의 비율이라고 통계 운운하는 상황에서 ftm/트랜스남성이 ‘과도하게 많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지령이>를 “ftm 모임”이라고 얘기한 그 기자는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때엔 ftm/트랜스남성의 숫자가 mtf/트랜스여성보다 많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단체에 “남성”이 99명이고 “여성”이 1명이면 “남성”이 과도하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여성”이 10명 정도만 되어도 “여성”이 과도하게 많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문화적인 배경에서, mtf/트랜스여성을 여전히 “남성”으로 ftm/트랜스남성을 여전히 “여성”으로 간주하고 mtf/트랜스여성을 더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 7) 덧붙여, 이러한 수적 통계치, 비율은 순전히 의사들이 수술을 한 사례만을 의미한다. 또한 mtf와 ftm에게 수술이 가지는 의미가 다를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각주 7번 참고)에서 이런 식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mtf와 ftm 사이엔 정말 그런 정도의 비율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 8) “수술을 모두 한”이란 표현은 외부성기재구성수술 “까지”를 해야만 ‘수술의 완성’, ‘정정한 트랜스젠더 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표현이다. 결국 “남성” 혹은 “여성”이 되는 방법은 외부성기형태를 바꾸는 것이며 외부성기형태가 젠더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셈이다. 문제는 mtf/트랜스여성과 ftm/트랜스남성에겐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데 있다. 현대의 의료기술에서 mtf/트랜스여성의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은 상당히 ‘반쪽’스러운 결과를 주고, 산부인과 의사들조차 mtf/트랜스여성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2번’으로 할

당반은 "여성"이라고 여기는 사례도 있다. 반면 ftm/트랜스남성에게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은 mtf/트랜스여성보다 비용은 훨씬 비싸면서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ftm/트랜스남성들의 경우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이러한 '모두'의 의미는 개개인마다의 차이뿐 아니라 mtf/트랜스젠더 담론과 ftm/트랜스젠더 담론 사이에서도 상당한 간극이 있다.

- 8) 트랜스젠더에게 얼굴성형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전환수술로 불린다. 이 지점에서 성전환과 성형 사이의 긴장과 경합이 발생한다.
- 9)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루인 2006c참고.
- 10) 한국 맥락에서 용어를 재구성하고자 함에도 여전히 미국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계는 이 문단을 시작하며 "미국의 이런 용어 사용과 범주 구분에 비해"라고 기술한 것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이 글과 나 자신의 한계이기도 하다.
- 11) 이런 설명을 들으며, 종종 크로스드레서를 트랜스젠더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은 정말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가장 넓은 범주이고 크로스드레서는 트랜스젠더의 하위범주거나 하위범주는 아니라고 해도 더 좁은 범주라고 지금까지 해석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 12) 하리수 등장 이전에도 주로 사용한 명명이 트랜스젠더였는지, 아니면 하리수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했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당히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기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명명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 13) 이 부분을 다시 읽곤, 기술의 불균형을 수정할까로 고민했다. "여성"은 아니지만 "남성"은 더더욱 아니라는 식의 기술은, "남성"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 더 큰 거부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끊임없이 "남성"으로 호명되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비록 이 기술이 내가 "여성"에 더 가깝게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해도, 그렇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남성"으로만 호명되는 측면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읽어졌으면 한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여성"으로 더 자주 통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식의 기술도 달라질까?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 14) 그렇기에 "나는 소수자다."란 전제를 통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수자다."란 전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점들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고민한다. 마찬가지로 나의 고통, 나는 이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전시하고, '누군가'의

관음증적 페티시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문제제기하는 것을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고민 중에 있다. 왜 꼭 고통스럽고 힘들어야만 하는가? 즐거우면 나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없는가? 자급도 즐겁지만 더 즐겁기 위해 나를 주장하고 요구하면 안 되는가? 고통과 힘든 생존만 전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만 말할 것을 요구하는 그 지점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고민 중이다. 동시에,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니란 점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고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관음증적 페티시"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런 발화행위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이기도 할 때, 고통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구조에 문제제기하는 동시에, 이런 고통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 15) 또한 '트랜스젠더와 퀴어와 페미니즘의 관계'란 표현 역시 페미니스트 트랜스퀴어일 순 없으며 어느 하나에만 속할 것을 요구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트랜스섹슈얼인 샌디 스톤(Sandy Stone)은, 레즈비언들이 설립한 음반사인 올리비아 레코드에서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몇몇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mtf라는 이유로 올리비아 레코드사에 쫓아낼 것을 요구했다(관련해선 Stone 1993). 이것은 트랜스혐오의 맥락뿐 아니라 정체성을 단일 범주로 환원하며 명확하게 구분지으려 했기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본도 안되신 분, 부끄러워 마세요.

- 이제부터 읽면 되는 거로

동성애(Homosexuality), 동성애자(Gay)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이 스스로를 동성애자로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지요. 따라서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동성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인이 한 개인에게 동성애자로 정체화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지요.

한편 우리는 주위에서 '동성연애(same-sex act)' 혹은 '동성연애자(호모, Homo)'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관계,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being)인데 말이지요. 따라서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레즈비언(Lesbian)

레이(Gay)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즈비언입니다. 즉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와 4대 시인 중의 한 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양성애자(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퀴어(Queer)

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입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이지요. 퀴어는 동성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등 모든 성 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이반(iban, 二般, 異般)

이반이라는 용어는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이성애자를 의미하는 일반(一般)에 반하는 이반(二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이후, 이성애자와 다르다는 이반(異般)의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어떤 성에게 이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한 개인이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의식하고 자각하여 자신을 규정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커밍아웃(Coming Out)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증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 주지만, 성 소수자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아웃팅(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웃팅은 성 소수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성 소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요.

동성애 공포증,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 혹은 혐오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 혐오범죄를 만들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데 괴로움을 겪도록 합니다. 특히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자에게도 내재화되고, 실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기본만 되신 분도 괜찮아요.

- 당신에게 아직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성애자들에게 궁금한 것

- 당신들은 왜 이성애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 이성애라는 것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번쯤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까?
- 당신의 이성애는 동성애 대한 신경증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 동성애 경험없이 어떻게 이성애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우호해서 이성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 이성애자를 동성애자로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 나왔는데 치료를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 이성애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을 '음란의 바다'로 내모는 꼴이 아닙니까?
- 요즘 이성애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애자들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이성을 보면 다 끌리나요?
- 당신은 이성애의 요청을 사랑과 혼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요?
- 이성애자들은 데이트를 하면 무엇을 하고 노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성애자 대신 동성애자를, 동성애자 대신 이성애자를 위의 질문에 넣어보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던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클리닉 | 차시

"뭐라고? 레, 뭐?
그거 편해줄이야."



당신의 편견을 치료할 약

'레즈비언'이란 단어를
자비 없이도 담지 못하는
그런 당신들을 위한 약의 한줌.

레즈비언 문화제를 열며

레레레레 레즈비언



나 답답해서 말꺼낸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일단 동성애를 사회학으로,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의 시선에서 교과서가 쓰이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이성애자의 결함으로 구성된 '정상' 가족을 착취할 수 있는 기업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상층을 공급한다. 목소리 좀 크고 돈 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말해대니,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변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제일로 중요한데, 주변인은 일단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아무도 위정자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머릿속 신경세포부터 그들의 논리에 부합해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사회적으로 논리를 장악해야 하니까, 그들이 논리를 장악해야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람들이 살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권력이다. 그래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기획했다. 가부장제의 시선으로 주변화되고, 이성애자의 시선으로 변형되어 대상화되는 비이성애 정체성, 편견과 차별로 왜곡된 비이성애 정체성이 아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유포시키고 싶었다. 물론 우리는 자급력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몇몇부터 하나하나 다시 세뇌시키는 팔랑공룡은 못한다. 그래도 눈길을 끌기 위해 빨주노초파보의 무지개 현수막을 달고 피어난 문구를 박은 단테티셔츠를 입고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성별' 그 씹어먹을 것

왜 레즈비언 문화제야? 귀어를 모두 모를지 못하고 왜 그렇게 편협하게 대상을 설정했? 라는 물음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레즈비언 문화제'라는 이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러한 당론을 형성해, 어떤 말을 하건 '여자다워야' 하거나 '남자답게' 행동해야 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주체를, 성별 역할 분담으로 불려하고 파종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성'에게 끌려야만 정상이라는 소문에 '동성'에게 끌리는 자신이 정말 변태인지 고민했던 수많은 동성애자들, 성적 욕망이 없다는 편견에 걸린 '여성'에게 존재 자체가 삭제되었던 레즈비언들, 타인들이 자신을 볼 때에 판단하는 '성별'과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성별'이 달라서 거짓말해야만 했던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성별' 자체를 흔들어내어 '성별'에 의한 모든 폭력에 대한 반대를 한가득 포괄하고 싶었다.

우리 귀어하면 안 될까요?

'이성애 중심주의' 한 마디는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키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한꺼번에 주변화할 수 있는 '정상' 이해틀로기와 그로 인한 폭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일단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인과의 관계맺음, 이성애가 아닌 성애에 대한 혐오가 허용하는 호모포비아의 철폐, 비이성애자가 겪는 자기 혐오와 정체성 혼란, 특히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식'을 밀어내야 하는 극히 당연한 사회화까지. 그러니까 이성애만이 정상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폭력과 억

압이 발생한다. 그 생각 하나 버리면 좀 편할 것 같다. 여성인 내가 동성애에서 추궁장을 먹어도 신문에 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여성과 백년가약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내 남성인 친구를 부를 때에 '배인'이 아닌 '남자친구'라는 길고 긴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이고,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확립하지 않음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으리라. 이성애 중심주의 하나만 '이상' 해지자. 귀어하자, 그레 귀어하자.

레레레레 레즈비언 문화제에 놀러오세요~

레즈비언 문화제는 '주체적으로 말하는 레즈비언 운동'의 일환이다. 학내에는 이 지면을 빌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과 여남이 모두 섞여있지만, 우리 문화제 이름은 '나는 레즈비언입니다'이다. '여러 레즈비언만 참여하는 문화제야?'라고 편견 갖지 마시고,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들어다 봐주길 바란다. 솔직히 욕심내자면 연세대학교 구설원 모두가 이성애 중심주의의 폭력과 성별권력에 의한 폭력에 주체적으로 반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폭력하지 말자. 비폭력이 좋은거다. 이성애 중심주의를 볼 줄도 안 놓는 것이 왜 폭력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더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문화제 사흘 뿐 아니라 365일 열여섯구절 끌어들이고 풀어내고자 하니까, 한 번이라도 덧대뜨린다면 그걸로 기쁘다. 그게 우리들의 정치고, 이 문화제는 그들 좀 상냥하게 보여주기 위한 아주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다. 물론 이벤트라고 화해하고 즐겁게 볼루랄라 춤추며 박타치며 열심히 준비했으니 놀러오시라. ■

by. 자물

1.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10일(토) 19:00에 열립니다.
2. 07:00에는 또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CEO가 09:00에 열립니다.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31:00, 32:00, 33:00, 34:00, 35:00, 36:00, 37:00, 38:00, 39:00, 40:00,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51:00, 52:00, 53:00, 54:00, 55:00, 56:00, 57:00, 58:00, 59:00, 60:00, 61:00, 62:00, 63:00, 64:00, 65:00, 66:00, 67:00, 68:00, 69:00, 70:00, 71:00, 72:00, 73:00, 74:00, 75:00, 76:00, 77:00, 78:00, 79:00, 80:00, 81:00, 82:00, 83:00, 84:00, 85:00, 86:00, 87:00, 88:00, 89:00, 90:00, 91:00, 92:00, 93:00, 94:00, 95:00, 96:00, 97:00, 98:00, 99:00, 100:00, 101:00, 102:00, 103:00, 104:00, 105:00, 106:00, 107:00, 108:00, 109:00, 110:00, 111:00, 112:00, 113:00, 114:00, 115:00, 116:00, 117:00, 118:00, 119:00, 120:00, 121:00, 122:00, 123:00, 124:00, 125:00, 126:00, 127:00, 128:00, 129:00, 130:00, 131:00, 132:00, 133:00, 134:00, 135:00, 136:00, 137:00, 138:00, 139:00, 140:00, 141:00, 142:00, 143:00, 144:00, 145:00, 146:00, 147:00, 148:00, 149:00, 150:00, 151:00, 152:00, 153:00, 154:00, 155:00, 156:00, 157:00, 158:00, 159:00, 160:00, 161:00, 162:00, 163:00, 164:00, 165:00, 166:00, 167:00, 168:00, 169:00, 170:00, 171:00, 172:00, 173:00, 174:00, 175:00, 176:00, 177:00, 178:00, 179:00, 180:00, 181:00, 182:00, 183:00, 184:00, 185:00, 186:00, 187:00, 188:00, 189:00, 190:00, 191:00, 192:00, 193:00, 194:00, 195:00, 196:00, 197:00, 198:00, 199:00, 200:00, 201:00, 202:00, 203:00, 204:00, 205:00, 206:00, 207:00, 208:00, 209:00, 210:00, 211:00, 212:00, 213:00, 214:00, 215:00, 216:00, 217:00, 218:00, 219:00, 220:00, 221:00, 222:00, 223:00, 224:00, 225:00, 226:00, 227:00, 228:00, 229:00, 230:00, 231:00, 232:00, 233:00, 234:00, 235:00, 236:00, 237:00, 238:00, 239:00, 240:00, 241:00, 242:00, 243:00, 244:00, 245:00, 246:00, 247:00, 248:00, 249:00, 250:00, 251:00, 252:00, 253:00, 254:00, 255:00, 256:00, 257:00, 258:00, 259:00, 260:00, 261:00, 262:00, 263:00, 264:00, 265:00, 266:00, 267:00, 268:00, 269:00, 270:00, 271:00, 272:00, 273:00, 274:00, 275:00, 276:00, 277:00, 278:00, 279:00, 280:00, 281:00, 282:00, 283:00, 284:00, 285:00, 286:00, 287:00, 288:00, 289:00, 290:00, 291:00, 292:00, 293:00, 294:00, 295:00, 296:00, 297:00, 298:00, 299:00, 300:00, 301:00, 302:00, 303:00, 304:00, 305:00, 306:00, 307:00, 308:00, 309:00, 310:00, 311:00, 312:00, 313:00, 314:00, 315:00, 316:00, 317:00, 318:00, 319:00, 320:00, 321:00, 322:00, 323:00, 324:00, 325:00, 326:00, 327:00, 328:00, 329:00, 330:00, 331:00, 332:00, 333:00, 334:00, 335:00, 336:00, 337:00, 338:00, 339:00, 340:00, 341:00, 342:00, 343:00, 344:00, 345:00, 346:00, 347:00, 348:00, 349:00, 350:00, 351:00, 352:00, 353:00, 354:00, 355:00, 356:00, 357:00, 358:00, 359:00, 360:00, 361:00, 362:00, 363:00, 364:00, 365:00, 366:00, 367:00, 368:00, 369:00, 370:00, 371:00, 372:00, 373:00, 374:00, 375:00, 376:00, 377:00, 378:00, 379:00, 380:00, 381:00, 382:00, 383:00, 384:00, 385:00, 386:00, 387:00, 388:00, 389:00, 390:00, 391:00, 392:00, 393:00, 394:00, 395:00, 396:00, 397:00, 398:00, 399:00, 400:00, 401:00, 402:00, 403:00, 404:00, 405:00, 406:00, 407:00, 408:00, 409:00, 410:00, 411:00, 412:00, 413:00, 414:00, 415:00, 416:00, 417:00, 418:00, 419:00, 420:00, 421:00, 422:00, 423:00, 424:00, 425:00, 426:00, 427:00, 428:00, 429:00, 430:00, 431:00, 432:00, 433:00, 434:00, 435:00, 436:00, 437:00, 438:00, 439:00, 440:00, 441:00, 442:00, 443:00, 444:00, 445:00, 446:00, 447:00, 448:00, 449:00, 450:00, 451:00, 452:00, 453:00, 454:00, 455:00, 456:00, 457:00, 458:00, 459:00, 460:00, 461:00, 462:00, 463:00, 464:00, 465:00, 466:00, 467:00, 468:00, 469:00, 470:00, 471:00, 472:00, 473:00, 474:00, 475:00, 476:00, 477:00, 478:00, 479:00, 480:00, 481:00, 482:00, 483:00, 484:00, 485:00, 486:00, 487:00, 488:00, 489:00, 490:00, 491:00, 492:00, 493:00, 494:00, 495:00, 496:00, 497:00, 498:00, 499:00, 500:00, 501:00, 502:00, 503:00, 504:00, 505:00, 506:00, 507:00, 508:00, 509:00, 510:00, 511:00, 512:00, 513:00, 514:00, 515:00, 516:00, 517:00, 518:00, 519:00, 520:00, 521:00, 522:00, 523:00, 524:00, 525:00, 526:00, 527:00, 528:00, 529:00, 530:00, 531:00, 532:00, 533:00, 534:00, 535:00, 536:00, 537:00, 538:00, 539:00, 540:00, 541:00, 542:00, 543:00, 544:00, 545:00, 546:00, 547:00, 548:00, 549:00, 550:00, 551:00, 552:00, 553:00, 554:00, 555:00, 556:00, 557:00, 558:00, 559:00, 560:00, 561:00, 562:00, 563:00, 564:00, 565:00, 566:00, 567:00, 568:00, 569:00, 570:00, 571:00, 572:00, 573:00, 574:00, 575:00, 576:00, 577:00, 578:00, 579:00, 580:00, 581:00, 582:00, 583:00, 584:00, 585:00, 586:00, 587:00, 588:00, 589:00, 590:00, 591:00, 592:00, 593:00, 594:00, 595:00, 596:00, 597:00, 598:00, 599:00, 600:00, 601:00, 602:00, 603:00, 604:00, 605:00, 606:00, 607:00, 608:00, 609:00, 610:00, 611:00, 612:00, 613:00, 614:00, 615:00, 616:00, 617:00, 618:00, 619:00, 620:00, 621:00, 622:00, 623:00, 624:00, 625:00, 626:00, 627:00, 628:00, 629:00, 630:00, 631:00, 632:00, 633:00, 634:00, 635:00, 636:00, 637:00, 638:00, 639:00, 640:00, 641:00, 642:00, 643:00, 644:00, 645:00, 646:00, 647:00, 648:00, 649:00, 650:00, 651:00, 652:00, 653:00, 654:00, 655:00, 656:00, 657:00, 658:00, 659:00, 660:00, 661:00, 662:00, 663:00, 664:00, 665:00, 666:00, 667:00, 668:00, 669:00, 670:00, 671:00, 672:00, 673:00, 674:00, 675:00, 676:00, 677:00, 678:00, 679:00, 680:00, 681:00, 682:00, 683:00, 684:00, 685:00, 686:00, 687:00, 688:00, 689:00, 690:00, 691:00, 692:00, 693:00, 694:00, 695:00, 696:00, 697:00, 698:00, 699:00, 700:00, 701:00, 702:00, 703:00, 704:00, 705:00, 706:00, 707:00, 708:00, 709:00, 710:00, 711:00, 712:00, 713:00, 714:00, 715:00, 716:00, 717:00, 718:00, 719:00, 720:00, 721:00, 722:00, 723:00, 724:00, 725:00, 726:00, 727:00, 728:00, 729:00, 730:00, 731:00, 732:00, 733:00, 734:00, 735:00, 736:00, 737:00, 738:00, 739:00, 740:00, 741:00, 742:00, 743:00, 744:00, 745:00, 746:00, 747:00, 748:00, 749:00, 750:00, 751:00, 752:00, 753:00, 754:00, 755:00, 756:00, 757:00, 758:00, 759:00, 760:00, 761:00, 762:00, 763:00, 764:00, 765:00, 766:00, 767:00, 768:00, 769:00, 770:00, 771:00, 772:00, 773:00, 774:00, 775:00, 776:00, 777:00, 778:00, 779:00, 780:00, 781:00, 782:00, 783:00, 784:00, 785:00, 786:00, 787:00, 788:00, 789:00, 790:00, 791:00, 792:00, 793:00, 794:00, 795:00, 796:00, 797:00, 798:00, 799:00, 800:00, 801:00, 802:00, 803:00, 804:00, 805:00, 806:00, 807:00, 808:00, 809:00, 810:00, 811:00, 812:00, 813:00, 814:00, 815:00, 816:00, 817:00, 818:00, 819:00, 820:00, 821:00, 822:00, 823:00, 824:00, 825:00, 826:00, 827:00, 828:00, 829:00, 830:00, 831:00, 832:00, 833:00, 834:00, 835:00, 836:00, 837:00, 838:00, 839:00, 840:00, 841:00, 842:00, 843:00, 844:00, 845:00, 846:00, 847:00, 848:00, 849:00, 850:00, 851:00, 852:00, 853:00, 854:00, 855:00, 856:00, 857:00, 858:00, 859:00, 860:00, 861:00, 862:00, 863:00, 864:00, 865:00, 866:00, 867:00, 868:00, 869:00, 870:00, 871:00, 872:00, 873:00, 874:00, 875:00, 876:00, 877:00, 878:00, 879:00, 880:00, 881:00, 882:00, 883:00, 884:00, 885:00, 886:00, 887:00, 888:00, 889:00, 890:00, 891:00, 892:00, 893:00, 894:00, 895:00, 896:00, 897:00, 898:00, 899:00, 900:00, 901:00, 902:00, 903:00, 904:00, 905:00, 906:00, 907:00, 908:00, 909:00, 910:00, 911:00, 912:00, 913:00, 914:00, 915:00, 916:00, 917:00, 918:00, 919:00, 920:00, 921:00, 922:00, 923:00, 924:00, 925:00, 926:00, 927:00, 928:00, 929:00, 930:00, 931:00, 932:00, 933:00, 934:00, 935:00, 936:00, 937:00, 938:00, 939:00, 940:00, 941:00, 942:00, 943:00, 944:00, 945:00, 946:00, 947:00, 948:00, 949:00, 950:00, 951:00, 952:00, 953:00, 954:00, 955:00, 956:00, 957:00, 958:00, 959:00, 960:00, 961:00, 962:00, 963:00, 964:00, 965:00, 966:00, 967:00, 968:00, 969:00, 970:00, 971:00, 972:00, 973:00, 974:00, 975:00, 976:00, 977:00, 978:00, 979:00, 980:00, 981:00, 982:00, 983:00, 984:00, 985:00, 986:00, 987:00, 988:00, 989:00, 990:00, 991:00, 992:00, 993:00, 994:00, 995:00, 996:00, 997:00, 998:00, 999:00, 1000:00, 1001:00, 1002:00, 1003:00, 1004:00, 1005:00, 1006:00, 1007:00, 1008:00, 1009:00, 1010:00, 1011:00, 1012:00, 1013:00, 1014:00, 1015:00, 1016:00, 1017:00, 1018:00, 1019:00, 1020:00, 1021:00, 1022:00, 1023:00, 1024:00, 1025:00, 1026:00, 1027:00, 1028:00, 1029:00, 1030:00, 1031:00, 1032:00, 1033:00, 1034:00, 1035:00, 1036:00, 1037:00, 1038:00, 1039:00, 1040:00, 1041:00, 1042:00, 1043:00, 1044:00, 1045:00, 1046:00, 1047:00, 1048:00, 1049:00, 1050:00, 1051:00, 1052:00, 1053:00, 1054:00, 1055:00, 1056:00, 1057:00, 1058:00, 1059:00, 1060:00, 1061:00, 1062:00, 1063:00, 1064:00, 1065:00, 1066:00, 1067:00, 1068:00, 1069:00, 1070:00, 1071:00, 1072:00, 1073:00, 1074:00, 1075:00, 1076:00, 1077:00, 1078:00, 1079:00, 1080:00, 1081:00, 1082:00, 1083:00, 1084:00, 1085:00, 1086:00, 1087:00, 1088:00, 1089:00, 1090:00, 1091:00, 1092:00, 1093:00, 1094:00, 1095:00, 1096:00, 1097:00, 1098:00, 1099:00, 1100:00, 1101:00, 1102:00, 1103:00, 1104:00, 1105:00, 1106:00, 1107:00, 1108:00, 1109:00, 1110:00, 1111:00, 1112:00, 1113:00, 1114:00, 1115:00, 1116:00, 1117:00, 1118:00, 1119:00, 1120:00, 1121:00, 1122:00, 1123:00, 1124:00, 1125:00, 1126:00, 1127:00, 1128:00, 1129:00, 1130:00, 1131:00, 1132:00, 1133:00, 1134:00, 1135:00, 1136:00, 1137:00, 1138:00, 1139:00, 1140:00, 1141:00, 1142:00, 1143:00, 1144:00, 1145:00, 1146:00, 1147:00, 1148:00, 1149:00, 1150:00, 1151:00, 1152:00, 1153:00, 1154:00, 1155:00, 1156:00, 1157:00, 1158:00, 1159:00, 1160:00, 1161:00, 1162:00, 1163:00, 1164:00, 1165:00, 1166:00, 1167:00, 1168:00, 1169:00, 1170:00, 1171:00, 1172:00, 1173:00, 1174:00, 1175:00, 1176:00, 1177:00, 1178:00, 1179:00, 1180:00, 1181:00, 1182:00, 1183:00, 1184:00, 1185:00, 1186:00, 1187:00, 1188:00, 1189:00, 1190:00, 1191:00, 119